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 학위논문

한국 5·18소설의 장애 재현 연구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전공

이 지 훈

한국 5·18소설의 장애 재현 연구

지도교수 손 유 경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 전공
이 지 훈

이지훈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1월

위 원 장 양 승 국 (인)

부위원장 김 종 욱 (인)

위 원 손 유 경 (인)

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5·18을 주요하게 서사화한 한국소설들을 장애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글이다. 5·18의 소설화가 다양한 장애 인물의 형상화를 수반하며 진행되어왔음을 구명하고, 이것의 의미와 문제성을 논구하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 과제이다. 소설들이 손상과 장애 개념을 어떻게 활용해왔는지를 검토하고, 장애 인물의 재현이 어떤 인식틀에 기초해 있는지를 심문하는 절차가 이에 마련되었다. 이 같은 작업은 장애 인물을 5·18의 비극성을 환기시키는 일종의 장치로 해석해온 그간의 논의들과 달리, 장애 인물을 중심으로 전체 서사를 이해해보기 위해 기획된 결과물이다.

5·18은 무엇보다 수많은 성원들의 '몸'이 맞닥뜨린 사건이었다. 많은 한국소설은 1980년 5월 당시 수다한 몸들이 당면해야만 했던 국면과 이후 경험했던 변화들을 묘파함으로써, 5·18 체험의 의미를 되묻고 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요청해왔다. 이를 위해 소설들이 필요로 했던 것은 극심한 손상을 체현한 인물들의 몸과 삶이었다. 이들 인물은 5·18 체험이 남긴 피해와 고통을 지시하고, 5·18의 심각성을 공표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았다. 본 논문은 이처럼 장애 인물을 중심으로 5·18을 문학적으로 재구성해온 소설들의 기획을 재평가하고자 했다. 논의의 한가운데에는 장애 인물의 재현 문법이 텍스트 안팎으로 파급하는 여러 효과들이 위치한다.

2장은 5·18 체험을 기점으로 몸의 손상과 삶의 장애화를 경험한 인물들에게 '정확성'의 자질을 부여한 일련의 소설들을 검토했다. 정확성이란 5·18을 향한 왜곡과 부인의 정치가 갖출 수 없는 것이자, 5·18 체험자의 고유한 경험을 일컫는다. 그런데 그 과정은 장애 인물을 '타자'의 자리에만 할당하면서 이루어지기도 했다. 장애를 비극을 대리하는 은유로, 치료와 교정이 반드시 요구되는 상태로만 구성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재현의 기획은 특정한 몸과 삶만을 '정상'으로 여기는 비장애중심주의의 인식틀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이에 5·18의

공론화를 기도했던 소설들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밝혔다. 다른 한편 한국소설이 5·18의 공론화에 간과할 수 없는 영향을 미쳤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것은 5·18 체험과 결부된 고통을 집요하게 응시하고, 나아가 고통의 언어를 제작하고자 했던 소설들의 고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리하여 다양한 감정적 현실이 교차하는 장애 인물들의 몸과 삶을 형상화하는 동시에, 긍정적인 전망을 모색하는 몇몇 소설들의 성취를 적극적으로 의미화하고자 했다.

3장은 5·18의 장편소설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국면을 기점으로, 문학이 비로소 5·18에 대한 역사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서술되곤 하는 이른바 '5월 문학사'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했다. 흥미로운 점은, 장편소설화 역시 장애 인물의 형상화와 함께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 구체적 양상은, 장애 인물을 문제적으로 재현했던 이전의 단편소설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 보다 다양한 5·18의 국면을 조명하고 있음에도, 장애 인물만큼은 매우 협소한 형상으로 제시하는 한편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제시했던 것이다. 이들 소설이 장애 인물의 형상화를 진지한 고려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서사 전반에 걸쳐 5·18의 역사적 의미를 묘파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시도하는 모습과는 확연히 대비된다. 잇단 장편소설의 출간이 5·18 소설화의 새 국면을 열었음엔 분명하지만, 장애라는 특성에 '비정상'이라는 의미자질을 부여하는 문법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이 같은 사실을 밝힘으로써, 장애 인물의 재현 문제를 중심으로 5·18의 소설화 과정을 다시금 살펴봐야 함을 강조했다.

4장은 비장애중심주의의 인식틀을 기저에 두지 않은 소설들을 다뤘다. 이들 소설은 새로운 재현의 지평을 개시하고 있다. 그것은 5·18 체험의 의미를 1980년 5월 광주라는 단일한 시공간 아래에서만 재구성하지 않음으로써, 손상된 몸과 장애화된 삶을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는 태도를 기본 입장으로 취하는 과정을 통해 모색된다. 이때 장애 인물은 현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나아가 그것을 심문하는 존재로 그려지는데, 이를 통해 이들 인물은 서사의 진정한 중심에 위치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국가가 조성한 '보상국면'을 강하게 문제삼으며 5·18 체험자들의 삶의 소외를 야기하는 국가의 무책임함을 비판하는 소설들, 장애 인물이 주축이 된 공동체를 중심으로 5·18 체험 증언의 새로운 형식을 만들고 있는 소설들을 5·18 소설화의 값진 성취로 분석했다. 해당 소설들은, 장애 재현이 장애를 '비정상'이라는 특질을 유달리 강조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명징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면밀한 주의가 요구된다.

장애 인물은 비단 5·18을 서사화한 소설들에 한정해서만 등장하지 않는다. 이를 형상화한 소설들은 한국문학장에 매우 많이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의 형상을 무엇을 대리하는 은유나 상징이 아니라, 다양한 현실이 교차해있는 '실물'로 분석한 연구들이 이루어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무엇보다 본 논문은 5·18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장애학과의 접점을 마련함으로써, 장애 재현 연구가 여러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힘주어 말하고자 했다. 이 같은 본 논문의 작업은 '5·18소설' 연구와 더불어 장애 재현 연구에 어떤 동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핵심어** : 5·18, 5·18소설, 손상, 장애, 장애학, 비장애중심주의, 정상성

■ **학 번** : 2019-25476

목 차

국 문 초 록

제1장 서론 ····· 1

제1절 문제 제기 및 연구사 검토 ····· 1

제2절 연구의 시각 ····· 18

제2장 몸에 새겨진 '정확한' 역사 ····· 32

제1절 목격자-되기의 수사학 ····· 32

제2절 5·18과 고통받는 몸 ····· 64

제3장 5·18 역사화 기획의 명암 ····· 83

제1절 장애 인물 표류기 ····· 83

제2절 인간-되기의 역설 ····· 105

제4장 확장하는 재현 지평 ····· 121

제1절 보상의 경계 허물기 ····· 121

제2절 증언하는 몸-공동체 ····· 140

제5장 결론 ····· 159

참 고 문 헌 ····· 164

Abstract ····· 173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 제기 및 연구사 검토

본 논문은 '5·18'[1]을 주요하게 서사화한 한국소설들을 장애학(Disability Studies)[2]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그리하여 1980년대부터 2010년대에 이르는 동안 한국소설이 5·18을 소설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애 인물들을 재현해왔음을 구명하는 동시에, 이것의 의미와 문제성을 두루 밝히는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본 논문이 '5·18소설'[3]들을 '장애'라는 키워드를 중

---

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 2항(2021년 1월 5일 신설)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5·18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해당 법률, 그리고 5·18민주화운동을 '불순분자'에 의한 '폭동', '소요', '내란' 등과 같이 명명하는 것으로 대표되는 '부인(denial)의 정치'에 저항하는 담론과 연구들의 시각을 견지하고 있음을 밝힌다. 잘 알려져 있듯, 한국 사회에서 '1980년 5월 광주'를 어떻게 명명할지를 두고 여러 논의가 이루어졌어 왔다. 사건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계엄사 및 군부에 맞서, 한국 사회 내 다양한 '5·18담론'은 '학살', '항쟁', '의거'. '민주화운동' 등과 같은 용어를 통해 사건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공표하는 한편 그 의미를 재규정해왔다. 한편 본 논문은 '5·18'이라는 용어를 채택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이는 한국소설들이 1980년 5월 18일을 기점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은 다양한 몸과 삶들을 재현해왔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소설들이 형상화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그리고 정치적 항쟁의 성격을 고려하면서도, 변화의 국면을 재현하는 양상과 이것이 파급하는 효과들을 논의의 중심에 두고자 한다.

2) 장애학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와 권리 확보를 주창하는 장애(인)운동의 등장 및 발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실천적' 학문으로, 1970년대부터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이론화되기 시작한 학문 분과를 일컫는다. 장애와 장애인, 그리고 이를 둘러싼 여러 사회 문제들을 바라보는 장애학자들의 시각 및 이들이 기대고 있는 이론적 틀은 각기 다양하지만, 다음과 같은 토빈 시버스(Tobin Siebers)의 정의는 장애학이 설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입각점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시버스에 의하면 장애학은 "장애를 개인의 결함이 아니라 사회적 부정의의 산물로 정의하는 한편 장애(인)의 치료나 제거가 아니라 사회 및 건축 환경의 중요한 변화들을 요구한다. 장애학은 질병이나 장애를 치료해야 하거나 피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장애학은 사회에 만연한 믿음, 즉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온전한 인간인지를 판단하는 준거가 된다는 사고를 비판하면서, 장애 정체성에 부착된 사회적 의미들, 상징들, 낙인들을 연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배제와 억압이라는 강제된 시스템과 연결되는지 질문한다. 구체적으로, 장애학은 장애인들이 마주하는 특수한 사회적 억압들에 대해 말하며, 동시에 장애인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가치들이 있음을 주장하는 학문이다."(Tobin Siebers, *Disability Theory*,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8, pp. 3-4.) 장애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본 논문 1장 2절을 참고할 것.

3) 본 논문은 5·18을 서사의 주요한 시공간적 배경으로 제시하는 일군의 소설들을 '5·18소설'이라고 명명한다. 5·18의 의미 해석에 대한 '온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과 맞물려, 이를 서사화한 소설들을 어떻게 명명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국문학장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오월소설', '5·18소설', '5·18광주민주화운동소설',

심으로 독해하고자 하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도 그동안 5·18을 서사화한 소설들은 '몸'의 문제를 조명해왔다. 5·18 체험 이후 급격하게 변화한 서로 다른 몸들을 서사 전면에 내세우면서 5·18을 문학적으로 구명해온 것인데, 이때 반복적으로 삽입되었던 표지가 다름 아닌 장애이다. 이와 관련하여 둘째, 이처럼 장애 인물을 중심으로 5·18을 재현하는 소설들의 기획은 다양한 효과들을 파급한다. 그리고 이는 비단 5·18이라는 국가폭력의 심각성을 공표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는다. 5·18 체험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장애, 나아가 '인간'을 어떤 인식틀 아래 사고하고 있는지에 이르기까지 다차원적인 재현의 윤리를 환기한다. 셋째, 장애 인물의 재현이 이처럼 다양한 의미들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논의들은 이를 누락해왔다. 서사 안팎으로 장애 인물들이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이들을 재현할 때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안들은 무엇인지 등과 같은 문제들은 채 다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익히 알려져 있듯 5·18의 경험은 1980년 5월 당시 광주 시민들과 인접 지역 성원들, 나아가 이후 한국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사상'을 고양시키는 매우 중요한 계기였다. 적나라한 계엄군의 폭력에 의해 일방적인 피해를 입은 이웃을 보호해야겠다는 의지,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시한 채 무력을 기반으로 집권하고자 하는 전두환 신군부를 배척하고자 하는 열망,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갖은 유언비어에 저항하면서 국가를 수호해야 한다는 결의 등을 추동한 사건이 곧 5·18이었다.[4] 그런가 하면 사상의 고양만큼이나 5·18의

'5·18광주민중항쟁소설' 등과 같은 다양한 용어들이 논자들에 의해 채택되어 논의되고 있다. 이들 용어 또는 개념은 정명중의 지적처럼 엄밀하게 정의된 바 있기보다는, 논자마다 선호하는 "관습적 용법"(정명중, 「'5월 문학' 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현대문학이론연구』 제22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4, 233면.)에 따라 취해지고 있다. 한편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정미선의 지적, 즉 '오월소설'은 "그 자체로 소설이라는 허구적 양식을 바탕으로 맥락과 위상을 변주하며 오월의 구성, 그 문제의식과 의미 형상을 만들어가는 수행적 과정에 연루되는 방식으로 기능"(정미선, 「오월소설의 서사 전략으로서의 몸 은유: 최윤·임철우·박솔뫼·한강의 사례를 중심으로」, 『어문논총』 제27호,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015, 236-237면.)한다는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다시 말해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5·18소설'은, 특정한 내용과 형식을 갖춰야한다는 식의 당위가 내재한 개념을 일컫기보다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내장하는 동시에 5·18을 새롭게 구성하는 잠재성을 갖는 개념임을 밝힌다.

4) 그러나 결코 간과해서 안 될 것은, 이와 같은 '사상'들이 고양되는 양상이 계급, 나이, 젠더 등에 따라 간과할 수 없는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다. 최정운의 지적처럼 5월 21일 저녁 계엄군이 광주 외곽으로 퇴각한 이후 이른바 '해방광주' 국면에서 "도청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들의 움직임은 사회 계급들 간의 갈등과 헤게모니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최정운, 『오월의 사회과학』, 오월의봄, 2012, 232면.) 무기 회수를 둘러싼 '수습파'와 '항쟁파'의 의견 차이는 분명 대학생·지식인계급과 노동자계급 간의 대립으로 전화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끝내 상호 '온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런가 하면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바로 5·18을 기점으로 명확하게 달라진 '몸'이다.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에 의한 무차별적인 폭력과 강제 연행, 고문 등으로부터 시민들과 성원들은 결코 자유롭지 못했다. 비록 이를 주도했던 전두환 신군부와 군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행위를 부인하고 그 실상을 왜곡하고 있지만, 5·18 체험과 결부된 수많은 부상과 실종, 그리고 사망은 단연 실재한 사건이었다.

한국소설은 바로 이 지점, 즉 결코 부정할 수 없는 몸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왔다. 그리고 그 과정은 장애 인물의 형상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어떤 경향성을 추출할 수 있을 만큼, '5·18소설'들은 수다한 장애 인물을 재현해왔다. 이를테면 대표적인 '오월 작가'로 호명되곤 하는 임철우의 1980년대 소설들에는, 극심한 정신적 손상(impairment)[5]을 입은 인물들이 거의 빠짐없이 등장한다. 5·18을 소설화한 첫 작품으로 평가받는 「봄날」(『실천문학』 5호, 1984.)의 '상주'는 기도원과 정신병원을 전전하고, 「직선과 독가스-병동에서」(『세계의 문학』 1984년 겨울호.), 「死産하는 여름」(『외국문학』 1985년 여름호.), 「어떤 넋두리」(『예향』 1989년 8월호.)는 사회와 불화하는 '정신병자' 인물들의 삶을 그린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재현 문법이 5·18과 관련하여 다채로운 의미를

당시 송백회, YWCA, JOC와 같은 단체에서 활동했던 여성들의 참여는 분명 남성들의 그것과 달랐다. 여러 '위원회'들로 대표되는 공식적인 정치조직 구성 과정이 여성들을 배제한 채 이루어졌음에도, 여성들은 독자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갔다(강현아, 「5·18항쟁 역사에서 여성의 주체화」, 『한국여성학』 제20권 2호, 한국여성학회, 2004, 19-25면.). 뿐만 아니라 당시 있었던 일들을 회고하는 여성들의 구술을 살펴보면, 그동안 소위 '공식 기억'으로 채택되어 재생산되었던 다분히 남성중심적인 5·18의 기억과는 상당히 다른 지점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획, 이정우 편, 『광주, 여성: 그녀들의 가슴에 묻어 둔 5·18 이야기』, 후마니타스, 2012. 참조.

5) '5·18소설'을 분석하는 방법론으로 장애학을 채택하고 있는 본 논문은, 손상(impairment)과 장애(disability) 개념 역시 장애학적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기실 두 개념이 서로 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다는 사고가 UPIAS, 마이클 올리버(Michael Oliver) 등에 의해 확산되면서, 장애학자들은 손상을 생물학적인 것으로 장애를 사회적인 것으로 위치시키면서 장애를 사회적 억압의 한 유형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는 "손상은 손상일 뿐이며, 특정한 억압관계 속에서만 '무언가 할 수 없는 상태'로서의 장애가 되는 것"(김도현, 『장애학 함께 읽기』, 그린비, 2009, 62면.)이라는 사실을 더욱 발전시켜, 장애를 야기하는 사회의 생산양식과 이데올로기들을 쟁점화하는, 이른바 '장애의 사회적 모델'(The social model of disability)의 대표적인 입각점이다. 그런데 장애학 안팎에서 두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지를 둘러싼 논의들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이를테면 어떤 상태를 손상이라고 인식하고 규정하는 행위 그 자체부터 사회·문화적 해석이 개입된 것이기에, 손상 역시 담론적으로 구성된 개념이라는 주장은 다양한 논의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장애학이 포스트구조주의, 현상학, 페미니즘, 탈식민주의, 퀴어이론 등 다양한 학문 분과들과의 접점을 모색하며 그 외연을 확장해감에 따라, 손상과 장애 개념을 엄밀하게 구분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본 논문 역시 이와 같은 경향성을 따르고 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 '손상'은 5·18 경험과 결부된 몸의 변화를 일컬을 때 중점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그런데 그것이 전사회적(pre-social), 전문화적(pre-cultural)인 몸의 상태를 지시하는 용어가 아님을 밝힌다.

발산한다는 사실이다. 즉 이들 재현은 1980년대 “5·18에 대한 재현불능과 소설의 재현불능”[6]의 실제를 징후적으로 보여주는 한편, “오월에 처한 현재적 실존을 가상이거나 모형이 아닌 그 자체로 다기한 사연을 품은 육화된 ‘인간’으로”[7] 현재화시키는 일종의 ‘서사 전략’이기도 하다.

따라서 임철우 소설의 장애 인물 형상은, 단순히 1980년 5월 당시 광주 현장에 있었던 임철우의 개인적인 경험[8]과 결부된다는 점에서만 의미를 갖지 않는다. 또 그것은 5·18을 “정신병리학의 임상실험실로 만드는 소박한 경지”[9]에 불과하다는 평가만으로 단번에 갈무리될 수 없다. 그보다는 5·18의 구체적 실상을 직접 지시할 수 없었던 1980년대라는 시대적 맥락, 고발과 증언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급선무였던 당대 문화예술계 전반의 상황들과 복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본 논문은 이에 더해 5·18을 서사화하는 소설들이 장애를 재현하는 행위, 바꿔 말해 장애 인물의 형상이 텍스트 안팎을 넘나들며 파급하는 효과들에 관심을 둔다.

예시한 임철우 소설을 포함하여 장애 인물의 재현을 중심으로 5·18을 조명하는 소설들은, 손상된 몸과 장애화(disablement)[10]된 삶을 제시함으로써 5·18이 한 개인의 생애주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음을 효과적으로 지시해왔다. 이는 장애 인물의 몸과 삶을 5·18 체험의 피해와 고통을 가장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표지로 구성했기에 가능했다. 이들 소설은 대개 장애 인물을 5·18을 체험한 이후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체현한 존재로, 그리고 바로 그 까닭에 사회와 불화할 수밖에 없는 성원으로 묘사한다. 그리하여 장애 인물의 몸과 삶은, 소설이 발신하는 메시지의 중추를 담당한다. 장애 인물의 형상은 5·18이 1980년 이후 현재의 국면에까지 주요한 영향을

---

6) 배하은, 「재현 너머의 증언-1980년대 임철우, 최윤 소설의 5·18 증언-재현 문제에 관하여」, 『상허학보』 50권, 상허학회, 2017, 510면.

7) 정미선, 앞의 글, 255면.

8) 임철우는 5·18 당시의 일들을 다음과 같이 회상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열흘 동안 나는 끝내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공수부대의 잔혹한 살상현장을 보면서 미칠 듯 분노하고 울고 치를 떨면서도, 정작 그래야 할 순간에는 죽음이 두려워 뛰어들지를 못했던 것이다. (…) 그 이후 그것은 내 삶 속의 가장 고통스러운 악몽이 되었다. 아무 일도 못했다는 사실, 비겁하게 살아남아있다는 죄책감과 부끄러움, 자기혐오감에 끝없이 시달렸다.”(임철우, 「나의 문학적 고뇌와 광주」, 『역사비평』 2000년 여름호, 294면.)

9) 임규찬, 「광주항쟁의 소설화, 어디까지 왔나」, 『문학정신』 1991년 5월호, 52면.

10) ‘장애화’란 이른바 장애와 장애인이라는 개념이 모종의 권력관계가 작동하며 (재)생산되는 사실을 지시하는 동시에, 그 권력관계라는 것이 비장애인 중심으로 고안되고 구축된 규범과 사회 환경에 의해 불균형적으로 (재)생산되는 과정을 총칭한다. 그리하여 삶이 장애화된다는 것은, 특정한 몸과 삶이 사회에 의해 ‘비정상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무엇을 온전히 ‘할 수 없는’(dis-ability) 상태로 규정됨에 따라 차별과 배제, 사회적 낙인을 맞닥뜨리게 되는 국면에 놓이게 됨을 일컫는다.

미치는 국가폭력의 경험[11]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소설의 의도를 가장 적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소설의 기획이 장애 인물들에게 매우 고정된 역할을 부여하면서 이루어진다는 데에 있다. 장애 인물들은 가족 또는 사회와 유리된 채 다른 인물들과 원만한 관계를 꾸리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있거나, 어떤 노동도 도맡을 수 없는 존재로 그려진다. 아울러 비장애 인물들에 의해 미래를 개진할 수 없는 인물로 여겨지면서 일방적인 돌봄과 동정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바꿔 말해 소설은 이 인물들의 5·18 체험을 '피해자'의 그것으로만 재구성하는 경향이 농후한 것인데, 이는 다음과 같은 '축소'의 과정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비판적 검토가 요구된다.

기실 5·18 체험자의 삶 전반을 '피해자'의 비극적인 생활로 치환하는 작업은, 1980년 이후 이들이 정치적 억압에 맞서 진상 규명 및 대책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촉구함으로써 한국사회에 일으킨 파장들을 담아내지 못한다. 체험자들이 5·18 경험을 기틀 삼아 집단적 정체성을 구성하면서 '오월 운동'의 능동적인 주체였다는 사실, 또 이들의 정체성이 일방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상호작용'의 과정을 통해 마련되었다는 사실이 소거되고 마는 것이다.[12] 이는 곧 김명희가 지적한바, '피해자'가 사건 해결의 주체로서 "사태에 대하여 입장을 표명하고, 해법을 제안하고 그 이행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공적인 지위"[13]를 일컫는 이른바 '사건에 대한 권리'를 상상할 수 없게

---

11) 한편 이는 1980년 5월 이후 한국사회에서 5·18 체험의 당사자들, 다시 말해 부상자, 구속자, 그리고 부상자와 구속자, 행불자의 (유)가족이 경험한 다양한 고통을 조사한 연구들이 잘 보여준다. 최정기에 의하면 이들 연구의 동향은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으로 구별되는데, ⑴다양한 심리학적 검사도구를 활용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을 밝힌 심리학적 연구, ⑵의학적이고 생리학적 측면으로 접근한 연구, ⑶보상 및 과거청산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법학적 연구, ⑷피해자의 생활실태를 종합적으로 기록한 조사가 바로 그것이다.(최정기, 「국가폭력과 트라우마의 발생 기제-광주 '5·18'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제와 사회』 제77호, 비판사회학회, 2008, 59-60면.) 이들 연구가 채택하고 있는 방법론과 조사대상, 그리고 도출한 결론은 각기 일정한 차이를 보이지만, 5·18로 말미암은 당사자들의 고통과 사회·경제적 어려움은 쉽게 해소될 수 없다는 사실, 아울러 보상과 청산, 법제화 등으로 대표되는 소위 '5·18의 제도화'가 오히려 고통을 지속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논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그런가 하면 몇몇 소설은 장애 인물의 몸과 삶을 주요하게 형상화하면서, 국가를 5·18 체험자들의 고통을 배가시키는 주체로 직접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본 논문 4장 1절을 참고할 것.

12) 이와 관련해서는 1980년 이후 기동타격대원의 생애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내 '5·18담론', 그리고 정부 정책의 변화 과정과 '오월 운동'의 관계를 논구한 강은숙, 「저항집단의 생애사를 통해 본 사회적 트라우마티즘 형성과정-5·18시민군기동타격대의 '상처받은 5월 정신'」,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강은숙, 「'5·18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5·18 시민군 기동타격대원의 생애사」, 김동춘 외, 『트라우마로 읽는 대한민국-한국전쟁에서 쌍용차까지』, 역사비평사, 2014. 참조.

13) 김명희, 「한국 이행기 정의의 감정동학에 대한 사례연구-웹툰 〈26년〉을 통해 본 5·18

만든다.[14] 그리하여 5·18 체험자의 몸과 삶에 관심을 가질 것을 요청하는 소설의 작업은, 오히려 5·18의 경험을 축소시킨다.

바로 이 지점이야말로 그동안 다양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5·18의 여러 국면을 조명해 온 한국소설이, 장애 인물의 재현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고정된 형상을 고수해왔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한편 이와 같은 장애 인물의 단선적인 재현은, 비단 5·18 체험을 축소한다는 측면에서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 형상화가 장애를 '보편적인' 정신적·신체적 표준에 미달한 상태로 바라보는 동시에 장애인을 사회의 정상성(normality) 규범[15]에 순응하지 못하는 '부적응자'로 간주하는 인식틀을 기틀 삼아 이루어진다는 데에 있다. 5·18을 서사화한 많은 소설들은, 장애라는 표지에 별다른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한편 장애를 체현한 인물을 의료적 치료와 교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존재로 형상화해온 것이다. 이처럼 5·18의 피해와 고통을 장애라는 특성과 강하게 연결시키면서 유달리 입체적이지 않은 장애 인물을 재현하는 소설의 기획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통념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에 본 논문은 그 원인을 그간 '5·18소설'들이 장애 재현과 관련한 문제를 진지한 고려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왔다는 데서 찾고자 한다. 삶의 소외 양상을 재현하고자 할 때 장애라는 표지에 그 대표성을 별다른 고민

부인(denial)의 감정생태계」, 『기억과 전망』 통권 34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6, 75면.

14) 이는 한국사회 내 '5·18 담론' 지형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김정한은 1980년대 '항쟁 담론'이 1990년대 이후에는 '희생 담론'으로 교체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 교체를 추동한 요인에는 1980년대 사회운동의 '실추'가 놓여있다. 그에 의하면 1980년대 사회운동은 5·18을 해석 및 재현하면서 대항폭력이 갖는 의미를 특권화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적과의 전쟁'을 중심에 두는 정치적 논법과 운동 문화를 형성시켰다." (김정한, 『1980 대중 봉기의 민주주의』, 소명출판, 2013, 202면.) 그런데 5·18을 무장투쟁과 항쟁으로 전유하는 상징 투쟁은 점차 설득력을 잃어가는데, 이 과정에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점차 제도화되기 시작한 민주적인 절차들,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의 해체, 그리고 1991년 5월 '분신 정국'을 향한 대중적 반감 등이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하여 이후 5·18이 공식적인 민주화운동으로 정착하고 여러 법제화가 진행되면서, '시민군'은 점차 "적극적인 항쟁 주체라기보다는 국가폭력의 수동적인 희생자로 묘사되곤"(같은 책, 201면.) 했다.

15) 조르주 캉길렘(Georges Canguilhem)은 특정한 몸과 정신의 상태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획하는 일련의 시도들이 기실 가공된 규범이라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언명한 바 있다. "소위 정상이란 사실은 규범의 표현이다. 어떤 사실이 더 이상 규범을 참조할 필요가 없을 때 그 규범의 권위는 박탈된다. 그 자체로 병리적이거나 병리적인 사실은 없다. 이상이나 돌연변이는 그 자체로 병리적은 아니다. 이들은 가능한 생명의 또 다른 규범을 표현한다. (…) 그들의 정상성(normalité)은 그들의 규범성(normativité.)에서 올 것이다. 병리적인 것이란 생물학적 규범의 결여가 아니라 생명에 의해 배척되는 또 다른 규범이다."(조르주 캉길렘, 여인석 옮김,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 그린비, 2018, 167면.)

없이 부여해 온 것이다. 이 같은 설정은 5·18 체험 이후 일어난 몸과 삶의 극적인 변화를 명징하게 보여주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엔 분명하나, 다른 한편 손상된 몸과 장애화된 삶을 인물이 처한 비극적인 상황을 은유하는 수단으로만 소비하고 만다. 그리하여 이들 소설은 5·18이 한 개인, 나아가 한국사회에 남겨놓은 여러 문제들을 공론화하기 위해 장애 인물들을 거듭 등장시키고 있지만, 그 과정은 비장애중심주의(ableism)의 확산에 기여한다.

기실 5·18의 소설화가 "완전하고 전형적인, 그리하여 본질적이고 온전한 인간상으로 일컬어지는 특정 종류의 자아와 몸(육체적 표준)을 생산하는 믿음, 절차, 실천들의 네트워크"[16]를 일컫는 비장애중심주의와 공명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무엇보다도 이들 소설은 5·18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꾀하면서 그것이 남겨놓은 윤리적 문제의 묘파를 모색하는 텍스트인 까닭이다. 즉 5·18을 서사화한 소설들은, 다양한 차이를 무화시킴으로써 장애인들 하여금 부정적 존재론을 내면화[17]하도록 부추기는 가장 주요한 인식틀인 비장애중심주의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들 소설을 장애 인물을 중심으로 다시금 살펴본다면, 둘 사이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음이 드러난다. '5·18소설'은 "몸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는 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화적 규칙"[18], 좁혀 말해 장애에 대한 부정적 통념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다.

이 사실이 중요한 까닭은, 그동안 한국소설이 5·18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했던' 인간상이 무엇인지를 논구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5·18을 문학적으로 구명하는 소설의 상상력은 그렇게 폭넓지 못했다. '항쟁'의 성격을 강조하고자 하는 소설들은 무엇보다도 '고양된' 사상과 '건강한' 몸을 겸비한 인물들을 서사의 중심에 위치시켰다. 반면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체현한 장애 인물들의 몸과 삶은, '항쟁' 이후 맞닥뜨린 끝없는 비극이 펼쳐지는 장소로서 재현된다. 이처럼 상반된 형상화는 결코 자연스럽거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인식틀을 통과한 결과라는 것. 이것이 곧 본 논문의 입각점이다.

---

16) Fiona Kumari Campbell, "Inciting legal fictions: Disability's date with ontology and the ableist body of the law," *Griffith Law Review*, Vol. 10, No. 1, 2001, p. 44.

17) 이와 관련해서는, Fiona Kumari Campbell, *Contours of Ableism: The Production of Disability and Abledness*, Palgrave Macmillan, 2009, pp. 3-29. 참조.

18) 로즈메리 갈런드-톰슨(Rosemarie Garland-Thomson), 손홍일 옮김, 『보통이 아닌 몸: 미국 문화에서 장애는 어떻게 재현되었는가』, 그린비, 2015, 17면.

그렇다면 이처럼 의의와 문제성을 동시에 갖는 장애 인물의 재현은 그동안 어떻게 분석되어 왔을까. 논의의 단초는 다음과 같은 백낙청의 지적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임철우는 앞서 「직선과 독가스」(『世界의 文學』 1984년 겨울호)라는 단편에서도 광주사태의 후유증을 연상시키는 병리적 현상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번 중편[「死産하는 여름」-인용자]에서는 훨씬 명백하고 대대적으로 광주 문제를 다루었다. 이 껄끄러운 소재를 우리 문단에서 처음으로 중편 규모로 취급했다는 점에서 주목에 값하는 업적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광주의 진실을 제대로 포착하고 작품화했느냐고 묻는다면 필자는 「직선과 독가스」나 대동소이한 수준, 곧 아직도 성공한 작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 (…) 그러나 도대체가 1980년 5월 광주의 역사를 '상처'와 '병리'의 차원에서만 보는 것부터가 정말로 문제다. 이는 광주의 진상을 다시 조사하는 게 그 상처를 아물리는 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여야간 공방의 차원이라면 모를까, 민중·민족문학에서는 극히 피상적인 민중인식이요 역사의식이다. 광주사태의 정확한 경위와 진상이 어떠했건, 무릇 다수 민중이 일거에 집단행동으로 나선 역사적 사건에서는 민중의 희생과 상처가 큰 것에 못지않게 자신들도 몰랐던 엄청난 힘이 평범한 시민들 중에 폭발적으로 솟아남을 경험하는 법이다. (…) 광주사태의 경우 그 폭발성에 한해서만은 여야간에 딴말이 없는 실정인데 「사산하는 여름」에서는 폭발성의 의미에 관한 통찰과 신념이 없을뿐더러 폭발성 자체가 '후유증'의 제시 속에 은폐되어버릴 위험이 있는 것이다.(밑줄-인용자)[19]

백낙청은 5·18을 1980년대 한국사회에서 "사실확인의 차원에서조차 가장 예민한 쟁점이 되어 있는"[20] 사안이며, 그 까닭에 이를 소설화하는 작업에 어려움이 있어왔음을 짚는다. 그러면서 5년이 지난 1985년에서야 5·18이 비로소 소설 재현의 장에 등장했음을 말하는 동시에 이 작업을 수행한 대표적 작가로 임철우와 윤정모를 꼽는다. 다만 윤정모의 「밤길」은 간단한 언급에만 그칠 뿐, 임철우의 「死産하는 여름」을 분석하는 데에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문면에서 드러나듯 임철우 소설에 대한 백낙청의 평가는 지극히 부정적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임철우 소설이 5·18 이후 '후유증'을 앓고 있는 인물들을 제시함으로써 5·18을 '상처'와 '병리'의 차원에서만 다

19) 백낙청, 「민중·민족문학의 새 단계」, 『창작과비평』 57호, 1985, 36-37면.
20) 위의 글, 35면.

루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백낙청에게 있어 이와 같은 임철우 소설의 전략은 광주의 진실을 축소시키고 은폐한다는 점에서 재고의 대상이 된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5·18의 구체적 실상에 대해 많은 설전이 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당시 민중이 보여주었던 '폭발성'이라고 말하는 대목이다. 그리하여 극심한 정신적 손상을 입은 소설 내 인물들은, 5·18이 갖는 역사적 의미, 즉 민중들의 '힘'의 결집을 담아내지 못한 "지엽적인 재현"[21]의 결과물로 낙착되기에 이른다. 인물들의 손상된 몸과 장애화된 삶은 5·18의 '총체성'을 담아내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그저 개인적 체험에 불과한 표상으로 평가절하되고 마는 것이다.

유의할 것은, 백낙청의 지적이 1985년을 전후하여 5·18이 본격적으로 소설화되기 시작한 바로 그 무렵에 제출되었다는 사실이다. 기실 이것은 5·18을 민중·민족문학 담론의 정교화 작업을 수행하는 자장 아래에 한정해 제출된 논의라는 측면에서, 과연 적실한 비판이었는지에 대한 반문[22]이 충분히 제기될 만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임철우 소설에 대한 백낙청의 언급은 매우 상징적이다. '5·18소설' 논의의 시발점부터 장애 인물의 재현 문제가 화두에 올랐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백낙청이 세운 입각점, 즉 장애 인물을 내세워 5·18을 조명하는 소설의 기획이 5·18이 보여줬던 민중의식과 이것이 발산하는 역사적 의미를 드러내지 못하는 까닭에 부적절하다는 가치 판단은, 뒤이은 다른 논자들에게도 반복된다. 그 대표적 예는 아래와 같은 임규찬과 류보선의 논의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임규찬 역시 임철우 소설의 장애 인물들을 예시하면서 5·18 재현의 적절

---

21) 위의 글, 36면.

22) 이와 관련하여 김영삼은 『창작과비평』, 그리고 민중·민족문학 진영 논자들을 중심으로 5·18이 어떻게 호명되어 왔는지를 검토하면서, 1980년대 한국문학장에서 5·18이 민중·민족문학 담론의 타자로 기능했음을 논구한 바 있다. 5·18에 대한 언급 자체가 무척 적었을뿐더러, 설령 있더라도 그것은 민중문학과 민족문학이라는 대주제 아래 소략해서 다뤄져 온 경향이 농후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김영삼은 당시 5·18이 민중·민족문학 담론의 '공정화' 과정에서 "사건 자체의 공포, 억울함, 슬픔 등과 같은 정서적 전달보다는 그것의 리얼리즘적 재현의 대상으로 사유되고 있었"(김영삼, 「이중적 예외상태로서의 5·18과 민중·민족문학 담론-『창작과비평』의 논의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71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7, 73면.)음을 지적한다. 그런가 하면 배하은은 임철우 소설에 대한 백낙청의 비판이 "특유의 당위론적인 리얼리즘을 되풀이"(배하은, 앞의 글, 500면.)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 기실 5·18의 그 실제가 명확하게 선재해 있지 않은 당대의 상황에서, 5·18은 '총체성'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았던 기존의 리얼리즘 문법 아래 문학적 재현의 대상으로 포착하기에는 실로 어려운 사건이었다. 그리하여 배하은은 백낙청의 지적을 "근본적인 문학 체제의 한계에 대해서는 사유하지 못한 채 '리얼리즘적 재현'을 성취하지 못하는 소설을 나무라는 것"(같은 글, 같은 면.)의 일환으로 평가한 바 있다.

성을 문제삼는다. 임규찬에 의하면 임철우의 소설에는 5·18이 갖는 '항쟁'의 역사적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다. 5·18 체험 이후 '비정상적'인 인물이 되어 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만을, 폭력의 비극성만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임철우의 소설화 방식은 "주변적 지식인 작가의 광주항쟁에 대한 정신병리학적 경험만으로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23] 임철우 소설을 향한 임규찬의 비판, 다시 말해 5·18을 '살아 있는 육체'로서 소설 재현의 장에 처음 등장시킨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광주항쟁의 발발 원인인 우리 사회의 구조적 측면에 대한 이성적·실천적 접근을 차단"[24]한다는 문제제기는 백낙청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다. 한편 백낙청과 임규찬의 경우 임철우 소설의 장애 인물들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면, 류보선은 그 범위를 최윤, 공선옥, 정찬의 소설로 확장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류보선 역시 이들 소설의 재현 방식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그 까닭은 다음과 같다.

류보선은 먼저 그간 5·18의 소설화가 주로 순진한 영혼의 프로타고니스트와 악마성의 총화인 안타고니스트의 대립 구도 아래 전자가 후자에 의해 파괴당하는 서사를 취해왔음을 언급한다. 이는 왜곡된 실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5·18에 대한 비판적 재구성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들 형식엔 '상당한 위험성'이 내재해 있다. 소설이 극명한 대립 구도 아래 인물들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킴에 따라, 전체 서사에서 이들이 일종의 '기호'로서만 등장하기 때문이다. 5·18의 비극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 선악 이분법의 제시만큼이나 유용한 것은 없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80년 5월은 역사적 맥락으로부터 혹은 현실적 문맥으로부터 벗어"[25] 나게 된다. '비일상적'이자 '비정상적'인 인물들과 신경증 환자들 같은 형상, 이를테면 최윤 소설의 정신분열에 시달리는 '순진한 아이'(「저기 소리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문학과사회』 1988년 여름호.), 공선옥 소설의 '알코올중독자'(「씨앗불」, 『창작과비평』 1991년 겨울호.), 정찬 소설의 청각을 잃은 '식물적 인간'(「완전한 영혼」, 『문학과사회』 1992년 가을호.) 등은 극히 예외적인 불행만을 강조하는 효과를 낳을 뿐이다. 요컨대 5·18의 비극성을 공표하는 동시에 그것이 "비극의 당사자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비극이라는 사실을 밝히"[26]고자 했던 애초의 의

23) 임규찬, 앞의 글, 51면.
24) 위의 글, 57면.
25) 류보선, 「망각이라는 폭력, 그리고 망각의 기원」, 『문학동네』 2000년 여름호, 466면.
26) 위의 글, 467면.

도가 ‘소수의 예외적인 개인들’에게만 한정하는 재현 아래 미끄러진다는 것이다.

위의 논의들은 모두 장애 인물들을 중심으로 5·18을 소설화하는 작업의 문제성을 구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5·18의 체험을 개인적이고 예외적인 영역에 한정함으로써, 그 구체적 실상과 역사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다는 것이 이들 비판의 골자이다. 이는 기실 5·18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의미 규정의 중심에 무엇을 위치시켜야 하는지와 같은 물음에 대한 나름의 응답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들 논의는 다음과 같은 지점, 즉 5·18의 체험은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한정한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 구성원의 삶 전반과 결부된 문제이기에, 보다 확장된 관점으로 조망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인다. 이때 소설이 도맡아야 할 책무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보편적인 인물들을 중심에 둔 증언 및 고발과 역사적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 재구성이다. 이에 따라 피해와 고통을 조명하면서 장애 인물들을 형상화하는 소설의 문법은 지양되어야 할 것, 경계의 대상으로 남는다.

반면 이 전략이 5·18의 구체적 의미를 오히려 잘 드러내는 것일 수 있음을 주장하는 논의들 또한 제출되기도 했다. 장애 인물들이 서사 전면에 드러날 때라서야 5·18을 둘러싼 문제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것,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1980년 5월을 통과한 한국사회의 간과할 수 없는 풍경이라는 것이 이들 논지의 요추이다. 5·18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 성공적인 소설화에 대한 견해가 장애 재현이라는 의제를 중심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인데, 그 양상은 다음과 같은 김형중, 차원현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형중은 무엇보다 ‘5월의 제도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문학은 이것과는 다른 노선을 취해야 함을 강조한다. 1988년 ‘광주청문회’를 시작으로 1995년 ‘5·18특별법’과 2002년 ‘5·18유공자법’ 제정을 거치면서, 국가의 주도 아래 5·18이 제도적으로 말끔하게 정비되어 가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김형중에게 있어, 문학은 이 현실에 맞서 “여러 개의 5월들”[27]을 만들어야 한다. 문학만큼은 폐쇄적인 구조 아래 5·18을 단일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동시에 사실 복원 작업만을 주요하게 좇으며 5·18의 종결을 선언하려는 경향이 있는 법과 제도와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작업을

27) 김형중, 「『봄날』 이후-광주항쟁 소재 소설들에 대한 단상」, 『켄타우로스의 비평』, 문학동네, 2004, 112면.

잘 수행하고 있는 소설들을 검토하는데, 이때 장애 인물들을 등장시키는 일군의 소설들은 그에 의해 '5월의 정신병리'를 다룬 것으로 호명되며 이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받는다.

> 그런 점에서, 그간 이 유형의 소설들에게 주어진 폄하적 평가들(항쟁을 개인화하고, 총체적인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채 병리적인 개체의 왜곡된 시야 속으로 축소시켜버리고, 전체 역사 속에서 '5월'을 자리매김하지도 못한다는 식의)에도 불구하고 '5월은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당위명제에 대해 이 유형의 소설들은 이미 충분히 답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다. 지금 와서 읽더라도 이 유형의 작품들은 여전히 감동적인데, 아도르노적인 표현을 빌려 얘기하자면 이 작품들이 아우슈비츠 이후의 예술작품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는 예의 그 '고통'의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5월이 제아무리 제도화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5월은 끝없이, 고통스럽게 되돌아온다. 그렇다면 절대 '5월'은 끝나지 않는다.(밑줄-인용자)[28]

인용된 위의 대목에서 알 수 있듯, 김형중은 5·18 이후 정신적 손상을 체현한 인물들의 삶을 조명하는 소설들에 대한 '폄하적 평가'에 대한 반박의 주요 근거를 이들 재현이 '5월의 지속성'을 잘 보여준다는 사실에서 찾는다. 그리하여 소설이 장애 인물들을 통해 제시하는 고통은, 5·18은 여전히 일상에서 현현하는 체험이기에 종결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나아가 단번에 사그라들지 않는 '감동'까지 환기하는 것으로 확장된다.[29]

한편 차원현은 5·18이 한국사회의 '병리학'에 큰 과제를 남겼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를 형상화한 소설들이 갖는 긍정적인 의미를 강조한 바 있다.

---

28) 위의 글, 121-122면.

29) 기실 이처럼 장애 인물의 재현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김형중의 독법은, 최윤의 「저기 소리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만을 대상으로 한 논의(김형중, 「세 겹의 저주- 최윤, 「저기 소리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다시 읽기」, 『문학동네』 2000년 여름호.)에서부터 예비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 김형중은 최윤의 소설을 5·18의 총체적 면모를 밝히는 임철우의 『봄날』과 대비되는 "오월에 대한 여성적 글쓰기의 절정에 있"(같은 글, 90면.)는 작품으로 평가한 바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주요 요인은 다름 아닌 남성적 언어로는 파악할 수 없고 규정할 수 없는 '소녀'의 형상, 다시 말해 "광기 속에 유폐된 한 소녀의 왜곡된 의식"(같은 글, 84면.)과 그 누구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없는 묘연한 행방이다. 그리하여 최윤의 소설은 독자들에게 역사적, 심리적 외상을 함께 경험토록 만드는 '감염의 소설'이자, 5·18의 제도화된 정착과 이에 대한 고정된 해석을 거부할 것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그 의미가 규정된다.

그에 의하면 “5·18로 인해 상처받은 개인의 영혼과 당대 한국사회 전체의 병리학을 그 심부에 이르기까지 섬세하게 진단하고 탐구하는 작업”[30]은 그간 문학이 담당한 몫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5·18 체험 이후 경험하는 고통과 피해에 괴로워하는 장애 인물들의 삶이 등장하는 소설들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들의 상처는 결코 ‘사체험(私體驗)’의 영역에 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 사회 전체가 빠져 들어간 집단적인 병리의 문제”[31]이므로, 위의 김형중과 마찬가지로 이들 소설을 두고 제출된 기존의 비판들은 차원현에게도 재고의 대상이 된다.[32]

이상의 논의들은, 그간 장애 인물들을 중심으로 5·18을 소설화하는 재현 방식을 대상으로 한 비판과 긍정적 의미화 작업이 두루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한편 전술한바 장애 인물들의 재현은 어느 특정 시기, 소수의 작가에게만 한정하여 진행된 것이 아니었다. 그 까닭에 ‘5·18소설’ 전반의 흐름을 검토하면서 유형화를 시도하는 논의들에서도 이들 소설은 거의 빠짐없이 다루어졌다. 이를테면 5·18 체험 이후 ‘살아남은 이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형상화하는 한편 이 고통을 야기한 사회적 조건을 향한 관심을 요청하는 일련의 소설들을 분석한 방민호[33], 1980년대와 90년대 5·18의 ‘소설적 수용양상’을 점검하면서 그 양상의 하나로 5·18 체험이 남긴 상처와 후유증의 소설화를 언급한 신덕룡[34], 소설들이 5·18을 재구성 및 의미화해 온 다양한 양상들을 돌아보며 5·18로 말미암은 트라우마와 그것의 치유, 극복의 문제의 쟁점화를 모색한 소설들에 대해 논한 정명중[35] 등의 작업이 이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인물들의 트라우마 발현 양상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논의들[36]과

---

30) 차원현, 「5.18과 한국소설」, 『한국현대문학연구』 31집, 한국현대문학회, 2010, 457면.
31) 위의 글, 460-461면.
32) 한편 차원현은 이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분석의 대상을 ‘오월시’에까지 확장시킨 논의(차원현, 「포스트모더니티와 오월 광주」, 『민족문학사연구』 50권, 민족문학사연구소, 2012.)를 제출한 바 있다. 이 글에서 차원현은 5·18의 핵심을 ‘훼손된 육체성’에 있다고 논하면서, 이를 논외로 한 채 이루어지는 섣부른 애도와 승화 작업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5·18의 ‘진리’는 다름 아닌 “파괴되고 절단된 육체로서의 정신” (같은 글, 186면.)이며, 5·18이 남긴 사랑의 자리는 “‘잘린 젖가슴’과 ‘흐트러진 살점’이 드러내는, 숭고한 탈승화의 사랑, 관능성을 거부하는 이념적 사랑, 비정하고 잔인한 사랑” (같은 글, 182면.)에 위치한다. 비록 논의의 흐름이 5·18의 의미를 ‘훼손된 육체’와 유리된 ‘고고한 정신’에서 찾는 것을 반대하면서도 다소 관념적이고 미학적인 차원으로 귀결되는 경향을 보이는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5·18의 체험과 급격한 몸의 변화가 갖는 상관관계를 비교적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33) 방민호, 「광주항쟁의 소설화, 미완의 탑」, 『언어세계』 1996년 봄호.
34) 신덕룡, 「광주체험의 소설적 수용양상」, 『문학과 진실의 아름다움』, 새미, 1998.
35) 정명중, 「‘5월’의 재구성과 의미화 방식에 대한 연구-소설의 경우」, 『민주주의와 인권』 제5권 1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5.
36) 장일구, 「역사적 원상과 서사적 치유의 주제학-5·18관련 소설을 사례로」, 『한국문학이론

‘5·18소설’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학위논문들에서도 장애 인물들의 몸과 삶이 발산하는 의미들이 다뤄진 바 있다. 후자의 경우 본 논문이 수행하고자 하는 작업처럼 장애 재현 문제를 중심에 둔 독해는 부재한 반면, 5·18의 문학적 재현의 양상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피해와 고통이 소설화되는 장면들을 분석한 연구들이 적잖이 제출되었다.

예컨대 김남옥[37]은 1980년 이후 사회·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5·18의 소설화 국면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달라졌음을 지적하며, 소설들에서 신군부 및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폭력이 어떻게 현현하고 있는지를 주요하게 논한 바 있다. 기억, 죄의식, 트라우마, 그리고 광주라는 공간성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소설들을 재배치하여 ‘5·18소설사’의 새로운 ‘밑그림’ 제작을 모색한 심영의[38], 고통을 은폐하고 봉합하는 ‘치료’의 서사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자 하는 ‘치유’의 서사를 대비하며 후자에 해당하는 소설들이 5·18의 의미를 더욱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평가하는 전성욱[39], 5·18의 실상을 고발하고 재구성하는 일련의 소설들을 ‘증언 소설’이라는 범주 아래 분석하며 시기별로 나타나는 차이들을 지적한 아델리나 핀자루[40]의 논의 역시 이에 포함된다.[41]

과 비평』 제20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3; 유홍주, 「오월 소설의 트라우마 유형과 문학적 치유 방안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60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5; 심영의, 「5·18 가해자들의 기억과 트라우마-5·18소설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17권 1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7. 이들 연구가 여러 작가의 ‘5·18소설’들이 그리고 있는 피해 인물과 가해 인물의 트라우마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었다면, 그 양상을 특정 작가의 소설에 한정하여 논구한 연구들도 제출된 바 있다. 이를테면 임철우 소설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공종구, 「임철우 소설의 트라우마: 광주 서사체」, 『현대문학이론연구』 제11집, 현대문학이론학회, 1999; 한순미, 「주변부의 역사 기억과 망각을 위한 제의-임철우의 소설에서 역사적 트라우마를 서사화하는 방식과 그 심층적 의미」, 『한국민족문화』 제38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0. 등이 이에 해당한다.

37) 김남옥, 「광주민중항쟁의 소설적 형상화에 대한 일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38) 심영의, 「5·18민중항쟁 소설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39) 전성욱, 「‘5월 소설’의 증언의식과 서술전략」,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40) 아델리나 핀자루, 「광주 민주화운동의 문학적 증언 양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41) 예시한 일련의 연구들이 그간 쓰인 ‘5·18소설’들을 통시적으로 개관하며 시대별로 변화를 보이는 재현 양상을 논구한 경향을 보였다면, 다음과 같은 연구들은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소설들을 분석하는 주제론적 접근을 꾀하고 있다. 이를테면 정찬 소설을 ‘죄’와 ‘악’이라는 기독교적 개념을 통해 독해한 이지현(이지현, 「악의 문제와 광주민중항쟁-‘광주’ 소설에 나타난 악의 문제에 대한 신학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젠더적 관점에서 ‘5·18소설’들을 재독한 김수진(김수진, 「5·18 소설의 젠더 표상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한국의 ‘5·18소설’과 중국의 ‘문혁소설’이 ‘증명서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5·18과 문화대혁명의 소설화 양상을 비교 검토한 유인(유인, 「5·18소설과 문혁소설의 비교 연구-중·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소설들이 재현하고 있는 5·18 가담자, 가해자의 형상을 논한 이가

지금까지 살펴본바, 장애 재현의 문제는 '5·18소설' 논의의 장에서 꾸준히 다뤄져 왔다. 그 논의는 백낙청을 필두로 한 비판적 접근으로부터 시작, 이것에 대한 일련의 문제 제기와 더불어 나름의 의미화 작업들이 제출되면서 진행되었다. '5·18소설'들에 대한 유형화와 계열화를 시도하는 연구들, 그리고 문학사적 맥락을 검토하는 연구들에서도 장애 재현 문제가 언급되었던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고려해보면, 장애 인물들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루어진 5·18의 소설화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갈무리되는 단계에 이른 것처럼 보인다. 이들 재현에 대한 비판보다는, 점차 그것이 내장한 긍정적인 의미들을 강조하는 논의들이 거듭 제출되는 경향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바꿔 말해 논자들마다 중요하게 다루는 작품과 이를 읽는 구체적인 독법은 상이하지만, 장애 인물을 중심으로 5·18을 소설화하는 전략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보인다. 일치를 가능토록 하는 공통된 전제는, 소설이 그리는 인물들의 피해와 고통이 5·18 체험의 '사실성'과 '지속성'을 겸비하고 있다는 인식에 있다. "훼손된 신체가 곧 증언의 언어"[42]라는 전성욱의 지적처럼 인물들의 손상된 몸은 사실에 대한 증언의 장소가 되며, 장애화된 삶은 끊임없이 현재화되는 5·18을 환기하는 주요한 기제로 해석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장애 재현에 대한 논의는 진정 갈무리된 것일까. 더이상 지적할 만한 문제들, 다시금 검토되어야 할 형상들은 부재한 것일까.

이에 본 논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산재해있음을 밝힘과 동시에 기존의 연구들이 공통되게 누락하고 있는 사안들을 구명하고자 한다. 이는 곧 그동안 쓰인 소설들과 이에 대한 논의들이 모두 정치하지 않았음을 비판적으로 논구하는 작업과도 같다. 5·18의 소설화가 장애 재현의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응당 전자와 후자 모두 진지한 고려 및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간의 초점은 모두 전자에만 맞추어져 왔다. 앞에서 검토한 장애 재현을 의제에 둔 일련의 논의들은, 모두 5·18의 '해석'을 둘러싼 저마다의 입장을 제시한 결과물이었다. 다시 말해 이 같은 재현이 5·18이라는 사안이 갖는 다양한 의미들을 '적절하게' 아우르고 있는지가 중요하고도 유일한 준거점으로 기능해왔던 것이다. 이에 따라 여러 소설들이 기입하고 있는 장애라는 표지가 기실 소설 밖 현

은(이가은, 「5·18 소설에 나타난 국가폭력 가담자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등의 연구들이 있다.

42) 전성욱, 앞의 글, 17면.

실에서 장애인에게 부착되는 낙인(stigma)[43]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 5·18 부인 세력에 반대하고자 하는 재현의 기획이 어쩌면 비장애중심주의를 재생산하고 있다는 사실 등은, '적절성'의 차원에서 결코 언급되지 않았다.[44]

요컨대 본 논문은 '5·18소설'을 다른 어떤 요소보다 소설 내 장애 인물의

---

43) 어빙 고프먼(Erving Goffman)에 의하면 낙인(stigma)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불명예나 수치로 인식됨에 따라 오명(汚名)으로 절하되는 개인이 보유한 특정한 '속성'들을 일컫는 개념이다. 앞으로 본 논문에서 낙인은 고프먼의 정의에 착안하여 사용될 것인데, 특히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바는 통상 낙인이 고프먼 역시 강하게 주장하듯 속성 자체보다는 '관계'를 지시하는 어휘라는 사실이다. 이는 곧 사회에 통용되는 규범이나 기대치에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탈한 존재로 여겨지는 '낙인자'와 그렇지 않은 집단인 '정상인'(the normals) 사이 일어나는 다양한 상호작용을 주요하게 살피는 작업과 일치한다.(어빙 고프먼, 윤선길·정기현 옮김, 『스티그마: 장애의 사회 심리학』, 한신대학교 출판부, 2018, 13-39면 참조.) 그리하여 5·18을 체험했다는 사실이 장애라는 속성과 결부됨에 따라 소설 내 인물들이 낙인자의 위치에 놓일 때, 또는 기존의 '폭도'라는 누명에 장애라는 부정적 속성이 더해져 그 위치가 강화될 때, 그것을 추동토록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를 논구하고자 한다. 다른 한편 낙인자가 된다는 것은, 김현경이 지적한바 다른 "인격 전체가 아니라 인격에서 돌출된 부분, 즉 낙인"(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2015, 122면.)만이 관심의 대상이 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한 개인을 설명할 때 있어 낙인을 제외한 인격의 나머지 측면들은 철저히 누락시키는 양상은, 장애인을 대하는 비장애인들의 태도에서 자주 발견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본 논문 1장 2절을 참고할 것.

44) 이와 같은 본 논문의 문제의식은, '5·18재현물'들을 젠더적 관점에서 재독하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의 그것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기실 이들 연구는 그동안 5·18의 재현이 젠더적 역할 구획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경향이 지배적이었음을, 그리고 그것이 남성을 적극적인 '항쟁 주체'로 강조하는 반면 여성을 "폭력이 전시되는 장소"(김영희, 「'5·18 광장'의 기억과 '여성'의 목소리」, 김형중·이광호 엮, 『무한텍스트로서의 5·18』, 문학과지성사, 2020, 239면.)로, 폭력을 고발하는 '이미지'로서만 제한하여 제시하는 결과를 낳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하여 재현물 내 여성은 주로 "남성들에게 부채감과 연민, 적에 대한 분노 등 복합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매개자 역할"(김양선, 「광주 민중 항쟁 이후의 문학과 문화-젠더를 축으로 한 다시 읽기의 정치학」, 『여성문학연구』 5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10면.)을 도맡게 됨에 따라, 5·18 당시 실재했던 여성들의 항쟁 참여 양상은 누락된다. 한편 김수진은 그간 5·18을 서사화한 소설들의 젠더 표상 양상을 다음과 같이 네 유형으로 분류한 바 있는데, ⑴여성의 배제를 기반으로 한 영웅적 남성 또는 그에 준하는 남성만을 그리는 방식, ⑵적합한 남성주체를 호출하는 희생자의 자리에 여성을 위치시키는 방식, ⑶비정치적, 부르주아적, 개인주의적이라는 '오명'을 여성과 연결시키는 방식, ⑷여성을 '주체'로 그리는 방식 등이 바로 그것이다.(김수진, 앞의 글, 13면.) 아울러 김수진은 일종의 '대항 서사'로서 긍정적 의미를 발산하는 네 번째 유형을 제외하고는, 소설들이 젠더를 편향적으로 재현해왔음을 구체적인 작품 분석과 함께 비판적으로 논구한 바 있다. 요컨대 이들 연구는 5·18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여성 재현이 역사적 사실과는 다른 방식으로, 편향된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곧 여성 재현의 문제성을 논한 것으로서, 장애 재현의 문제성을 논하고자 하는 본 논문의 작업에 있어 주요한 참조점이 된다. 아울러 '5·18소설' 내 여성의 '훼손된 육체'가 "일차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고 나아가 수치를 불러일으키며 결과적으로 분노를 이끌어내는 효과적 장치로 활용"(조연정, 「'광주'를 현재화하는 일-권여선의 『레가토』(2012)와 한강의 『소년이 온다』(2014)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0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4, 115면.)되었다는 사실, 이와 같은 여성 수난사 구조의 서사는 기실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남성중심적 서사의 틀을 재생산하고 있다는 사실(김수진, 위의 글, 49-50면.)은, 젠더와 장애의 문제를 교차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입각점을 보다 견고하게 만드는 데에 큰 도움을 준다.

재현을 핵심에 두며 읽을 것을 제안한다. 그럴 때라서야 재현의 '과잉'과 논의의 '부재'라는 반대되는 두 항의 기묘한 공존으로부터 누락되어 왔던 장애 인물 형상이 갖는 결코 단순하지 않은 의미들이 비로소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소설들이 대개 5·18을 통과한 장애 인물들을 사회와 불화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위치시켰다면, 이것은 그저 5·18의 비극성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만 분석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형상이 과연 어떤 인식틀을 기반에 둔 결과물인지까지 짚어보아야 한다.

손상된 몸과 장애화된 삶이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의 상태로 치환되어 이들 인물이 '비정상적'인 존재로 낙착되는 서사의 구조는, 분명 장애에 대한 부정적 통념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데에 기여한다. 다른 한편 장애 인물들의 '무능력함'을 강조하지 않음과 동시에 소외된 삶의 양상만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이들의 존재를 그야말로 서사 내 '중심'인물로 배치하고 있는 소설들은, 보다 다채로운 의미를 획득하고 있는 작품으로 재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작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법론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장애학이다.[45]

45) 앞으로 본 논문이 분석하고자 하는 소설들을 처음 언급할 때에 기본 텍스트로 삼을 판본을 병기하고, 인용시 해당 판본의 면수만을 표기하기로 한다. 밑줄과 강조는 모두 인용자의 것이다.

제2절 연구의 시각

그렇다면 '5·18소설'을 장애학적 관점으로 읽는 작업은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일까. 이 같은 독법이 필요한 까닭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어떤 사실들을 새롭게 도출할 수 있을까. 앞 절에서 언급한바, 5·18을 서사화한 소설들은 무엇보다도 '몸'의 문제를 조명해왔다. 이들 소설이 1980년 5월 광주 현장의 다양한 국면을 스케치할 때, 이후의 시공간에서 5·18을 다시금 환기하며 거듭 호출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시시각각 변화하거나 변화를 겪어야만 했던 다양한 몸들이었다. 소설들은 이 변화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한편 5·18의 심각성을 효과적으로 지시하고자 극심한 손상을 체현한 몸, 즉 장애 인물의 형상을 주요하게 제시해왔다. 그리고 장애학은 자연스럽다고 여겨지는 몸과 당위의 차원으로 설명되는 몸 모두를 심문하는 학문이자, 손상된 몸과 장애화된 삶을 중심으로 사회를 이해하고자 하는 이론틀이다. 만일 5·18의 소설화가 장애 인물의 재현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이들 재현과 결부된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 역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5·18소설'과 장애학의 만남은 바로 이 지점으로부터 출발한다.

기실 장애학은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만 국한하는 것을 거부하는 인식론으로부터 출발한다. 일례로 장애의 사회적 모델(The social model of disability)[46]을 고안하며 본격적으로 장애학의 이론적 기반을 다진 마이클 올리버(Michael Oliver)의 다음과 같은 논의는, 이 같은 인식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올리버에 의하면 손상(impairment)과 장애(disability)는 변별되는 개념이다. 이는 손상을 사지의 전체 또는 일부가 부재하거나, 신체 기관 및 구조의 결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장애를 사회 구조에 의해 신체적 손상을 가진 사람들이 경험하는 불이익이나 활동의 제약으로 정의하는 UPIAS(The Union of the Physically Impaired Against Segregation)의 입장[47]을 원용한 것이다. 그리하여

46) 장애의 사회적 모델이란, 장애인을 개입, 치료, 재활 등과 같은 의료적 실천의 수동적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한편 장애를 극복이나 개선이 반드시 요구되는 병리적 상태로 규정하는 '장애의 의료적 모델'(The medical model of disability)을 거부하며,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의미화를 시도한 일군의 논자들이 성립한 이론적 틀을 일컫는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장애가 비장애인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사회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보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양상이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더욱 심화된다고 본다. 사회적 모델의 출현과 이론적 기반의 확립 과정, 또 그것의 의의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논의로는 김진우, 「장애에 대한 사회적 모델의 의의와 한국사회에의 함의」, 『한국장애인복지학』 제6호,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07. 참조.

47) UPIAS, *Fundamental Principles of Disability*, UPIAS, 1976, pp. 3-4.(Michael Oliver, *The Politics of Disablement*, Macmillan education, 1990, p. 11에서 재인

장애는 불행한 개인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비극적인 사건, 신체의 기능적 한계나 정신적 손실을 일컫는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장애는 손상된 몸을 가진 사람들에게 여러 제약을 부과하는 사회, 이를테면 제도적 차별, 접근권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건축 및 교통 환경, 분리 교육, 노동 배제 등 사회 전반에 산재해 있는 제약들로부터 만들어진다.[48]

이 같은 올리버의 이론화가 있은 이후 장애는 사회적 억압의 결과로서 분석되기 시작하였고, 그 귀책사유는 개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있다는 인식이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 그리고 연구자들에 의해 점차 폭넓게 자리잡았다.[49] 환언하자면 장애는 곧 비장애인 중심으로 형성되고 재생산되는 사회, 그리고 문화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장애학이 취하는 입각점이다. 그런데 그 관계가 지극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갈런드-톰슨이 지적한바, 장애는 여전히 "제대로 된 인간으로서의 혜택과 지위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까닭에 우리가 기꺼이 참여하거나 환영하지 않으려는 삶의 형태"[50]로 구성되는 경향이 농후하다. 장애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을 기틀 삼은 이른바 '우생학적 논리'(eugenic logic), 즉 장애가 사라지면 세상이 더 좋아질

용.)

48) Michael Oliver, *Understanding Disability: From Theory to Practice*, St. Martin's Press, 1996, pp. 32-33.

49) 그러나 모든 장애학자들이 이와 같은 올리버의 논지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톰 셰익스피어(Tom Shakespeare)는 장애의 사회적 모델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셰익스피어에 의하면 많은 이들이 사회적 모델을 "장애권리운동을 처음 촉발시키고 현재까지 유지시키는 근본적인 정치적 원칙"(톰 셰익스피어, 이지수 옮김, 『장애학의 쟁점: 영국 사회모델의 의미와 한계』, 학지사, 2013, 59면.)으로 여기고 있음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 이 이론틀에는 여러 문제가 내재해 있다. 첫째, 각기 다양한 손상의 경험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장애인이 공통된 억압을 공유하고 있다는 올리버의 논리를 따르면, 특정 손상에 기초한 장애인 조직과 장애 분석은 '쓸데없는 일'이 된다. 둘째, 장애가 손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만 바라보는 관점은 의료적 개입을 추구하는 당사자들의 다양한 시도들을 부정적으로밖에 볼 수 없도록 만든다. 셋째, 장애가 구조적 배제의 산물이라는 입장은 손상을 입은 개인의 특수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그 까닭에 장애인의 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상은 결코 전사회적(pre-social)이거나 전문화적(pre-cultural)인 개념이 아니다. 손상 역시 광범위한 사회·문화적 맥락과 결부되어 있으며 그것의 '가시성'과 '현시성'은 특정한 사회의 기대와 조정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같은 책, 63-69면.) 이외에도 올리버를 비롯하여 사회적 모델을 주창하는 논자들이 설정하고 있는 개념들에 대한 장애학 안팎에서의 논쟁들 역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캐럴 토머스(Carol Thomas), 김도현 옮김, 「장애 이론: 핵심 개념, 이슈, 사상가」, 콜린 반스(Colin Barnes) 외 엮, 김도현 옮김, 『장애학의 오늘을 말하다: 차별에 맞서 장애 담론이 걸어온 길』, 그린비, 2017. 참조.

50) Rosemarie Garland-Thomson, "The Case for Conserving Disability," *Bioethical Inquiry* 9, 2012, p. 340.

것이라는 유토피아적인 사고가 잔존해 있다는 사실 역시 마찬가지이다.[51]

한편 이와 같은 사고가 매우 문제적임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장애학은 그 사실을 지적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것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확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호명한다. 즉 장애학은 "장애(인)에 대한 지식이 구성되는 인식틀은 무엇이고, 그것은 어떻게 생성되며, 그 권력 효과는 무엇인"[52]지까지를 심문한다. 그중에서도 본 논문은 각종 문화적 재현물이 장애 개념 형성의 주요 축을 담당하고 있음을 논구한 일련의 작업들[53]을 주요하게 참조할 것인데, 다음과 같은 수전 웬델(Susan Wendell)의 지적은 이들 작업의 한 단면을 잘 보여준다.

> 문화는 장애를 만들어 내는 중요한 요소이다. 여기에는 사회적 삶을 문화적으로 재현할 때 장애 경험을 배제하는 것뿐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문화적 고정관념, 신체 및 정신의 한계나 다른 차이들에 가하는 선택적 낙인(선택적이라는 것은 모든 한계와 차이에 똑같이 낙인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따라 다른 한계와 차이에 낙인이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종류의 장애와 질병에 따라붙는 수많은 문화적 의미, 장애인이 실행할 수 없거나 실행하리라는 기대조차 하지 않는 활동들이 갖는 문화적 의미에서 장애인을 배제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장애의 경험을 현실성 있게 그리는 문화적 재현물이 없다는 점은 장애인의 '타자화'에 이바지한다.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의 삶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엇이라는 강력한 전제를 가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알지 못하게 됨으로써 비장애인은 장애에 대한 두려움이 심해진다. 장애인은 의존적이다, 장애인은 도덕적으로 해이하다, 장애인은 초인적 영웅이다, 장애인은 무성적이다, 장애인은 불쌍하다 등의 고정관념은 장애인을 문화적으로 재현할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이미지다.(밑줄-인용자)[54]

---

51) *Ibid.*

52) 박정수, 『'장판'에서 푸코 읽기』, 오월의봄, 2020, 54면.

53) 이와 같은 작업은 몸의 물질성과 사회적 정체성 모두 언어 및 문화 체계에 선행하거나 이들과 분리될 수 없는 까닭에, '손상'과 '장애' 개념이 엄밀한 구분이 가능하지 않음을 논하는 '장애의 문화적 모델'(The cultural model of disability)의 출현 및 발전의 흐름 속에 놓여 있다. 그리하여 1990년대에 이르러 일군의 장애학자들은 본격적으로 문학 작품들을 주요한 분석 대상으로 삼아 장애 재현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이들 논의는 다방면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그 구체적 양상은 Alice Hall, *Literature and Disability*, Routledge, 2016, pp. 30-35. 참조.

54) 수전 웬델, 강진영·김은정·황지성 옮김, 『거부당한 몸: 장애와 질병에 대한 여성주의 철학』, 그린비, 2013, 90-91면.

웬델이 논한바, 장애 경험의 '현실성'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 문화적 재현물들이 장애인의 존재를 타자화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5·18을 서사화한 소설들은 이 사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일까. 이 물음과 관련하여, 음성언어를 발화하지 못하는 '벙어리' 형상을 등장시키고 있는 최윤의 「저기 소리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문학과사회』 1988년 여름호.)는 주요한 참조점이 된다.

> 상고 머리에 반점이 있는 남자. 등에 걸친 망태기를 휙 풀섶에 내던지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뜻으로 손을 내저으면서 괴성을 지르던 남자가 있었어. 다시 눈을 감았다가 뜨니까 남자가 찐 감자 두 알을 내게 내밀었어. 갑자기 모든 무서움이 달아나고 감자 두 알을 단번에 삼켜버렸지. 천렵을 나온 벙어리 남자. (…) 나는 남자가 소리도 내지 않고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어. (…) 벙어리가 나뭇가지에 옷을 걸어놓고 내 곁에 누워서 내 다리랑 배랑 한참을 쓰다듬었어. 그리고 무슨 말을 하려고 입을 자꾸 벌려도 이상한 소리만 새어나왔어. 한참을 그렇게 안간힘을 쓰다가는 그만 꺼억꺼억하면서 말 대신 주먹 같은 눈물이 벙어리 눈에서 뚝뚝 떨어졌어. 나는 신기해서 그 얼굴을 쳐다보았지. 내 눈에서는 엄마 눈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거든. 엄마도 어떤 때는 말도 못 하고 벙어리처럼 꺼억꺼억 소리만 내면서 가슴을 쳤지. 그리고 저녁이 왔어. 벙어리 남자는 그때까지 내 옆에 누워서 내 머리도 쓰다듬고 목에 붙은 검불을 떼어주고는 했지. 그리고 채 밤이 되기도 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내가 잠시 눈을 붙인 사이에 파랑새 한 마리가 내 가랑이 사이로 해서 내 몸 속으로 들어왔지. 그리고 밤이 되니까 벙어리는 망태기를 들고 바쁘게 산을 내려갔어. 떠나기 전에 꼭 이 자리에 있으라고, 다음 날도 먹을 걸 가져오겠노라고 했어.[55]

기실 장애학적 관점에서 소설을 읽는다는 것은, 위의 장면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일이다. 그간 최윤의 「저기 소리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에 대한 수다한 분석들이 '소녀'가 맞닥뜨린 일련의 비극적인 상황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면, 장애학의 렌즈는 아무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그 까닭에 논의의 장에서 소설의 문면에서만큼이나 갑자기 휘발되어 사라진 '벙어리' 형상을 조명한다. 주지하다시피 「저기 소리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의 '소녀'는 '정연한' 언어를 발화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그 기저에는 '오빠'와 '엄

55) 최윤, 「저기 소리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문학과사회』 1988년 여름호, 751-752면.

마'의 잇단 죽음, 특히 '소녀' 자신의 도망과 결부된 5·18 당시 있었던 '엄마'의 죽음이 위치한다. 한편 이와 같은 '소녀'의 경험은 비단 '소녀' 한 명의 그것으로만 한정해서 분석될 수만은 없는데, 무엇보다 소설은 "또 다른 수많은 소녀들"(731면)의 존재를 환기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당신'이라는 수신자를 설정하며 '소녀'와의 대면 시 유의해야 할 몇몇 사항들을 짚는 소설의 도입부는, 뒤이어 제시되는 여러 '만남'들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만든다. 그리고 이들 만남 가운데 '벙어리'가 있다.

'소녀'가 어떤 인물들을 만나는지를 중점에 두고 소설을 읽을 때, 해석의 난관에 봉착하는 지점은 다름 아닌 인용된 위의 대목, 즉 '소녀'와 '벙어리'가 만나는 장면일 것이다. '벙어리'와의 대면은 '소녀'가 만나는 다른 인물들, 이를테면 '장', '옥포댁', '김'과의 만남과는 사뭇 다르다. 이들 인물은 '소녀'의 "이해할 수 없는 몇 마디 말"(732면)들을, '소녀'가 체험한 일련의 일들을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소녀'의 행적을 좇는 '오빠'의 친구들로부터 소략하게나마 '소녀'가 처한 상황을 전해 듣는다. 반면 '벙어리'는 어떤 경로로도 '소녀'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한다.

흥미로운 점은 '소녀'가 '안간힘'을 쓰며 "괴상한 소리"(751면)와 함께 전달되는 '벙어리'의 언어를 이해한다는 데에 있다. 그리고 소설은 '소녀'가 같은 동네에 살았던 "벙어리 장손이 아저씨"(같은 면)와도 이야기하곤 했다는 전사(前事)를 제시하면서, '오빠'가 죽은 이후 '엄마'도 때로 벙어리와 같은 상태였음을 일러주면서, '소녀'가 '벙어리'의 말을 이해한다는 설정의 근거를 보충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역할 배분, 관계 형성 과정에서 보이는 불균형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까. 또 전체 서사에서 '벙어리'의 등장과 퇴장은 어떤 맥락에서 의미를 갖는 것일까.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자면, '벙어리'는 다음과 같은 세 측면에서 의미를 획득하고 있는 인물이다. 첫째, '벙어리'는 '소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있다. 기실 '소녀'는 '엄마'의 죽음을 직접 본 이후 "시커먼 휘장"(738면)이 덮인 까닭에, 당시의 기억을 상기하는 일과 이를 누군가에게 발화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소녀'는 독백의 형식으로 지난 일들을 회상하곤 하지만, 그것의 구체적 경위를 '소녀'에게 직접 듣는 청자는 부재하다. 이를 통해 소설은 언어화에 실패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경험들이 실재함을 짚는다. 그리고 그 경험이 다름 아닌 5·18의 체험이며, 이를 온전하게 증언할 수 있는 언어를 제작하는 일의 지난함을 공표한다. 이 같은 사실들을 고

려한다면, 소설 속 '벙어리'의 등장은 의미심장하다. 음성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벙어리'의 형상은, 발화에 거듭 실패하는 '소녀'의 그것과 겹쳐진다. 그리하여 말을 하기 위해 "한참을 그렇게 안간힘을 쓰다가는 그만 꺼억꺼억하면서 말 대신 주먹 같은 눈물이 벙어리 눈에서 뚝뚝 떨어졌"(751-752면)다는 묘사는, '소녀'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일종의 은유로서 기능한다.

둘째, '벙어리'와의 만남은 '소녀'에게 '엄마'의 생전 모습을 떠올리게 만드는 계기이다. 이는 '오빠'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벙어리처럼 꺼억꺼억 소리만 내면서 가슴을"(752면) 치곤 했다는 서술, "엄마 같은 처지에 있었다면 내가 만난 벙어리라도 갑자기 말을 하게 되었을지도"(753면) 모른다는 가정을 통해 드러난다. 이에 따라 '벙어리'는 '소녀'에게 있어 '엄마'와의 동일시 또는 비교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벙어리'는 '소녀'를 강간한다.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산비탈에 잠들어있던 '소녀'에게 음식들과 옷을 제공해주는 등 극진한 돌봄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였던 '벙어리'는, '소녀'가 "잠시 눈을 붙인 사이에"(752면) 불현듯 '소녀'를 강간하고 이내 하산한다.

이처럼 '벙어리'가 세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고려해보면, '벙어리' 형상은 작가 또는 소설의 특정한 의도가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의도에는 석연치 않은 지점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벙어리'가 중심인물 '소녀'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만 차용되는 것은 아닌지와 같은 물음과 함께 선명해진다. 즉 '벙어리'의 형상이 세 가지 의미를 발산하고 있다고 할 때, 이 의미들은 '소녀'라는 존재를 괄호에 넣으면 단번에 휘발되어 사라지는 성질의 것은 아닐까.

요컨대 '벙어리'의 존재는 '소녀'의 말할 수 없는 상태를 강하게 은유하면서 '소녀'에 의해 관찰의 대상으로, '어머니'의 비교군으로 설정됨에 따라 '주체적인' 역할을 부여받지 못한 채 대상으로만 남는다. 그리고 '벙어리'가 '소녀'에게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비로소 자기만의 서사를 예비할 조짐을 보일 때, 소설은 그 가능성을 강간을 저지르는 가학적인 설정 아래 지우고 '벙어리'를 서사에서 영원히 퇴장시킨다.[56] 그리하여 최윤의 「저기 소리없이 한

56) 이후 서사에서 '벙어리'는 다음과 같은 '소녀'의 독백에서 한 차례 언급된다. "내가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벙어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까. 내가 만났던 그 벙어리처럼 나도 진짜 벙어리였더라도 사람들은 나를 윽박질렀을까."(765면) 그런데 이와 같은 언급은 서사에서 퇴장한 '벙어리'에게 또 다른 의미, 이를테면 '벙어리'와의 만남이 '소녀'에게 어떻게 기억되는지, 회상을 통해 '벙어리'가 현재 소녀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등을 지시하고 있지 않다. 그보다는 '벙어리'는 앞에서와 같이 '소녀'가 그간 마주친 사람들에게 아무런 말도 꺼내지 못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로서 제시될 뿐이다.

점 꽃잎이 지고」는 음성언어를 발화하지 못하는 장애 인물 '벙어리'를 '소녀'의 상황, 특히 일련의 비극적인 상황들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소비하고 만다.

그렇다면 장애 재현이 문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구심을 여실히 불러일으키고 있는 위와 같은 대목은, 최윤의 소설에만 한정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본 논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임철우 소설의 한 장면을 예시하며 환기하고자 한다. 이곳에서도 공교롭게 '벙어리' 형상이 재현되고 있는데, 이때 '벙어리'는 '죗값'의 기표가 된다. 다음은 「봄날」(『그리운 남쪽』, 문학과지성사, 1985.)의 한 문면이다.

> …기억하라. 너는 이제 벙어리 아들을 낳으리라. 아벨을 묻은 피에 젖은 네 두 손의 업보로서, 그 배신의 증거로서, 내 손수 네 아들의 혀를 자르리라. 그리하여, 뭉툭하니 잘려나간 네 아들의 입속을 들여다보며 그날의 네 죄악을 기억하게 하여 주리라. 심중의 진실을 전할 수가 없어서, 심장을 터뜨릴 듯 부릅뜬 눈을 터뜨릴 듯 먹먹하게 다만 바라보며 제 가슴팍만 맨주먹으로 두들기기만 하는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네 가증한 배신의 흔적을 확인하게 하리라. (…) 구원을 외치며 새벽거리를 달리던 네 형제 아벨을 위하여, 끝끝내 열리지 않는 너희 집 대문 앞에서 허물어져 버린 그의 통곡을 위해, 빗장을 걸어 잠그고 이불 속에 드러누워 그의 외침을 부인하던 너와, 그리고 더 많은 네 이웃들을 위해 내, 너로 하여금 벙어리자식을 낳게 해 주마. 그리하여 네 스스로 아들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치도록 하여주마. 말이란 세 치 혓바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님을, 그것은 손짓과 발짓과 몸짓으로, 온몸으로 전해야만 하는 것임을, 마침내 너희 스스로 깨닫게 될 때까지, 나는 너희로 하여금 벙어리의 수화를 가르치도록 하여주마….[57]

무엇보다 「봄날」은 5·18 이후 극심한 죄의식과 더불어 정신적 손상을 체현하는 '상주'의 삶을 서사의 중심에 위치시킨다. 기실 이들은 '상주'가 5·18 당시 자신의 집 대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청한 친구 '명부'의 기척을 외면한

57) 임철우, 「봄날」, 『그리운 남쪽』, 문학과지성사, 1985, 157-158면. 한편 해당 소설집에 수록된 「봄날」은 처음 1984년 『실천문학』 5호에 발표된 소설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전체 서사의 흐름은 동일하나 구체적 내용의 보충이 이루어졌는데, 인용된 대목 역시 본래 1984년 판본에서는 "기억하라. 카인아. 너는 벙어리 아들을 낳으리라. 내 손수 네 아들의 혓바닥을 자르리라. 기억하라. 기억하라."(임철우, 「봄날」, 『실천문학』 5호, 1984, 374면.)와 같이 간략하게 서술되고 있다.

까닭에 끝내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사실로부터 기인한다. 그리고 소설은 5·18로부터 2년이 지난 1982년 현재의 시점에서, '상주'의 친구인 '나', '병기', '순임'이 기도원에서 "온몸에다가 유리조각을 그"(150면)으며 자해를 기도한 까닭에 다시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주'를 방문하는 여정을 그린다. "남들은 언제 그랬느냐 싶게 잘들만 살고 있는데 대관절 그 자식만 왜 아직도 그 지경이"(151면)냐는 '병기'의 발화에서 드러나듯, '상주'만은 여전히 죄의식을 떨치지 못한 채 현실과 유리된 삶을 꾸린다. 인용한 위의 대목은, '상주'가 기도원에서 쓴 것으로 짐작되는 일기 속 한 구절이다.

한편 '너'라는 청자를 설정하며 일종의 '저주'를 예고하는 위의 장면은, "가증한 배신"(157면)을 저지른 '상주' 스스로에게 가하는 징벌이다. 비록 '명부'의 죽음의 진위를 적확히 알고 있는 인물이 부재한 동시에 위의 기록이 "피해망상이 빚어낸 엉뚱한 얘기"(147면)의 모음집에 불과할지라도, 그것이 실재하는 '상주'의 고통과 죄책감이 교착된 기록물임엔 분명하다. "단순히 발작상태에 빠진 한 청년의 병증으로 단정지워 버리기에는"(같은 면) 쓰인 기록들이 구체성을 띠고 있을뿐더러, 그것이 다른 사람에 의해 옮겨진 문장들이 아니라 '상주' 자신이 직접 쓴 일기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벙어리 아들'은 지난날 '상주'가 저지른 '죄악'의 결과물이자 그 자체로 불행을 지시하는 '상주'의 미래가 된다.

이와 같은 「봄날」의 '벙어리' 형상은 앞선 「저기 소리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의 문면을 읽으면서도 제기한 바 있던 의구심을 다시금 출현하게 만든다. 그 까닭은 무엇보다도 음성언어를 발화하지 못하는 '벙어리'라는 가상의 인물이 존재 그 자체만으로 단번에 부정적인 의미를 체현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을 것이다. '벙어리'라는 장애 차별적인 용어를 아무 문제의식 없이 재현의 장에 끌어온 것도 문제가 되지만, 더욱 문제적인 것은 그 형상이 줄곧 '저주'라는 문법 아래에만 배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실 '상주'의 저주는 텍스트 안팎에서 쉽게 간과할 수 없는 파급력을 갖는다. 그것은 '나'를 비롯하여 5·18 이후의 삶을 꾸리는 '병기'와 '순임'에게 부치는 전언으로 기능하기도 하며, 나아가 당대 5·18의 진상을 전해 들을 통로를 마련할 수 없었던 소설 밖 독자들에게 전하는 요청이기도 하다.[58]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갖

58) 이와 관련하여 배하은은 '벙어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저주'를 "5·18의 증언불능 상태를 비유적으로 진술"(배하은, 앞의 글, 508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상주'의 일기가 곧 5·18에 대한 증언이 증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국가에 의해 철저히 묵살되었던 1980년대 당시의 상황을 지시하는 메시지라는 것이다. 이때 벙어리의 수화를 가르치게 해주겠다는 전언은, 소설이 '살아남은 자'들에게 증언의 새로운 형식을 찾아낼 것을 적

는 이들 메시지는, 전적으로 장애는 곧 비극이라는 비장애중심주의적 사고에 의지하고 있다. 가혹한 형벌의 기표로서만 '벙어리'를 삽입할 뿐, 「봄날」은 음성언어를 발화할 수 없는 상태에 다른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앞선 웬델의 지적은, 최윤과 임철우의 소설을 다시금 살펴보도록 이끈다. 두 소설이 공통적으로 그리고 있는 '벙어리' 형상이 장애인의 타자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데, 웬델의 지적처럼 두 인물의 재현은 소설 밖 장애 경험의 '현실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여기서 현실성이란, 소설 밖의 실재를 있는 그대로 형상화해야 한다는 당위의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인물의 형상을 구성할 때 어느 한 특성만을, 즉 장애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설 안팎의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맥락에서 쓰이는 개념에 가깝다. 예컨대 「저기 소리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는 음성언어를 발화하지 못하는 '벙어리'를 "오로지 의미를 신호하는 시각적 다름으로서의 기능만 수행"[59]하도록 구성한다. '벙어리' 형상을 곧바로 처벌과 응징의 대상으로 고안하고 있는 「봄날」은, 장애를 오로지 부정적인 것으로만 제시한다. 요컨대 두 소설 내 장애 인물들은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에 있어, 그리고 서사 전개 과정 전반에 걸쳐 철저한 타자가 된다.

기실 이처럼 문화적 재현물에서 장애인이 타자로 위치 지어지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데, 그 까닭은 다음과 같은 두 측면으로 대별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최윤과 임철우 소설이 여실히 보여주듯, 장애 인물을 매우 소략하게 등장시키는 재현 문법에 내포된 의미들과 관련이 있다. 장애를 비극적이면서 동시에 부정적인 삶의 양태를 지시하는 상태로 곧바로 제시하는 소설의 재현을 뒤집어보면, 그것은 장애만큼이나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없다는 사고를 전제한 결과이기도 하다.[60] 그리하

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가 하면 김영삼은 이 저주가 5·18을 망각한 자들을 "과거로 되돌려 보내는 강력한 힘으로 기능"(김영삼, 앞의 글, 91면.)하고 있음을 짚으면서, 잔인한 형벌로서 '벙어리 아들'을 삽입한 것은 5·18을 기억할 것에 대한 강한 "요청이자 당부이며, 주문(注文)이자 주문(呪文)"(같은 글, 같은 면.)으로 읽은 바 있다.

59) 로즈메리 갈런드-톰슨, 앞의 책, 25면.

60) 한편 어맨다 레덕(Amanda Leduc)이 동화에서 장애가 '소멸'과 '극복'의 차원에서만, 즉 해결되어야만 하는 문제로만 재현되고 있음을 분석하면서 제기한 다음과 같은 질문은 유의미한 참조점이 된다. "장애라는 개념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불완전함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그러니 장애를 은유로 활용하는 것보다 그런 불완전함을 빠르고 쉽고 분명하게 보여 줄 수 있는 장치가 또 있을까?"(어맨다 레덕, 김소정 옮김, 『휠체어 탄 소녀를 위한 동화는 없다: 이야기를 통해 보는 장애에 대한 편견들』, 을유문화사, 2021, 135면.)

여 장애 인물의 몸과 삶은 그 어떤 긍정적인 맥락과 전망을 부여받지 못한 채 '비정상적'인 의미만을 체현하고 마는 데에 그치며, 이는 분명 비판적 논의가 요구되는 지점이다. 앞에서도 지적했듯, 이 같은 형상화는 '능력'을 준거 삼아 인간의 몸과 정신을 서열화하는 비장애중심주의 및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통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그리고 장애학적 관점은 이들을 구명함에 있어 매우 유용하다. 문제적 재현이 파급하는 "장애의 기회주의적 이용을 지적하고, 동정의 수사학을 비판하며, 특히 부정적인 이미지 제시에 도전해 그것을 해체하려는 진지한"[61] 노력이 다름 아닌 장애학적 관점에 기반한 독해이기 때문이다.

한편 장애학적 관점에서 문화적 재현물을 분석하는 일련의 작업들은, 정상성을 중요하게 다룬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전혜은이 논한바 정상성은 "특정 몸·정신·인간만 '정상'으로 인식/인정하고 그 외의 것들은 열등하고 일탈적이고 병리적인 것으로 배제하는"[62] 일종의 규범인데, 이는 비장애중심주의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비장애중심주의 역시 특정한 생각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 가치의 순위를 매기는 일종의 체제(system)인 까닭이다.[63] 어떤 문화적 재현물은 장애인의 '타자화'에 기여하곤 한다는 앞선 웬델의 지적과 유사하게, 몇몇 재현은 비장애중심주의와 더불어 정상성 규범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수용하며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를테면 장애인 시설들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의 양상들을 폭로하는 재현물들은 오히려 장애인들의 시설 수용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강화하곤 한다. 김은정이 지적한바, 이들 재현물은 인권유린을 야기하는 근본 원인인 삶의 시설화 문제를 조명하기보다 특정 시설에서 일어나는 범죄만을 다루고 있어, 취약한 집단은 더욱 정교하고 세심한 보호가 요구된다는 인식을 전달한다.

---

61) 손홍일, 「장애학에 기댄 장애(인)의 문학적 재현 읽기」, 한국장애학회 편, 『장애학으로 보는 문화와 사회』, 학지사, 2015, 25면.

62) 전혜은, 「장애와 퀴어의 교차성을 사유하기」, 전혜은·루인·도균, 『퀴어 페미니스트, 교차성을 사유하다』, 여이연, 2018, 32면.

63) 이는 공동 작업과 대화에 기초하여 제작된 다음과 같은 타릴라 루이스(Talila Lewis)의 비장애중심주의에 대한 '작업 정의'(working definition)를 참고한 것이다. "비장애중심주의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정상성, 지능, 우수성, 바람직함, 생산성을 기반으로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 가치를 매기는 시스템이다. 이에 기반한 생각들은 흑인혐오, 우생학, 여성혐오, 식민주의, 제국주의, 자본주의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이런 형태의 체제적 억압은 사람들과 사회가 사람의 언어, 외모, 종교 그리고/또는 충분히 (재)생산할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며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근거 삼아 누가 가치 있고 훌륭한지를 평가하게 만든다."(Talila Lewis, "January 2021 Working Definition of Ableism," https://www.talilalewis.com/blog/january-2021-working-definition-of-ableism) (접속일자: 2021.08.13)

또 그 과정에서 이미지화되는 시설은 권력 관계의 은유로 기능하는 까닭에 실재가 지워지기도 하며, 이미지를 소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설 폐쇄보다는 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인식하도록 만든다.[64] 이 같은 김은정의 분석은, 시설 내 문제들을 폭로하겠다는 의도 아래 기획되고 실제로 이에 대한 공론화를 촉발했던 재현물들이 양산하는 효과들을 정치하게 보여준다. 이는 곧 특정한 몸과 삶은 배제되고 격리되어야 마땅하다는 정상성 규범에 대한 비판이 부재한 것, 그리고 비장애중심주의와 정상성이 기실 사회에 의해 일방적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두루 고려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도 하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기저에 둔 장애학적 관점의 읽기는 정상성이 수용 및 파급되는 맥락에 비판적으로 접근하면서, "지금까지 당연시되고 어쩔 수 없다고 간주되었던 것들이 사실상 강제적인 규범으로 구성된 것임을 드러"[65] 내는 작업을 수행한다. 그리하여 장애학적 관점에서 문화적 재현물을 분석한다는 것은, 재현 행위의 이면에 작동하는 의식 구조들을 문제 삼으며 이를 표면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재현물 안팎에서 작동하는 규범들의 수용 및 거부 양상을 묘파하는 과정을 이행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가 하면 재현물들을 장애학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것은, 이들 재현의 문제적인 지점만을 구명하는 데에 국한하지 않는다. 그것은 장애라는 특질 하나로만 장애 인물을 형상화하지 않은 재현들이 갖는 의의를 도출하거나, 비장애중심주의를 전제하지 않은 새로운 장애 개념 또는 윤리들을 모색하는 장면들을 주요하게 분석하고 이를 주요하게 의미화하하는 일련의 독해들을 포함한다. 이를테면 토니 모리슨(Toni Morrison)이 장애를 비극을 가리키는 은유로서가 아닌 "몸의 독특함과 개인의 역사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귀중한 표현"[66]이자 주요한 '힘기르기'(empowerment)의 계기로 재현해왔음을, 가즈오 이시구로(Kazuo Ishiguro)의 소설이 장애는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삶의 기본 조건이라는 사실을 생명윤리의 문제와 함께 적실하게 다루고 있음[67]을 논한 갈런드-톰슨의 분석은 이와 같은 독해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

64) 김은정, 「'좋은 왕'과 '나쁜 왕'이 사라진 자리: 불온한 타자의 삶을 가능케 할 반폭력, 탈시설의 윤리」, 장애여성공감 엮, 『시설사회: 시설화된 장소, 저항하는 몸들』, 와온, 2020, 202-204면.

65) 전혜은, 앞의 글, 같은 면.

66) 로즈매리 갈런드-톰슨, 앞의 책, 222-223면.

67) Rosemarie Garland-Thomson, "Eugenic World Building and Disability: The Strange World of Kazuo Ishiguro's *Never Let Me Go*," *Journal of Medical Humanities* 38, 2017.

그러면서 동시에 유의해야 할 사실은, 이 과정이 '긍정적인' 장애 재현이 이루어진 사실을 점검하고 이를 고평하는 차원의 단선적인 결론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간 문화적 재현물을 다뤄온 장애학자들은, 긍정적인 장애 서사를 발굴하거나 몇몇 재현물 안에서 편견과 부정의를 잘 드러내는 표지로서 기능하는 장애를 강조하는 데에 그치지 않았다. 그보다는 이처럼 장애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하도록 만드는 "근본적인 권한"[68]은 무엇에 의해 (재)생산되는지를 심문하고, 재현된 장애가 통상 통용되는 독법으로 읽히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지를 논구[69]하는 등 재현 체계 전반과 관계 지으며 그 논의를 확장시켜 왔다. 요컨대 장애학은 재현물들을 분석함에 있어, 보다 구체적으로는 장애 인물들을 주요하게 형상화하는 소설들을 해석할 때, 정치한 동시에 폭넓은 독법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

그렇다면 둘째, 이 같은 분석의 과정을 통해 그간 이루어진 5·18의 소설화는 어떤 새로운 의미를 획득할 수 있을까. 또 적잖이 축적된 개별 작품론들을 포함한 기존 연구들과 본 논문의 작업이 차별화되는 지점은 어디에 있을까. 이는 앞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했듯, 5·18의 소설화가 장애의 재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실에 기초하여, 후자를 중심으로 전자를 바라보는 논의를 개진하는 바로 그 지점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본 논문의 작업은 비단 5·18을 조명하는 소설들이 장애 인물의 형상을 많이 등장시키고 있음을 단순히 확인하거나, 이들을 유형별로 나누어 어떤 재현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보다는 그간 5·18의 소설화가 장애 재현과 함께 이루어져 온 경향이 농후하다면 이를 추동한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이들 소설이 어떤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를 심문하는 것에 가깝다.

만일 수다한 장애 재현을 5·18 체험에서 기인한 피해와 고통을 공표한다

---

68) David T. Mithchell and Sharon L. Snyder, *Narrative Prosthesis: Disability and the Dependencies of Discourse*,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0, p. 59.

69) 아토 퀘이슨(Ato Quayson)은 그 까닭을 문학 텍스트가 장애를 재현할 때 빚어지는 '미학적 불안감'(aesthetic nervousness)에서 찾은 바 있다. 퀘이슨에 의하면 장애 재현은 "궁극적으로 문학적 영역을 초월해서 그 영역에 흡수되지 않으려 하는 효력"(아토 퀘이슨, 손홍일 옮김, 『미학적 불안감』, 한국장애인재단, 2016, 63면.)을 갖는데, 재현된 장애가 텍스트 밖 현실 사회에 실재한 윤리적 핵심(ethical core)과 지속적인 긴장 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리하여 문학이 그리고 있는 장애는 비단 텍스트 내부에서만 분석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것은 미학적인 해석을 거부하도록 추동한다. 요컨대 미학적 불안감은 "실제 세계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불안감과 동일 선상에 있는 것"(같은 책, 64면)이면서, 텍스트 안팎을 불안하게 오가는 윤리적 해석을 수반하는 난관 내지는 복잡성을 일컫는다.

는 측면에서만 분석한다면, 오히려 소설 밖 실재하는 체험자들의 경험을 단순화시키는 동시에 소설이 그리고 있는 다양한 장애 인물들의 몸과 삶을 비극적인 그것으로만 귀결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본론에서 다룰 일군의 소설들은 모두 5·18을 통과하면서 손상된 몸과 장애화된 삶을 체현한 인물들을 기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그 구체적 양상은 제각기 다르다. 이 사실은, 그동안 한국소설이 5·18이 한국 사회 구성원들에게 미친 다양한 영향과 더불어 개개인의 삶에 있어 5·18이 갖는 의미들의 복잡성을 잘 드러내 왔음을 방증한다.

그러나 이들을 "육체적·정신적 다름을 열등함의 근거로 간주하려는 예술을 포함한 모든 문화적 믿음과 태도의 본질"[70]을 드러내는 읽기의 과정을 통해 바라본다면, 어쩌면 그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기실 장애 재현의 무관심을 공통분모로 삼은 결과로서 제출된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이 밝혀질 수 있다. 그럴 때라서야 장애 인물들의 형상화와 함께 이루어진 5·18의 소설화가 갖는 의미들의 자장이 더욱 넓어질 것이며, '5·18소설'에 대한 논의가 단일한 결론으로 낙착되는 것을 경계할 수 있을 것이다. 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기실 5·18을 서사화한 모든 소설이 장애 재현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한 것만은 아니었다. 몇몇 소설은 손상된 몸과 장애화된 삶의 제시와 함께 자칫 추상적 차원에 머무를 수 있는 고통을 예각화하기도 했으며, 장애 인물을 그야말로 서사의 '중심'인물로 위치시킴으로써 새로운 장애 재현의 윤리를 모색하기도 했다.

그동안 한국소설은 5·18이 내장하고 있는 다층적인 의미들을 망각, 퇴색시키지 않기 위해 "여러 개의 5월들"[71]을 만들어왔고, 그 범주는 "재현=대의=표상되지 않아 온 존재들의 힘과 연결되고 확장되"[72]면서 점차 넓어졌다. 5·18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5·18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그것이 제도화되는 현실로 기억되는 '포스트-광주' 세대 작가들은, 일종의 '아포리아'에 직면함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새로운 감수성이나 정념"[73]을 소설에 기입해오기도 했다. 이 모든 것들은 5·18의 요청에 대한 재현의 응답, 바꿔 말해 거듭 현재화되면서 그 의미가 갱신되는 5·18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온 결과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논의가 담당해야 할 몫은, 다채롭게 이

70) 손흥일, 앞의 글, 12면.
71) 김형중, 「『봄날』 이후-광주항쟁 소재 소설들에 대한 단상」, 앞의 책, 112면.
72) 김미정, 「미끄러지고, 다른 힘을 만들고, 연결되는 것들-2020년에 생각하는 '5월 광주'와 문학의 방법들」, 『문학들』 2020년 봄호, 40면.
73) 김형중, 「33년, 광주 2세대의 아포리아」, 『후르비네크의 혀』, 문학과지성사, 2016, 20면.

루어진 재현에 걸맞춰 여러 개의 해석틀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과정을 이행하기 위해, 본 논문은 '5·18소설'이 장애를 재현해 온 국면이 갖는 문제성과 양산하는 효과들을 논구한다. 이 같은 작업은 어떻게든 피해와 고통을 증언 및 고발하는 것이 시대적 책무로서 요청되었던 시대적 맥락을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보다는 오히려 그간 여러 차원의 논의들이 괄호에 가두었던 장애라는 키워드를 쟁점화하면서 '5·18소설'들에 새로운 맥락을 부여하는 것을 시도한다. 그리하여 본 논문의 작업은 논의의 초점을 다소 옮겨오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5·18소설'을 읽는 또 다른 독법을 벼리는 주요한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제2장 몸에 새겨진 ‘정확한’ 역사

제1절 목격자-되기의 수사학

그렇다면 장애 재현을 중심에 둔 5·18의 소설화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왔을까. 전술한바 한국소설은 장애를 5·18 체험의 심각성과 지속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지로서 기입해왔다. 어떤 일관된 경향성을 포착할 수 있을 만큼,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5·18의 소설화는 많은 장애 인물들의 형상화와 함께 진행되었다. 특히 장애 재현은 1980년 5월 이후의 삶과 현실을 조명하는 소설들에서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이들 소설은 서로 다른 5·18의 경험들을 소설화하지만, 모두 손상된 몸과 장애화된 삶을 서사 전면에 내세우면서 5·18 이후의 삶이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많은 변화를 거듭했는지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한편 이 같은 소설들의 전략은, 비단 5·18 체험의 심각성과 지속성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만 의의를 갖지 않는다. 소설 밖 실재하는 피해와 고통을 쟁점화하면서 5·18이라는 사안이 갖는 중요성을 공표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주의를 기울일 만한 지점임엔 분명하지만, 보다 중요하게 분석되어야 할 것은 이들 몸과 삶의 배치가 내장하고 있는 의미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어떤 ‘정확성’과 결부되어 있다. 이때 정확성이란, 5·18을 사실과 다르게 구성해 온 각종 유언비어와 소문, 그리고 일방적인 정보의 통제 아래 이루어진 왜곡과 부인의 정치가 갖출 수 없는 자질을 일컫는다.

기실 5·18을 통과한 사회 구성원들이 체현한 손상과 장애는, 그 자체로 무차별적인 폭력이 있었음을, 엄혹한 봉쇄와 고립이 있었음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근거이다.[74] 또 피해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 폭력의 직접 당사

---

74) 그러나 결코 간과해서 안 될 것은, 5·18의 구체적 실상을 정확하게 입증하는 이들의 몸이 사실 증명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요소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는 오혜진이 국립 5·18민주묘지의 무수한 봉분과 영정사진들의 배치가 파급하는 정치적·감각적 효과를 논하면서 언급한 어떤 ‘서늘함’과도 연결된다. 이때 서늘함은 방문자가 “누군가의 신체가 그것과 연루된 온갖 사회적 관계들이 소거된 채 오직 ‘그날-거기-있었음’이라는 단 하나의 맥락만을 간직한 채로 전시”(오혜진, 「구겨버린 입장권-소수자의 존재론과 역사적 아카이브, 그리고 ‘퀴어링(queering)’」, 『문화과학』 2019년 겨울호, 269면.)되고 있음을 알아차릴 때 감각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유해를 채 찾지 못한 까닭에 일군의 가묘들로 채워진 ‘행방불명자 묘역’을 맞닥뜨릴 때 느껴지는 어떤 예감, 다시 말해 “특정 역사를 개별자의 신원으로 번역·재현하려는”(같은 글, 270면.) 국가의 기획이 끝내 미완으로 남을 것이라는 판

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두방송과 유언비어 등에 의해 집합적 공포와 무력감·죄책감, 집단적 오명과 함께 상징적·문화적 폭력을 겪었던 목격자와 광주시민 등 지역사회 거주자의 범위”[75]에까지 걸쳐 있음을 고려한다면, 그것은 피해 경험의 공론화를 추동시킬 수 있는 주요한 기제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이들의 몸과 삶을 중심으로 5·18을 재구성해 온 소설들은, 사안의 엄중함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실제를 증언하고 고발하는 역할 모두를 수행했다는 의의를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소설들이 5·18 체험으로부터 비롯된 손상과 장애가 지시하는 ‘정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까닭에, 소설 내 장애 인물들에게 매우 고정된 역할만을 부여해왔다는 사실에 있다. 인물들의 몸과 삶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형상으로, 그 어떤 생활도 구축하지 못하는 국면에 놓인 것으로만 제시되는 데에 그친다. 그리하여 인물들의 삶의 다양한 측면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가려지고, 미래를 개진할 수 있는 가능성은 회수된다.

해당 절에서는 이 같은 재현을 수행하고 있는 몇몇 소설들을 검토한다. 무엇보다도 이들 소설은 장애 인물을 화자/서술자에 의해 일방향적인 ‘목격’[76]의 ‘대상’으로만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 논의가 요구된다. 그리고 이 같은 일방적인 시선의 송출은 장애 인물을 ‘타자’의 자리에 할당한다. 그 까닭에 장애는 ‘비정상적’인 몸과 삶의 양태를 지시하는 은유로서만 소비되

단과 교착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5·18이라는 과거를 오늘날 가장 직접적이고 유일하게 증명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수행된 전시와 배치는, 오히려 몸들의 개별성을 무마시킬 수 있는 한편 어쩌면 그것이 완료될 수 없는 기획일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아울러 몸이 사건을 증언하는 ‘유일한’ 요소라고 전제하는 것은, ‘팩트로 말하라’는 부인 세력의 ‘교활한’ 전략에 내장된 인식 구조라는 점 역시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할 사실이다. 이들 요구는 “상대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시도되는 가장 교활한 통치 전략”(같은 글, 274면.)이기 때문이다.

75) 김명희, 「5·18 집단트라우마 연구방법론과 새로운 진단 기준-과거 청산의 과학사회학을 향하여」, 『경제와사회』 제130호, 비판사회학회, 2021, 363면.

76) 해당 절에선,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눈’이라는 감각 기관을 통해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직접 바라보는 것을 일컫는 ‘목격’이라는 단어를 한정적으로 사용한다. 기실 무엇을 보는 행위는, 비단 눈이라는 특정한 기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토 아사(伊藤 亞紗)가 논한바, 인간의 몸은 저마다 고유한 ‘로컬 룰’(local-rule)을 지니고 있으며, 그 까닭에 어떤 보편적인 감각 및 인지의 과정을 상정하는 행위는 그 절차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이를테면 시각장애인의 삶을 설명할 수 없다. 즉 ‘보다’라는 행위 또는 감각을 눈이라고 하는 몸의 일부분하고만 연결 짓는 것은, 눈 이외의 다양한 감각 기관으로 그것을 경험하는 수많은 존재를 지운다. 해당 절에서 ‘목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장애 인물의 몸과 삶이 다른 인물들에 의해 관찰의 대상으로만 등장하는 소설들을, 또 그 양상이 두 눈으로 직접 바라보았다는 사실의 강조와 함께 이루어지는 맥락을 비판적으로 논구하기 위함이다. 수다한 몸들이 경험하는 고유한 감각들을 주요하게 다루는 논의로는 이토 아사, 김경원 옮김, 『기억하는 몸』, 현암사, 2020. 참조.

고 만다. 이를테면 백성우의 「불나방」(한승원 외, 『부활의 도시』, 인동, 1990.)은 다음과 같은 장애 인물 '형'의 형상을 그린다.

> 그는 반 병신이 되어 있었다. 그동안에 그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는 그의 풀려진 눈동자만 보아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
> 우리는 뒷방 아랫목에 형이 누울 자리를 마련했다.
>
> 장독(杖毒)이 풀리면 곧 회복하려니 했다. 그러나 형의 고통은 갈수록 심해졌다. 결국 그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미 때늦은 조치였다. 골수염이라고 했다. 뼛속이 썩어들어가는 병이었다. 그동안 방치해 둔 것이 큰 실수였다. 그러나 형이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원초적인 이유를 따진다는 건 사실 무의미했다.
>
> 몇 달 안가서 형은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다. 잘라냈다기보다는 썩어서 뽑아낸 것이었다.
>
> 고통의 나날이었다. 고통 때문에 형의 성질부림은 갈수록 난폭해져갔다. 형수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며 갖은 욕설을 다 퍼부어대기도 하고 손에 잡히는 물건을 닥치는 대로 집어 던지기도 했다. 그러다가도 진통제 주사를 한 대 맞고 나면 두세 시간 동안은 조용했다. 금방 딴 사람이 되어 형수의 손목을 잡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집안 걱정을 하기도 했다. 때로는 오월의 그날들을 떠올리며 입가에 미소를 짓기도 하고 주먹을 부르르 떨며 터무니없이 분개하기도 했다.[77]

5·18 체험 이후 "고통의 나날"(306면)을 보내고 있는 '형'의 삶을 동생인 '나'의 시선으로 그리는 「불나방」은, 그간 소설이 장애 인물들을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특별히 강조해왔는지를, 이들의 '어떤' 몸과 삶을 필요로 했는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소설이다. 그것은 단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장애 인물들의 손상된 몸, 일말의 가능성도 체현하지 못하는 비극적인 삶이었다. 그러나 소설의 이 같은 재현을 두고, 장애를 인간 생애주기 내 누구든지 맞닥뜨릴 수 있는 "몸과 세계 사이의 상호 요청과 응답"[78]의 일환으로서 바라보지 않고 있음을 문제 삼는 것은, 5·18이 갖는 특수한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비판일 것이다.

오히려 구체적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은, 장애를 재현하는 소설의 문법이

---

77) 백성우, 「불나방」, 한승원 외, 『부활의 도시』, 인동, 1990, 306-307면.

78) Rosemarie Garland-Thomson, "Disability Bioethics: From Theory to Practice," *Kennedy Institute of Ethics Journal*, Vol 27, No 2, 2017, p. 328.

파급하는 효과들이다. 이는 곧 인용된 위의 대목처럼 “반 병신”(같은 면)이 되어버린 장애 인물 ‘형’이 화자/서술자 ‘나’에 의해 관찰의 대상으로만 재현될 때, 장애 인물이 자신의 몸과 삶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목소리를 부여받지 못하게 될 때, 어떤 특성이 돌출되고 은폐되는지를 분석하는 작업과도 같다. 일례로 ‘형’의 몸과 삶이 고통으로 점철되게 된 근본적인 계기를 호명하는 것이 “무의미”(같은 면)하다면, 이와 반대로 ‘나’ 또는 소설 밖 작가에게 있어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논증해보는 절차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어느 해안 초소에서 전경으로 군복무 중인 ‘나’는, 5·18 이후 발현한 갖은 병세에 좀처럼 차도가 보이지 않았던 ‘형’이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는다. 그런데 ‘나’에게 있어 ‘형’의 위독을 알리는 전보는 어쩌면 “다행한 일”(298면)로도 여겨지는데, “전혀 소생할 가망이 없는, 시체나 다름없는 사람에게 시달리며”(같은 면) 살아온 ‘형수’와 ‘조카’의 모습이 함께 떠오르는 까닭이다. 아울러 소설은 1980년 5월 당시 ‘나’와 ‘형’을 비롯한 가족들이 광주에서 경험했던 일련의 일들을 ‘나’의 회상을 통해 그린다. 기실 ‘형’은 “두 차례의 죽음을 경험했다.”(303면) “총을 버리고 투항하라”(같은 면)는 계엄군의 명령에 “창자가 터져 뒹구는 동지의 시체들”(같은 면)을 뒤로 하고 힘없이 총을 내려놓았다는 데서 비롯된 자존심의 죽음, 석방을 위해 자신이 불순분자였음을 인정하며 앞으로 불순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며 맞닥뜨린 자존심의 또한 차례의 죽음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나’는 전보에서 짐작되는 ‘형’의 머지않은 죽음에, “그 누구도 이제 형을 다시 죽이진 못할거”(같은 면)라며 씁쓸한 안도를 느낀다.

이처럼 ‘형’의 죽음은 ‘나’에게 있어 일찍이 예비된 성질의 것이었다. 이 같은 인식은, 소설이 ‘형’의 형상을 “처음부터 죽은 시체나 다름없었”(302면)던 것으로, 병상에서 “괴물의 울음소리 같은 비명”(307면)을 지르고 “끈적한 피고름”(같은 면)을 쏟는 모습으로 재현하는 데에 있어 주요한 근거가 된다. 나아가 소설은 ‘형’에게 단 한 차례의 발언만을, 즉 입대하는 동생에게 “나 때문에 괴로워 말고 잘 다녀오거라. 그러고 그 동안에 혹……혹시 내가 죽거든 니 형수허고 병섭이 잘 좀 돌봐 다오. 부탁이다.”(304면)와 같은 유언 아닌 유언만을 허용하며, 다른 발화의 가능성을 차단한다. 이에 따라 5월 27일 새벽까지 도청에 남았던 ‘형’이 체험했던 5·18의 여러 국면들, 이후 ‘형’이 체현했을 다양한 삶의 양태들은 모두 “무의미”(306면)하다는 ‘나’의 판단 아래

미끄러진다. 서사 표면에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한 쪽 다리가 통째로 잘려나간 엉덩이”(307면)로 대표되는 ‘형’의 손상된 몸, 일평생을 병상에서 ‘형수’의 돌봄을 받기만 하는 환자로서의 삶뿐이다.

중요한 것은, 서사 말미에 이르러 ‘형’의 삶이 특정한 대상과의 대비와 함께 다시금 환기된다는 사실이다. ‘불나방’과의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때 나방은 “탐조등의 불빛을 거슬러 올라오는 흰 나방들”(311면)을 일컫는 한편 ‘나’에 의해 “찍고 칼로 베어도 쓰러지고 피 흘리며 달려드는 성난 군중”(같은 면)이라는 의미를 획득하는 존재이다. ‘나’는 우연히 무리를 이루며 날아드는 나방들을 본다. 그리고 그것은 공교롭게도 공교롭게도 근무 도중의 선잠에서 꾸었던 꿈의 일부인 ‘형’의 장례식 장면과 겹쳐진다. 영정사진에 담긴 ‘형’의 얼굴은 실제와는 매우 대조적으로 “단아한 모습으로 입가에 모습을 띠”(310면)고 있는 한편, 도청 앞 광장의 “수십만의 군중이 상여를 에워싸고 행진을”(같은 면) 한다. 그러자 돌연 상무관에서 전투경찰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장례를 방해하고 5·18을 연상케 하는 진압 작전을 수행한다. ‘나’는 이들에게 ‘형’을 죽이지 말라고 “목이 찢어지도록”(311면) 소리를 지르고, 부서진 영정사진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은 ‘형’의 얼굴을 바라보다 꿈에서 깨어난다.

그리하여 잠에서 깬 ‘나’는 “끊임없이 날아와 뜨거운 반사경에 몸을 부딪”(같은 면)치는 나방들을 ‘형’의 장례에 함께 참여했던, 5·18 당시 폭력에 맞서 항거했던 군중으로 호명한다. 군중으로의 치환은 5·18이 결코 패배로 귀결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동시에 이들이 체현하는 ‘생명력’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청하는 작업과도 같다. 문제는 이들 과정이 모두 ‘형’의 ‘실패’와 군중의 ‘성공’이 대비되면서 이루어진다는 데에 있다. 5·18 체험 이후 삶 전반이 죽음으로 점철되었던 ‘형’의 형상은 죽음을 앞두고서야, 즉 예비된 죽음이 꿈속 실제 그것으로의 전화가 이루어지질 때라서야 어떤 긍정적 의미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처럼 군중의 연대가 형성되는 현장에서 살아있는 ‘형’의 모습은 결코 출현하지 않는다. 그곳에는 “산산이 부서진 유리조각 속”(같은 면) 영정사진의 얼굴만이 남아있다.

요컨대 「불나방」은 장애 인물 ‘형’을 ‘나’에 의한 관찰의 대상으로서만, 비극만을 체현하는 인물로만 단선적으로 형상화한다. 비록 소설이 “광주는 이제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310면)라는 ‘나’의 발화를 통해 5·18이 한국사회 모든 구성원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는

있지만, 이것 역시 다분히 '형'이라는 장애 인물을 매개로 하여, 장애를 비극 그 자체로 구성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유달리 입체적이지 않은 장애 인물 '형'의 몸과 삶은, 5·18의 비극성을 강조하기 위해 서사 전면에 등장했다가 5·18의 역사적 의미를 공표하는 군중의 역동적인 모습이 삽입되자 이내 곧바로 "시체가 타는 소리"(312면)와 함께 영원히 퇴장하고 만다.

백성우의 「불나방」이 화자/서술자의 일방적인 시선의 송출과 함께 장애 인물 '형'의 삶을 주변 인물들과의 그 어떤 관계도 구축하지 못하는 것으로 제시했다면, 송기숙의 「제7공화국」(『한국문학』 1988년 12월호.)은 마을 구성원들과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꾸리는 것처럼 보이는 "정신이상자"(165면) '윤만'을 형상화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텍스트이다. 여기서 장애 인물 '윤만'이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다고 단정하지 못하는 까닭은, 소설이 줄곧 '윤만'의 정신적 손상과 이에 따른 "도착"(같은 면)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설은 '윤만'의 다채로울 일상을 좀처럼 조명하지 않는다. 유독 부각시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삶의 일면이다.

> 요사이는 병세가 웬만한 편이어서 몸가짐이며 말하는 것이며 광주 항쟁 부분 말고 다른 일에는 숫제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멀쩡하던 그가 광주 부분에 엉뚱한 소리를 하면, 그는 으레 그러거니 할 뿐 그것으로 웃거나 놀려대는 일은 거의 없었다.
>
> 그는 광주부분에만은 어떤 환상의 세계를 헤매고 있는 것 같았다. (…) 그러니까, 정신에 이상이 생기되 전부가 이상이 생긴 것이 아니고, 일테면, 육신의 경우 온몸이 멀쩡하면서도 다리나 팔에 이상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광주 부분만 이상이 있는 것이다.
>
> 윤만이는 그 자신이 시민군 총사령관이 되어 시민군을 이끌고 공수단을 쳐부순다는 것이었다. 그가 첫 번째 퇴원했을 때까지는 낯선사람이 나타나면 공수단이 나타났다고 벌벌 떨며 동네사람들더러 피하라고 법석이었으나, 두 번째 퇴원을 하고나서부터는 어찌 된 일인지 그게 뒤바뀌어 자기가 시민군 총사령관이 되어 되레 시민군을 이끌고 공수단을 쳐부순다는 것이었다.[79]

1980년 5월 당시 광주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던 '윤만'은, 광주의 참상을 전해 들은 가족들의 수소문에도 자취를 보이지 않다가 돌연 "공수단이 몰

79) 송기숙, 「제7공화국」, 『한국문학』 1988년 12월호, 169-170면.

려오요. 전부 피하시오."(166면)라는 고성과 함께 고향에 나타난다. 어릴 적부터 모든 면에서 두각을 드러내 왔기에,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 공수부대에 대한 공포에 못 이겨 "손을 비비며 애원하는 윤만의 모습은 처참하기 짝이 없었"(167면)으며, 그 누구도 "설마 윤만이가 미쳤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같은 면)다. 그러나 이내 사람들은 허벅지에 "구데기"(168면)가 있을 만큼 "온몸에 여기저기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같은 면)던 '윤만'의 처참한 몰골을 마주하자, 점차 '윤만'이 맞닥뜨린 사태의 심각성을 받아들인다. 고향으로 돌아온 '윤만'은 정신병원에 두 차례 입원하는 등 의료적 치료를 받아보기도 하지만, 인용된 위의 대목에서 알 수 있듯 5·18 이전의 삶으로 '완전히' 돌아가지 못한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다른 정신은 거의 멀쩡한데, 어찌된 일인지 광주항쟁하고 관계된 부분만은 터무니없이 도착이 되어 있"(165면)다.

한편 이제 마을 사람들은 '윤만'의 '도착' 증세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아이들은 "되레 그를 존경마저 하는"(171면) 양상을 보인다. 구성원들 모두 '윤만'이 부여한 "큼직큼직한 감투"(170면)들, 이를테면 기동타격대장,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등의 직명을 너스레를 놓으며 받아들이는 한편, 느닷없이 보이는 '윤만'의 돌발 행동들을 "으례 그러거니"(178면) 하며 문제삼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윤만'은 지난 새마을사업 당시 고된 노동을 수행했던 데에 대한 구성원들의 앙금이 채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금 마을정화사업의 일환으로 "동네 앞 담에다 뺑끼칠"(180면)을 하라는 군청의 지시를 둘러싼 갈등 국면을 직접 해결하는 '주체성'을 보이기도 한다. 사업의 성과를 "순시"(185면)하기 위해 도지사 일행이 마을을 방문할 때 맞춰, '윤만'은 이장의 집에 있는 마이크를 통해 "살인마 일당이 몰려오고 있"(199면)으니 '시민군'들은 "모두 완전무장하고 전투태세로 들어가라"(같은 면)며 소리친다. 그러자 "긴가민가하면서도 기동타격대란 소리에 정신이 나간 것 같"(200면)은 도지사 일행은 마을을 황급히 빠져나가고, 계획된 순시는 이내 취소된다. 그리고 소설은 "살인마 일당을 모두 완전퇴치했다"(202면)는 '윤만'의 선언과 더불어 '윤만'의 행동에 마을 사람들 모두 만족을 표하는 장면으로 갈무리된다.

그렇다면 「제7공화국」은 이른바 '치유의 윤리학', 다시 말해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심리적 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고향'이라는 공동체성이 살아있는 삶의 터전"[80]을 고안하고 있는 소설이자, 장

80) 조은숙, 「송기숙 오월 소설에 나타난 작가의식」, 『민주주의와 인권』 제8권 3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8, 226면.

애 인물 '윤만'의 재현 역시 아무런 문제성을 갖지 않는 텍스트로 평가할 수 있을까. 얼핏 이 같은 긍정적 의미화는 「제7공화국」에 부합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마을 공동체와 '윤만'의 삶의 제시가 무엇을 배제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이들을 선뜻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만은 없다. 이는 곧 광주와 관련한 기억들에 있어서만 '도착'을 가지고 있을 뿐 "몸가짐이며 말하는 것이며 광주 항쟁 부분 말고 다른 일에는 예사 사람과 거의 다름이 없"(169면)다는 '윤만'의 형상에 면밀한 주의가 요구되는 까닭이기도 하다.

전체 서사에서 5·18은 '윤만'이 정신적 손상을 입게 된 직접적인 계기이자, 그가 '예사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일종의 준거점으로 작용한다. 문제는 후자의 설정에서 발생한다. 즉 소설은 다른 인물들, 이를테면 마을 구성원들과 비교했을 때 '윤만'이 별반 다르지 않음을 언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윤만'의 '다름'만을 강조한다. 그 까닭에 '윤만'은 줄곧 '사령관'으로서만 묘사되며, 모든 발화는 5·18 경험으로 인한 '병세'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령관'으로서의 명령으로만 제시된다. 바꿔 말해 「제7공화국」은 '윤만'이 마을 공동체에서 '예사 사람'으로 인식되고 주변 인물들과 원만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언질을 제시하지만, 서사는 오히려 '예사 사람'과는 너무나도 다른 '윤만'의 발화와 행위들만을 강조하면서 진행된다. "광주 부분에만은 어떤 환상의 세계를 헤매"(같은 면)는 '사령관'이 아닌 '윤만'의 모습들, 이를테면 '윤만'이 꾸리는 복잡다단할 삶의 국면들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소설 결말에 이르러 마을 사람들과 군청 간의 갈등을 단번에 해결하는 '윤만'의 모습 역시, 극심한 정신적 손상을 체현한 '사령관'으로서의 삶만을 조명한 결과와 다름없다. 소설 내 다른 인물들로 하여금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유일하게 5·18을 직접 체험했으며, 마을에서 발생한 문제를 종식시키기에 이르는 엄연한 중심인물 '윤만'의 형상은, 오로지 '환상'의 세계를 헤매는 '정신이상자'라는 단 하나의 표식으로만 설명된다. 만일 '윤만'의 삶을 장애라는 요소를 제하고 설명하기를 시도한다면, 그 시도는 분명 실패에 이를 것이다. 「제7공화국」은 '윤만'이 평소에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5·18 당시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지, 마을에서 빚어지는 일련의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불나방」과 「제7공화국」은 5·18 체험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손상을 입은 장애 인물들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춘 인물로 형상화하고 있으나, 이

들을 줄곧 '타자'의 자리에 위치시킨다. 오카 마리(岡真理)가 지적한바 타자화의 과정이 주체인 "내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세계에서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을-바꿔 말하면 세계의 다른 가능성을-망각해버리는"[81] 것이라면, 두 소설의 장애 인물 형상화 방식 역시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소설 문면에서 이들 인물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몸 또는 일상과 불화하는 삶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은 부재하다. 이 같은 형상화는 5·18 체험의 심각성을 공표하고자 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했던 소설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이를 뒤집어보면 '기여'의 측면에서만 장애 인물, 그리고 장애라는 특성이 동원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두 소설은 5·18의 소설화와 장애 재현이 갖는 관계의 함의를 다음과 같이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즉 소설은 5·18의 엄중함을 가장 효과적으로 서사화하기 위해 장애 인물을 필요로 했다. 그리고 이때 요구되는 형상은 극심한 피해를 입증하는 몸과 다른 인물들에 의해 대신 설명되는 삶을 체현한 존재에 한정한 성질의 것이었다.

아울러 지적되어야 할 사실은, 두 소설이 이들 인물을 자신의 삶에 대해 그 어떤 것도 발화할 수 없도록 형상화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손상된 몸이 비단 '피해자'와 '생존자'의 몸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증인'(witness)의 그것으로까지 확장하여 다뤄져야 함을 논한 아서 프랭크(Arthur W. Frank)의 다음과 같은 논의는 주요한 참조점이 된다. 프랭크에 의하면 손상된 몸은, 손상이라는 '사건'을 맞닥뜨린 피해자와 생존자의 그것에만 갇히지 않는다. 이는 기실 이들의 몸이 그간 변화해 온 스스로의 몸의 경과와 삶의 궤적을 '직접' 바라본 주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리하여 이들이 수행하는 발화는 일종의 '증언', 즉 이들이 바라봐온 것에 청자를 연루시키는 매우 중요한 소통의 통로가 된다.

만일 그것이 고통에 대한 발화일 경우 "청자는 화자의 고통 받는 몸인 증언을 받아들이기 위해 잠정적으로 고통 받는 몸으로서 존재해야"[82] 하므로, 이 같은 장면은 "체현된 화자의 존재로의 열림"[83]을 성취하는 사건이 된다. 그런데 앞서 살펴봤듯 줄곧 타자로 위치 지어지는 동시에 무엇도 발화하지 못하는 「불나방」의 '형'과 「제7공화국」의 '윤만'은, 화자/서술자에 의한 '목

81) 오카 마리, 이재봉·사이키 가쓰히로 옮김, 『그녀의 진정한 이름은 무엇인가』, 현암사, 2016, 268면.
82) 아서 프랭크, 최은경 옮김, 『몸의 증언』, 갈무리, 2013, 277면.
83) 위의 책, 같은 면.

격'의 대상이 될 뿐 좀처럼 자신의 몸과 삶의 궤적을 돌아보는 증인으로 도약할 수 없다. 바로 그 까닭에 이들이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에 있어 타자의 위치에서 벗어날 가능성, 장애라는 표지가 삶의 나머지 면들을 모두 지워버리는 일련의 과정을 지양할 수 있는 절차는 더욱 마련되기 어렵다.[84]

그러나 5·18을 서사화한 소설들이 모두 장애 인물에게 발화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몇몇 작품들은 장애 인물들로 하여금 자신의 5·18 체험과 더불어 현재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도 한다. 또 그것은 단순히 다른 인물들의 말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서사를 구축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물론 이처럼 발화가 이루어지는 대목에서도 장애 인물의 고통은 서사 전면에 드러난다. 자신이 경험한 일련의 곤경들을 직접 술회하고 있어, 오히려 그 고통은 인물이 체현하는 당사자성과 함께 더욱 두드러진다. 그런데 이때 고통의 강조가 갖는 의미는, 앞선 「불나방」과 「제7공화국」의 그것이 파급하는 효과와는 분명 다르다. 고통이 다른 이들에 의한 타자화와 전형화의 과정을 거치며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 인물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성질의 것으로서 구체화될 터이기 때문이다.[85] 그렇다면 장애 인물들이 발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는 소설 모두를 긍정적인 의미를 발산하고 있는 텍스트로 의미화할 수 있을까. 그리하여 이들 인물은 곧바로 프랭크가 논한 '증인'이라는 적극적인 위상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일까.

---

84) 한편 소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장애 인물을 재현하는 것은, 소설 밖 실재하는 5·18 체험자들에게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체험자들의 삶을 일면적으로만 바라보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된다. 일례로 5·18 체험자들의 5·18 경험을 다른 당사자들, 일반 시민과 공유하는 장을 형성하기 위해 광주트라우마센터에서 고안한 증언치유 프로그램 '마이 데이'(My day)에 참여한 사람들의 회고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5·18 이후 겪었던 곤경 가운데 하나로 자신의 경험을 말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꼽는다.(광주트라우마센터 편,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증언치유프로그램 '마이데이(MY DAY)' 기록집 Ⅰ』, 광주트라우마센터, 2015. 참조.) 기실 백성우의 「불나방」과 송기숙의 「제7공화국」이 그리는 장애 인물의 '말할 수 없음'의 상태는, 5·18 체험이 좀처럼 정갈한 언어로 설명될 수 없는 성질의 것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소설 밖 실재의 곤경을 아우르고 있는 최윤의 「저기 소리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와는 분명 변별된다. 두 작품은 5·18 체험자들의 발화를 어렵게 만드는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들의 발화 (불)가능성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동시에 그것이 내장하는 의미들에 별다른 관심을 표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85) 이 표현은 다음과 같은 수나우라 테일러(Sunaura Taylor)의 문장을 참조한 것이다. "장애인들이 자신의 고통과 "원치 않는" 순간들에 대한 소유권을 쥐고 스스로의 서사를 말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비장애 신체의 세계가 우리 삶을 틀 짓고 전형화하는 방식을 통하지 않고서 고통을 겪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이 고통은 우리 자신의 다른 경험들에 대한 부정을 뜻하지 않는다."(수나우라 테일러, 이마즈 유리 옮김, 『짐을 끄는 짐승들』, 오월의봄, 2020, 251면.)

정찬의 「완전한 영혼」(『문학과사회』 1992년 가을호.)은 그것이 결코 단번에 성취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징후적으로 보여준다. 5·18 당시 공수부대가 휘두르는 진압봉에 두개골과 달팽이관의 심각한 손상을 입은 이후 “귀가 들리지 않”(863면)게 된 ‘장인하’의 삶과 죽음을 그리는 「완전한 영혼」은, 5·18의 경험과 이후의 몸과 삶의 변화를 당사자인 ‘장인하’의 발화를 통해 제시하고 있어, 「불나방」, 「제7공화국」과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현재 서울의 한 출판사에 다니며 교정 업무를 담당하는 ‘장인하’는, 1980년 5월 당시 광주에 있었던 일들을 직접 맞닥뜨리고 도청 “시체실”(890면)에서 시체 수습 과정에까지 참여한 바 있다. 그리고 ‘장인하’는 공수부대의 잔학한 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쥐고 있는 총과 몽둥이를 빼앗아야 한다고 판단했”(883면)다며 당시의 현장을 회상한다.

그런데 이 판단은 ‘장인하’에게 심각한 손상을 수반했는데, 막다른 골목에서 공수부대를 향해 “이상한 소리”(884면)를 지르며 총을 내려놓으라는 몸짓을 한 결과 총과 진압봉에 의해 “머리를 찍”(885면)힌 것이다. 자신이 군인들의 무기를 “빼앗을 수 있다고 믿었”(886면)지만 이 믿음은 군인들의 일방적인 폭력에 의해 배반되고, ‘장인하’는 이내 “소리의 착란 현상”(888면)을 경험하며 종국에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893면)게 된다. 한편 그에 의해 기술되는 체험들은 ‘장인하’라는 개인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손상을 입게 된 경위뿐만 아니라, 5월 21일부터 27일 사이 ‘시체실’과 상무관에서 바라보고 참여했던 일련의 일들까지 말해진다. ‘장인하’는 21일 공수부대가 퇴각할 때의 모습, 도청을 중심으로 한 도심의 풍경, 시체를 수습할 때 느꼈던 여러 감정, 27일 새벽 일각을 다투었던 엄중한 상황 등을 “나직한 목소리로, 때로는 떨리는 목소리로, 혹은 침묵으로”(881면) 말한다.

이처럼 소설은 ‘장인하’로 하여금 자신의 5·18 체험을 직접 발화하도록 함으로써, 삶의 다채로운 면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 5월이 찾아올 때마다 “무엇인가가 허물어지는 소리, 혹은 생명이 파괴되는 잔인한 소리들”(880면)이 들려오는 까닭에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으로 재현되는 ‘장인하’의 삶은, 비단 5·18로 말미암은 심각한 피해를 단순히 대리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소설은 그것의 구체적 원인을 지난 삶의 행적과 함께 파고든다. 바꿔 말해 「완전한 영혼」은, ‘장인하’를 중심으로 5·18을 통과한 데에 따른 손상과 장애화된 삶의 다양한 국면을 호명하는 동시에 이들에 대한 관심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시금 검토해야 할 것이 있다면, 장애 인물 '장인하'가 다른 인물들과 형성하는 관계이다. 만일 장애 인물의 발화를 통해 제시되는 자기만의 서사가 중요하다면, 그것을 누가 수신하는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나아가 소설은 이 대화의 과정에 어떤 맥락을 부여하고 있는지 역시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는 곧 '장인하'와 다른 인물들이 구축하고 있는 관계를 톺아보는 작업과도 같다. 그런데 이들 관계는 한쪽으로 매우 기울어져 있다. 이에 따라 '장인하'는 거듭 다른 인물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재)구성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다음과 같은 대목은 이를 잘 보여준다.

>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길이 있다. 이 길은 그야말로 천태만상이다. (…) 그런데 장인하는 나에게 어떤 길을 보여주었던가. 그것은 작은 오솔길이었다. 푹신한 흙과 풀이 있는 길, 상쾌한 바람이 있고, 풀의 사각거리는 소리가 있고, 한가함과 여유로움이 있는 길. (…) 장인하는 어린 아이였다. 오솔길 위에 서 있는 한 어린 아이에게 다가간다는 것. 그것은 한 사상가에게 다가가는 것과 확연한 차이였다.
>
> 상처가 있는 사람은 한이 있게 마련이다. 이 한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신의 힘이 될 수가 있고, 또한 타인을 향한 적대의 가시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장인하의 상처는 치명적이다.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 인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 비가 오는 소리도, 아이의 흥얼거리는 소리도, 투명한 현악기의 소리도, 인간의 발자국 소리도 듣지 못한다는 것. 참으로 끔찍한 유폐의 삶이지 않는가. 이 유폐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식물의 내음. 나는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상처가 만들어낸 한은 다 어디 갔는가.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는가. 아니면 정말 어린 아이의 영혼뿐인가.[86]

기실 '장인하'는 소설이 주요하게 조명하고 있는 인물임에는 틀림없지만, 서사를 직접 이끄는 인물은 '장인하'를 관찰하고 그의 이야기를 듣는 '나'이다. 그리고 두 인물과 주요한 관계를 구축하는 인물, '나'의 대학 선배이자 '장인하'의 도움 덕택에 죽음을 모면할 수 있었던 '지성수'가 있다. 1987년 12월 대선 정국 이후 "변혁에의 닫힘"(860면)을 체감한 후 "잔인한 시간"(859면)을 보내고 있던 '나'는, '지성수'의 권유에 따라 출판사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곳에서 '나'는 '장인하'를 만난다. 귀가 들리지 않음에도 교정 업무에 매우 능숙하다는 사실, 아울러 '지성수'의 추천에 의해 '장인하'가 출판사에

86) 정찬, 「완전한 영혼」, 『문학과사회』 1992년 가을호, 872-873면.

근무할 수 있었다는 사실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장인하에 대한 나의 관심은 각별할 수밖에 없”(866면)다.

그런데 이 관심은 인용된 위의 문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 줄곧 예외적이고 비범한 존재로서 ‘장인하’를 강조하는 과정과 일치한다. ‘나’에 의해 ‘장인하’는 분노와 한을 모르는 순수한 “어린 아이”(873면)로, “너무나 단순해 투명해 보일 지경이거나, 아니면 투명함이 지나쳐 단순해 보이”(867면)는 존재로만 표상된다. 그리하여 ‘장인하’가 ‘나’에게 5·18 체험과 관련한 일들을 말하려고 할 때, “지독한 무구”(876면) 이면의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예상치 못했던 ‘나’는 당황한다. ‘나’는 처음부터 ‘장인하’를 “우리들의 좌절과 피투성이 역사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 그 역사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 절대적 순수 공간”(881면)에 거처를 마련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인하’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지성수’에게도 관철된다. 1980년 5월 당시 ‘장인하’가 막다른 골목에서 공수부대원들에게 총을 내려놓으라는 요구를 했던 바로 그때, 앞서 이들을 맞닥뜨린 이는 ‘지성수’였다. ‘장인하’의 고성과 몸짓으로 인해 이들의 ‘표적’은 ‘지성수’에서 ‘장인하’로 옮겨갔으며, 그로 인해 ‘지성수’는 물리적 폭력을 모면할 수 있었다. 이후 ‘지성수’가 학생운동의 핵심 지도자로 지명되어 수배자 생활을 전전할 때, 그에게 은신처를 제공했던 인물도 ‘장인하’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처럼 ‘장인하’에 의해 매우 큰 도움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 ‘지성수’ 역시 ‘장인하’를 ‘나’와 별반 다르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지성수’의 평가는 ‘장인하’를 더욱 예외적인 인물로 구성하는데, 그것은 “세계의 악을 모르고 있”(901면)는 “완벽한 무사상적 인간”(같은 면)이라는 호명으로 압축된다.

한때 변혁에의 사상을 한없이 믿었던, 다시 말해 “악에 대한 증오야말로 세계를 변혁시키는 힘이며 혁명의 원동력”(902면)으로 간주했던 ‘지성수’였기에, 악을 모르는 ‘장인하’는 예외적 존재일 수밖에 없다. ‘지성수’는 ‘장인하’가 맞닥뜨린 상황을 “참으로 끔찍한 형벌”(같은 면)이자 사회적 동물로부터의 “추방”(같은 면)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정작 ‘장인하’는 그 어떤 것에도 분노와 증오를 표출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지성수’는 ‘장인하’를 “식물적 정신”(같은 면)과 “백치적 무사상”(908면), 그리고 “수동적 단순성”(같은 면)을 체현하고 있는 인물로, 나아가 자신에게 “강인한 생명을 불어넣”(같은 면)어 준 “신의 존재”(같은 면)로 기억하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소설이 ‘장인하’의 형상을 제시한

의도는 자명해진다. 즉 소설은 '장인하'를 두 인물로 하여금 소위 '사상'에 경도되었던 과거의 날들을 반성하고, 아직 채 떨쳐내지 못한 죄책감을 씻어내도록 추동하는 일종의 '촉매'로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지성수'는 '사상'의 절대성을 맹신한 까닭에 "반성과 겸손을 끊임없이 부정"(908면) 했던 '운동가'로서의 자신의 행적이 정답이 아니었음을 알아차리는 한편, '나'는 잇단 고문에 굴복해 고문관들에게 고통을 멈추게 해달라고 호소했던 과거의 자신에 대해 느끼는 "치욕과 절망"(870면)을 반복적으로 표출한다. 이들의 번민을 '정화'시키는 존재, 이들이 찾는 어떤 희망을 대리하는 인물이 다름 아닌 '장인하'이다. 두 인물이 '장인하'에 이 같은 위상을 부여하는 과정은 일종의 '발견'이라 할 수 있는데, 이때 주요한 포착의 대상은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장애라는 표식, 그리고 사회로부터 '추방'당한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열패감 젖은 증오를 표출하지 않는 '무구함'이라는 성정이다. '장인하'를 회상함으로써 사유하는 인간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려"(859면)한다는 '나'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소설의 도입부, 돌연 교통사고로 인해 서사에서 퇴장한 '장인하'의 죽음을 회고하며 두 인물이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진할 것임을 다짐하는 결말부 역시 이 같은 맥락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이에 따라 5·18 체험과 더불어 자신의 몸에 대해 직접 발화하고 있어 주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었던 장애 인물 '장인하'의 형상은, '나'와 '지성수'에 의해 꾸준한 '목격'의 대상으로 위치지어짐에 따라 그 의의가 퇴색된다. 그리고 이 퇴색의 과정이 진행된다는 사실은, 「완전한 영혼」의 장애 재현에 대한 비판적 독해가 요구됨을 여실히 보여준다. 삶의 다양한 역사를 체현하는 것처럼 보였던 '장인하'의 형상이 주변 인물들의 일관된 평가와 겹쳐지면서, 그 다양성이 단일한 것으로 축소된다. 결국 소설이 조명하는 '장인하'의 삶은, 레나드 데이비스(Lennard J. Davis)가 언급한바 그 스스로 어떤 중요성을 갖지 못하고 오로지 "비장애 인물들을 "위해" 서사 안에 배치된다."[87] '장인하'가 부여받은 역할이 있다면, 그것은 '나'와 '지성수'의 "동정심과 공감 능력 발달에 도움을 주거나 "정상적인" 인물의 삶 내 어떤 문제에 대한 일종의 균형추"[88]일 뿐이다.

전술한바 소설은 '장인하'가 갖는 장애, 즉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87) Lennard J. Davis, "Crips Strike Back: The Rise of Disability Studies," *American Literary History*, Vol. 11, No. 3. 1999, p. 510.
88) *Ibid.*

지속적으로 강조하는데, 이 반복은 소설이 그를 퇴장시킬 때에도 이어진다. “트럭이 요란하게 클랙슨을 누르며 달려”(897면)오는데도 걸음을 멈추지 않아 “순식간에 트럭 속으로 빨려들었”(같은 면)다는 간단한 서술에서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듯, ‘장인하’의 장애는 죽음의 순간에서도 결코 누락되지 않는다. ‘나’와 ‘지성수’가 ‘장인하’를 상세하게 뜯어보며 발견하게 된 어린아이 같은 ‘무구함’과 ‘사상’에의 경도를 일깨우는 ‘무사상성’ 역시, 무엇보다 ‘장인하’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의 집요한 의미 부여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장인하’는 삶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종국에는 어떤 미래도 개진할 수 없는 존재로 낙착되고 만다.

한편 ‘장인하’와 같은 문제적인 장애 인물 재현은 5·18을 서사화한 정찬의 다른 소설, 「새」(『창작과비평』 1993년 겨울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완전한 영혼」의 ‘장인하’가 다른 인물들의 사상적 전환을 추동하는 촉매라는 한정된 역할을 부여받음에 따라 그 형상이 단일하게 축소되는 양상을 보였다면, 「새」의 ‘박영일’은 중심인물 ‘김장수’의 추악한 과거를 환기하는 매개로서 제시됨에 따라 ‘응징’의 대상이 된다. ‘박영일’ 역시 5·18 체험으로 인해 극심한 손상을 입은 장애 인물로 등장하는데, 소설은 ‘박영일’의 형상과 더불어 그를 바라보는 ‘김장수’의 시선을 조명한다. 「완전한 영혼」과 차별화되는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 시선의 주체 ‘김장수’가 1980년 5월 당시 공수부대에 복무하고 있었던 동시에 ‘박영일’에게 물리적 폭력을 직접 가한 주체라는 데에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장면은 ‘박영일’을 바라보는 ‘김장수’의 시선, 소설이 주의를 기울이는 ‘박영일’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 박영일은 지는 해를 등지고 앉아 있는 야산 쪽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처음 그와 마주쳤을 때도 해질 무렵이었다. 그의 집이 보이는 가게 앞 의자에 앉아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데 그가 걸어왔다. 그런데 그의 걸음걸이가 이상했다. 얼핏 보기에 다리를 저는 듯했으나 가만히 보니 다리를 저는 것이 아니라 전신이 비틀거리는 모습이었다. 한쪽 어깨가 비스듬히 기울어지고, 걸음을 디딜 때마다 머리가 흔들렸다. 그 도시 속에서 건너편 빌딩 지하로 날렵하게 도망하던 모습과는 판이했다.
>
> 김장수는 신문을 보는 척하다가 그가 옆으로 지나칠 때 일별했는데, 첫눈에 뭔가 모자라는 사람처럼 보였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생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뭐라고 할까. 생명의 어떤 부분이 결핍된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허약함이라고나 할까. 주민등록증의 사진이 보여주는 눈빛의 총명함과 화사한 미소는 어디에도 없었다.

김장수는 며칠 동안의 탐문을 통해 그가 한때 정신병원을 드나들었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고, 과부가 된 누나와 둘이서 살고 있으며, 해질 무렵이면 매일 야산으로 오른다는 것을 알았다. 동네 사람들은 박영일을 머리가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하며 그와의 접근을 꺼리고 있었다.[89]

'김장수'는 우연히 자신의 옛 군복에서 '박영일'의 주민등록증을 발견한다. "군복을 벗은 지 7년이나 흘"(227면)렀기에 주민등록증 사진 속 얼굴이 누구인지 단번에 기억할 수 없었던 '김장수'는, 1980년 5월 당시의 일들을 곰곰이 떠올리다 주민등록증 주인의 정체를 알아차리고는 돌연 창백해진다. 사진 속 인물은 다름 아닌 자신이 좇던 시위대 중 한 명으로, 직접 개머리판과 군홧발로 상해를 가한 '박영일'이었으며, 주민등록증은 "그가 누군지 궁금해 호주머니를 뒤"(229면)진 끝에 얻은 것이었다. 되살아난 5·18의 기억과 함께 "매끄럽고 평안했"(같은 면)던 '김장수'의 일상은, 점점 "불길한 조짐"(230면)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박영일의 웃는 얼굴은 어디서나 불쑥불쑥 나타나 일상의 평정을 흩뜨"(231면)린다. 공수부대원으로서 직접 '가해자'로 가담했던 5·18 체험에 대한 망각 작업이 이제야 완수된 것 같다고 느끼는 '김장수'에게 있어, '박영일'은 응당 "죽어 있어야 했다."(230면)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김장수'는 일말의 호기심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것은 "눈을 허옇게 뜨고 피투성이 모습으로 누워 있었던 그가 어떻게 살아남았으며,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231면)에 대한 모종의 궁금증의 형태로 드러난다. 이에 '김장수'는 호기심을 해결하고자 '박영일'을 직접 찾아 나선다.

그런데 인용된 위의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듯, '박영일'은 좀처럼 "생기가 느껴지지 않"(같은 면)는, "뭔가 모자라"(같은 면) 보이는 모습으로 '김장수' 앞에 나타난다. 이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다름 아닌 '김장수'의 시선으로 조목조목 묘사되고 있는 '박영일'의 몸이다. 이는 곧 '박영일'이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입은 장애 인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과 같다. 소설은 위의 장면을 기점으로 '비정상적'인 '박영일'의 몸을 서사 전면에 내세우는데, 이에 따라 소설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조명하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그것은 바로 '김장수'의 일별에 의해 단번에 간파되는 '박영일'의 몸, 즉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고, 어딘가 바보스럽고, 걸음걸이마저 이상한 불구"(232면)로 요약되는 장애 인물의 몸이다. 이어서 '김장수'는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박영

89) 정찬, 「새」, 『창작과비평』 1993년 겨울호, 231-232면.

일'에게 대화를 청하는 한편 "일주일에 두세 번씩"(233면) 찾아간다. 이에 '박영일'은 그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몸이 이렇게 불편하게 된 경위를 조심스럽게 물어오는 '김장수'에게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기에 이른다. '김장수'가 미리 알고 있던바, 사연의 중추에는 여지없이 5·18이 있었다.

「완전한 영혼」이 '장인하' 자신의 서사를 말하게 함으로써 5·18 체험과 그것과 결부된 몸의 변화를 제시했듯, 「새」 또한 '박영일'을 어느 순간 "시간을 잃어버린 낯설고 기이한 사람"(234면)이 되어버린 자신의 삶에 대해 직접 발화하는 인물로 형상화한다. 변별의 지점이 있다면, 현재의 '장인하'가 귀가 들리지 않음에도 교정 업무에 있어서만큼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박영일'은 어떤 생활도 적극적으로 꾸릴 수 없는 비극적이고 수동적인 상황에 놓여있다는 데에 있다. 기실 '박영일'은 5월 20일 정오 무렵 "김장수의 개머리판에 머리를 맞고 쓰러진"(235면) 이후, 뇌의 손상으로 인해 기억력에 이상이 생겼다. 5월 16일 이후의 일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게 된 '박영일'은, 이외에도 "실어증"(236면)과 "알콜중독 증세"(237면)를 보이는 한편 환시와 환촉을 수반하는 "전진섬망"(238면)을 진단받는다. 병세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은 채 괴로운 삶을 반복하는 동안, 그를 보살피던 어머니는 이내 스스로 목숨을 끊기에 이른다. '박영일' 스스로 술회하듯, 이와 같은 삶의 궤적은 "기억의 상실이라는 깊은 우물에 갇힌 고립된 존재"(237면)이자 "언어능력의 상실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고 걸음조차 제대로 걷지 못하는 가엾은 존재"(같은 면)가 맞닥뜨린 시공간의 총합이었다.

그렇다면 '박영일'의 회고를 직접 요청한 '김장수'는 이 고통의 서사를 어떻게 수신하고 있을까. 그 양상은 매우 도착적인 의미화 과정을 통과하는 한편, '김장수'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수반하면서 이루어진다. '김장수'는 "우리들은 명령의 꼭두각시였"(242면)을 뿐이라는 합리화를 시도하며 '박영일'을 외면하려고 하지만, 이미 "박영일은 저절로 잊혀질 수 없는 존재가 아니"(244면)었다. 매일 같이 1980년 5월 당시 자신이 범했던 '만행'들이 등장하는 꿈을 꾸고, 술에 의존하게 되며, 아내를 폭행하기도 하는 등 평소의 생활을 좀처럼 꾸리지 못한다. '박영일'의 존재, 그의 회고로부터 상기된 과거의 기억들은 "일상의 평정을 깨뜨릴 뿐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를 파괴하려고"(같은 면)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김장수'는 "엎질러진 물을 담"(같은 면)기 위한 어떤 청산을 모색

할 필요를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가슴 깊숙이 웅크리고 있는 짐승적 충동"(248면)을 일깨워 "대검"(249면)으로 '박영일'을 죽이겠다는 계획으로 구체화된다. '김장수'의 살인 기도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소설은 그 이후에도 '김장수'가 지속적인 "이명"(253면)과 악몽을 경험하는 한편,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같은 면)다고 설교하는 신부의 목을 조르는 등 '괴물'과도 같은 충동성이 결코 사그라들지 않았음을 암시하며 끝이 난다. '김장수'의 남은 삶의 행방이 의문으로 남아있다면, 확실한 사실로 언명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김장수'에 의해 '박영일'의 존재가 서사에서 휘발되어 사라진다는 사실, '박영일'의 죽음은 "신문 한 귀퉁이에 실"(252면)릴 뿐 그 누구도 갑작스런 죽음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서사의 흐름, 즉 5·18 체험으로 인해 극심한 손상을 입은 장애 인물 '박영일'의 몸과 삶을 조명하고 자기만의 서사를 술회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삽입하다가 이내 죽음으로 퇴장시키는 소설의 구성은, 「완전한 영혼」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 까닭에 일관되게 비극적으로 구성되는 '박영일'의 삶은 좀처럼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없는 것으로 설정되며, 살아남은 '김장수'에게 증오의 대상으로만 남는다. 아울러 '박영일'이 '김장수'에게 요청했던 망월동 방문, 즉 망월동 묘지에 방문하면 5·18이 탄생시킨 "새로운 생명"(246면)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은 끝내 미완으로 남는다. 이 같은 설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기실 소설은 다음과 같은 두 메시지의 전달을 의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김장수'와 '박영일' 두 인물의 관계가 상호 화해와 용서를 통해 발전하지 못하고 '김장수'에 의한 살인이라는 '응징'으로 갈무리되는 것은, 곧 5·18을 둘러싼 가해와 피해의 문제는 결코 단번에 봉합될 수 없음을 암시적으로 지시한다. 5·18 당시 시민들의 분노가 "사람과 역사를 향한 사랑"(같은 면)의 일환이었다고 회고하는 '박영일', 그때의 일들을 "명령의 공간"(242면)에서 빚어진 "가상"(같은 면)과도 같은 것으로 간주하는 '김장수' 두 인물의 좁혀지지 않는 거리감 역시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러면서 둘째, '박영일'의 죽음 이후에도 괴로움을 떨치지 못하는 '김장수'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소설은 가해의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자기 부정과 합리화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전언을 전달한다. 7년 동안 충실히 진척되어 온 '김장수'의 망각 작업이 주민등록증에 박힌 단 한 장의 사진을 일별하는 것을 통해 중단된다는 사실은, 부정과 합리화, 그리고 망각 모두 의식

적인 노력 아래 온전히 통제할 수 없음을 그 자체로 방증한다. 문제는 소설 안팎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들 메시지의 전달이, 모두 장애 인물 '박영일'의 비극적인 삶과 죽음이 있었을 때라서야 가능해진다는 데에 있다. '김장수'의 망각 작업을 중단시킨 것이 "안경 속의 눈빛이 초롱초롱"(227면)하고 "입가에 머금은 웃음"(같은 면)이 화사한 젊고 앳된 '박영일'의 얼굴이었다면, '김장수'의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며 소설의 시작을 지시하는 것은 다름 아닌 "생기가 느껴지지 않"(231면)는 '박영일'의 손상된 몸이었다. 또 서사의 대단원은 장애 인물 '박영일'이 죽어야만, 대검에 으스러진 시체의 형상이 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요컨대 「새」가 장애 인물을 조명하고자 할 때 필요로 했던 것은, 여느 '인간'의 모습이 부재한 삶이거나 "짐승적 충동"(248면)의 발현에 의해 처리되는 죽음이었다.

이상의 작품들은, 장애 인물의 재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5·18의 소설화가 갖는 어떤 경향성을 잘 보여준다. 이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주요한 사실은, 무엇보다도 한국소설이 5·18 체험이 야기한 몸과 삶의 급격한 변화를 압축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장애 인물들을 재현의 장에 끌어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 인물들의 삶의 국면은 그 자체로 소설의 주제의식을 전달하는 중추로 기능한다. 그러나 네 편의 작품들에서 살펴봤듯, 정작 장애 인물들은 서사 내에서 화자/서술자에 의해 타자로 위치 지어지는 한편 매우 축소된 형상으로만 제시되는 경향을 보인다. 관찰의 주체가 아닌 '목격'의 대상으로 등장하면서 아무런 발화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정작 발화 환경이 마련될 때는 이를 수신하는 다른 인물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재구성됨에 따라, 좀처럼 장애 인물들의 삶의 다양한 측면들을 마주하기 어렵다.[90]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금까지 네 편의 소설들을 통해 점검한 장애 재현의 문법이 남성 인물들 사이에서 작동하는 시선의 교환이 파급

90) 이와 관련하여 질병 경험을 서사화한 '질병이야기'들이 내장하고 있는 소통 가능성에 대해 논한 다음과 같은 메이의 지적은 참고할 만하다. 메이는 이들 서사가 그리고 있는 경험의 세부는 각각 다를지라도, "몸의 위기가 삶의 위기가 되는 경험의 어떤 차원이 크게 유사하다"(메이, 「'병자 클럽'의 독서」,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편, 『새벽 세 시의 몸들에게: 질병, 돌봄, 노년에 대한 다른 이야기』, 봄날의책, 2020, 157면.)는 점에서, 질병 경험이 비단 작가 자신에게만 국한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 바 있다. 아울러 메이에 의하면 이들의 이야기는 "확실하고 당연해 보였던 것들이 얼마나 한순간에 바스러지는지를 보여주지만, 인간이 얼마나 갖가지 놀라운 방식으로 대응하고 적응하고 회복하는지도 보여준다"(같은 책, 162면.)는 측면에서 결코 부정적인 의미만을 갖지 않는다. 이 같은 메이의 논의를 경유해본다면, 앞에서 분석한 네 소설의 장애 재현은 그 어떤 가능성과 긍정적인 의미의 획득을 차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삶의 다양한 측면의 형상화 부재와 더불어 재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는 효과들과 관련된 것이었다면, 아래에서 다룰 일련의 소설들은 장애 재현의 문제가 여성 인물과 남성 인물 사이의 불균형한 관계성과 겹쳐졌을 때 형성되는 문제적 지점들을 보여주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수진이 적실하게 지적한바, 그간 5·18의 소설화는 여성 인물들을 부정적으로 표상하는 과정을 수반하며 이루어진 경향이 농후하다. 이는 '항쟁'에 직접 참여한 남성 인물들이 투사 또는 영웅으로 호출되는 것과 현격히 대비된다. 여성 인물들은 5·18의 현장과는 다소 떨어져 있는 주변적인 구성원으로, 또는 '희생하는 어머니', '훼손된 누이'와 같은 편향된 인식틀 아래에서만 형상화되어왔다. 그리하여 다양한 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도맡으며 새로운 공동체 형성을 모색했던 5·18을 소설화한 그간의 기획은, 오히려 젠더에 따른 위계를 노정함에 따라 소설 밖 5·18 체험이 갖는 의미를 충분히 아우르지 못했다.[91]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성을 돌출시키는 재현 문법의 중심에는 '수난받는 여성'이라는 '낯익은' 형상이 자리하고 있다.

기실 권명아가 논한 바 있듯, 수난받는 여성의 형상을 서사 전면에 내세우면서 민족과 민중의 수난사를 재현하는 장면은 한국소설에서 매우 빈번하게 삽입되어왔다. 이에 따라 "'여성적인 것'은 상실과 훼손의 의미로 고착"[92]되었다. 그렇다면 '5·18소설'은 여성 인물들에게 어떤 구체적 자질을 부여하면서 이 수난을 형상화해왔을까. 이 물음과 함께 그간의 5·18 소설화를 톺아볼 때 간과할 수 없는 재현 문법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여성 인물들이 갖는 장애라는 특질의 강조이다. 이때 강조의 과정은, 장애여성 인물들의 삶을 곁에서 '목격'하는 비장애 남성 인물들에 의해 집약적으로 대신 기술되면서 이루어진다. 이를테면 문순태의 「일어서는 땅」(한승원 외, 『일어서는 땅』, 인동, 1987.)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말"(19면)을 듣는 '어머니'와 '아내'의 모습을 아들이자 남편인 '김 요셉'의 관찰을 중심으로 그린다.

> 박 요셉의 아내이며 토마스의 어머니인 조 마리아는 여름이 끝나는 무렵부터 이듬해 오월까지는 <u>정신병자처럼 넋을 잃고 있다가도</u>, 아카시아꽃이 피기 시작하면 죽었던 사람이 되살아나듯 그렇게 망각의 긴 잠에서 깨어나 아들 토마스를 찾아 나서는 것이었다.
>
> <u>박 요셉이 보기에도 그의 아내는 아들을 찾아 나서는 그 오월 한 달 만</u>

91) 김수진, 앞의 글, 85면.
92) 권명아, 「여성 수난사 이야기, 민족국가 만들기와 여성성의 동원」, 『여성문학연구』 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112면.

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였다. 일 년 열두 달 중에서 열한 달은 죽은 듯이 넋이 빠져 있고, 오월 한 달 동안만 생명이 붙어 있는 듯하였다. 그 한 달을 위하여 열한 달 동안 죽어 있는 아내. 어쩌면 그녀는 그 한 달 동안 아들과 함께 자신의 생명과 영혼을 되찾기 위해 처절한 몸부림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93]

「일어서는 땅」은 아들 '토마스'가 5·18 당시 실종된 이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박 요셉'의 '아내'의 삶을 초점화한다. 인용된 위의 대목이 지시하듯, 소설은 특히 5월 무렵마다 "동면보다 더 깊고 깜깜한 오랜 실신으로부터 깨어나"(17면)는 '아내'가 보이는 변화에 관심을 기울인다. 흥미로운 점은, '아내'의 '비정상적'인 모습이 '박 요셉'에 의해 자신의 '어머니'와 동일시된다는 데에 있다. '박 요셉'의 형도 "여순반란 사건"(같은 면) 때 행방불명되어 좀처럼 자취를 찾을 수 없었는데, 그 까닭에 '어머니'는 지금의 '아내'처럼 "정신을 되찾지 못"(18면)했다. 그리하여 '박 요셉'은 "오 년째나 소식이 없이 이미 죽은 것으로 믿고 있는 아들을 찾으러 가자고 보채는 아내"(같은 면)에게 삶의 모든 면이 "달걀껍질처럼 흰 공백으로 텅 비"(같은 면)어 있었던 '어머니'의 생전 모습을 투영한다. 이 같은 동일시의 과정은 '아내'와 '어머니'의 "개별적 주체의 모습은 삭제하고 여성을 모성의 표상으로 자리잡게 한다"[94]는 점에서도 문제적이지만, 더불어 지적되어야 할 것은 동일시를 수행하는 '박 요셉'의 위치성에 있다. 소설은 정신적 고통과 아들 '토마스'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동시에 교착되어 있는 '아내'의 모습에 줄곧 연민을 느끼는 '박 요셉'의 시선을 주요하게 그림으로써, 마치 '박 요셉'은 그 고통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인물로 위치시킨다.

비록 '박 요셉' 역시 자신의 '형'과 '아들'의 잇단 죽음에 통탄하고는 있지만, 그 양상은 슬픔뿐만 아니라 "분노"(23면)로까지 전화된다.[95] 반면 '아내'는 오로지 고통의 나날, 다시 말해 '동면' 속 시공간에서 예외적 생활을 꾸리는 인물로만 재현되고, 비로소 5월이 되어 동면에서 깨어날 적에도 오로지 '토마스'를 향한 그리움만을 표출하는 존재로 구성된다. 5·18 당시 광주로

93) 문순태, 「일어서는 땅」, 한승원 외, 『일어서는 땅』, 인동, 1987, 25면.
94) 김수진, 앞의 글, 43면.
95) 이를테면 '박 요셉'은 '형'과 '토마스'의 죽음을 일제 당시 징용에 끌려간 뒤 소식이 끊겼던 '아버지'와 겹쳐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은 분노를 털어놓는다. "이 모든 것이 그놈들 때문이다. 아버지와 형을 잃은 것도, 토마스가 모습을 감춘 것도 다 쪽발이들 때문이야. 내 형과 토마스는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왜 나는 아직까지 미처 모르고 있었을까. 우리가 싸워야 할 사람이 바로 그들이라는 것을 왜 모르고 있었을까."(58면)

‘토마스’를 찾으러 산길을 오를 적에 “신기할 정도로 차분”(44면)한 한편 “무등산만큼이나 우람하고 거대하게”(43면) 보였던 ‘아내’의 모습은 모두 삭제되고, ‘박 요셉’에 의해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인물로서만 관찰된다. 그리하여 소설이 ‘박 요셉’에게 할당한 몫이 ‘아내’에 대한 보호와 돌봄을 수행하는 자의 역할, 즉 “아내를 더 이상 약하게 만들고 싶지 않”(60면)은 의지의 실현이었다면, ‘아내’에게 지우는 몫은 “구두통 대신 총을 메고 울부짖다가 흔적조차 없어져 버린”(26면) ‘토마스’의 행방으로부터 말미암은 수난과 고통으로의 침잠이다. 그리고 이 분배의 과정에서 단연 돌출되는 것은, 다름 아닌 “정신병자처럼 넋을 잃”(25면)는다는 묘사로 대표되는 ‘아내’의 손상된 정신이다.

그런가 하면 이와 매우 유사한 장면은, 1980년 5월 두 아들을 잃은 ‘안순 누님’의 비극적 내력을 두 남성 인물의 회고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한승원의 「당신들의 몬도가네」(한승원 외, 『일어서는 땅』, 인동, 1987.)에서도 노출된다. 유년 시절 ‘나’의 가족과 함께 기거했던 “부엌뜨기”(218면)이자, ‘기성’의 형수이기도 한 ‘안순 누님’의 삶의 궤적은, 이십여 년 만에 고향을 찾은 ‘나’와 고향에서 생활을 계속 꾸렸던 친구 ‘기성’의 조우로부터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한다. 소설은 “형수씨가 돌아가”(220면)신 까닭에 “광주 쪼금 갔다가”(같은 면) 오는 길이라는 ‘기성’의 술회를 통해 ‘안순 누님’의 삶 또는 죽음이 5·18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 암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언급의 삽입으로 보다 선명해진다.

> “<u>당신은 그 뒤로 산인지 들인지 물인지 불인지 찻길인지 사람인지를 모르고 헤매다녔네.</u> <u>이리로 모시고 왔다가 안 되것어서 정신병원에다가 넣어뒀제.</u> 여섯 달 만에 모시고 가라는 연락이 와서 갔더니 <u>전혀 딴 사람이 되어 있대.</u> 검은자위는 콩알만해지고 흰자위만 커진 <u>당신은 완전히 백치였어.</u> 여기 모셔다가 놔뒀는디, 한 번 어디를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은 해가 뜨는지 지는지 어두워지는지를 몰라.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나기만 하면은 산이고 들이고를 분간하지 못하고 헤맨단 말이네. 그래서 하는수없이 병원에서 가져온 약을 드리면서, <u>쇠고랑으로 묶어 놨었네.</u> 몇 달이 지난께 좋아지는 것 같아서 풀어드렸제. 그런디 또 이때까지 하지 않던 일을 하기 시작했어여. 좋게 잠을 자다가 한밤중쯤 해서 귀신같이 방문을 열고 나갔다가 새벽녘에야 찬이슬을 흠뻑 맞고 돌아오곤 하는 것이여. 한번은 우리집 사람이 가만가만 뒤를 밟아 봤더라네. 그런께 그때는 광주에서 큰놈 영환이를 파다가 저희 아부지 밑에다 묻어둔 뒤였네.”[96]

남편 '기춘'이 "바닷물에 빠져 죽"(225면)은 이후 '안순 누님'은, 회령 생활을 청산하고 두 아들과 함께 광주에서 새로운 생활을 도모하던 중 1980년 5월 어지러운 "북새통"(231면)을 맞닥뜨린다. 이에 '안순 누님'은 "집으로 돌아오다가 눈을 허옇게 까뒤집은 채 시궁창에 처박"(같은 면)힌 첫째 '영환'의 죽음과 "어디서 어떻게 돼버렸는지 이날 이때까지 소식이 없"(같은 면)는 둘째 '영구'의 실종이라는 잇따른 비극을 경험한다. 인용된 위의 '기성'의 발화는 이후 '안순 누님'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여지없이 보여주는데, 기실 그것은 '백치'와도 같은 삶 다름 아니었다. 이어 한밤중 큰아들의 무덤을 쓸어안고 제 동생을 찾아오라는 추궁을 하기에 이르는 등 좀처럼 병세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다가, '안순 누님'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옷보따리를 챙겨가지고 집을 나"(232면)간다. 다시금 광주에서 "파출부"(232면) 생활을 거듭하며 실종된 둘째를 기다리다 죽은 '안순 누님'은 이내 "횟가루 같은 뼛가루"(244면)로 '나'의 앞에 출현한다. 이외에도 소설은 '나'의 유년 시절 회상을 통해 '안순 누님'이 마주했던 일련의 일들을 그려 넣음으로써, '안순 누님'의 삶과 죽음을 조명한다. 그리하여 '안순 누님'의 삶의 내력은, "여러 가지로 내 가슴을 많이 아프게 한 여자였다"(221면)는 '나'의 반추와 "참말로 불쌍한 양반"(228면)었다는 '기성'의 회고를 통해 요약된다.

아울러 박상우의 「代役」(『문학정신』 1989년 11월호.)[97] 역시 또 다른 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곳에서는 "5월에 광주로 투입된 공수부대원의 일원이었던"(96면) '만수'의 엄마 '노파'의 몸과 삶이 주요하게 다뤄진다. '만수'는 제대 이후 "극심한 피해망상에 사로잡"(98면)힌 생활을 전전하다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같은 면)는 말을 그의 절친인 '나'에게 남기고는 이내 원양어선에 오른다. 그러나 '만수'는 "원양어선 탄 지 한달도 되지 않아 선상에서 갑작스럽게 행방불명돼버려 시체마저 찾을 수 없게"(96면)되는데, "선상에서의 실종"(106면)라는 간단한 단어로 일축되는 그의 죽음을 둘러싼 구체적 정황은 '나'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은 좀처럼 알 수 없다. 단지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 또 그것이 "80년 5월의 광주항쟁과 무관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추측"(96면)과 같은 소문만 무성할 뿐이다. 그런데 보다 주의가 요구되는 인물은 '만수'의 죽음 이후 "해가 갈수록 정신 상태가 온전치 못하다고 여겨"(101면)지는 '노파'이다. 소설은 '노파'를 "새벽 두시건 세시건

96) 한승원, 「당신들의 몬도가네」, 한승원 외, 『일어서는 땅』, 인동, 1987, 231면.
97) 해당 작품은 박상우의 소설집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세계사, 1991.)에 「1989년 겨울, 代役人間」이라는 이름으로 실려있다.

닥치는 대로 방파제로 나가서 만수를 찾는"(같은 면) 한편, '만수'의 사진을 벽에 "모조리 붙여놓고 그것들을 쓰다듬으면서 웃다가 울다가 아예 며칠씩 몸져"(같은 면) 눕는 등 '만수'의 죽음을 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물로 묘사한다.

흥미로운 점은, '노파'의 "분열증세"(107면)가 '나'의 방문이 있을 시에는 다소 경감된다는 사실이다. '노파'는 '나'에게 지난 과거의 일들을 털어놓기도 하고, 전역 후 '만수'의 생활이 어땠는지, '만수'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여러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준다. 또한 '노파'는 '나'의 방문을 '만수'의 귀가로 투영하기도 하는데, 그 양상은 "끔찍스런 밤의 의식(儀式)"(101면)으로 전화된다. 밤의 의식이란, 생전에 '유곽'의 "아가씨들을 엄마 몰래 집으로 불러들여 은밀하게 하룻밤 풋사랑을 즐기곤 했"(104면)던 '만수', 그리고 이를 옆 방에서 알아차리던 '노파'의 과거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서, 그것이 현재의 '나'에게 전이되어 치러지는 일련의 일들을 일컫는다. 달리 말해 '노파'는 '나'를 '만수'가 머물던 방으로 이끈 다음 "아가씨 하나를 데리고"(109면) 오고, 본인은 방문을 닫고 나가는 것이다. 그러고는 "만수를 되살려냈음인지 미친 듯이 방문을 열어젖히고 방안으로 뛰어들"(111면)며 '만수'의 이름을 "표호와 같은 울부짖음"(같은 면)과 함께 외치는 일련의 과정, 이것이 곧 '나'가 '노파'를 방문할 적마다 수행하는 의식이다. 그리고 소설은 이를 '나'가 '만수'의 "대역(代役)"(110면)으로서 담당하는 몫으로, '나'를 '노파'의 요청을 충실히 수행하는 '유사-아들'이자 다른 이들은 채 알지 못하는 '노파'의 "착란증세"(107면)를 '목격'하는 인물로 그린다.

예시한 세 편의 소설은 모두 5·18로 말미암아 실종되거나 죽은 아들을 좀처럼 잊지 못하는 '엄마'의 형상을 그린다. 여성 인물의 남은 삶이 1980년 5월 이전과는 극명하게 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또 그 변화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으로서 극심한 정신적 손상을 입었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세 소설은 공통된다. 이처럼 여성 인물들이 '정신병자' 또는 '백치'와 같은 삶을 꾸리는 것으로 재현될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보다도 이들이 '아들'의 부재를 현실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의 태도를 표명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요한 동인으로 작용한다. 매년 5월 아들을 찾으러 광주로 나서는 「일어서는 땅」의 '아내', 둘째의 귀가를 기다리며 결코 방문 자물쇠를 잠그지 않았던 「당신들의 몬도가네」의 '안순 누님', '나'에게 '만수'의 모습을 투영하는 「代役」의 '노파'는 모두 언젠가 아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견지하고 있다. 이들의 태도는 '우울증'(melancholie)에 대

한 다음과 같은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고전적 설명, 즉 "심각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낙심,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의 중단,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상실, 모든 행동의 억제, 그리고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에게 욕설을 퍼부을 정도로 자기 비하감을 느끼면서, 급기야는 누가 자신을 처벌해 주었으면 하는 징벌에 대한 망상적 기대"[98] 등으로 예시한 우울증의 특징들을 강하게 환기한다. 비록 아들의 부재, 이른바 대상의 상실을 거부하는 인물들 행동의 구체적 양태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지만, 이들은 모두 "자아의 빈곤"[99]을 드러낸다.

환언하자면 세 소설의 여성 인물들은 "상실은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상실한 대상을 정신적 효과로서 '보존'"[100]하고자 하는 우울증을 체현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재한 아들에 대한 사랑을 채 회수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여성 인물들의 우울증이 장애라는 특성으로 과잉 재현된다는 사실이다. 그 까닭에 현실 부정에 근거한 아들을 향한 모성은, 우울증에서 비롯된 빈곤한 자아를 드러내 보이며 발현되는 동시에, 장애와 교착되어 '비정상적'이고 '도착적'인 방식으로만 표출되는 양상을 띤다. 그런가 하면 세 소설은 여성 인물들의 '병세'를 지척에서 관찰하는 남성 인물들을 형상화하고 있는데, 이 관찰을 기반으로 일련의 수난과 정신적 손상으로부터 파급되는 안타까움과 비극적인 정서를 전달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설정은 텍스트 안팎에서 어떤 효과를 창출하고 있을까. 또 그것은 어떤 소설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일까. 그 실마리는 우울증 '진단'의 구조를 묘파한 다음과 같은 사라 아메드(Sara Ahmed)의 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메드는 프로이트의 우울증 분석을 참조하여 우울증자를 어떤 대상이 상실되었는지, 자신이 무엇을 상실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는 한편, 타인을 우울하다고 해석하는 행위의 의미에 관심을 쏟는다. 아메드에 의하면, 누군가를 우울하다고 판단하는 과정은 곧 "그들이 사랑하는 대상이 죽었다고 선언하는 방식의 하나"[101]이다. 아울러 타인을 우울증자라고 진단하는 행위는 어떤 '윤리적 명령'과 '도덕적 의무'를 포함하는데, 그것은 상실이

98) 지그문트 프로이트, 윤희기 옮김, 「슬픔과 우울증」, 윤희기·박찬부 옮김,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열린책들, 2020, 244면.
99) 위의 책, 247면.
100)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 강경덕·김세서리아 옮김, 『권력의 정신적 삶: 예속화의 이론들』, 그린비, 2019, 260면.
101) 사라 아메드, 성정혜·이경란 옮김, 『행복의 약속: 불행한 자들을 위한 문화비평』, 후마니타스, 2021, 255면.

라는 공통감각을 받아들이라는 공동체의 요구와 일치한다. 이에 따라 우울증자는 다른 이들이 공유하는 정서를 함께 감각하지 못하는 사람, 감각의 일치를 위해 "방향 전환이 필요한 사람, 돌려세워야 하는 사람"[102]이 된다.

이 같은 아메드의 논의는 위의 세 소설이 장애여성 인물들을 형상화한 의도를 살피는 데 있어 주요한 참조점이 된다. 한사코 아들의 부재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여성 인물들을 형상화하는 한편 그 구체적 징후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극심한 정신적 손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세 소설은, 아메드가 논한 이른바 '방향 전환'과 결부된 문제를 제기한다. 다시 말해 이들은 고통을 호소하며 5·18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여성 인물들을 제시함으로써 방향 전환의 과정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아들의 상실을 받아들이라는 당위의 제시가 또 다른 폭력임을 시사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5·18의 구체적 실상이 밝혀지지 않을뿐더러 그것이 국가가 주도한 살상이라는 사실이 채 '공론화'되지 못했던 1980년대 한국사회 시공간은, 방향 전환의 실패를 더욱 부추겼다. 그리하여 여성 인물들이 드러내고 있는 우울증과 정신적 손상, 그리고 비극적 정서를 심화시키는 모성의 발현은 5·18의 심각한 피해를 지시하는 '증상'으로서 구성된다. 개선이 요구되는 것은, 여성 인물들의 삶이 아니라 이들 가족에게 고통을 떠안긴 사회라는 사실. 이것이 세 소설이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몸과 삶이 남성 인물들의 관찰에 의해서만 제시되는 까닭에 소설들의 애초 의도가 미끄러진다는 데에 있다. 마치 여성 인물들이 체현하는 우울증과 고통으로부터 다소 거리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남성-목격자'의 제시는, 5·18 체험으로 비롯된 아들의 부재에 따른 비극적인 삶을 모두 여성 인물들에게 떠안기는 과정을 수반한다. 장애여성 인물이 시선의 주체 비장애남성 인물에 의해 관찰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역시, 이 같은 불균형한 관계성을 적확하게 지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통을 호소하는 장애여성 인물들에게 표출하는 비장애남성 인물들의 연민은, 수전 손택(Susan Sontag)의 말을 빌리자면, 자신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무능력함'뿐만 아니라 자신은 그 고통과 연루되어 있지 않다는 인식에서 기인하는 "무고함도 증명해 주는 셈"[103]이기도 하다.

요컨대 5·18과 결부된 한 가족의 비극적 내력 및 여성 인물들의 '착란'이 무엇으로부터 연원하는지를 모두 알고 있는 남성 인물들에 의해 대신 기술되

102) 위의 책, 같은 면.
103) 수전 손택, 이재원 옮김, 『타인의 고통』, 이후, 2004, 154면.

고 있는 세 소설의 문면 역시, '5·18소설' 재현 문법이 5·18의 심각성을 공표하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발신하기 위해 '누구'를 필요로 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우울증과 정신적 손상이 뒤얽혀 '도착적'인 방식으로 모성을 표출함으로써 그 자체로 피해를 입증하는 여성 인물, 이들의 몸과 삶을 집약적으로 술회하면서 그 실상이 무엇인지를 꿰뚫고 있는 남성 인물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이 설정을 가능케 했던 것, 문제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 요소는, 다름 아닌 젠더의 구획과 함께 할당된 장애와 비장애라는 선명한 대립 구도이다.

「일어서는 땅」, 「당신들의 몬도가네」, 「代役」을 통해 5·18의 소설화가 장애여성 인물과 비장애남성 인물의 대비에 기초한 문제적인 장면을 기입하며 이루어지기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한승원의 「어둠꽃」(한승원 외, 『부활의 도시』, 인동, 1990.)은 이들과는 사뭇 다른 상상력을 제시하고 있어 흥미롭다. 무엇보다 「어둠꽃」은 앞선 세 작품이 공통적으로 설정했던 젠더에 따른 장애와 비장애의 대립 구도를 비껴가고 있다. 소설은 5·18 이후 "얼룩무늬옷"(42면)에 대한 공포감을 갖는 한편 "정신질환의 병력"(28면)이 있는 여성 인물 '순애'뿐만 아니라, 1980년 5월 광주 현장에서 공수부대원으로서 "분수대와 금남로 일대를 향해 총을 갈겨대던"(31면) 자신의 과거를 거듭 상기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남편 '종남'의 형상을 그린다. 국가폭력에 가담한 전력이 있는 '종남'이 현재 느끼는 죄의식까지 조명하면서, 소설은 "광주 민주화운동 국회 청문회"(27면)를 통해 5·18의 공론화가 비로소 도모되는 동시에 그 반작용으로 부인의 정치가 횡행하던 한국사회,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5·18 체험자들 삶의 복잡다단한 국면까지 다루고 있다. 그리하여 「어둠꽃」은 '피해'와 '가해'의 체험 두 측면을 병렬적으로 제시함으로써 5·18이 한국사회에 남겨놓은 여러 흔적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서사 전체를 살펴보면 이처럼 긍정적으로만 의미화하기에 어려운 대목들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비판적 읽기가 요구되는 지점은 다음과 같은 서사의 진행을 따라 드러난다.

3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어둠꽃」은 '종남'과 '순애'의 5·18 체험을 차례대로 조명한 다음, 두 인물 사이의 갈등이 봉합되는 국면으로 끝을 맺는다. 여기서 갈등이란, 이혼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는 '순애'와 이를 거부하는 '종남' 사이의 의견 대립에서 기인한다. 소설은 두 인물의 서로 다른 입장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지를 좇는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두

인물 모두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이다. ‘순애’의 두려움은 5·18 당시 시민군으로 참여하며 마지막까지 도청을 수호하다 끝내 목숨을 잃은 애인 ‘이군’의 부재와 연결된다. “밤이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39면)을 정도로 불안을 표출하는 ‘순애’는, 자신의 남편 ‘종남’이 ‘이군’을 “죽인 사람인지도 모른다”(같은 면)고 의심한다. 그 까닭은 ‘종남’이 “무슨 비밀인가를 가지고 있”(35면)는 것처럼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까닭인데, 그럴수록 ‘순애’의 불안은 점차 심화되고 ‘종남’이 자신을 죽이고 말 것이라거나 “얼룩무늬옷의 남자들”(39면)이 자신을 잡으러 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그 공포가 극에 달해 새벽 거리에서 ‘종남’의 어깨를 물어뜯는 ‘순애’의 모습은 “미쳐버린 개”(40면)의 형상으로까지 묘사된다.

한편 ‘종남’의 두려움은 ‘광주 청문회’의 개최와 맞물려 5·18이 많은 이들의 대화에 오르내리는 상황으로부터 연유한다. “남들은 다 살이 피둥피둥 찌어 살아가고 있는데”(45면) 왜 자신만 이렇게 전력이 언제 들통날지 몰라 불안해해야 하는지 반발심을 품으며 나름의 타개를 시도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사람들이 “그가 얼룩무늬 옷을 입고 총질 칼질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35면) 같아 더욱 불안해진다. 기실 ‘종남’은 자신을 지배하는 죄책감은 결코 씻을 수 없는 것,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형벌”(45면)이라고 여기며 지난날의 과오를 정직하게 털어놓을 것을 계획하지만, 이는 토로 이후에 있을 사람들의 냉대와 질책을 버틸 수 없을 것이라 미리 판단하여 끝내 무산된다.

흥미로운 점은, 이 무산된 계획이 다른 형태의 행동으로 전이되어 반복적으로 실현된다는 사실에 있다. 그것은 ‘종남’ 자신이 ‘순애’를 끝까지 돌봐야 하며 “아내의 병은 내가 치유해주어야 한다”(같은 면)는 당위, “순애는 결국 자기로 인하여 정신이 분열되었는지도 모”(34면)른다는 생각에 기초해있다. 소설은 이와 같은 ‘종남’의 의지를 거푸 삽입한다. 이를테면 “반드시 순애를 아내로 맞아 살아야 할 것 같은 강박관념에 사로잡혀”(28면) 있는 ‘종남’, ‘순애’를 끝까지 “운명처럼 안고 살아”(34면)가야 “자기가 지은 죄를 몇백분지 일만큼이라도 삭감해낼 수 있을”(같은 면) 것이라 생각하는 ‘종남’, 어떻게든 ‘정신분열’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겠다는 일념 아래 ‘순애’를 “강제로 끌다시피해서 정신과로 데리고”(41면) 가는 ‘종남’의 모습이 강조된다.

그렇다면 이 같은 ‘순애’를 향한 ‘종남’의 돌봄 의지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아울러 두 인물 모두 심각한 두려움을 표출하고 있는 형상으로 제시

하는 소설의 전략이 함의하고 있는 바는 무엇일까. 소설은 다음과 같은 장면을 삽입함으로써 두 물음에 대한 나름의 해답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때 단연 부각되는 것은 '종남'의 '죄악'과 '순애'의 '더러운' 과거의 동일시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 "우리 갈라서요. 나 미쳤어요. 더러운 여자여요."
> 아내는 자기의 몸을 미친 듯이 탐하곤 하는 그에게 몸을 맡긴 채 이렇게 지껴렸다. 마침내는 해수욕장엘 가서 윤간당한 일까지도 털어놓았다. 그는 자기의 아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사실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자기가 저지른 죄악하고 어쩌면 상쇄를 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 "미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더럽지 않은 연놈들이 어디 있어?"
> (…)
> "쓰팔것, 어차피 우리는 함께 미칠 수밖에 없는 연놈들이다. 빌어먹을 것, 오늘 그만 미치고, 두었다가 내일 또 미치기로 하자."[104]

인용된 위의 문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 '순애'는 '종남'에게 자신은 "더러운 여자"(47면)임을 고백하고 '종남'은 이에 일말의 반가움을 느낀다. 기실 '순애'가 말하는 '더러움'이란, '종남'의 강권에 따라 정신과 의사와 진행한 상담에서 토로한 고등학생 시절 "해수욕장엘 갔다가 두 불량배한태 당했"(44면)던 경험으로서, '종남'은 모르고 있던 사실이다. '종남'은 의사에게 '순애'가 "온집안 식구들을 닥치는대로 두들겨패고 살림살이를 두들겨부시곤"(43면) 했던 "친정 아버지에 대한 공포감"(같은 면)을 갖고 있다거나 그것이 "남자에 대한 공포감"(같은 면)으로 이어졌다는 사실, 또 그 공포는 "실금"(같은 면)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전해 들은 바 있으나, "윤간"(44면)에 관한 일은 위의 대목에서 처음 접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종남'이 '순애'의 이 같은 고백에 대한 응답으로, 서로를 '우리'라고 호명한다는 사실이다. '종남'은 자신과 '순애'가 처한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이에 따라 서로 다른 층위의 두 과거는 '종남'에 의해 포개어진다.

'종남'이 수행하는 동일시는,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탈을 씌워주는 셈이며,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덮어씌우는"[105] 과정과 일치한다. 아울러 이를 통해

---

104) 한승원, 「어둠꽃」, 한승원 외, 『부활의 도시』, 인동, 1990, 47-48면.
105) 김수진, 앞의 글, 49면.

‘종남’을 지배하던 “강박관념”(28면), 즉 자신이 끝까지 ‘순애’를 책임져야 한다는 강한 돌봄의 의지는 단번에 지당한 것으로 변모한다. 한편 소설은 위의 장면의 제시와 함께 전체 서사를 끝맺음으로써 두 인물의 갈등 국면이 ‘해소’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런데 이때 해소의 과정이 ‘순애’의 고백과 이에 대한 ‘종남’의 반가움이라는 응답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종남’은 비로소 ‘순애’가 경험하는 ‘정신분열’이 ‘윤간’을 포함한 과거의 수난들에까지 소급된 성질의 것임을 알게 되지만, ‘종남’에게 지속적으로 품고 있던 ‘순애’의 의심들은 명확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종남’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그 어떤 것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순애’를 돌보겠다는 ‘종남’의 의지, 자신과 ‘순애’를 한데 묶어 ‘우리’라고 호명하는 ‘종남’의 행동은 모두 ‘순애’보다 우위에 있는 ‘종남’의 위치성에서 발원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바꿔 말해 ‘순애’의 고통은 ‘종남’에 의해 무마될 수 있음이 밝혀지는 것이다. 반면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순애’는 ‘종남’이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 끝내 알지 못한다.

그리하여 「어둠꽃」은 장애여성 인물과 비장애남성 인물의 대비를 통해 전자에게 잇단 수난을 부여한 앞선 세 소설과 겹쳐진다. 여성 인물에게만 장애라는 특성을 부여하는 한편 줄곧 남성 인물들에 의한 관찰의 대상이 되는 불균형한 관계성을 설정하고 있었던 세 소설과 마찬가지로, 서사 결말에 이르러 ‘순애’와 ‘종남’의 관계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돌출된다. 두 인물 모두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 소설과 변별되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순애’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이것을 떠안겠다는 ‘종남’의 제스처, 그리고 ‘순애’의 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종남’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갈등의 봉합은 두 인물의 관계 역시 불균형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보자면, 그동안 장애 인물의 형상화와 함께 이루어진 5·18의 소설화는 기실 어떤 단일한 인식틀을 기반으로 전개되어 온 경향이 실재했다. 지금까지 살펴본바 결코 적지 않은 텍스트들이 ‘목격자-되기’라는 일종의 수사학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장애 재현 문법이 다채롭지 않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소설들이 조명하는 5·18의 국면과 이를 통해 발신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저마다 상이하지만, 장애 인물들은 모두 비장애 인물들에 의해 끊임없는 관찰의 대상이 되는 ‘타자’의 역할만을 부여받으며 등장한다. 5·18을 통과함에 따른 손상된 몸은, 그것이 체현하고 있을 다

양한 역사성이 누락된 채 오롯이 다른 이들에게 시혜적인 제스처를 불러일으키는 기제로만 기능한다. 손상된 몸으로 꾸리는 삶 역시 마찬가지이다. 장애인물들의 삶은 미래에 대한 일말의 긍정적인 전망, 상호적인 관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부재한 것으로 묘사될 뿐이다. 그리고 이 모든 재현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은, 다름 아닌 장애 재현에 대한 무관심과 비장애중심주의와의 결탁이었다.

기실 비장애중심주의는 명확한 형태로 드러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 비장애인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 체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의 몸과 삶이 갖는 차이와 다양성을 바라보는 시각을 보여주는 특정한 인식론에 해당하며, 다종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을 구성하는 '인간학'과도 맞닿아 있는 성질의 것이다. 5·18 체험자들을 모두 '피해자'로 호명하면서 체험의 다양한 층위들을 누락시키는 행위가 지양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특성만을 강조하면서 삶의 여러 국면을 단번에 소거시키는 소설 재현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5·18을 서사화한 소설들의 장애 재현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지점은 바로 이 대목일 것이다. 그간 여러 소설이 5·18 체험자들이 취약한 삶을 꾸릴 수밖에 없었던 까닭을 심문하면서 5·18에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해온 사실은, 5·18을 서사화한 한국소설의 성취임엔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까지 논한바 장애를 비극을 대리하는 '간편한' 은유로서 구성하는 동시에 부정적인 의미 자질만을 내포한 상태로만 바라보는 인식틀을 전제한 결과물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5·18소설'은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재평가가 요구된다. 그동안 이루어진 비판적 검토는, 특정한 관점 아래 5·18을 재구성한 소설화 경향을 문제삼으며 5·18의 재현 문법에 초점을 두어왔다.[106] 한편 이와 더불어 중

106) 이를테면 1980년대 후반 계급론적 시각 및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하여 진행된 '5·18소설' 재현을 비판적으로 논한 이성욱과 방민호의 논의가 그 대표적 예에 해당한다. 이성욱에 의하면 당시 '민중적 현실주의' 또는 '노동자계급 당파성'에 입각한 해석틀을 중심으로 5·18을 재현해 온 일련의 과정은, "계급론적 해석체계 밖에 존재하는 '광주'를 방치하는 우를 범"(이성욱, 「오래 지속될 미래, 단절되지 않는 '광주'의 꿈-광주민중항쟁의 문학적 형상화에 대하여」, 『비평의 길』, 문학동네, 2004, 333면.)해왔다. 그 까닭에 "'광주'의 의미의 깊이와 넓이가 상대적으로 축소되거나 사상되는 측면"(같은 글, 331면.)이 농후했다. 한편 방민호는 이들 소설이 5·18이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인간관과 세계관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았으며, 왜 그 80년대 동안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부채의식을 지니고 살아가야 했는가"(방민호, 「문학의 정치성에 대하여-'5·18 문학'에 관한 논의를 재검토함」, 『납함 아래의 침묵』, 소명출판, 2001, 559면.)와 같은 중요한 물음을 우회해 온 경향이 있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은, 소설들이 5·18을 재현하기 위해 필요로 했던 '인간상'이다. 만일 그것이 장애 인물의 형상으로 대표되는 고통의 역사를 체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몸과 삶이었다면, 이 같은 요구가 전제하는 인식틀 및 파급하는 효과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작업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5·18을 서사화한 소설들이 장애 재현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들 소설이 기틀 삼고 있는 윤리적 토대의 성긴 단면을 잘 보여준다. 5·18을 어떤 수단으로만 끌어오는 수사들이 지양되어야 한다면, 5·18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공표하고자 장애라는 특징을 과잉 재현하는 문법 역시 재고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그리고 바로 그 까닭에, 다차원적인 재현의 윤리를 상기시키는 '5·18소설'은 거듭 다시 읽혀야 할 것이다.

제2절 5·18과 고통받는 몸

한편 5·18의 소설화는 무엇보다도 '고통'의 재현과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소설은 비단 5·18 체험과 결부된 수다한 고통을 단순히 제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았다. 이들 고통이 사법과 의료 영역의 언어로만 해소될 수 없음을 공표하는 한편, 5·18 이후의 삶은 어떻게 도모될 수 있을지 물음을 제기하면서 '문학적 치유'의 가능성을 모색해왔다. 또 그것은 김명희가 논한바, "개인적이고 의학적 차원으로 환원되지 않는 사회적 원인과 과정에 의해 야기된 고통과 트라우마의 해법을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차원에서 모색하는 치유의 통합적 패러다임"[107]인 '사회적 치유'의 접근법과도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그렇다면 그동안 '5·18소설'은 어떤 재현의 과정을 이행하면서 이들 고통을 다뤄왔을까. 다음과 같은 정찬의 「슬픔의 노래」(『현대문학』 1995년 5월호.)의 한 문면은, 이 물음에 대한 응답의 초석을 다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정말 웃기시는군요. 작가선생들이 너도나도 깃발처럼 내걸고 있는 그놈의 진실이라는 것이 내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박제 같아요. 바짝 마른 박제 말이에요.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군요. 작가선생들이 광주에 대해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안 봐도 뻔해요. 죽은 자들이 흘린 피의 의미, 그들의 눈물, 살아남은 자의 고뇌, 그리고 가해자의 잔인과 악몽과 죄의식 등등. 여기에다 한 가지가 덧붙지요. 가해자 역시 희생자였다고. 왜? 권력에 눈먼 이들에 의해 이용되었으니까. 진실이 그렇게 단순한가요? 진실이 그렇게 일목요연하다면 세상은 참으로 명료하게 보이겠지요.」[108]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으로서 광주 현장에 있었던 「슬픔의 노래」의 '박운형'은 그동안 축적되었던 5·18의 소설화가 누락해 온 진실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묻는다. 그것은 소설 내 신문사 기자이면서 소설가이기도 한 '나', 그리고 소설 밖 정찬 자신에게 향하는 메타적 성격을 띠는 질문이자 한국문단 및 한국사회 전체에 제기하는 물음이기도 하다. 자신의 과거를 결코 잊지 못하는 한편 이를 정면으로 마주하고자 갖은 노력을 다하는 '박운형'의 형상화

107) 김명희, 「재난의 감정정치와 추모의 사회학-감정의 의료화를 넘어 사회적 치유로」, 『감성연구』 제19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9, 147면.
108) 정찬, 「슬픔의 노래」, 『현대문학』 1995년 5월호, 143-144면.

를 통해 「슬픔의 노래」가 가장 주요하게 쟁점화하고 있는 주제의식은, 단연 고통에의 응시이다. '박운형'은 예지 그로토프스키(Jerzy Marian Grotowski)가 창안한 '가난한 연극'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바꿔 말해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껍질을 벗겨버리는 것, 살을 깎아내고 뼈를 보여주는 것"(135면)을 통해 자신의 고통과 그야말로 '고통스럽게' 대면한다. "연극은 세계의 모방이 아"(145면)닐뿐더러 "배우에게 무대는 가공의 세계가 아"(같은 면)니라는 '가난한 연극'의 가르침은, 연극배우 '박운형'으로 하여금 그 어떤 갈무리와 승화를 거부하도록 만든다.

그리하여 '박운형'은 5·18 당시 칼로 사람의 몸을 찌를 때 느꼈던 생명의 '경련', 이른바 "생명의 모든 에너지가 압축된 움직임"(147면)을 상기하기에 이르며, 그것이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쾌감"(148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 말한다. 이 같은 깨달음을 망각하는 행위는 5·18을 둘러싼 여러 진실을 우회하는 작업과도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박운형'은 다시금 묻는다. 씻을 수 없는 고통과 함께 살아야 하는 운명을 예술이라는 기획으로 포착하는 작가들의 상상력은 왜 "대부분 사랑의 승리를 택"(152면)하는지, 그것이 실로 '진실'이라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사실 그것은 '슬픔의 강'을 건너기 위해 "작고 가볍고 날렵한 상상의 배"(같은 면)에 자신의 몸을 맡기는 다소 간단한 상상력이 아닌지에 대해서. 이에 '박운형'은 요청한다. 사람들이 안개를 손에 쥘 수 없듯, 고통을 예술적 상상만으로 기록하는 작업은 반드시 많은 것들을 누락시킨다. 그렇기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강이 되는 것"(같은 면), 바꿔 말해 거리를 두지 않고 고통과 슬픔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일이다.

그동안 5·18의 소설화가 진행된 전반적인 흐름을 고려해볼 때, 고통에의 집요한 응시를 요청하는 「슬픔의 노래」의 '박운형'의 메시지는 의미심장하다. '5·18문학'의 기원이 "빚진 자들의 부끄러움과 죄의식"[109]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의 발신은 앞 절에서 살펴본바 거듭된 장애 인물 형상의 재현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적인 효과들의 창출을 수반했다는 사실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인물의 고통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장애라는 특성을 그 자체로 비극을 대리하도록 설정함으로써, 소설은 장애 인물을 축소 재현하는 한편 5·18 체험으로 말미암은 피해를 과잉 대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109) 최현주, 「5·18문학 40년 연구사의 맥락과 재해석」, 『감성연구』 제20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20, 127면.

이는 곧 위의 「슬픔의 노래」가 문제 삼은 5·18 체험을 둘러싼 진실의 '단순화' 과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에 따라 여러 차원의 경험들을 담아내고자 하는 '집요함'은 뒷전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집요하게 관철된 것은, 장애 인물들을 '타자'로 위치시키는 비장애 인물들 시선의 삽입이었다. 그렇다면 5·18의 소설화는 스스로 슬픔의 강이 되어야 한다는 「슬픔의 노래」의 요청과는 무관한 양상으로 전개되어왔을까. 반대로 진실의 누락을 지양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왔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을 띠며 진행되었을까. 해당 절은 두 물음을 따라 일련의 소설을 검토한다.

한편 이 같은 물음의 답을 마련하기 위해선, 5·18의 소설화 과정을 '보편화'라는 전략적 틀을 중심으로 재검토해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소설들이 한국사회 구성원에게 5·18을 전국가적 트라우마로 인식시키기 위해 기도한 일련의 고투들을 재평가해보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때 '홀로코스트'(holocaust)가 어떻게 20세기 이후 트라우마에 대한 '지배적인 표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는지를 논하면서, 재현(물)의 기획 및 그 효과들을 정치하게 분석한 제프리 C. 알렉산더(Jeffrey C. Alexander)의 다음과 같은 논의는 주요한 참조점이 된다.

알렉산더에 의하면 "악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재현의 문제"[110]인데, 이는 트라우마를 야기하는 사건이 사회적인 악으로 규정되는 과정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연결된다. 이에 알렉산더는 1940년을 전후하여 나치의 만행들이 각국에 어떻게 소개되었는지, 종전 후 '유대인 대학살'의 정황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이것의 심각성이 어떤 재현의 경로들을 거쳐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었는지 등을 변화하는 재현물들의 서사 흐름을 따라 밝힌 바 있다. 그 결과 알렉산더는 홀로코스트가 전지구적인 '문화적 트라우마'(cultural trauma)로 인식되도록 만든 주요한 요인으로, '상징적 확장'(symbolic extension)과 '심리적 동일시'(psychological identification)의 완수를 꼽는다.

환언하자면 홀로코스트를 조명한 재현물들의 다채로운 (재)생산은, 그것이 특정 전쟁 범죄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학살의 '원형'으로서 인식하게끔 하는 '확장', 아울러 학살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마저도 자신의 체험과 같이 가깝게 감각하도록 만드는 '동일시'의 과정을 수반했다. 이에 따라 홀로코스트는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집단의식에 지

110) 제프리 C. 알렉산더, 박선웅 옮김, 『사회적 삶의 의미: 문화사회학』, 한울, 2007, 78면.

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겨서 그들의 기억에 영원히 자국을 남기고, 돌이킬 수 없는 근본적인 방식으로 자신들 미래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끔찍한 사건을 당했다고 여겨"[111]지는 '문화적 트라우마'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곧 알렉산더가 말하는 사회·문화적으로 (재)구성되는 트라우마의 특징이자, 이 같은 '보편화'를 추동하는 데에는 각종 문화적 재현물들이 중요한 역할을 도맡는다는 사실을 일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다.[112]

이와 같은 알렉산더의 논의를 경유하여 그동안 쓰인 '5·18소설'들을 다시금 검토한다면, 여러 작가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5·18의 소설화를 이른바 5·18의 '보편화'를 모색한 일련의 과정으로 독해할 가능성이 마련된다. 이때 소설들이 기획했던 것은, 5·18 체험이 야기한 수다한 고통을 한국 사회 모든 구성원의 그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확장'과 '동일시'였다는 사실 또한 추출해볼 수 있을 것이다.[113] 그 까닭에 5·18을 소설 재현의 장으로 끌어오는 과정들에 있어 몇몇 문제적 지점들이 돌출된다는 사실만으로 이 모든 기획을 적절성의 차원에서 '문제'라고 재단하는 것은 일말의 위험이 따른다. 1장에서도 언급한바 본 논문이 수행하는 비판적 작업 역시, 소설들이 장애 인물들을 재현했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5·18 체험으로부터 비롯된 피해와 고통을 꾸준히 공론화하고자 고투했던 소설들은, 5·18에 대한 편향된 인식, 즉 신군부를 비롯한 5·18 부인 세력의 줄기찬 호도로부터 파급되는 왜곡을 바로잡는 데 기여해왔기 때문이

---

111) 위의 책, 197면.

112) 예컨대 1947년 네덜란드에서 출간된 안네 프랑크(Anne Frank)의 『일기』(The Diary)는 그 대표적 예에 해당하는 재현물이다. 알렉산더의 지적처럼 이 기록물이 1952년 영어로 번역되어 소개된 이후 연극 및 영화화되는 등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던 일련의 과정들은, 세계 각국의 독자들로 하여금 홀로코스트가 유대인만의 비극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참상으로 사고하도록 만드는 한편 안네의 내밀한 일기를 자신의 이야기로 동일시하는 절차들이 수반되었기에 가능했다. 그리하여 안네의 '일기'는 "고통과 초월의 보편적 상징"(위의 책, 140면.)이 될 수 있었다.

113) 한편 미디어를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검토하며 인간의 '조건'에 대해 언급한 다음과 같은 존 더럼 피터스(John Durham Peters)의 문장은, '5·18소설'의 기획이 파급하는 다차원적인 효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제공한다. 피터스에 의하면 "인간의 조건은 재귀적이다. 즉 인간의 조건은 조건의 조건이다. 우리의 행동은 특히 조건이 우리를 바꿀 때 그렇게 행동하는 조건을 바꾼다.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조건을 바꾼다. (…) 우리는 우리가 조건 짓는 조건에 의해 조건 지어진다. 우리는 창조된 창조자로서 우리를 형성하는 도구를 형성한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공예품들과 조건들에 의해 산다."(존 더럼 피터스, 이희은 옮김, 『자연과 미디어』, 컬처룩, 2018, 88면.) 이와 같은 피터스의 논의를 참조한다면, '확장'과 '동일시'를 꾀하고자 하는 소설들의 전략은, 일종의 5·18 다시-쓰기의 과정과 일치한다. 그런 점에서 '5·18소설'은 5·18이라는 '사건'의 토대, 나아가 이에 대한 독자의 인식 '조건' 자체를 새롭게 구성하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 텍스트이기도 하다.

다.

그렇다면 장애 재현의 문제를 중심으로 '5·18소설'을 다시 읽는 본 논문은 위의 사실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까. 아울러 본 논문의 작업을 통해 5·18을 '문화적 트라우마'로 위치시키고자 했던 소설들의 전략은 어떤 새로운 의미를 획득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동안 다소 추상적인 범주로서 논의되어 온 고통을 보다 구체화시키는 과정 및 이를 다른 측면에서 새롭게 접근하는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다. 기실 '5·18소설'이 꾸준히 다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방민호가 제기한바 1980년 5월 이후 "살아남은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114]와 같은 물음에 대한 응답일 것이다. 한편 앞 절에서 살펴본 작품들이 여실히 보여주듯, 그간 소설들은 극심한 고통으로부터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인물들을 형상화함으로써 5·18 이후의 삶이 괴로움의 연속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문제는 이 같은 재현이 장애는 곧 '비정상적'인 상태를 지시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결과물이었다는 것. 이것이 앞 절에서 몇몇 소설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밝힌 주요한 결론이었다.

그러나 이때 문제가 되었던 것은 고통 자체를 재현한다는 사실에 있지 않았다. 여러 차례 언급했듯, 소설 밖 5·18 체험자들의 고통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게 실재했고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오히려 문제는, 고통을 재현하는 방식, 좁혀 말해 제삼자에 의해 당사자의 고통을 대신 전달하고 있는 양상과 이것이 함축하고 있는 장애 인물과 비장애 인물 사이의 불균형한 관계성에 있다. 이를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고통에의 집요한 응시가 진실의 누락을 지양할 수 있다는 「슬픔의 노래」의 전언처럼, 5·18 체험과 고통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소설 재현의 기획에는 중요한 의미가 내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요구되는 분석틀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분명 문제적임을 지적하는 것만큼, 고통에 대한 부인 또한 문제적임을 지적"[115]하는 장애학적 관점일 것이다.

이를테면 일라이 클레어(Eli Clare)는, 1장에서 소개한 장애의 사회적 모델이 명확하게 구분하는 손상과 장애 개념이 자신의 몸이 마주한 현실에 적확하게 들어맞지 않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고안한 올리버에 의하면 장애인의 삶을 소외시키는 동인은 신체 조직이나 구조의 결함을 일컫는 손상이 아니라, 손상된 몸을 가진 사람들에게 갖은 제약

114) 방민호, 「광주항쟁의 소설화, 미완의 탑」, 앞의 책, 269면.
115) 수나우라 테일러, 앞의 책, 251면.

을 부여하는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설계된 사회에 있다. 그런데 클레어는 사회적 구조 못지않게 "절름발이(glimp), 불구, 뇌병변(cerebral palsy) 장애인"[116] 인 자신의 몸으로부터 비롯되는 '물리적' 곤경이 실재함을 언급하면서, 때로 좌절, 분노, 실망, 당혹감과 같은 감정들은 손상 그 자체에서 기인하기도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짚는다. 그리하여 클레어는 자신의 경험을 예시하며 손상과 장애의 엄격한 구분이 무엇을 간과할 수 있는지를 아래와 같이 지적한다.

> 한편으로는 사회적 구조에 의해 야기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몸의 한계에 의해 야기되는 이러한 물리적 경험들은, 곧바로 좌절로 바뀐다. 그래서 내가 끝마치지 못한 시험지를 구겨버리고, 오르지 못한 바위에 욕설을 퍼붓고 싶게 만든다. 이 좌절에서 장애와 손상을 이론적으로 깔끔하게 구분할 수는 없다. 어느 괜찮은 날엔 '내 몸 안으로 향하는 분노'와 '바깥의 일상적인 망할 비장애 중심주의로 향하는 분노'를 분리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자의 분노를 후자의 분노로 바꿔서, 후자를 더욱 타오르게 만드는 일은 그리 간단하거나 깔끔하지 않다. 올리버의 장애 모델은 이론적·정치적으로는 타당하지만, 중요한 감정적 현실을 놓치고 있다.(밑줄-인용자)[117]

기실 장애의 사회적 모델이 몸의 손상으로부터 직접 야기되는 여러 어려움과 복잡한 '감정적 현실'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클레어의 비판적 논의는, 비장애중심주의가 만연한 사회뿐만 아니라 개인의 손상된 몸 그 자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요청하는 작업과도 같다. 바꿔 말해 장애인의 삶을 소외시키는 사회적 장벽이 손상된 몸으로부터 기인하는 고통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것은 지당한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 톰 셰익스피어(Tom Shakespeare)가 지적한바 "장벽이 없다고 하더라도 손상은 문제가 될 수 있"[118]다는 것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임을 클레어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클레어의 분석은 '5·18소설'을 분석하는 새로운 독법을 마련토록 돕는데, 이를 통해 소설들 내 장애 인물들이 마주하는 '감정적 현실'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아울러 그것이 변화하는 '5·18담론'들에 지대한 영향을 받으면서도, 어쩌면 이와는 별개로 장애 인물의 몸 그 자체가 체현하는 고통에서 곧바로 생겨날 수 있다는 사실을 분석하는 작업까지도 수행할

116) 일라이 클레어, 전혜은·제이 옮김, 『망명과 자긍심』, 현실문화, 2020, 43면.
117) 위의 책, 52면.
118) 톰 셰익스피어, 앞의 책, 82면.

수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소설들, 즉 이순원의 「얼굴」(『문학과사회』 1990년 가을호.)과 임철우의 「死産하는 여름」(『외국문학』 1985년 여름호.)은 '고통'으로 대표되는 감정적 현실의 서로 다른 국면을 잘 보여준다.

5·18의 진상을 다루는 몇몇 다큐멘터리가 본격적으로 방영되기 시작한 1990년 무렵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이순원의 「얼굴」은, 1980년 5월 현장에서 공수부대원으로서 시민들을 진압한 전력이 있는 '김주호'의 고통을 초점화한다. 그리고 그것은 "광주 비디오"(1060면)를 "보지 않고는 잠을 이룰 수 없"(같은 면)는 일종의 불안과 관계해있는 것이자, 영상물에서 혹 자신의 얼굴이 출현하는 것은 아닌지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로 표면화된다. 제대 이후 "줄곧 그곳에서의 일을 잊으려 노력"(1047면)해왔으나 계엄군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했던 "살육"(1048면)에 대해 "잊은 건 아무것도 없었"(1047면)다고 술회하는 한편, 자신이 "분명 물리적 가해자였으면서도 또 다른 정신적 피해자"(1069면)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김주호'의 형상은, 앞 절에서 다룬 한승원의 「어둠꽃」의 '종남'의 그것과 매우 닮아있다. 다만 변별되는 지점이 있다면, '김주호'의 고통은 끝내 어떤 방책으로도 해소될 수 없는 것으로 그려진다는 데에 있다.

과거의 행적을 망각하고자 하는 '김주호'의 노력은 모두 수포가 된다.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5·18 체험을 마주하기를 기도하기도 하지만, 견딜 수 없는 두려움에 "차마 공수부대 이야기를 하지 못"(1061면)한다. "니가 뭔 죄가 있"(1057면)냐는 '어머니'의 말도 일말의 위로가 되지 않는다. 이처럼 고통이 무마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수록 '김주호'의 공포는 더욱 선명해지고, 이내 '어머니'에게 이민을 제안하기에 이른다. 중요한 것은, 소설이 '김주호'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배가시키는 요인으로 이전과는 급격하게 달라진 한국사회 내 '5·18담론'을 꼽는다는 사실이다.

소설은 '5·18청문회'가 개최되거나 관련 다큐멘터리가 제작되기에 이르는 등 5·18의 공론화가 이루어지는 사회 풍경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이에 따라 '김주호'는 그 어떤 것도 발화하지 못한다. 영상물에 "김형 얼굴은 안 나오던가요?"(1075면)하고 물어오는 직장 동료들을 비롯해 주변 집단으로부터 끝없이 소외된다. 요컨대 '김주호'의 불안으로 점철된 내면, 그리고 그 불안을 야기하는 요인들을 추적하는 서사를 취하고 있는 「얼굴」은, 5·18 체험과 결부된 내면의 고통이 외부 사회의 변화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얼굴」이 '김주호'에게 장애 인물이라는 표지를 표면적으로 삽입하지 않은 채 5·18 체험과 결부된 고통을 그리고 있다면, 임철우의 「死産하는 여름」은 극심한 정신적 손상을 입은 인물 '김광서'를 형상화하고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119] 기실 「死産하는 여름」은 장애 인물 '김광서'를 중심으로 읽힐 때라서야, 소설이 제시하고 있는 1982년 광주라는 시공간과 5개의 장 구성이 갖는 구체적 의미를 밝힐 수 있다. 무엇보다도 「死産하는 여름」은 1982년 8월 현재의 광주를 여러 "빌어먹을 소문"(26면)이 횡행하고 있는 까닭에 시민들이 많은 혼란을 경험하는 도시로 묘사한다. "한덩어리로 찰싹 달라붙은 남녀"(32면)가 입원해 있다고 알려진 '향민의원'으로 그 진상을 직접 보기 위한 시민들이 일파만파 모이고 있는 풍경이 소문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면, 다른 축은 수돗물의 "괴이한 악취"(31면)가 수원지에서 발견되었다고 전해지는 시체 여러 구로부터 기인한다는 낭설이 자리한다. 그리고 소설은 이 소문들을 모두 "불순한 유언비어"(92면)로 규정하는 시 당국의 경고를 삽입함으로써 1980년 5월 광주를 둘러싼 일련의 상황들, 즉 5·18의 실상을 일체 부인하고 왜곡했던 신군부의 행태들을 강하게 환기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소문들은 1장, 2장, 5장의 서사를 추동하는 주요한 화소로 기능하는 데 반해, 3장과 4장에서는 돌연 자취를 감춘다. 소설은 행방이 묘연해진 이 소문의 자리에 "유난히도 초췌하고 병약해 뵈는"(69면) '김광서'의 삶을 채워 넣는다. 과일가게를 운영하며 야학을 적극적으로 운영한 바 있는 '김광서'는, 활기찼던 "예전의 그가 아"(67면)닌 초라한 모습으로 출현한다. 소설은 '김광서'가 이처럼 과거와 극명하게 달라진 까닭을, 5·18 이후 2년 동안 그가 경험한 일련의 비극적인 일들을 제시하면서 밝히고 있다. 5월 27일 '시민군'으로서 새벽까지 도청을 수호하다가 이내 감옥에 수감된 '김광서'는, 출감한 이후 정신과 병동, 기도원, 시립 정신병원 등을 오가는 삶을 꾸린다. "밤낮으로 몸뚱이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다며 비명을 지르거나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가끔은 까닭없이 난폭해져서 식구들에게 손찌검을 하기 일쑤였"(70면)기에 좀처럼 집 안에서 생활할 수 없었던 것이다.

"방 빗장을 풀고 기도원을 탈출"(71면)하기도 하는 등 집 밖에서도 지속적으로 불안을 표출하던 '김광서'는 그의 '증상'들을 감내하겠다는 아내의 결심

119) 물론 두 인물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작업에는 약간의 무리가 따른다. 두 인물의 5·18 체험 국면이 각각 공수부대원과 일반 시민의 그것이라는 측면에서, 그 고통의 층위가 분명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소설의 비교 검토를 수행하고자 하는 데에는, 이들의 고통이 서로 다른 체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소설이 이것을 표현하는 방식에서도 차이를 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요한 동인으로 작용한다.

아래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여전히 '김광서'는 날마다 "누군가가 두들겨 패고 있거나 하듯 절박한 비명을 질러대"(72면)고, 바로 그 까닭에 오랜만에 자신을 찾아온 후배이자 같이 야학에 몸담았던 'K'와 'P'로 하여금 아쉬움을 자아내도록 만든다. 다른 한편 소설은 '김광서'의 내면을 더욱 구체적으로 조명하면서, 그가 왜 이토록 불안을 표출하는지를 서사화한다. 그 저변에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상기되는 어떤 기억들이 위치해있다. 그는 감옥에서 수사관으로부터 받았던 강제적인 취조와 고문의 장면들, 두려움에 떨며 시간을 보냈던 5월 27일 도청의 새벽의 풍경들, 자신이 가르쳤던 아이들의 환영(幻影)을 지속적으로 '본다'. 그리하여 '김광서'의 내면은 공포, 불안, 그리움이 착종되어 있는 한편, 이들 장면으로부터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

중요한 것은, 소설이 이와 같은 '김광서'의 삶을 제시할 때 그 어떤 외부 상황, 바꿔 말해 각종 소문이 자자한 1982년 5월 현재 광주의 시공간을 애써 환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오롯이 '김광서' 개인의 삶의 편력만을 조명하면서 그 고통을 다루고 있는 「死産하는 여름」은, 어쩌면 5·18 체험이 파급하는 고통이라는 것이 몸에 새겨진 기억 및 손상된 몸 자체로부터 기인할 수도 있기에, 변화를 거듭하는 5·18을 둘러싼 사회적 반응 못지않게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예시한 「얼굴」과 「死産하는 여름」은 그동안 한국소설이 5·18을 한국사회 구성원에게 비극적인 고통을 떠안긴 국가폭력으로, 추상적으로만 구성해오지 않았음을 잘 보여준다. 그보다는 오히려 5·18 체험과 결부된 고통의 발생 및 심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호명하면서 5·18을 예각화해왔다. 때로는 「얼굴」의 '김주호'의 형상을 제시함으로써, 5·18에 대한 각종 담론의 (재)생산이 5·18 체험자의 고통을 심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임을 말해왔다. 그런가 하면 「死産하는 여름」의 '김광서'의 소외된 삶을 통해, 정신적 고통이 몸의 경험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120]

---

120)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와 같은 설명이 5·18 체험에서 비롯된 몸의 손상이 '개인적'인 것인지 '사회적'인 것인지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사고하는 인식틀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떤 몸의 상태를 손상이라고 일컫는 행위 자체도 담론적으로 구성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몸을 통해 직접 경험하고 느끼는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사회의 영향을 받았다고만은 할 수 없는 지점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몸의 손상, 더 좁혀 말하자면 5·18 체험과 결부된 손상은, 개인과 사회가 주고받는 영향 관계가 교착되어 있는 일종의 '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5·18 체험과 결부된 고통이 갖는 다양한 의미들을 고려해본다면, '5·18소설'이 형상화하고 있는 인물들의 손상된 몸이 5·18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표지 역할만을 담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형상은 5·18 이후 삶의 구체적 양상에 대해서, 이를테면 손상된 몸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묻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의를 갖는다. 아울러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손상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손상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가는지, 손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121]를 다루는 '손상의 현상학'과도 연결되기에, '5·18소설'은 폭넓은 해석을 예비하는 텍스트라고도 할 수 있겠다. 한편 이 모든 사실을 종합적으로 갖춘 텍스트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5·18 이후의 삶의 국면을 다채롭게 그리고 있는 공선옥의 일련의 소설들이다.

「얼굴」과 「死産하는 여름」이 고통으로 침잠하는 인물들의 삶을 형상화함에 따라 전체 서사의 흐름이 다소 비극적으로만 구성되었던 것과는 대비되게, 공선옥의 소설들은 고통과 함께 삶을 꾸릴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그런데 이 과정 역시 어떤 지난함을 수반한다. 다음과 같은 「목숨」(『창작과비평』 1992년 가을호.)의 한 장면은 그 어려움의 한 단면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 "오월에 나는 폭도였다. (…) 싸울 수밖에 없었다. 싸우는 길만이 그때는 살아남는 길이었다. 마지막 날 새벽, 예전에 나랑 같이 뒷골목에서 개폼 잡고 살던 놈팽이, 넝마주이, 주방장 하던 내 친구들 영택이, 하준이, 용수 다 죽었다. 나는 모른다. 그 친구들이 어데 가 묻혔는지. 망월동에 묻혔는지 아니면 청소차에 쓸려가서 쓰레기처럼 어딘지도 모를 산허리 구덩이에 매립당했는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불구덩이 속에 처넣어졌는지 나는 모른다. 그리고 남겨진 나는 어쩌다 구차한 목숨이 붙어서 아직까지 살아있다. (…) 나는 어쩌면 미쳐버렸는지도 모르겠다. (…)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보자만 예감은 그리 좋지 않다. 또 모르지. 데모를 하다 백골단에 맞아 뒈지든지 이도저도 아니면 더러운 세상 살자니 나도 같이 더러운 놈이 되어 살인 강도짓을 벌이다가 가막소 안에 처박히게 될지도. 앞날은 장담 못할 일이다."[122]

"영등포 쇳공장 노동자"(150면)인 「목숨」의 '재호'는 자신과 함께 단란한 생활을 꾸리고 있는 '혜자'에게 "봄부터는 돈 못 벌지도 모르겠다"(160면)며, 돌

121) 수전 웬델, 전혜은 옮김, 「건강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질환을 장애로 대우하기」, 『여/성이론』 제27호, 도서출판여이연, 2012, 168면.
122) 공선옥, 「목숨」, 『창작과비평』 1992년 가을호, 161면.

연 5·18 당시 '시민군'으로서 활약했던 자신의 과거와 앞으로 닥칠 불안한 미래에 대해 고백한다. "개좆같은 세상에 나도 개좆이 되어 살아보고자"(161면) 갖은 노력을 해보았다던 '재호'는, 죽은 동료들에 대한 죄의식과 자신의 불안한 생활을 청산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한다. 그러고는 '재호'는 "시름시름 앓는"(162면) 모습을 보이더니, 이내 아무런 말도 없이 '혜자'의 곁을 떠난다. 기실 이처럼 1980년 5월 이후 "살아 있달 것이 없"(150면)고 "어쩌면 죽은 목숨"(같은 면)과도 같은 삶을 살아왔다고 고백하는 '재호'와 같은 형상은, 앞서 분석한 소설들의 인물들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게다가 인용된 위의 문면에서 '재호'가 수행하는 고백의 이면에 자리한 어떤 향수(鄕愁)는, 많은 구성원이 사상의 고양을 실감했던 5·18의 현장을 환기하는 것 이외의 새로운 의미를 발산하지 않는다.

한편 이처럼 어느 한 곳에 정주하지 못하고 떠나는 남성 인물들, 또 그 행위의 기저에 5·18 체험에서 기인한 상실감, 죄의식, 두려움, 공포 등 복잡한 감정들이 자리하고 있는 설정은 공선옥의 소설들에서 빈번하게 나타난다. 「목숨」의 '재호'가 자신의 불길한 예감을 채 소거하지 못한 채 황급히 자리를 뜨는 인물이었다면, 「흰달」(『실천문학』 1993년 겨울호.)에서는 1980년 5월이 "사랑의 힘이 없이는 날마다가 굴욕과 살의로 지새워야 하는 날들이었"(203면)다며 당시 사랑을 나눴던 '향숙'에게 향하는 '순'의 남편의 모습이 그려진다. 「목마른 계절」(『창작과비평』 1993년 여름호.)은 "감옥 나와 십년을 시난고난 앓다가"(222면) 결국 "제 명을 다 못 살고 죽"(같은 면)고 마는 '미스 조'의 '애인'을 형상화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공선옥 소설들은 고통과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를 어떻게 상상하고 있는 것일까. 일별했듯 생활의 현장을 떠나는 남성인물들에게는 그 어떤 긍정적인 전망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공선옥 소설은 바로 이 지점, 즉 사라진 남성 인물들이 남겨놓은 자리이자 불현듯 형성된 '빈' 공간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도모한다. 그리고 이곳에서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는 주체는 다름 아닌 여성 인물들이다.

흥미로운 점은, 공선옥 소설이 이처럼 남겨진 여성 인물들의 삶으로 시선을 옮기는 동시에 이들이 체험한 5·18을 중요하게 다룬다는 데에 있다. 「목숨」의 '혜자'는 다가올 5월의 삶을 비관하는 '재호'의 말을 듣고는, 자신의 1980년 5월은 어떠했는지를 떠올린다. '혜자'에게 있어 5월은 "늦은 밤 엄마하고의 애절한 통화로만 기억"(160면)된다. 그리고 그것은 "어둠 저쪽에서

유폐된 채 끊임없이 피어린 목소리로 혜자를 불렀"(같은 면)던 '엄마'의 절규로 '혜자'의 기억 속에 현현한다. 광주에서 홀로 남은 '엄마'가 서울에서 고된 버스 안내양 생활을 하고 있던 '혜자'에게 걱정 어린 안부를 묻는 장면, "경황없이 끊어버린 전화선 어둠 저쪽에서 엄마가 죽어가고 있는 환영에 시달리던 몇날 며칠"(같은 면)의 풍경. 소설은 이것이 '혜자'의 5·18이었음을 강렬하게 환기한다.

「흰달」의 '순'에게 있어 5월은 '엄마'의 죽음과 '아버지'의 외도가 교차했던 시공간이다. 그 까닭에 '순'은 자신에게 "그해 오월은 죽음의 계절이었지만 또한 얼마나 뜨거운 사랑의 계절이었는지 네가 아"(204면)냐고 묻는 '남편'의 뺨을 때리며 "침을 뱉듯이 나오는 대로 욕설도 씨부"(같은 면)릴 수밖에 없다. '엄마'의 병세가 심해지는 형국에 "남의 죽음을 생각할 겨를이 없"(210면)었던, 언니 '옥'을 포함한 세 식구를 버려둔 채 홀로 새로운 가정을 꾸린 '아버지'를 찾기 위해 '엄마'의 위중함을 알리러 홀로 길을 나섰던 '순'에게, 5월은 결코 낭만의 계절이 될 수 없다. 「목마른 계절」 또한 "이젠 아줌마도 광주에서 벗어나야 해요. 2, 30년대의 신파가 그보다 낫거든. 한마디로, 아직도 광주? 웬 광주? 거든"(215면)과 같은 주변의 비아냥에도 불구하고 5·18을 이야기하는 여성 소설가 '나'의 모습을 그림으로써, '나' 고유의 5·18 체험이 실재함을 암시한다.

그리하여 공선옥의 소설들은, 남성 인물들이 호소하는 고통 못지않게 여성 인물들의 5·18 경험을 병치함으로써, 5·18이 비단 '시민군'으로 대표되는 남성들만 전유할 수 있는 성질의 경험이 아니라는 사실을 공표한다. 그리하여 이들 소설은 류수연이 논한바 "오월 광주에서 촉발된 시대적인 절망과 좌절, 부끄러움에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그것을 핑계로 삼은 비겁함과 폭력은 용인하지 않"[123]는다. 5·18 체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자 이후에도 좀처럼 떨쳐낼 수 없는 수다한 고통은 비단 남성 인물들에게만 부여되는 몫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목숨」의 '혜자'와 「흰달」의 '순'의 경우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1980년 5월부터 예비되어 있었음을 상기해본다면, 어쩌면 현재 고통을 호소하며 자리를 뜨는 남성 인물들보다 이들이 체현하고 있는 고통의 무게가 더욱 과중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요컨대 예시한 텍스트들은 '시민군'으로 참여한 '항쟁'의 현장에서 이루어진 사상의 고양만이 5·18의 여러 국면을 대표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1980년 5월

123) 류수연, 「돌봄과 노동의 경계에 선 '엄마', 다시 읽는 공선옥」, 『비교한국학』 29권 1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21, 45면.

당시와 상반되는 지난한 현재의 삶과 건강의 소진, 몸의 손상만으로 5·18 체험과 결부된 고통을 모두 설명할 수 없다는 값진 사실을 일러준다.

그리고 이들 여성 인물은 남성 인물들이 부재한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개진할 것을 계획한다. '재호'의 아이를 임신한 「목숨」의 '혜자'는 "설사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169면) 이에 굴하지 않고 "뱃속의 아이"(같은 면)를 낳을 것을 결심한다. 혼자 남은 '혜자'에게 있어 아이는 살아야 할 당위를 제공하는 "목숨줄"(같은 면)이자, 여공, 버스 안내양으로서 살아온 지난한 과거, 그리고 '작부'라는 "다시는 되돌아가고 싶지 않은 어두운 뒷골목"(165면)의 삶으로의 회귀를 거부하도록 만들어주는 존재이다. 「흰달」의 '순'은 자신의 아이, 이복동생 '호길'을 모두 돌볼 것을 다짐한다. 돌연 옛사랑을 찾아 떠난 '남편'과 위중한 '어머니'를 두고 외도를 감행한 '아버지'와는 다르게,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기 때문이다. 「목마른 계절」의 '나' 또한 마찬가지로 "죽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이을 수도 없"(228면)다고 되뇌며,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아이와 함께 삶을 꾸릴 것을 스스로 약속한다.

이처럼 공선옥 소설의 여성 인물들은 '엄마'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 아래, 비극적인 삶으로의 귀결을 한사코 거부한다. 이 거부의 표현은 결코 남성 인물들이 부재한 상황 또는 어려운 경제적 현실에 수동적으로 순응한 결과가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고통 또한 삶의 일부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자신의 책임을 타자에게 쉽게 전가하지 않겠다는 윤리적 결심에 가까울 것이다. 그리하여 공선옥 소설은 5·18 이후의 삶에도 어떤 긍정적인 전망이 실재할 수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발신한다.

그런가 하면 「씨앗불」(『창작과비평』 1991년 겨울호.)은 이 같은 전망을 남성 '시민군'의 삶을 중심으로 제시한다. 앞선 세 소설이 여성 인물들이 어떻게 남은 삶을 개진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모색했다면, 「씨앗불」은 "시민군 했다가 몸 베리고 신세 조진 사람들"(181면)이 삶을 다시금 새롭게 꾸릴 수 있을지 묻는다. 그런데 물음의 답을 마련하는 과정 역시 어려움이 따른다. 소설은 그것이 "출신성분에 대한 수치심"(169면)과 '폭도'라는 낙인, 그리고 "알콜중독자, 정신병자, 또라이"(182면) 등과 같은 멸시로부터 기인하고 있음을 지시한다. 그러나 소설은 '위준'을 중심으로 일말의 통로를 마련한다. "숨 막히는 답답증"(162면) 때문에 매일같이 술을 마시며 사회에 좀처럼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 '위준'의 고통을 조명하면서도, 긍정적인 미래상을 상상한다.

1980년 5월 당시 '기동타격대원'으로서 도청에 끝까지 남아있다가 '불순

분자'로 명명된 이후 수감 및 방랑의 생활을 거듭한 바 있는 '위준'은, "도무지 자기가 살아있다는 확신"(같은 면)을 느끼지 못한다. 기실 '위준'에게 있어 5·18은 과거 '룸펜'(lumpen)[124]으로 살아온 "허망한 부랑의 길"(170면)을 청산할 수 있었던 주요한 계기이자, "억압과 수탈의 세월에서 해방"(175면)되기를 간구하며 삶의 고양을 꿈꿨던 시공간이었다. 그러나 주변인들을 비롯한 사회는 더이상 5·18에 관심을 표하지 않으며, 이를 현재화하기보다는 에둘러 봉합하려 들 뿐이다. '위준'은 바로 이 낙차를 좁히기 위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오욕의 세월을 씻어낼 수 있는 일"(170면)을 할 것을 결심하는데, 정작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갖은 비아냥과 멸시이다. 모든 일상을 "분하고 서러운 감정"(171면)으로 대하면서 사회를 향한 일말의 '복수' 내지는 어떤 재생(再生)을 꿈꾸는 '위준'은, 그저 "반미치광이"(같은 면)로 낙인찍힌다.

그리하여 '위준'의 내면은 분노로 점철되어 있다. 임금을 제때 주지 않으면서 "민정당 똘마니노릇"(165면)하는 공장주에게 '역겨움'을 느끼며 일터인 의자공장을 그만두는 한편, 자신을 적대하는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언사와 행동을 일삼기도 한다. 게다가 불현듯 상기되는 '항쟁'의 현장, 즉 처절하게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출현함에 따라, '위준'은 좀처럼 분노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다른 '기동타격대원'들은 고정된 일자리에서 안정된 수입을 챙기는 한편 '의식화' 끝에 여전히 '투사'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이들과 달리 도무지 불안한 삶과 결별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 역

124) 정명중은 「씨앗불」이 기존의 '5·18소설'들과 변별되는 지점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즉 기존의 소설들은 5·18 체험자들의 부끄러움과 죄의식을 개인의 '실존적 차원'에서만 다뤄 온 경향이 농후했다면, 「씨앗불」은 "항쟁 이후 '위준'이 맞닥뜨린 사회적 '문턱'(차별과 배제)이 불러온 부끄러움의 내적 드라마"(정명중, 「5월의 기억과 부끄러움-공선옥의 「씨앗불」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43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0, 322면.)를 제시함으로써 부끄러움과 죄의식이 "개인의 실존 차원으로만 회수되지 않"(같은 글, 339면.)는다. 그리고 이때 주요한 분석 대상은, 다름 아닌 '룸펜'이라는 '위준'의 계급적 특성이다. 정명중에 의하면 '위준'이 '룸펜'으로 설정되었다는 사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것이 5·18 이후 '위준'의 삶을 "영원한 현실 부적응자로 도시를 배회하도록 부추"(같은 글, 324면.)기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이자 좀처럼 벗어날 수 없는 '운명적 굴레'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흥미로운 점은, 정명중은 「씨앗불」의 '미덕'을 "'세상=죄'라는 등식에 바탕을 둔 거대한 허무주의 안에서 어떤 삶의 형태도 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절망적 인식을 각인시"(같은 글, 338면.)키고 있음에서 찾는다는 사실에 있다. 바꿔 말해 소설이 다시금 삶을 새롭게 꾸려보겠다는 '위준'을 통해 제시하는 미래상은 '어설픈 전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앞에서 다룬 5·18을 서사화한 공선옥 소설들과 마찬가지로, 「씨앗불」 역시 미래에의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작품으로 읽는다. 무엇보다도 「씨앗불」은 '위준'이 경험하는 여러 곤경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여기도록 추동하는 국면들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설은 이 같은 태도의 변화가 사회에 의해 부착된 낙인을 자신만의 새로운 방식으로 (재)전유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발신한다.

시 사회와의 불화를 더욱 부추긴다. 그러던 중 '기정'이 보상금 문제와 관련하여 괴로움을 겪다 이내 분신을 했다는 소식까지 접하자, '위준'은 이대로는 안 된다며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 기도한다.

대책이란 곧 '기동타격대원'들을 한 자리에 모아 당국에 5·18 체험자 위주의 정책을 마련할 것, 5·18의 구체적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골자로 하는 시국선언의 실행을 일컫는다. 이를 위해 '위준'은 과거의 동료들을 찾아 나서며 참여를 독려한다. 이에 서울에서 한의대를 다니는 등 소위 "먹물을 먹은 축에 속했"(182면)지만 5·18 체험 이후 불안정한 삶을 꾸리는 '시몬', "넝마주이 출신으로 항쟁에 참가했다가 사십이 넘은 나이에 장가도 못 가고 지금은 도시 변두리 송정리에서 개를 치고 있"(188-189면)는 '김치수' 등의 동료들은 적극적으로 응답한다. 기실 이 같은 '기동타격대원'들 간의 연대는 서로에게 있어 너무나도 절실한 것이다. 연대의 방안을 먼저 고안한 '시몬'의 말처럼, 만일 성토의 장이 마련되지 않으면 "오일팔 때 몸 병들어, 먼 생활보조금이란가 뭔가 땜시 맘 병들어 다 죽"(185면)기 이를 지경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대의 계획은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구체화된다.

> '기동타격대 동지 여러분. 피의 항전이 저들의 무참한 학살로 짓밟힌지 8년이 지났습니다. 기만적인 6·29를 통해 등장한 ○○○정권은 지금까지 음성적으로 거래해오던 보상대책을 6공 정책의 하나로 내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도 제대로 안된 처지에 살인자 처벌은커녕 살인자가 권력을 차지한 작금에 누가 누구에게 보상을 하고 보상을 받는단 말입니까.
>
> 저들은 지금 더러운 돈의 힘으로 우리 동지들을 이간질하고 한 동지의 인간성마저 파괴시키고 말았습니다.
>
> 저들의 어떠한 술책에도 넘어가지 맙시다. 오월영령의 뜻 이어받아 더욱 강고하게 투쟁합시다. 제2, 제3의 서기정 동지를 막는 길은 힘을 합쳐 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
> 동지 여러분 흩어지지 맙시다. 투쟁, 투쟁의 길만이 살 길입니다.'[125]

1988년 노태우 정부의 출범을 전후하여 이른바 '국민적 화합'을 도모하겠다는 계획 아래 국가가 추진한 일련의 '5·18 정책'[126]을 강하게 문제 삼는

125) 공선옥, 「씨앗불」, 『창작과비평』 1991년 겨울호, 204-205면.

126) 이는 '광주 사태'를 반드시 '치유'하겠다는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노태우의 공약으로부터, 1988년 1월 '민주화합추진위원회'의 발족 및 정부의 '국민화합분과위 건의안' 채택, 그리고 1990년 8월 '5·18보상법'의 제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을 일컫는다. 그런데 노태우 정부가 추진한 5·18의 치유 작업은, 5·18 체험자들과 시민단

인용된 위의 선언은, '위준'을 비롯한 '기동타격대원'들이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보여준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소설이 5·18 체험자들의 '인간성'과 삶 모두를 와해시키는 정부의 일방적인 보상정책에 맞선 이들의 '투쟁'과 연대가 실패로 귀결되고 있음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요래도 욕묵고 조래도 욕묵을 놈으로 정해진 이상"(205면) 보상금을 받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는 목소리가 있는 한편, 현재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을 두고 의견 대립[127]이 이어지면서 연대의 장은 이내 "난장"(207면)이 된다. 이들 모임은 비단 '동지'들의 입장 차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갈무리되지 않는다. '기동타격대원'들을 "사적인 조직으로 맹글아서 무식헌 놈들 우려먹을라는"(같은 면) 모종의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이 폭로되기도 하며, '위준'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에게 "구린 놈들은 구린 놈들끼리 살어야 구린내가 안 나는"(209면) 법이라며 설치지 말라는 말과 함께 머리를 가격당하기도 한다.

이처럼 삶을 '재건'해보겠다는 '위준'의 계획은 수포가 된다. 이는 '위준'이 끝내 "턱없이 과격하고 깡패기질은 어쩔 수 없다느니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것 아니냐는"(같은 면) 주변 사람들의 비아냥으로부터 좀처럼 벗어날 수 없음을 뜻하기도 한다. 그러나 앞선 세 소설의 여성 인물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방한 것처럼, 「씨앗불」의 '위준' 역시 좌절하지 않는다. '위준'은 다시금 어떤 희망을 발견한다. 그것은 "활활 타오르는 장작처럼 벌겋게 점점 그에게 다가오"는(210면) 불빛, 즉 "망월동과, 망월동에도 묻히지 못한 숱한 망자들의 원혼"(191면)인 '씨앗불'을 직시하고 가슴에 담아두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리하여 '위준'은 비로소 "만족한 웃음을 웃"(210면)으며 자신의 삶을 긍정할 수 있게 된다. 숱한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죽은 이들의 존재를 망각하지 않을 것임을, 자신의 가슴 속에 들끓는 "씨앗불의

체들이 요구한 '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후 보상 및 기념사업'의 원칙들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아울러 "인권 침해와 국가폭력을 휘두른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정치보복이며 그리고 국민적 화해와 화합을 위해 처벌하지 않"(임혁백, 『비동시성의 동시성: 한국 근대정치의 다중적 시간』, 고려대학교출판부, 2014, 648면.)겠다는 정부의 선언은, 정책의 중심에 위치해야 할 5·18 체험자들을 '화합' 또는 '치유'라는 계획 아래 고려의 대상에서 배제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된다. 1990년을 전후하여 고안된 '5·18정책'들에 대한 비판적 논의로는, 신일섭,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의 정치·사회적 의미」, 『민주주의와 인권』 제5권 2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5. 참조.

127) '시몬'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설왕설래의 한 단면을 잘 보여준다.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못 배우고 무식헌 우리들끼리 모여 지식인을 타도하고 운동권의 헤게모니를 장악해보자고 모인 게 아닙니다. (…) 어떻게 하면 제2, 제3의 서기정동지가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는가를 의논하고 앞으로의 투쟁 대책을 논의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결코 먹물들의 성토장이 아닙니다."(206면)

힘으로 그가 살아갈 것임을"(같은 면) '위준'은 다짐한다. 그리고 소설은 자신의 딸 울음소리를 "질기게 튼튼하게 살아가겠다는 선언"(같은 면)으로 받아들이는 '위준'의 모습과 함께 갈무리된다.

한편 이 지점에 이르러 유의해야 할 것은, '위준'을 여러 고통과 갈등에 굴하지 않고 다시금 삶을 꾸리고자 하는 인물로 형상화하고 있는 소설의 의도와 이것이 파급하는 효과이다. 「씨앗불」의 '위준'은 분명 앞 절에서 분석한 고통만을 호소하는 장애 인물들과 변별된다. 이 같은 변별의 지점은 5·18을 서사화한 공선옥 소설이 담아내는 매우 중요한 성취이기도 한데, "동정적인 옹호의 정치학에서 긍정적인 정체성의 정치학으로 이동"[128]하는 과정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까닭이다.

소설은 '위준'을 자신에게 부착된 모든 오명을 긍정적으로 전유할 가능성을 체현하는 인물로 형상화함으로써 '위준'의 미래를 상상한다. 환언하자면 '위준'은 서사의 진행과 더불어 '폭도', '알콜중독자', '정신병자', '또라이' 등의 낙인을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인물로 변모한다. 이 같은 '위준'의 형상은 5·18 체험자들을 비단 "수동성의 덫"[129]에만 갇히지 않도록 만드는 재현도 가능할 수 있음을, 나아가 그것은 불화와 고통의 국면에 대한 배제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정면으로 응시할 때라서야 이루어질 수 있음을 징후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5·18 이후의 삶에 관심을 쏟는 공선옥의 소설들은, 지난한 현실에 좌초되지 않고 새로운 미래의 구축을 도모하는 인물들을 주요하게 형상화한

---

128) 로즈메리 갈런드-톰슨, 앞의 책, 191면.

129) 염운옥, 『낙인찍힌 몸: 흑인부터 난민까지, 인종화된 몸의 역사』, 돌베개, 2019, 137면. 한편 염운옥은 2007년 영국 전역에서 진행된 대서양 노예무역폐지 200주년 각종 기념 행사가 '노예'를 수동적 존재로 곧바로 치환하여 재현했던 방식들을 문제 삼으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한 바 있다. "노예의 고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제대로 된 역사적 재현과 성찰로 곧바로 이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오히려 치유 불가능한 트라우마를 너무 쉽게 전유하는 행위는 '공감'이 아닌 '연민'만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노예를 수동적 주체로 재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남기지 않을까? 왜 노예는 항상 사슬에 묶인 모습으로 재현되어야 하는가?"(같은 책, 136면.) '노예'는 곧 수동적 존재이자 '침묵하는 희생자'라는 스테레오타입이 여전히 재생산되고 있는 오늘날의 불편한 현실을 관통하고 있는 염운옥의 물음은, 5·18 체험자들의 재현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 5·18 체험자를 긍정적인 삶을 좀처럼 개진할 가능성이 없는 존재로서만 형상화하는 재현 문법은, 1장 1절에서도 언급했듯 이들이 1980년 5월 이후 '오월 운동'의 능동적인 주체이자 행위자였다는 사실과 이들 삶의 다양성을 지운다. 백인 중심의 노예제폐지 운동 중심의 기억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노예를 수동적 존재로 재현하는 이미지를 전복하는 일"(같은 책, 140면.)이 요구된다는 염운옥의 지적을 참조하자면, 5·18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의미 자장 및 체험자들의 다채로운 삶의 양태들을 누락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이 같은 이미지의 '전복'은 필요하다. 그리하여 5·18 체험자를 동정과 연민의 대상으로만 재현하고 있지 않은 「씨앗불」을 포함한 공선옥 소설들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의의를 갖는다.

다. 그런데 예시한 네 작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듯, 이와 같은 전망의 제시는 고통을 맞닥뜨리는 과정을 수반한다. 소설은 다른 인물들과 갈등을 빚거나 사회와 불화하며 심화되는 인물들의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물으며 이를 정면으로 응시한다. 그러나 지속되는 고통의 원인을 5·18이라는 단일한 사건으로 소급시키지 않는다.

때로는 「목숨」과 「흰달」처럼 각각 '혜자'와 '순'이 경험했던 혼란한 유년 시절로 그 범위를 확장시키기도 하며, '위준'이 느끼는 '출신성분'에 대한 수치심을 여러 차례 언급하는 「씨앗불」의 경우가 보여주듯 5·18 이전부터 실재했던 고통들을 다룬다. 이를 통해 공선옥 소설은 인물들이 맞닥뜨린 다양한 고통의 국면을 삽입하면서도, 만일 그것이 5·18 체험과 결부되어 있다면 5·18 이후에도 삶이 존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짚는다. 5·18이 상기하는 고통을 청산해야 한다거나 어떻게든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당위의 차원의 메시지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지를 거듭 질문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그간 한국소설은 5·18 체험자들이 체현하는 고통의 서로 다른 국면들을 조명해왔다. 또 공선옥의 소설들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 이들 고통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5·18이 수다한 고통을 파급한 사건이었다면, 이들 소설은 그것을 집요하게 응시하면서 다양한 상상력을 제출해왔다. 기실 이처럼 고통을 예각화해 온 소설들의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알라이다 아스만(Aleida Assmann)이 지적한바, 트라우마의 언어화 과정이 "처절한 경험을 보편성과 진부함의 베일로 감"[130]싸는 '통속화'의 과정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고려해본다면 더욱 그러하다. 그리하여 이들 소설은 통속화의 과정을 지양하기 위한 고투의 결과물이자, 이를 통해 고통은 5·18의 공론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바로 그 까닭에 해당 절에서 살펴본 소설들은, "고통이라는 가장 철저히 사적인 경험이 공적 담론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통로"[131]를 제작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텍스트이다.

그런데 일레인 스캐리(Elaine Scarry)가 논했듯, 고통은 다른 대상과 함께 빗대어서 설명될 수밖에 없다. 즉 고통 그 자체를 적확하게 지시하는 언어는

130) 알라이다 아스만, 변학수·채연숙 옮김, 『기억의 공간: 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그린비, 2011, 354면.

131) 일레인 스캐리, 메이 옮김, 『고통받는 몸: 세계를 창조하기와 파괴하기』, 오월의봄, 2018, 11면.

사실상 부재하다. 이와 관련하여 스캐리가 사람들이 흔히 고통을 묘사할 때 기대는 두 가지 비유로, 고통을 일으키는 주요 기제인 '무기'와 고통을 표출하는 장소인 몸의 '손상'을 예시한 바 있다. 즉 몸에 직접 위해를 가하는 외부 요인인 무기를 명시하거나 이에 버금가는 다른 대상을 빌릴 때, 아울러 이들의 침입으로 인해 손상을 체현한 몸을 제시할 때라서야 지극히 내적인 고통이 공유될 수 있다는 것이다.[132] 이 같은 스캐리의 지적은, 지금까지 살펴본 소설들이 마련하고 있는 '고통의 언어'를 이해함에 있어 참조할 만하다. 그리고 이때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것은, 단연 장애 인물들의 손상된 몸이다.

환언하자면, 이들 소설이 형상화하는 손상된 몸은 자칫 추상적인 차원에 머무를 수 있는 고통을 구체화시키는 장소가 된다. 극심한 정신적 손상을 체현한 '김주호'와 '김광서'를 형상화하고 있는 「얼굴」과 「死産하는 여름」은, 5·18 체험과 결부된 고통이 어떤 구체적 경로를 거쳐 심화되는지를 묘파한다. 그런가 하면 「씨앗불」은 그것이 적극적인 삶의 의지를 벼리도록 돕는 기제로 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그리하여 이들 소설이 재현하는 고통은 '실물감'을 갖는다. 이를 추동하는 것은 강박을 반복하는 몸, 실제와 환상의 세계를 오가는 몸, 온갖 낙인이 교차하는 몸이다. 이들 텍스트가 장애 인물들을 '목격'의 대상과 '타자'로만 위치시켰던 앞 절의 소설들과 변별되는 지점은 바로 이 대목일 것이다.

기실 갖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5·18의 고통을 말하는 행위는, 그것이 5·18 체험자 개인 고유의 몸, 삶과 형성하는 복잡다단한 '관계'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이 행위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일련의 소설들은, 손상된 몸이 맞닥뜨리는 다양한 감정적 현실에의 관심을 요청하는 장애학적 접근과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시민군'으로서 참여한 전력이 있는 이들만이 5·18의 고통을 전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목숨」, 「흰달」, 「목마른 계절」은, "비장애인은 장애 문제와 무관한 존재일 수 없다"[133]는 장애학적 인식틀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앞 절에서 언급한바 '5·18소설'이 장애 재현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시금 읽혀야 하는 텍스트임이 분명하다면, 고통에 천착한 이들 소설 역시 장애학적 관점에 입각한 독해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

132) 위의 책, 22-27면.
133) 김도현, 『장애학의 도전: 변방의 자리에서 다른 세계를 상상하다』, 그린비, 2019, 83면.

제3장 5·18 역사화 기획의 명암

제1절 장애 인물 표류기

기실 그동안 이루어진 5·18의 소설화를 톺아볼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작품은 임철우의 『봄날』(문학과지성사, 1997-1998.)일 것이다. 일찍이 "'광주의 진실'에 가장 가까운"[134] 소설이자 "'5월 문학사'의 거대한 분수령"[135]으로 호명되었던 『봄날』은, 5·18의 소설화 국면에 새로운 파동을 삽입한 작품으로 문학사적 위치를 부여받았다. 무엇보다도 『봄날』은, 이전의 소설들이 "체험의 직접성을 벗어나 80년 5월 광주를 역사의 거시적 흐름 속에 객관화해내는 조망력"[136]을 갖추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싹텄던 평단의 아쉬움을 일축했다. 비록 전체 서사의 '완결성'과 관련하여 몇몇 비판적인 언급[137]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이들 역시 『봄날』이 갖는 기념비적 의미에 대한 적극적 동의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평가와 같은 궤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하여 『봄날』은 5·18에 대한 "간접적인 혹은 부분적인 묘사를 넘어 항쟁의 전모와 진실이 총체적으로 재현되어야 한다는"[138] 시대적 요청에 가장 적극적으로 응답한 소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환언하자면 『봄날』은 1980년대 중반 임철우의 단편으로부터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5·18의 소설화의 흐름 속에서 공교롭게도 같은 작가에 의해 수행된, 또는 그 주체가 누구보다도 5·18에 천착해 온 임철우였기에 시도될 수 있었던 총체화 기획의 산물이다. 한편 『봄날』은 이 같은 어떤 결실의 측면에서만 의의를 갖지 않는다. 이후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될 5·18의 장편소설화 및 총체화 작업[139]을

---

134) 이성욱, 앞의 글, 339면,

135) 김형중, 「『봄날』 이후-광주항쟁 소재 소설들에 대한 단상」, 앞의 책, 107면.

136) 하정일, 「다시 일어서야 하는 땅-'광주문학' 20년을 되돌아보며」, 『실천문학』 2000년 여름호, 앞의 글, 92면.

137) 이를테면 인물들의 적절한 '성격화'의 부재와 엉성한 배치로 인해 "인간이 빚어내는 좌절과 희망, 사랑과 증오, 그로부터 우러나오는 인간의 운명, 이들의 삶을 아우르는 역사와 사회적 비전"(이현식, 「1980년 봄날로 가는 고통과 희망의 기록-임철우의 『봄날』론」, 『실천문학』 1998년 여름호, 398면.)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논한 이현식, "집단적 주인공 체제가 서사적 집중성이나 완결성을 심하게 훼손시키고 있"(하정일, 앞의 글, 100-101면.)어 소설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소설로 평가하는 하정일, 그리고 "'사실' 증언의 과도한 욕망이 미학적인 고려를 앞지"(전성욱, 앞의 글, 92면.)르고 있는 작품으로 바라보는 전성욱 등이 수행한 비판적 읽기가 그 대표적 예에 해당한다.

138) 이성욱, 앞의 글, 338면.

예비하는 기점에 위치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흥미로운 점은, 이 같은 위치성을 염두에 두며 『봄날』과 이후 발간된 잇단 장편소설들을 다시금 검토할 때, 이들 소설이 거듭 장애 인물을 재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봄날』의 출간을 계기로 5·18의 소설화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은 이미 수차례 논의되어왔지만, 그 국면의 전환점에서부터 장애 인물이 등장하고 이후에도 꾸준히 재현되고 있는 사실은 좀처럼 분석되지 않았다. 해당 절은 그 양상을 점검하기 위해, 5·18의 총체적 재현의 시발점에 해당하는 『봄날』을 다시 읽는다.

한편 이와 같은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만일 5·18의 총체화와 역사화가 임철우의 『봄날』을 기점으로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을 밑거름 삼으며 진행되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앞당겨 말하자면, 2장 1절에서 다룬 단편소설들과 마찬가지로 이들 장편소설 역시 어떤 숙고의 과정 없이 장애 인물을 재현해 온 경향이 농후하다. 시공간의 확장 및 인물들의 다각적인 형상화를 통해 5·18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기도하는 과정에서, 장애 인물은 전연 진지한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를테면 『봄날』과 더불어, 이후 출간되어 큰 관심을 받은 바 있는 문순태의 『그들의 새벽』(한길사, 2000.), 송기숙의 『오월의 미소』(창작과비평사, 2000.) 등과 같은 장편소설들에는 모두 장애 인물들이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의미들

---

139)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정찬의 『광야』(문이당, 2002.)는 5·18의 장편소설화와 총체화 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소설이다. 무엇보다도 『광야』는 5·18을 보다 거시적인 맥락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소설들과 변별된다. 이는 '볼티모어 선'의 특파원으로서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일들을 직접 경험한 '머턴'을 등장시키면서, 5·18을 '국외자'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의 의미를 질문하는 것을 통해 성취되고 있다. 1945년 이후 국내외의 정치지형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면서, '68혁명'을 지나 끝내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장면의 언급으로까지 이어지는 소설, 그리고 '머턴'의 시선은 5·18을 세계사적 사건으로 위치 짓는 작업을 수행한다. 아울러 『광야』는 5월 21일 오후 계엄군의 퇴각 이후 맞이한 이른바 '해방 광주' 국면에서 빚어졌던 광주 시민들 사이의 갈등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주의가 요구되는 소설이다. 공동체의 원천인 "등가의 세계가 무너지면서 광주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우리의 세계로부터 혼자의 세계로 회귀하고 있었다"(같은 글, 109면.)는 서술이 집약적으로 보여주듯, 소설은 여러 위원회의 '조직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무렵 광주에는 희열과 두려움이 '혼융'되어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소설은 당시 광주에 실재했던 다양한 감정 구조를 묘파함으로써, 또 계급, 학력, 나이 등의 차이로부터 기인했던 의견의 대립을 조명함으로써 5·18에 대한 단일한 접근을 지양한다. 끝으로 『광야』는 정찬이 걸어온 문학적 행보와 함께 비교 검토할 만한 텍스트이기도 하다. 번민을 거듭하다 이내 상관을 살해하는 공수부대원 '강선우'와 같은 형상은, 5·18 현장에서 자신이 수행했던 폭력의 의미를 자문하고 상기하는 「새」의 '김장수', 「슬픔의 노래」의 '박운형'의 그것과 겹쳐진다. 이 모든 것과 관련하여 정찬은 5·18을 서사화한 자신의 소설에 대해 메타적으로 술회한 바 있는데, 이는 정찬의 소설 「섬진강」(『실천문학』 2002년 여름호.)에 잘 드러나 있다.

을 부여받으면서 등장한다. 그런데 이들 인물은 다분히 비장애-중심인물을 위한 어떤 장치로서, 소설의 의도를 극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만 배치되고 있다. 다시 말해 장애 인물들은 중심인물이 5·18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의협심을 추동하는 기제와 같은 역할을 부여받거나, 화해 또는 용서 같은 '대의'를 따라야 한다는 당위를 전달하는 매개체로서만 기능한다. 이 같은 재현은, 소설이 장편이라는 양식을 통해 5·18에 대한 '메타서사'[140]를 구축하며 역사화를 꾀했던 일련의 시도들이 간과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5·18을 총체적으로 재현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은, 장애 재현이 파급하는 효과들에 대한 고려를 누락하며 구체화되었다. 전체 서사 진행에 있어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담당하지만 이내 부차적인 것으로 수렴되고 마는 장애 인물의 재현 양상은, 재현의 '윤리' 형성과 필수불가결한 관계를 형성하는 '5·18소설'이 갖는 윤리적인 지평의 '닫혀있는' 부분에 해당할 것이다. 한편 그것이 5·18의 소설화의 새로운 국면의 '열림'이 기대되었던 장편소설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주의를 기울일 만하다. 무엇보다도 임철우의 『봄날』은 국면 개시의 선두에 위치하는 소설일 텐데,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열림의 과정에서 장애 재현의 윤리가 어떻게 간과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재현의 윤리가 열림과 동시에 닫히는 장면은, 다음과 같은 장애 인물 '귀단'의 형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그와 함께 무석은 비로소 어머니의 존재를 뼈저리게 확인했다. 자신의 발목에 족쇄처럼 완강하게 채워져 있는 또 하나의 끈 저쪽 끝엔 바로 어머니가 있었다. 무석은 그때까지 어머니가 존재한다는 사실마저도 한사코 부

140) 배하은은 1987년 6월 '민주화' 이후 잇따라 출간되기 시작한 5·18 관련 출판물들을 분석하면서, 이들의 양상을 다음과 같이 대별한 바 있다. 즉 "지배 담론에 맞서는 대항 담론으로서의 민중항쟁 역사의 메타서사를 형성·수립하는 동시에, 대항 담론이 포섭하지 못하는 개인들 간의 환원불가능한 차이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5·18을 증언하는"(배하은, 「역사의 틈새를 증언하기-1980년대 말 5·18광주항쟁 증언록 발간 양상과 증언의 윤리」, 『역사비평』 2021년 8월호, 423면.) 작업이 바로 그것이다. 한편 여러 연구자와 5·18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5·18 다시-쓰기 과정, 바꿔 말해 5·18 부인 세력에 의해 고안된 기존의 역사 서술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의 발로인 '메타서사'의 구축 작업은, '5·18소설'이 담당해야 할 몫이기도 했다. 이를테면 이 시기 출간된 '5·18소설' 앤솔러지인 『일어서는 땅』(인동, 1987.)과 『부활의 도시』(인동, 1990.)에 묶인 소설들은, 변화한 시대에 대한 응답으로서 5·18의 다양한 국면들을 조명하는 동시에 나름의 새로운 '역사화' 작업에 몰두한 끝에 제출된 대표적인 결과물에 해당한다. 그리고 1990년대에 속속 제출된 5·18을 서사화한 장편소설들은, 이 같은 '메타서사' 조성 과정의 연장선상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자 이를 보다 진전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 인해왔었다. 적어도 그의 의식과 기억 속에서나마 어머니란 이미 존재하지 않는 이름이어야만 했다. 어머니가 실성기를 얻었을 때부터, 아니 무석 자신과 동생 명치를 남겨둔 채 행방을 감춰버린 바로 그날부터 무석은 이 세상의 반쪽을 잃어버리고 만 것인지도 모른다. 잃어버린 그 나머지 반쪽의 세계는 칠흑 같은 어둠과 절망과 망각의 세계였다. 바로 그 세계 속에 어머니가 있었다. 그 암흑과 망각의 세계 저편에 어머니를 한사코 묻어버린 채 무석은 홀로 몸부림치며 지금껏 살아온 셈이었다.[141]

총 86개의 장과 에필로그를 통해 5월 16일 새벽부터 27일 아침까지의 광주의 상황을 그리고 있는 『봄날』은, 각 장마다 서로 다른 인물을 배치함으로써 다채로운 5·18 체험 또는 그 국면의 형상화를 꾀한다. 어느 한 개인을 중심으로 서사를 진행시키지 않는 이 같은 구성은, 서영채가 언급한바 "광주항쟁의 주인공이 이름 없는 다수의 시민들이었던 것과 마찬가지"[142]로 『봄날』 또는 5·18의 '주인공'이 1980년 5월 광주의 열흘이라는 시간이라는 것을 언명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처럼 소설이 5·18을 서사의 한 가운데에 위치시키면서 다종다양한 인물들의 삶과 죽음을 교차시킬 때, 이야기의 진행을 추동하는 구심점을 일체 마련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인용된 위의 장면이 보여주듯, 소설은 '무석' 또는 그의 어머니인 '귀단'과 같이 어느 한 일가가 맞닥뜨렸던 일련의 일들을 호명하는 한편 이들 인물군을 조명한다. '실성기'를 얻은 어머니의 삶과 이를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아들 '무석'의 상황은, 이들 가족을 둘러싼 일들이 어떤 의미심장한 사연을 내장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리고 그것은 '한원구'와 그의 아들들 '무석', '명치', '명기'의 현재 삶에 이르기까지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 면밀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한원구' 일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봄날』을 일종의 '가족 서사'로 읽을 것을 제안하는 작업과도 같다. 기실 이 같은 독법은 소설의 전체 서사를 보다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무엇보다도 『봄날』은 5·18의 사건 일지를 기반으로 사실(史實)의 확인만을 기획하는 '기록물'이 아니라, 여러 인물의 삶을 묘파함으로써 5·18에 대한 나름의 재구성을 시도하고 있는 '소설'이다. 윤상원, 전옥주, 김창길, 박남선 등의 실존 인물의 제시를 통해 사실에의 접근을 모색하는 한편, '한원구' 일가로 대표되는 가상의 인물

141) 임철우, 『봄날』 1권, 문학과지성사, 1997, 37면.
142) 서영채, 「임철우론-『봄날』에 이르는 길」, 『문학동네』 1998년 봄호, 46면.

들을 형상화함으로써 여러 5·18 체험의 양상을 문학적 차원에서 조명하고 있는 소설이 곧 『봄날』인 것이다. 그리하여 소설은 두 갈래의 축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환기하며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스스로 열어놓는다. '무석'을 계엄군의 무차별적인 폭력과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돌연 적극적인 의지를 획득하여 도청을 수호하는 인물로, '명치'를 자신의 가족들이 머무는 광주에 배치된 공수부대원으로, '명기'를 투사회보를 제작 및 홍보하는 등 5·18 국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학생으로 그리는 것 역시 그 까닭이다.

그런데 이처럼 인물들의 배치가 유기적으로 이루지어고 있음에 주의하여 『봄날』 전체의 서사를 다시금 이해하고자 할 때, 반드시 논해져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장애 인물 '귀단'의 형상이다. '귀단'은 비단 예시한 위의 장면에만 국한하지 않고 '한원구', '무석', '명치'에 의해 지속적으로 호출되며 문면 곳곳에 출현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남성 인물군이 각각 5·18의 현장에 참여함으로써 5·18의 총체적 재현이라는 소설의 의도를 상기시키는 반면, '귀단' 스스로는 그것의 진행 과정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물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다.

5·18을 총체적으로 서사화하고자 하는 소설은 왜 '귀단'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켰을까. '귀단'에게 다른 남성 가족 구성원들과 현격히 다른 역할을 부여한 까닭은 무엇일까. '귀단'을 극심한 정신적 손상을 체현한 인물로 그린 데에는 어떤 배경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떤 효과가 발생되고 있을까. 보다 간명히 간추려보자면, 『봄날』은 왜 장애여성 인물 '귀단'을 필요로 했을까.

기실 이들 물음에 대한 답을 마련하기 위해선, 『봄날』의 전사(前事)에 해당하는 임철우의 다른 소설 『붉은 山, 흰 새』(문학과지성사, 1990)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귀단'을 비롯한 '한원구' 일가의 인물들은, 임철우 자신이 밝히고 있듯 『봄날』의 "전편 격인 『붉은 산, 흰 새』의 연장선상에서 구상"[143]되었기 때문이다. 『붉은 山, 흰 새』가 1977년의 시점에서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한원구'의 고향인 낙일도라는 작은 섬에서 빚어졌던 좌우갈등을 회고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다면, 『봄날』은 이 같은 서사를 그대로 이어받아 1980년 5월 현재 광주의 시공간을 조명하는 소설이다.[144] 바꿔 말해 『봄날』

143) 임철우, 「책을 내면서」, 『봄날』 1권, 앞의 책, 12면.
144) 한편 정경운은 『붉은 山, 흰 새』와 『봄날』의 관계, 그리고 두 소설 모두 '한원구' 일가

이 다루는 '한원구' 일가의 현재 삶은, 『붉은 山, 흰 새』에서 그려진 비극, 즉 인민군과 국군의 연달은 등장 및 퇴장에 따라 마을 구성원들 사이 벌어진 일련의 '처단'과 '보복'의 과정을 지나온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처럼 두 소설을 넘나들며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과거와 현재의 모습은, 『봄날』의 '한원구' 일가가 맞닥뜨리는 일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다만 시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두 소설이 변별되는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양진오가 적실하게 지적한바 『붉은 山, 흰 새』가 '한원구'를 중심으로 한 '아버지 세대'에 관심을 쏟는 한편, 『봄날』은 '무석', '명치', '명기'로 대표되는 '아들 세대'의 시점으로 서사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데에 있다.[145]

두 소설이 이들 가족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방편으로 각각 6·25와 5·18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중심에 위치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두 세대 사이의 단절을 막기 위한 장치 역시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한원구'라는 아버지와 세 아들이 혈연관계를 맺고 있다는 설정을 유지함으로써만 이뤄지지 않는다. 오히려 '한원구'의 전 아내이자 '무석'과 '명치'의 어머니인 '귀단'을 반복적으로 호출하면서, '귀단'을 중심으로 남성 인물들이 함께 공전(公轉)하도록 만듦으로써 가능해진다.

중요한 것은, 『봄날』에서 '귀단'은 줄곧 이들의 생활 반경 외부에 위치한다는 사실이다. '귀단'은 오래전부터 이들을 떠난 까닭에 좀처럼 행방을 알 수 없는 인물로 그려진다. 그리고 '귀단'의 표류에 얽힌 일련의 사연들과 더불어 '귀단'을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살지 못하도록 내몬 사건은 『붉은 山, 흰 새』에 구체적으로 서술된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붉은 산, 흰 새』의 한 대목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 "아, 아부지이. 어무니이……"
>
> 무석은 겁에 질려 허둥대며 연신 헛소리처럼 그렇게 되뇌이고만 있었다. 아버지라니……. 천만에. 난 네놈의 아비가 아니다. <u>넌 누구냐. 도대체 어느 놈의 자식이냐. 네 놈을 네 어미의 뱃속에 뿌려두고 간 빨갱이 놈이 누구</u>

의 비극을 중심으로 구성한 작가의 의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작가는 한 가족사를 중심으로 6·25와 5·18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병치시킴으로써, '형제살해'를 바탕으로 한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구분이 얼마나 해괴한 괴물이며, 그 괴물에 의해 철저하게 파괴돼버린 한 개인의 가족사의 비극이 결국 우리의 근현대사의 비극에 그 연원이 닿아 있음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한원구의 가족사가 「붉은 산-」[『붉은 山, 흰 새』-인용자]에 끝나버리지 않고 30년 후의 사건인 5·18을 다루는 『봄날』에까지 연결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정경운, 「임철우의 『봄날』」, 광주전남민족문학작가회의 편, 『문학포럼』, 광주전남민족문학작가회의, 1998, 214면.)

145) 양진오, 『임철우의 『봄날』을 읽는다』, 열림원, 2003, 88면.

냐 말이다. 원구는 저도 모르게, 자신의 내부에서 우렁우렁 울려나오는 그런 누군가의 외침을 들으며, 기묘한 웃음을 입술에 떠올리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귀단의 최초의 발작이 있었던 날이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는 기어코 밤 사이에 집을 나가고 말았다. 물론 원구는 그녀를 찾아내기 위해 여기저기 수소문을 한다든가, 뒤쫓아가 잡겠노라고 선창으로 달려나가는 것 따위는 애당초 하지 않았다. 그것은 처음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던 그들 부부의 필연적인 결말이었다. 어쩌면 원구는 바로 그런 결말을 기다리면서 치밀하고도 끈질기게 그녀의 육신과 영혼을 조금씩조금씩 파괴해오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146)

1950년 당시 인민군과 국군이 "서로 번갈아가며 섬을 차지하고 되빼앗기를 반복했던 그 석달"(14면)을 통과하며 낙일도가 "예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폐허의 섬이 되어"(13면)버린 상황 속에서, '한원구' 일가 역시 이 같은 전쟁의 파란을 피해갈 수 없었다. 어업조합장을 역임하기도 하는 등 마을 공동체에서 덕망이 높다는 평가를 받아온 '한원구'의 아버지 '한씨'가 "좌익 청년들 손에 참혹한 죽음을 당"(42면)한 사건이 비극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면, 인용된 위의 장면을 통해 유추할 수 있듯 '한원구'의 아내 '귀단'이 "육지에서 몰려온 사내들에게 욕을 당"(49면)하고 고통을 호소하다 이내 집을 나가는 등의 일련의 일들이 다른 한 축을 구성한다. 전자와 후자 모두 이들 가족 구성원들에게, 특히 '한원구'에게 경중을 가릴 수 없을 만큼의 "피멍울보다 더 깊은 원한과 증오의 씨앗"(14면)을 남기는 한편, '한원구'가 고향을 등지고 광주로 이주하도록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그중에서도 해당 절은 후자, 즉 6·25를 경유한 '귀단'의 삶을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하는데,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귀단'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 외가 골방에서 "덕석이며 나뭇단 더미를 쌓아 올려놓고"(203면) 숨어지내는 남편 '한원구'를 잠시 방문하고 나오는 길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들에게 강간을 당한다. 집으로 향하던 밤길, 외지인으로 추정되는 술에 취한 네 '청년'에게 "꼼짝없이 차례대로 겁탈을 당한"(204면) 것이다. 이후 '귀단'이 강간을 당했다는 사실은 소문으로 오르내리며, "오래지 않아 원구의 귀에까지 흘러들"(203면)기에 이른다. '귀단'을 강간한 이들이 "인민군들의 철수와 함께 섬을 떠나 자취를 감추고 만"(204면) 까닭에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귀단'은, '한원구'에게 "다만 죽여달라는 소리만 힘

146) 임철우, 『붉은 山, 흰 새』, 문학과지성사, 1990, 69면.

없이 되풀이할"(203면)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해 '귀단'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자살 기도를 감행하지만, 실패에 그치고 끝내 출산하게 되는데 이때 태어난 아이가 바로 '무석'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 직면한 아내 '귀단'을 대하는 '한원구'의 태도가 지극히 폭력적이라는 데에 있다. '귀단'을 둘러싼 소문을 전해 들은 '한원구'는 줄곧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귀단'과 '무석'이 함께 죽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며 이들을 향해 직접 "어미랑 새끼까지 함께 죽여버릴"(207면) 것이라 소리치는 지경에 이른다. '귀단'과 '무석'에게 발현되는 '한원구'의 폭력성 및 적대적 태도는 결코 일회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147] 비록 그것이 "스스로에 대한 자학 행위의 반복"(같은 면)에 불과할지언정, '한원구'는 "귀단을 보이지 않게 끊임없이 학대"(같은 면)한다. '귀단'은 이를 도저히 견디지 못한다. 그리고 소설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귀단'의 고통이 어떤 방도로도 소멸될 수 없음을 그린다.

> "그라지 말고 차라리 나를 쥑여주시요, 예. 무석이 아부지이. 제발, 제발 당신 손으로 나를 지금 당장에 쥑여뿌리시란 말이여라우, 으으흐."
>
> 목청을 비틀어 짜는 듯한 쉰 목소리로 귀단이 울부짖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얼굴 가득히 핏발이 뻗쳐오르고, 원구를 쏘아보는 그녀의 두 눈엔 파아랗게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
> "이말이오, 무석이 아부지. 차라리 그러고 싶소오. 당신 손에 이 자리서 딸각 숨줄이 끊어지는 것이 참말로 소원이랑께라우. 아아, 인자는 더 이상 못 견디겄소. 이거이 어디 사람 사는 시상이다요오. 날더러…… 날더러 어쩌란 말이오. 어찌 이리 사람을 피 한 방울 살 한 점까지 꼬독꼬독 말려 쥑일라고 그러시냐고라우. 아으흐흐. 쥑여주시요오. 제발 쥑여주란 말이어라우……"
>
> (…)
>
> 기어코 귀단은 방바닥을 차며 발딱 일어섰다. 그러더니 별안간 으아아아 하고 소름끼치는 비명을 토해내면서 마당으로 훌쩍 뛰어내렸다. 그리고는 온 마당을 맨발로 훌쩍훌쩍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아예 땅바닥에 벌렁 드러누워 몸뚱이를 데굴데굴 굴리기도 하고, 손가락을 앙당하니 치켜세운 채

147) '한원구'는 "지게 작대기를 꼬나쥐고 미친 듯 귀단을 후려치며 고함을 질러대"(187면)는 등 '귀단'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하기도 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한원구'의 언사는, '귀단'을 향한 적대적 태도가 무엇인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왜 몰라? 네년의 가랑이 위에 올라타서 게거품 물고 껄떡거리던 놈들이 누군지를 어째서 모르냔 말이다. 그것도 말이라고 해? 이 화냥년! 대답해! 누구여? 그 빨갱이놈의 새끼들이 누구였난 말이여어!"(같은 면)

제 머리털을 마구 그러뜯어내거나, 목덜미며 가슴팍을 풀어헤쳐서 닥치는 대로 짐승처럼 할퀴기도 했다.

"죽여. 차라리 어서 칵 죽여주랑께에."[148]

인용된 위의 장면을 통해 알 수 있듯, 소설은 더이상 '한원구'의 멸시와 냉대를 견디지 못하겠는 까닭에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호소하는 '귀단'을 마치 '짐승'과도 같다고 형상화한다. 나아가 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도 일말의 관심조차 표출하지 않는 남편, 즉 "남의 일 보디끼 하고 앉"(68면)은 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한원구'의 모습을 삽입함으로써, '귀단'의 고통은 그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성질의 것으로 남겨둔다. 한편 위와 같은 '귀단'의 '발작'이 있은 후 둘째 아들 '명수'가 돌연 절벽에서 실족사하고 마는데, 이 사건은 이들 부부를 "마침내 더는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파멸로 몰아세"(208면)운 결정적 계기가 된다. '귀단'은 정신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같은 면)하고, "귀신에 씌웠다는 소문"(같은 면)이 자자해지더니 끝내 "실성기를 얻어 집을 나가게 된"(29면)다. 그리하여 '귀단'은 일련의 수난을 통과함에 따라 주변 인물들로 하여금 "참말로 더럽게 박복한 년"(174면)이자 "미친년"(232면)이라는 멸칭으로 호명되기에 이른다.

이처럼 『붉은 山, 흰 새』는 낙일도라는 작은 섬마을에서 일어난 잇단 사건을 조명하면서 6·25가 한국사회에 어떤 비극을 남겨놓았는지를 소설화하는 한편, 그 중심에 '귀단'이 경험하는 수난을 위치시킨다. 비록 소설이 전쟁 당시 월북한 것으로 알려져 생사의 여부를 일체 알 수 없었던 '조성태'가 느닷없이 낙일도에 방문함에 따라 일가족 전원이 '간첩'으로 내몰리는 사건을 주요하게 그리고는 있지만, '조성태'가 '귀단'의 친오빠임을 환기하면서 1977년 현재의 시공간에서도 '귀단'이 담당하는 역할이 결코 작지 않음을 힘주어 말한다. 오래전 사라진 '귀단'이 돌연 낙일도에 출현하는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은데, '귀단'은 몰라볼이만치 늙고 추한 얼굴로 변해 있"(230면)는 모습으로 '무석' 앞에 나타난다.

요컨대 『붉은 山, 흰 새』는 '귀단'을 연달아 호출한다. 소설은 '귀단'에게 강간과 학대의 피해자라는 자질을 부여함으로써 6·25로 대표되는 과거의 비극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동시에, 공동묘지에서 "아가아. 불쌍한 내 새끼야아……."(277면)라고 울면서 소리치는 '귀단'을 등장시키며 그것이 현재에

148) 임철우, 『붉은 山, 흰 새』, 앞의 책, 67-68면.

이르기까지 유효한 수난이라는 사실을 '전략적'으로 공표한다. 흥미로운 것은, 『붉은 山, 흰 새』가 그리는 이 같은 '귀단'의 형상이 『봄날』에서 그려지는 가족 서사의 가장 중요한 축을 예비한다는 사실이다. 변별되는 지점이 있다면, 『붉은 山, 흰 새』에서 그 어떤 정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 까닭에 줄곧 소외된 삶을 꾸리던 '귀단'이 『봄날』에 접어들면서는 동일한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사뭇 다른 대우를 받는다는 데에 있다.

이 같은 차이의 돌출은 1980년 5월 광주의 열흘이라는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이뤄진다는 점에서 5·18의 소설화와 관련하여 보다 면밀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리고 이 사실을 논구할 때라서야 5·18의 총체화를 기도하고 있는 『봄날』의 서사에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전술한바 『붉은 山, 흰 새』에서부터 이어지는 '한원구' 일가의 서사는 『봄날』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성원들의 5·18 참여 양상의 성질을 집약적으로 보여줄뿐더러, 이때 '귀단'은 중요한 대목마다 호출된다. '한원구', '무석', '명치'에 의해 '귀단'이 호출되는 맥락은 제각기 상이하지만, 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 서사는 '귀단'을 중심으로 어떤 '봉합'을 도모한다. 아래에서는 그것이 어떤 구체적인 과정을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그리하여 앞에서 『봄날』을 다시금 읽을 필요성을 언급하며 제기했던 질문, 즉 『봄날』은 왜 장애여성 인물 '귀단'의 형상을 제시했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해답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5월 16일 새벽의 광주를 시공간으로부터 막을 여는 『봄날』의 서사는, 본격적으로 5·18의 국면을 다루기에 앞서 약 일 년 전에 있었던 '한원구'와 '무석' 사이의 갈등을 그린다. 이 갈등을 기점으로 함께 한집에 살며 전당포를 운영하고 있던 부자의 관계는 현격히 멀어진다. 둘의 관계는 '무석'이 고모로부터 전해 들은 '귀단'의 출현을 '한원구'에게 전하는 장면으로부터 단절될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다. '무석'은 '한원구'에게 '귀단'을 기필코 찾고 말겠다고 선언한다. 이에 '한원구'는 "집이랑 자식새끼까지 내팽겨쳐놓고 제 발로 스스로 걸어나간 년이 설사 어디에서 술을 팔든 갈보짓을 하든 무슨 상관이"(1권, 29면)냐며 '귀단'에 대한 혐오를 공공연하게 표출하는 한편,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무석의 얼굴을 후려"(1권, 같은 면)치는 등 물리적인 폭력까지 일삼는다. 이는 곧 강간과 학대로 인해 만성적인 외상을 경험하는 피해자 '귀단'에게 오히려 모든 책임을 묻는 강압적인 태도[149]와 정확히 일치한다.

149) 이 표현은 외상을 체현하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향이 지배적인 사회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 주디스 허먼(Judith Herman)의 다음과 같은 문장을 참고한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박이 야기하는 심리적 변화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

그런데 '무석'이 이 같은 다툼이 있은 이후 가출을 감행하며 '한원구'와의 교류를 차단하자, 일 년이 지난 1980년 5월 현재 '한원구'는 "이젠 아무것도 내게 남은 것이 없"(1권, 31면)음을 깨닫는다. "갑자기 심한 허탈감이 전신을 엄습해"(1권, 같은 면)옴을 느끼게 되는 것인데, 소설은 이들 과정을 '한원구'가 5·18의 참상을 대면하게 되는 국면과 함께 제시하며 서사의 유기적인 구성을 꾀한다. 이를테면 5월 18일 아침녘, '한원구'는 자정부터 계엄령이 선포되었다는 소식을 라디오를 통해 전해 듣는다. 그리고 바로 이때, 산책을 하던 '한원구'는 "첫눈에도 어딘가 이상한 구석이 있는 여자"(1권, 252면), 즉 '귀단'을 우연히 본다.

이에 '한원구'는 '귀단'을 찾고야 말겠다는 '무석'의 말을 문득 떠올리는 한편 "머리가 참을 수 없도록 욱신거려오고 시야가 제멋대로 움찔거"(1권, 같은 면)려옴을 느낀다. 유의할 것은, '한원구'가 '귀단'을 바라보고 나서 표출하는 감정이 기존의 적대와는 사뭇 다른 혼란 내지는 충격이라는 데에 있다. 아울러 그 시점이 5월 18일 아침이라는 사실, 계엄군이 광주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바로 그 무렵 계엄군보다 '귀단'이 먼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이후의 서사는 변화하는 5·18의 국면들을 세세하게 초점화하며 5·18의 전모를 차츰 드러내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이 일련의 절차는 다름 아닌 '귀단'의 출현과 이를 '한원구'가 직접 보게 되는 장면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한다.

그런가 하면 '한원구'는 소설이 5·18의 전모를 묘파하는 과정의 거의 막바지에 해당하는 5월 26일에 다시금 등장한다. '한원구'는 대학생 '명기'의 행방을 찾는 동시에, '무석'이 총을 들고 시민군에 가담했다는 소문과 공수부대원 '명치'가 광주로 배치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형제끼리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5권, 314면) 상황에 큰 허탈감을 느끼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출현한다. 그리고 '한원구'는 약 열흘에 걸친 광주의 시공간을 돌아보며 문득 문제를 제기한다. "삼십 년 전의 그 전쟁은 차라리 허울 좋은 이데올로기라는 망령이라도 존재했었"(5권, 315면)다고 한다면, "지금 이 도시에서 벌어지고

지도 못한다. 따라서 만성적인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판단은 극도로 가혹한 경향을 띤다. 만성적으로 학대받은 사람의 두드러진 무력감과 수동성, 과거의 모순, 다루기 힘든 우울과 신체 증상, 분노 표출 등은 그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좌절시킬 때가 있다. 더 나아가, 만약 그가 강요로 인하여 대인 관계, 공동체에 대한 믿음 혹은 도덕적 가치를 배신하게 되었다면, 그는 빈번하게 맹렬한 공격의 대상이 되고 만다. (…) 따라서 대부분 피해자의 성격이나 도덕성을 힐난하면서 그를 탓한다."(주디스 허먼, 홍지웅·홍예빈 옮김, 『트라우마: 가정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 열린책들, 2012, 200면.)

있는 이 기막힌 상황은 도대체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5권, 같은 면)인지를 자문한다. 그러고는 그간의 삶에 대한 어떤 후회를 내비친다.

전쟁 당시 일련의 비극적인 일들을 경험한 이후 증오의 '덫'으로부터 좀처럼 빠져나오려는 의지가 없었음을 반추하며 '한원구'가 표출하는 회한은, 가족들을 궁지에 몰아넣었던 주체가 자기 자신이었음을 시인한 결과이다. 이처럼 '한원구'의 깨달음이 완수되는 장면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5·18의 실체에 접근해가는 소설의 서사와 '한원구'가 '귀단'과의 물리적 거리를 좁혀나가는 과정 모두의 대단원의 성격을 갖는 까닭이다. 이를 통해 『봄날』이 5·18의 전모를 묘파하고자 기획된 기록물[150]이기도 하지만, '귀단'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남성 가족 구성원들의 '아내/어머니 찾기' 서사임이 공표된다.

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한원구'는 자신도 모르는 새 "귀단이 살고 있는 바로 그 미장원"(5권, 317면) 앞에 와있음을 알아차린다. 아울러 소설은 사실 '한원구'가 사흘 전 이곳에 찾아와 '귀단'과 같이 기거하는 '처녀'에게 그간의 사정을 전해 들었다는 것을 밝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또다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원구는 스스로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5권, 같은 면)는 묘사와 함께, 소설은 "아아! 여보, 용서하구려. 무석아, 이 애비를……"(5권, 같은 면)이라는 눈물 섞인 독백을 하는 '한원구'의 모습을 삽입하며 장을 마무리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인물의 배치, 즉 '한원구'에 의해 모습이 드러난 '귀단'과 '귀단'을 향한 적대적 태도를 차츰 철회하다 끝내 용서를 구하는 '한원구'를 형상화하고 있는 소설의 기획은 어떤 효과를 파급하고 있을까. 또 그것은 5·18의 소설화와 장애 재현이라는 두 항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

기실 이들 물음의 해답은, 다른 남성 가족 구성원인 '무석'과 '명치'에 의해 '귀단'이 소환되는 양상들을 함께 검토할 때라서야 강구될 수 있다. 두 인물이 '귀단'을 대하는 태도 역시 점차 변화한다. 그런데 그 양상은 '한원구'와는 사뭇 변별된다. '한원구'의 태도 변화가 현재 당면한 5·18과 과거 6·25가 떠안겼던 '비극'과의 비교를 통해 완료되었다면, '무석'과 '명치'의 그것은 자신의 유년 시절을 거듭 회고하며 이루어진다. '귀단'을 바라보는 '한원구'의 시선이 전체 서사의 도입부와 말미에서만 삽입되는 것과 달리,

150) 기실 이것은 임철우가 직접 밝힌 『봄날』의 기획 의도이기도 하다. "역사적인 실재 사건을 소설로 다루는 데는 작가의 상상력이란 필수적이면서 또한 위험 부담이 따른다. 사실과 상상력-그 둘 사이에서, 적어도 이번 소설에 관한 한, 나는 최대한 사실성에 의지하려 했다. (…)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건대, 나로서는 이것이 단지 소설로서만 아니라 비교적 사실에 충실한 하나의 기록물로서도 남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작품을 써왔던 것이다."(임철우, 「책을 내면서」, 『봄날』 1권, 앞의 책, 14-15면.)

‘무석’과 ‘명치’는 각각 5·18에 가담하는 주요 국면마다 ‘귀단’을 지속적으로 호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를 갖는다.

전술한바 ‘무석’은 ‘한원구’와의 갈등을 빚은 이후 집을 나와 혼자 삶을 꾸린다. ‘무석’은 고모로부터 ‘귀단’이 현재 광주에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강한 의지를 벼리는데, 이는 “더 늦기 전에, 어머니를 그 서럽고 고통스런 세계로부터 구출해내야만 한다는”(1권, 38면) 결심으로 구체화된다. 그간 ‘무석’의 삶이 ‘귀단’을 “암흑과 망각의 세계 저편”(1권, 37면)에 묻어온 한편, 그저 “어쩌다 길에서 실성기가 있어 뵈는 여인이나 어정거리는 거지 여자가 눈에”(1권, 162면) 띌 적에 이를 유심히 살펴보는 차원에 그쳤었다면, 이제부터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계획한다. 이를 추동한 것은 ‘귀단’에 대한 멸시와 “난 네놈한테 피 한 방울 나눠준 적 없”(1권, 30면)다는 ‘한원구’의 폭언으로부터 기인한 부자 관계의 단절이었고, 계획 이행의 첫걸음으로 ‘무석’은 안정된 삶을 꾀하기 위해 공무원 시험 응시를 결정한다.

그런데 이처럼 새로운 삶의 청사진을 본격적으로 예각화할 무렵 ‘무석’은 5·18의 국면을 맞이한다.[151] ‘무석’은 일반 시민에게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하는 공수부대의 행태, 그리고 이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을 볼 적마다 “너무나 낯설고 생경한 감정들”(3권, 252면)을 느낀다. 기실 “나이 서른이 된 지금까지 사람들 사이에 온전하게 섞여 살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3권, 251면)던 ‘무석’에게 있어 5·18은, 이전부터 일관했던 소극성과 결별하는 일종의 변곡점과도 같다. 결별의 과정은 시민들의 강한 저항 의지를 ‘무석’ 역시 체화하게 되는 절차와 일치한다. 그리하여 ‘무석’은 이들과 함께 차량 시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기도 하고 적십자 대원으로서 구호 활동에 나서는 한편, ‘시민군’의 일원이 되어 총을 들기에 이른다. ‘무석’은 숱한 사람들의 죽음을 직접 보면서 마치 “자신이 지옥의 한가운데 와 있는 것만 같”(5권, 17면)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느샌가 막상 특별한 두려움조차 느끼지 못하게”(5권, 같은 면) 된다. 그리고 함께 ‘항쟁’에 참여하던 ‘칠수’와 ‘봉배’마저 죽음에 이르자, ‘무석’은 끝까지 도청의 새벽을 지킬 것을 일체의 망설임 없이 결심한다.

---

151) 그 까닭에 소설이 ‘무석’이 다음과 같은 계획을 마련하는 시점을 5월 17일 저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어머니를 찾아내자. 그 다음엔 작은 방을 한 개 얻어야 하리라.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안정된 생활을 경험하게 하고, 늦게라도 치료를 받게 하면 증세가 한결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불행한 어머니, 그리고 동생 명치, 또한 바로 내 자신의 머리 위에 드리워진 그 오랜 숙명의 덫을 조금씩조금씩 걷어내야만 한다. 그것만이 끝도 시작도 알 수 없게 엉망으로 뒤엉킨 운명의 실꾸리를 풀어나가는 길이 아니겠는가……’”(1권, 166-167면)

한편 소설은 '무석'으로 하여금 일전의 소극적 태도를 탈피하도록 돕는 다른 두 사건, 즉 "난생처음 진정으로 따뜻한 애정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해준"(5권, 406면) '미순'과의 연애와 아버지 '한원구'와의 화해를 조명한다. 이를 통해 소설은, 5·18의 국면을 맞닥뜨리며 고무된 '항쟁'에의 참여 의지가 기실 참상을 가까이서 바라본 '관찰자'라는 단일한 위치성에서만 근거한 것이 아님을 힘주어 말한다. 이를테면 5·18은 '무석'에게 있어 적극성을 획득하도록 만드는 계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심신을 지치게 만드는 시공간이기도 하다. 실제로 '무석'은 공수부대의 총격으로부터 가까스로 살아남은 이후 "신열에 시달리며 괴로워"(5권, 9면)한다. 이때 '무석'에게 극진한 돌봄을 제공해준 사람이 바로 '미순'이자, 27일 새벽 도청에 남는 '무석'더러 꼭 살아남아서 함께 삶을 꾸리자고 약속한 이 역시 '미순'이다.

그런가 하면 도청에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무석'은 '한원구'와 극적인 화해를 한다. '한원구'에게 전화를 걸어 울음을 쏟으며 그간의 일들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데, 이에 '한원구'는 오히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임을 시인한다. 곧장 시내전화가 끊기는 바람에 더이상의 말을 주고받지는 못하지만, '무석'은 '한원구'의 흐느낌을 듣는 순간 "차갑고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었던 가슴이 소리없이 녹아내"(5권, 406면)린다. 이처럼 '미순'과 '한원구'로부터 애정을 확인받은 '무석'은 비로소 "이제 더 이상 나는 불행하지 않다"(5권, 같은 면)는 발화를 할 수 있게 된다. '무석'의 삶의 태도를 뒤바꿔놓은 유일무이한 사건이 5·18었다면,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할 수 있도록 만든 존재는 '미순'과 '한원구'였다. 그리하여 도청에서의 죽음으로 갈무리되는 '무석'의 삶은 비단 비극적인 것으로만 낙착되지 않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무석'이 5·18의 국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삶의 변화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귀단'을 호출한다는 데에 있다. 소설은 '무석'을 초점화하는 문면의 거의 모든 대목에서 '귀단'의 형상을 병치시킨다. 이를테면 '무석'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5월 현재의 "놀랍고도 두려운 체험"(3권, 253면)을 맞닥뜨리면서, 이것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자신의 지난날, 즉 바깥세상과 유리된 채 살아온 과거를 상기한다. 마치 동굴과도 같은 작은 방에 자기 자신을 가두어 왔음을 회고하는 과정 한가운데 위치한 것은, 단연 "한없이 음울하고 쓸쓸하기만 한 유년기"(3권, 252면)이다. 그리고 '무석'이 한껏 움츠린 채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든 유년의 비극들, 『붉은 山, 흰 새』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이른바 "한사코 지워버리고 싶은 지긋

지긋하고 혐오스러운 목록들”(3권, 같은 면)에는 빠짐없이 “어머니가 있었다.”(3권, 같은 면)

‘미순’과의 관계가 점차 진척될 적에도 마찬가지이다. 공수부대의 갖은 폭력에 저항하다 지쳐 쓰러진 ‘무석’은 꿈을 꾸는데, 그곳에서 ‘무석’은 누군가를 하염없이 기다린다. 이때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를 외친 데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깬 ‘무석’은, 바로 앞에 있는 ‘미순’의 얼굴을 보고 “어머니가 찾아오신 거”(5권, 6면)라고 생각하며 “가슴이 터질 듯 뛰어오름을 느”(5권, 같은 면)낀다. ‘미순’으로부터 “참으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따뜻한 인간의 손길”(5권, 10면)을 받으며 어떤 그리움이 더해지기도 하는데, 이 또한 ‘귀단’의 오랜 부재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무석’이 27일 새벽 도청에서 죽음을 맞을 때 남기는 유언에 담긴 단 하나의 단어 역시 “어, 어머……니……”(5권, 410면), 즉 ‘귀단’이다.

다른 한편 ‘무석’의 동생 ‘명치’는 5·18의 현장에서 상부의 지휘 통솔 아래 시민들에게 직접 상해를 입히는 공수부대원으로 등장한다. ‘무석’과 마찬가지로 ‘명치’ 역시 5·18을 경유하면서 어떤 중대한 삶의 변화를 경험한다. 일찍부터 “아버지 한원구의 음울하게 찌들린 얼굴, 미쳐버린 어머니의 처절하고 추한 얼굴”(2권, 251면)을 증오하며 살아온 ‘명치’는, 실족사한 동생 ‘명수’의 죽음이 자신 때문에 빚어졌다는 죄책감까지 짊어진 채 끊임없이 혐오의 감정에 휩싸여왔다. 종국에는 “스스로를 철저하게 파괴하고 싶다는 욕망”(2권, 254면)까지 체현하기에 이른 ‘명치’는, 이들과 결별하고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수부대에 자원입대한다.

그러나 시민들을 향한 공수부대의 황포한 진압이 진행될수록, 또 그 과정에 직접 가담하며 비정함을 습득해갈수록 ‘명치’는 괴로워한다. ‘명치’는 시민들에게 진압봉을 무차별적으로 휘두른 자신의 모습을 믿기 어려워하는 동시에 어쩌다 이 같은 폭력성이 발현되었는지를 묻는다. 1980년 5월의 열흘을 시간순으로 펼쳐지는 전체 서사의 진행은, ‘명치’가 이들 물음에 대한 답을 모색하는 일련의 과정과도 같다. 죄 없는 시민들을 “더럽고 추한 짐승의 살덩이”(2권, 173면)로 만들었다는 사실에 “까닭 모를 허탈감과 절망감을 털어버릴 수가 없”(2권, 254면)음을 알아차리며, 공수부대에 입대한 것을 후회하는 장면은 그 과정의 시발점이다. ‘명치’는 “당장이라도 벌떡 일어나 부대를 이탈해버리고 싶은 충동이 솟구”(3권, 325면)치는 한편 “비로소 자신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야만적인 짓들을 저질렀었는가를”(3권, 같은 면) 자각한다. 이에 따라 ‘명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혐오와 두려움을 느끼기에 이른다.

기실 이처럼 감정의 동요를 겪으며 가족과 이웃의 삶의 터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의 '실체'를 깨달아가는 '명치'의 형상은, 양진오가 지적한바 '완벽한 악인'이라는 단선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5·18의 '실체적 진실'을 복원하고자 하는 『봄날』의 기획 의도와 부합한다. 또 시민과 군인을 선인과 악인이라는 단순한 이항대립 관계로만 가두지 않음으로써 두 집단이 맺는 복잡다단한 관계를 묘파한다는 측면에서도 의의를 갖는다.[152] 그런데 더욱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은, 소설이 '명치'가 일말의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귀단'과 얽힌 일련의 일들을 소환하면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명치'는 진압봉으로 시민들을 휘두른 이후 거울 속 피로 흥건한 자신의 얼굴을 보며 가족의 얼굴을 떠올린다. 이때 무엇보다 세밀하게 묘사되는 모습은 단연 "산발한 머리채를 펄렁이며 화포리 선창 끝으로 허둥지둥 달아나던 어머니 귀단"(2권, 77면)의 그것이다. 이에 '명치'는 신음을 토하며 "거울 속의 사내를 겨누고 미친 듯"(2권, 같은 면) 진압봉을 내리친다. 공포에 질린 여아의 얼굴을 보고서도, 돌연 "어린 시절, 고향 낙일도의 선창가 창고 담벼락에 등을 기댄 채 웅크리고 앉아 있던"(2권, 155면) '귀단'을 떠올리기도 한다. 그리고 소설은 선창에 있는 '귀단'의 모습이 왜 '명치'를 괴롭게 만드는지를 다음과 같은 과거의 일을 환기하며 설명한다.

> 그러나 열 살 때였던가. 초여름 어느 날 아침, 등굣길에서 처음으로 어머니와 마주쳤었다. 이웃 마을 수협 창고 처마 밑에서 쥐약 먹은 개처럼 혼자 웅크리고 앉아 있던 그 낯선 여자의 더럽고 추한 꼬락서니를 보는 순간, 어린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가 어머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믿을 수가 없었다. 구정물로 어룽진 더러운 얼굴과 손, 까치집처럼 헝클어진 머리며 철 지난 털 스웨터를 꾸역꾸역 겹으로 두른 그 추악하고 흉측한 여자가 어머니일 리가 없었다. 아니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었다. 그 더러운 여자가 비칠비칠 몸을 일으키더니, 뭐라고 중얼거리며 이쪽으로 다가왔다.
>
> "아가, 우리 아가로구나. 아가야."
>
> 여자가 더럽고 냄새나는 두 손바닥을 활짝 펼친 채 다가왔을 때, 명치는 부들부들 몸을 떨기 시작했다.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절망과 공포가 엄습해왔고, 그는 갑자기 와악 울음을 터뜨리며 커다란 돌멩이를 움켜쥐고 악을 썼던 것이다.
>
> "가! 이 미친년아. 가란 말여! 빨리 꺼져부란께! 당장에 칵 때려쥑여불텐께!"[153]

152) 양진오, 앞의 책, 97-102면.

『붉은 山, 흰 새』에도 동일하게 삽입되어 있기도 한 위의 장면은, '명치'로 하여금 공수부대에 입대하기 이전 갖은 일탈을 하게 만든 일종의 '원체험'에 해당한다. '명치'는 '실성'한 '귀단'에게 돌을 던지는 등 폭언과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자신의 유년을 결코 잊지 못한다. 이따금 당시의 기억이 '명치'의 뇌리에 스칠 적마다, "그의 영혼은 추악한 벌레처럼 몸을 뒤틀며 발작을 일으켜야"(2권, 253면)만 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물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만일 위의 대목이 '명치'의 폭력성을 점화하도록 만든 결정적인 경험이었다면, 『봄날』은 왜 이것을 '명치'가 5·18의 국면들을 경험하며 불안과 부끄러움을 호소하기에 이르는 여정 및 5·18의 실상에 대한 깨달음을 획득하는 과정과 함께 그리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는 '명치'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펴본 '한원구'와 '무석'의 형상화 방식, 즉 이들 남성 인물의 제시와 더불어 '귀단'을 등장시키는 소설의 기획 모두에 걸쳐 있는 질문이기도 하다.[154]

『봄날』에 대한 장애학적 관점의 도입이 요청되는 대목 역시 바로 이 지점이다. 이를테면 그동안 서사적 재현물에서 장애라는 특질이 주로 어떤 역할을 담당해왔는지를 논한 데이비드 미첼(David T. Mitchell)과 샤론 스나이더(Sharon L. Snyder)의 다음과 같은 논의는 주요한 참조점이 된다. 미첼과 스나이더에 의하면 문학 담론에서 장애는 '서사 보정장치'(narrative prosthesis)의 기능을 수행해왔다. 이때 '보정'이란, 결함 및 일탈을 받아들일 만한 차이로 교정하는 작업을 일컫는다. 재현물은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인물을 형상화할 때 다른 부차적 인물들과 변별되는 어떤 예외적 차이를 설정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내러티브는 스토리텔링을 정당화하기 위해 중심인물의 예

153) 임철우, 『봄날』 2권, 문학과지성사, 1997, 252-253면.

154) 한편 전성욱은 "귀단의 실성(광기)으로 상징화되는 어머니(모성)의 부재"(전성욱, 앞의 글, 81면.)를 '한원구' 일가를 조명하는 『봄날』의 가족 서사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분석한 바 있다. 그리고 그것은 6·25로 대표되는 "민족사의 수난과 관련이 있으며, 그 '피해자'로서의 어머니는 5월의 광주에서는 다시 '항쟁의 내조자'로 부활한다."(같은 글, 82면.) 이 같은 지적은, 그간의 논의들이 누락해 온 '귀단'의 형상이 갖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의의를 갖는다. 다만 전체 서사의 흐름을 부재했던 모성이 점차 회복되어 가는 과정으로 읽는 작업, 다시 말해 '명치'가 품는 증오 및 혐오가 회복의 굴절을 지시하면서도 '무석'의 '항쟁' 참여는 그것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식의 독법은, '귀단'을 '실성'한 장애 인물로 설정하고 있는 소설의 기획이 담아내는 심층적인 의미를 구명하는 차원까지 나아가지 못한다. 기실 '실성'한 '귀단'의 형상은 비단 여성 인물에게만 '민족사의 수난'의 자질을 부여하는 젠더 편향적인 재현의 결과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만일 '귀단'의 실성이 '수난'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수난이 어떻게 정신적 손상 내지는 결함이라는 자질로 단번에 치환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 과정이 왜 필요했는지까지 심문해야 할 것이다.

외성을 확립해야 하기"[155] 때문이다.

그런데 이때의 예외성은 대개 일련의 절차를 거치면서 변화한다. 즉 처음에는 일탈 또는 현저한 차이가 독자에게 노출된다. 이어 재현물은 일탈의 기원과 결과에 대한 설명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체현한 인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따라 일탈은 관심의 주변부에서 서사의 중심으로 옮겨진다. 그리고 서사의 나머지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일탈을 회복시키거나 교정하는 내용으로 채워지며 갈무리된다.[156] 요컨대 예외성을 지시하는 일탈은 서사를 추동하는 요소이지만, 종국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특성으로 변모하는 것이다.

한편 재현물들이 이 같은 서사의 구조를 취하면서 '비일상성' 또는 일탈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표지로 삽입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정상성 규범 외부에 있는 것으로 통념화된 장애이다. 그렇다면 장애라는 개념은 서사의 진행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그것이 "이야기의 필요성을 환기하지만 차이가 확립되면 곧장 잊힌다"[157]는 데에 있다. 관심의 초점은 점차 장애, 또는 장애 인물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옮겨가면서 장애는 부차적인 것으로 밀려나거나 문면에서 휘발되고 만다. 그리하여 장애 인물이 서사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과정은, 고유의 정체성을 탈각하고 수동적인 역할을 획득해나가는 국면으로의 이행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같은 미첼과 스나이더의 논의는 『봄날』의 '귀단'의 형상과 '귀단'이 다른 남성 인물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호출되는 맥락을 이해하는 데 있어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다.

기실 장애 인물 '귀단'은 『봄날』의 가족 서사를 추동하는 핵심 인물이다. 지금까지 살펴본바 소설은 '한원구' 일가의 남성 가족 구성원들이 5·18의 국면에 참여하는 여러 양상을 균형 있게 배분한다. 한편 이때 모두에게 부여하는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장애 인물 '귀단'을 상기하는 것과 더불어 이에 따른 괴로움이다. 이는 '한원구'가 '귀단'에게 저질러 온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한편 6·25와 5·18의 비교를 통해 어떤 깨달음을 획득하는 장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5·18을 한국 현대사의 전체 흐름 속에 위치시키고자 하는 총체적 재현을 기획하기 위해 고안된 설정일 것이다. 다른 한편 '무석'과 '명치'가 유년 시절 자신들의 어머니 '귀단'이 경험했던 핍박과 이로

155) David T. Mithchell and Sharon L. Snyder, op. cit., p. 54.
156) *Ibid.*, p. 53.
157) *Ibid.*, p. 56.

인한 실성 및 가출의 경위를 떠올릴 적마다 호소하는 고통은, 5·18이라는 절체절명의 사건을 맞닥뜨리는 과정과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5·18 국면으로의 참여가 결코 감정의 동요 없이 매끄럽게 이루어지는 성질의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처럼 '귀단'은 『봄날』 전체 서사의 중추를 담당한다. 만일 '귀단'이 부재한다면, 가상의 인물들의 형상화를 통해 5·18을 재구성하고자 했던 '소설' 『봄날』의 기획 의도가 적실하게 반영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5·18의 총체적 재현 역시 도모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앞선 '한원구', '무석', '명치'의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듯, 이들은 서사의 중요한 국면마다 '귀단'을 절실하게 찾는다. 이때 이들 인물이 느끼는 절실함은 무엇보다도 '귀단'의 현재 삶을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무석'은 고모를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만 '귀단'의 현재 삶을 추측할 수 있으며, 군인인 '명치'는 이 같은 소문에마저 좀처럼 접근할 방도가 없다. '한원구'만이 그간 '귀단'이 살아온 삶의 궤적에 대한 저간의 사정을 접하게 되지만 그것은 서사 끝 무렵에야 이르러, 이때에도 '귀단'이 아닌 그녀와 함께 기거하는 딸로 추정되는 '처녀'를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알게 된다. 그리고 소설은 이들의 절실함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귀단'의 몸과 삶을 그 무엇에도 직접 응답할 수 없는 상태로, 즉 장애 인물의 그것으로 형상화한다.

바로 이 지점, 즉 '귀단'이 장애 인물로 설정되어 있는 까닭에, 이들 인물은 행방이 묘연한 '귀단'의 삶의 자장을 중앙에 둔 채 연이어 공전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봄날』이 그리는 가족 서사의 진행은 전술한바 이들이 제각각 '귀단'을 공전해나가는 과정임이 드러난다. 만일 '한원구', '무석', '명치' 가운데 누군가가 '귀단'과의 대면을 이뤄내 공전의 중단이 선언되었더라면, 5·18 체험이 한 개인의 생애주기와 맺는 복합적인 관계를 유기적으로 제시한 소설의 '성취'를 반감시켰을 것이다. 그렇기에 소설은 '귀단'을 아무것도 발화하지 못하는 몸으로, '귀단'의 삶 전반을 정신적 손상을 체현하는 동시에 배회를 거듭함에 따라 끝없이 물음에 부쳐지는 것으로 형상화해야만 했다.

그리고 '귀단'은 서사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잊힌다. '귀단'이 이야기의 전개를 추동하는 중추적인 인물이라는 점을 다시금 고려해볼 때, 다소 역설적이라 할 수 있는 이 같은 휘발의 과정은 어쩌면 필연적인 것이기도 하다. '귀단'을 공전하는 남성 인물들의 존재를 괄호에 넣으면, '귀단'은 스스로 그 어떤 역할도 맡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유달리 '귀단'만은 다른

인물들과 변별되게 5·18이 한창인 1980년 5월이라는 특수한 시공간과 아무런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각각 5·18의 현장을 관찰하거나 이에 가담하는 남성 인물들이 어떤 '주체'로 도약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소설은, '귀단'이 5·18을 어떻게 체험하고 있는지 대해서만은 일관되게 침묵을 유지한다. 남성 인물들이 '귀단'을 호출하는 맥락이 구체적으로 소개되는 반면, '귀단'의 현재 삶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만 소략적으로 언급되는 데에 그치는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리하여 '귀단'은 세 남성 인물들의 삶의 변화를 추동하는 계기가 된다. 증오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데서 발현된 폭력성을 반성하면서 가족을 비극으로 몰아넣은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한원구', 삶 전체가 비극적인 그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했지만 5·18에 '시민군'으로 가담하며 미래에의 의지를 다지는 '무석', 그리고 원망과 혐오에 대한 감정으로부터 점차 벗어나 부끄러움이라는 감정 구조를 획득해나감으로써 '인간성'의 회복을 기도하는 '명치'는 모두 삶의 변화를 꾀한다. 이처럼 세 인물이 새로운 삶을 개진해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조명하는 소설은, '귀단'을 이들 삶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종의 촉매로서 구성한다. 이에 따라 관심의 초점은 '귀단'을 매개로 하여 변화를 겪는 남성 인물들의 삶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는데, 그럴수록 '귀단'의 소외는 더욱 강화된다.

요컨대 세 인물은 5·18을 지켜보거나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과거 자신이 지녔던 증오를 떨쳐낼 것을 다짐하며 반성을 구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꾸릴 것을 계획한다. 어쩌면 이들에게 있어 5·18은 과거 낙일도의 비극으로부터 이어지는 갈등의 삶을 청산하는 기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 같은 청산의 촉매는 다름 아닌 '귀단'이었다. 환언하자면 세 인물이 새로운 삶의 양태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지속적으로 '귀단'을 호출한 결과이며, 그 과정은 '귀단'이 어떤 깨달음의 계기로 구성되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삶의 도모 가능성은 결코 호혜적인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귀단'은 '한원구', '무석', '명치'의 현재와 미래의 삶의 변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소설은 그 역의 과정을 단 한 장면도 그리지 않는다. 소설이 '귀단'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단 하나의 국면, 즉 '귀단'을 공전하는 남성 인물들이 주요한 변화를 경험하는 맥락을 서술할 때뿐이다.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볼 때, 『봄날』은 5·18의 총체적 재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는 소설이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서사 곳곳에 소설 밖 실재하는 다양한 기록물과 증언을 삽입함에 따라 사실성을 갖춘 '보고문학'의 형식을 갖춤으로써 가능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봄날』이 5·18의 소설화와 관련하여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유기적으로 짜인 가족 서사를 제시하면서 이 같은 사실(史實)을 향한 엄정성을 더욱 복합적인 맥락에 위치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붉은 산, 흰 새』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한원구' 일가의 가족 서사는 5·18을 6·25와의 비교 검토를 가능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5·18의 역사성을 한국 근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에 기여한다. 그리하여 『봄날』은 5·18이 점차 제도화됨에 따라 이미 종결된 사건으로 낙착되어가던 1990년대 한국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기록물이자, 문화예술계 자장에서 독보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소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봄날』이 이처럼 5·18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다시금 요청하고 있듯 그 스스로 재평가가 요구되는 텍스트라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살펴본바 『봄날』은 5·18의 총체적 재현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기도 하지만, 문제적인 장애 재현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기실 『봄날』이 장애 인물 '귀단'의 형상을 비장애-중심인물의 '도약'을 위한 수단으로 배치하고 있는 것은, 결코 부차적인 문제로만 간주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귀단'의 극심한 정신적 손상을 체현한 몸과 끝없이 물음에 부쳐지는 표류하는 삶은, 『봄날』의 전체 서사를 추동한다. 그러나 소설은 '귀단'에게 별다른 관심을 표출하지 않은 채, '귀단'을 그저 아무것도 발화하지 못하는 인물로, 다른 인물들에 의한 '목격'의 대상으로서만 일관되게 구성한다. 즉 소설은 '귀단'이 갖는 장애라는 특성을 서사의 비극적인 분위기를 환기시킬 때에만, 그것이 일련의 수난과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거듭 지시하는 국면에서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야말로 비록 『봄날』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총체적 재현의 성취를 달성하고 있음에도, 장애 재현과 관련해서는 기존 소설들이 취해왔던 문법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일 것이다. '귀단'에게 있어서만큼은 부재한 어떤 긍정적인 전망은, 소설이 '귀단'을 '비정상적'인 몸과 삶을 체현하고 있기에 애초부터 그 가능성을 상실하고 있는 인물로 구상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귀단'의 형상화가 소설 밖 비장애중심주의의 재생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은 『봄날』의 서사 전개에 있어 전연 '문제'

가 되지 않는다. 장애는 곧 비극이자 그것의 재현은 그다지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5·18의 재현 윤리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봄날』에게까지도 노출되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비장애중심주의에 입각한 재현, 그리고 이에 대한 무관심이 5·18의 총체적 재현의 '성공'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소설 재현의 장이 내포하고 있는 말 그대로 뼈아픈 한계에 해당할 것이다. '5·18소설'이 다차원적인 의의를 내장하고 있어 유효성의 시효가 만료될 수 없는 텍스트라면, 이를 위해 다시금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은 바로 이처럼 접혀있는 윤리적 지평이 아닐까. 그럴 때라서야 『봄날』이 시도하고 총체적 재현만큼이나 다각적인 독법이 제출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인간-되기의 역설

장애 재현에 대한 문제의식의 부재는, 비단 『봄날』에게만 한정한 것이 아니었다. 『봄날』이 장애 인물 '귀단'을 밑거름 삼아 5·18의 총체적 재현을 꾀한 텍스트라면, 문순태의 『그들의 새벽』과 송기숙의 『오월의 미소』는 각각 '정신박약자' '월순'과 '미친 여자' '영선'을 형상화함으로써 이와 유사한 작업을 시도한다. 두 소설이 『봄날』과 차별화되는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장애 인물들의 '죽음'이 서사의 진행에서 어떤 변곡점으로서 기능한다는 데에 있다. 기실 5·18을 서사화하는 소설들에서 죽음은 매우 빈번하게 다뤄져 왔기에 그 자체로 새로운 것은 아니다. 다만 두 소설이 제시하는 장애 인물들의 죽음은, 다분히 비장애-중심인물들을 위해서만 배치되고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장애 인물들은 죽을 때라서야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는 것인데, 이들의 죽음은 비장애-중심인물들의 의협심을 추동하는 사건이자, 화해와 용서의 당위성을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로서 제시된다. 환언하자면 장애 인물들의 삶은 이들 '대의'에 후행한다.

이처럼 장애 인물들의 죽음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소설의 재현을 뒤집어서 보자면, 이들의 삶은 좀처럼 다채롭게 형상화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봄날』이 '귀단'의 형상을 반드시 필요로 했지만 그 필요성이 남성 인물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계기라는 측면에서만 한정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새벽』과 『오월의 미소』의 '월순'과 '영선'의 삶 역시 특정한 수단으로만 구성된다. 두 소설이 주요하게 조명하는 삶은, 여느 '인간'과는 다른 '비정상적'인 겉모습이거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일 뿐이다.

해당 절에서는 두 소설을 이들 장애 인물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읽는다. 이는 곧 『봄날』에 이어 5·18의 총체적 재현을 성공적으로 기도한 텍스트로 평가받는 두 소설이 어떤 인식틀을 통과 또는 우회하며 이루어졌는지를 심문하는 작업에 해당한다. 두 소설의 근간에도 비장애중심주의가 견고하게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역사화 또는 총체화의 기획이 기실 매우 협소한 상상력에 기반하여 재생산되어왔음을 보여준다. 또 그것의 잇단 진행이 장애 재현의 무관심을 대가로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지시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문제적인 재현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더불어 그간의 무관심을 탈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작업일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그들의 새벽』을 살펴보기로 하자.

기실 문순태의 『그들의 새벽』은, 『봄날』과 유사하게 '시민군'에 가담하는 남성 인물들이 실종된 '월순'의 행방을 거듭 추적하는 과정이 서사 전개의 주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소설이다. 따라서 『그들의 새벽』을 읽는 과정에서도 마땅히 제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소설은 왜 장애 인물 '월순'을 형상화했으며, 전체 서사에서 '월순'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와 관련한 물음일 것이다. 즉 구두닦이 '손기동'을 중심으로 이른바 '룸펜' 계급 구성원들의 5·18 참여 양상을 다루면서, 무엇이 1980년 5월 당시 다양한 계층의 성원들을 '항쟁'에 전폭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들었는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응답을 마련하고 있는 『그들의 새벽』[158]에 있어, 왜 장애 인물의 형상은 긴요했을까.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월순'의 형상은 어떻게 분석되어야 할까.

> "아무도 없는 것 같은듸요?"
>
> 그때 집 안 어디에선가 칭얼대는 듯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지친 목소리로 누군가를 애타게 부르는 것 같기도 했다. 박지수 목사는 부엌 옆 자물쇠가 채워진 헛간으로 다가가 판자문 틈새로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았다. 짐작했던 대로 헛간 안에 사람인지 짐승인지 쉽게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몰골이 험상궂은 생명체가 개목걸이 같은 가죽끈에 발목이 묶인 채 한사코 문 쪽으로 기어나오려고 버둥거리고 있었다. 월순이의 몰골은 사람이 아니었다. 양말도 신지 않은 맨발의 그녀는 색깔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바래고 너덜너덜한 낡은 바지와 철 늦은 쥐색 스웨터를 꿰고 있었는데 온몸이 온통 짚 부스러기와 흙투성이였다. 머리는 시래기 다발처럼 제멋대로 헝클어졌고 얼굴은 얼마 동안이나 세수를 안 했는지 땟국이 덕지덕지 눌러붙어 있었다.
>
> "엄니이, 배고파이……. 밥 줘이."
>
> 그녀는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자기 어머니가 돌아온 것으로 알아차렸는지 다시 다급하게 칭얼대기 시작했다. 박지수 목사는 더 이상 헛간 안을 들여다볼 수 없어 몸을 돌려세우고 짧게 고통스러운 한숨을 토했다.[159]

---

158) 한편 문순태는 『그들의 새벽』의 창작 의도를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나는 이 작품에서 되도록 실체적 진실을 수용하면서 이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당시 상황에 대응했는가를 그려 보려고 했다. 중심 줄거리는 가출한 술집 호스티스와 구두닦기 청년이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겪는 좌절과 사랑과 죽음의 슬프고 아름다운 이야기이다. 내가 이 소설에서 다루고자 했던 것은 구두닦이, 양아치, 철가방, 호스티스, 세차장 종업원, 공장 직공 등 밑바닥 청소년들이 무엇 때문에 마지막까지 도청을 사수하다가 끝내 죽음을 선택했을까 하는 의문을 풀어보기 위해서였다."(문순태, 「작가 후기-그들은 땅 속의 별이 되었다」, 『그들의 새벽』 2권, 한길사, 2000, 348면.)

159) 문순태, 『그들의 새벽』 1권, 한길사, 2000, 12-13면.

무엇보다도 『그들의 새벽』은 “낮에는 구두닦기를 하고 밤에 야학을 다니며 절망과 희망의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처지”(1권, 27면)에 놓인 ‘손기동’, 그리고 ‘빛고을교회’와 ‘빛고을야학당’의 구성원들을 비롯한 ‘도시 빈민’들이 5·18을 통과하면서 적극적인 삶의 의지를 벼리는 과정을 그린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손기동’이 위치한다. 서사의 마지막 장면에 해당하는 5월 27일 새벽, “은연중에 기동은 도청에 들어와 있는 빛고을야학당 가족의 중심인물이 되어 있었다”(2권, 324면)는 서술을 통해 유추할 수 있듯, 소설의 관심은 ‘손기동’이 집단의 중심인물로 일약 도약하는 과정으로 모아진다. 바꿔 말해 “아무리 자유 평등 세상이 좋다고 해도 지금 당장 세상이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1권, 142면)던 까닭에 5·18 이전부터 달아올랐던 데모의 열기를 향해 무관심의 태도를 일관해 온 ‘손기동’이, 어떤 까닭에 직접 총을 들고 이내 끝까지 도청에 남을 것을 단호하게 선언하는 적극적인 인물이 되었는지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손기동’이 이 같은 적극성을 획득하게 된 구체적 계기를 논구하는 작업은, 『그들의 새벽』을 적실하게 이해하는 데 있어 요구되는 첫 단계이자 핵심에 해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시국선언문을 함께 읽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차례대로 이야기해보라는 야학 강학의 제안을 거부하는 한편 “그까짓 배때기가 따땃한 사람들이 만든 선언문”(1권, 167면)은 자신에게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인물이자, 5·18의 현장에서 공수부대원들에 의해 처참한 폭력을 당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던 스스로에게 일말의 회의를 느끼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이익과 상관 없는 일에 목숨 걸고 싸워서는 안된다는 생각”(1권, 301면)을 동시에 품기도 했던 ‘손기동’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그 계기는 무엇일까. 아울러 ‘손기동’에 의해 감화를 받은 이후 그와 함께 ‘시민군’에 가담한 다른 인물들은, 각각 어떤 결심 아래 ‘항쟁’에 참여하기에 이르렀을까.

그런데 위의 물음들은 그간 제출된 『그들의 새벽』에 대한 논의들에 의해 충실히 제기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나름의 구명 역시 꽤 이루어졌다.[160]

160) 이를테면 ‘정념’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그들의 새벽』에 등장하는 ‘도시 빈민’들의 ‘정치적 주체화 양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구한 김주선의 논의가 대표적 예에 해당한다. 김주선에 의하면 그 양상은 논리적으로 쉽게 해명할 수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랑이나 증오, 인정 등”(김주선, 「문순태의 『그들의 새벽』에 나타난 도시 빈민의 5·18 참여 양상 연구」, 『영주어문』 제47집, 영주어문학회, 2021, 72면.)과 같은 정념의 발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들 인물에게 있어 5·18 국면에의 적극적인 참여는 비로소 “다차원적 박탈 상태”(같은 글, 64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일대의 전환점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심영의 역시 이와 유사한 해석틀을 제안한 바 있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심영의는 『그들의

다만 문제는, 이들 논의가 모두 인용된 위의 장면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장애여성 인물 '월순'의 형상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누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실 사람인지 짐승인지 쉽게 구별할 수 없는 '몰골'을 띠는 동시에 처참한 생활 환경에서 기거하는 모습으로 소설의 도입부부터 강렬하게 등장하는 '월순'은, 전체 서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중심인물 '손기동', 그리고 그에게 감화를 받은 인물들 가운데 한 명인 '영철'이 '항쟁'에 참여하는 주요 계기가 다름 아닌 '월순'과 직접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아래에서는 '월순'을 중심으로 『그들의 새벽』을 다시 읽는다. 이처럼 장애여성 인물 '월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서사가 진행됨에 따라 강조되는 '손기동'과 '영철'의 '투사'로서의 자질이 무엇을 대가로 획득되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작업과도 같다. 앞당겨 말해보자면, 소설이 이들의 부상(浮上)을 위해 치러야 했던 값 또는 설계해야만 했던 설정은, 다름 아닌 온갖 수난을 경험하는 장애여성 인물 '월순'의 실종과 죽음이었다.

'월순'을 중심으로 『그들의 새벽』을 다시금 검토해볼 때 단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있다면, 소설이 잇달아 그리는 이른바 '월순'의 '인간-되기'의 국면이다. 그것은 "정신박약 미혼모에다, 오랫동안 짐승처럼 갇힌 채 살고 있는 신세"(1권, 11면)인 열일곱 살 '월순'이, '손기동'과 '빛고을교회'를 이끄는 목사 '박지수'의 돌봄을 받으며 점차 '인간'의 모습으로 변모해나가는 과정의 총체를 의미한다. 그리하여 소설은 '월순'과 이 두 인물과의 만남, 다시 말해 지인으로부터 '월순'의 사정을 전해 듣고는 자신이 광주로 데려가 돌보겠다는 '박지수'와 이에 자신도 일말의 기여를 할 것을 다짐하는 '손기동'과의 대면하는 장면을 '월순'의 삶을 극적으로 뒤바꾸는 사건으로 다루고 있다. 서사의 도입부에서부터 앞서 인용한 장면을 삽입하고 있는 것 역시 그 까닭

새벽』을 "5·18민중항쟁의 진정한 '주제'란 이들 이름 없는 민중들이었다는 작가의 문제의식"(심영의, 앞의 글, 53면.)의 소산이자, "5·18민중항쟁의 소설적 재현에 있어 가장 실제적(實際的)인 작품"(같은 글, 57면.)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읽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때 고평의 주요한 근거가 되는 것은, 해당 소설이 소설 밖 실재하는 5·18 체험의 의미를 적확하게 밝히고 있으면서도 '계급혁명'과 같은 특정 담론을 기반으로 한 형상화를 지양하는 균형적인 시각에 있다. 반면 정명중은 『그들의 새벽』이 "서사적 관심이 항쟁 당시의 룸펜 문제에 온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작품"(정명중, 「인식되지 못한 자들, 혹은 유령들-5월소설 속의 '룸펜'」, 『민주주의와 인권』 제15권 2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5, 14면.)임엔 틀림없지만, '손기동'에 대한 지나친 '영웅화' 과정에 착수함으로써 간과할 수 없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소설로 평가한 바 있다. 이는 곧 '룸펜'이 갖는 고유의 계급적 특성, 즉 '부랑'의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탈각하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그리하여 정명중에 의하면 "룸펜에 대한 온정주의적 시선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새벽』은 위험하고 불안한 계급에 대한 거부감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일종의 계급 '위생학'"(같은 글, 23면.)이다.

이다. 그런데 유의할 것은, 소설이 이 극적인 변화를 강조하기 위해 '월순'의 비극적인 과거를 매우 집요한 서술과 함께 끌어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가림 못하는 정신박약자"(1권, 13면)인 '월순'은 "산이고 들이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서운 것 없이 뻘때추니처럼 쏘다니기를 좋아"(1권, 같은 면)한 까닭에, 모르는 남성들로부터 수차례 강간을 당한 바 있다. '월순'은 세 차례의 낙태를 강요받아야만 했으며, 2년 전에는 "아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자식까지 낳"(1권, 같은 면)기도 했다. 한편 소설은 '월순'의 전사(前事)를 집약적으로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남자 여자, 어른 아이 가리지 않고 짖을 줄 모르는 똥강아지처럼 아무에게나 홰를 치며 졸래졸래 잘 따"(1권, 151면)랐다는 '월순'의 '순수한' 모습과 더불어, 강간을 당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수술과 출산의 장면들을 모두 삽입하기에 이른다. 이는 곧 헛간에 갇혀 사는 '월순'의 불행한 현재 모습을 뜯어보는 '손기동'과 '박지수'의 시선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런데 이처럼 여러 수난으로 들어차 있는 '월순'의 비극적 과거는 두 인물과 대면이 이루어지는 그 짧은 순간에 곧바로 삭제된다. 이들과 함께 '빛고을교회'로 향하기 위해 차림을 단정하고 나온 '월순'은, 곧장 "짐승의 모습"(1권, 15면)과 거리가 먼 '인간'의 그것으로 그려진다. '월순'이 기실 "갸름하고 자그만 얼굴에 서글서글한 눈이며 적당한 콧대, 작고 야무진 입, 희고 긴 목을 가진 드문 미인"(1권, 같은 면)이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또는 이 역시 집요하게 묘사된다. '월순'이 체험한 수난과 그것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의 강조는, 모두 이들 시공간에서의 삶을 청산한 광주에서의 삶이 그야말로 새로울 것임을 예비한다. 이전의 '월순'이 헛간에 갇힌 채 "짐승의 앓는 소리"(1권, 같은 면)만을 내는 한편 "최소한의 지각이나 인격, 예의 같은 것"(1권, 29면)이 전혀 부재한 괴성만을 외쳤다면, 광주로 이주한 뒤에는 현격히 달라진다. '빛고을교회', 그리고 '손기동'의 알선으로 '분식 센터'로 옮겨온 이후 주방에서 잔심부름과 청소를 도맡게 된 '월순'은 전혀 "딴 사람"(1권, 118면)이 되어 "말귀도 잘 알아먹고 시키는 대로 따"(1권, 같은 면)르는 한편, 인간관계의 폭도 확장되어 이른바 '사회성'까지 겸비한 '인간'이 된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를 경험함에 따라 순탄한 것처럼 여겨졌던 '월순'의 삶은 이내 일련의 위기들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짜짜루의 철가방"(1권, 148면) '영철'의 접근은 그 첫 단계에 해당한다. '영철'은 '월순'과 같은 "멍청이들한

테는 적당히 어울려 재미를 보면서 쇳가루나 뜯어내면 그만”(1권, 154면)이라는 욕망을 갖은 채, 그녀의 돈을 훔쳐 달아날 것을 계획한다. ‘영철’의 심중을 모르는 ‘월순’은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영철’의 말을 따른다. 이때 사라진 ‘월순’을 찾던 ‘손기동’이 둘을 발견함에 따라 ‘월순’은 가까스로 곤경을 모면한다. ‘영철’의 계획적인 접근이 ‘손기동’의 엄벌로 마무리됨에 따라 해결 가능한 일회적인 난관에 해당한다면, 이후 ‘월순’이 경험하는 또 한 차례의 위기는 그 누구의 도움으로도 해결될 수 없다. ‘손기동’과 ‘영철’의 삶 모두에 급격한 변화를 추동하기도 하는 이 위기는, 다름 아닌 5·18 현장에서의 ‘월순’의 실종이다.

5월 18일 오전, ‘월순’은 공수부대원들에 의해 쫓기는 시민들과 시위대를 맞닥뜨린다. “공수대원들에게 붙잡혀 곤봉세례를 받고 픽픽 쓰러”(1권, 275면)지는 시위대들을 보며 두려움을 느낀 ‘월순’은 다급하게 도망치는데, 그러던 중 공수부대원에게 붙잡혀 머리를 가격을 당하고는 “트럭에 짐짝처럼 실려”(1권, 276면)간다. 이후 ‘월순’은 넓은 강당에 끌려간 이후 수차례 고문을 당한다. 누구의 지시를 받고 데모에 가담했느냐는 질문에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답변하는 ‘월순’에게 폭력은 끝없이 가해진다. 그럼에도 ‘월순’은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라는 결심 아래 “어금니를 앙당물고 머리끝에 힘을 주어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2권, 109면) 애쓰지만 끝내 실신한다. 가까스로 깨어난 ‘월순’은 ‘빛고을야학당’의 강학 ‘박성도’의 친구이자 자신과도 안면이 있는 공수부대원 ‘김인식’의 도움으로 고문의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지만, 고향으로 향하던 중 총격을 당해 사망한다.

주의할 것은, 소설 내 어떤 인물도 이와 같은 ‘월순’의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에 ‘손기동’과 ‘영철’은 ‘월순’을 찾아 나선다. 5·18의 국면을 본격적으로 다루며 이 현장에 중심인물들이 가담하는 과정을 그리는 서사의 진행에 있어, ‘월순’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대목은 바로 이 지점이다. 무엇보다도 ‘월순’의 부재는 ‘손기동’과 ‘영철’의 5·18 참여를 이끄는 계기가 된다. ‘손기동’의 참여에는 자신에게 호감을 표하며 모든 사연을 털어놓는 호스티스 ‘현숙’의 죽음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가 처음 거리로 나서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다름 아닌 ‘월순’을 반드시 찾고야 말겠다는 의지에 근거한다. ‘손기동’이 자전거를 타고 공수부대의 추격을 피해 시내 곳곳을 누비며 ‘월순’을 찾는 것은, “내가 깨달은 거는 현숙이 죽음이 바로 내 죽음이며 우리들 모두의 죽음이라는 것이여”(2권, 169면)라는 선언보다 훨씬 앞선 일이다.

한편 '영철'은 오롯이 '월순'을 찾겠다는 일념 아래 5·18의 현장에 뛰어든다. 이는 '손기동'의 엄벌이 있은 이후 '월순'을 향해 위선적으로 대했던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한 결과이다. 전술한바 서사가 진행될수록 '손기동'이 5·18을 통과하면서 '빛고을야학당'의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부상하는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영철' 역시 이 엄벌을 계기로 '손기동'에 의해 감화를 받는다. 나아가 '손기동'은 고된 '철가방' 생활을 하는 '영철'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하는 등 애정을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손기동'이 '영철'로 하여금 현재 삶의 의지를 다시 다지도록 돕는 인물이라면, '월순'은 '영철'에게 미래를 꿈꾸도록 만든다. '영철'은 "이제 월순이 찾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2권, 124면)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른다.

> 더욱이 요 며칠 사이에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곤봉에 맞아 피를 흘리고 총에 맞아 죽어가는 것을 본 후부터, 그는 월순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만약 월순이가 군홧발에 직신직신 짓밟히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면 미쳐버릴 것 같았다. 영철은 비로소 사람의 마음과 생명은 그 무엇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다. 솔직히 영철은 처음에 월순이한테 접근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녀와 오래 사귀고 싶은 생각은 머리털만큼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잠시나마 그녀에게 나쁜 마음을 품었던 것을 후회하고 있다. 이제라도 그녀에게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고 싶었다. 어쩌면 집을 떠난 후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에게 저질렀던 모든 잘못을 월순이한테 털어놓고 그녀를 통해 한꺼번에 용서받고 싶은 것인지도 모른다.[161]

'영철'이 '월순'에게 지난날 자신이 저지른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받고 싶다고 말하는 인용된 위의 장면은, '월순'의 실종 이후 '영철'의 삶의 변화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영철'로 하여금 "간질간질하면서도 애틋한 마음이 가슴 절절하게 차오르"(2권, 같은 면)게 만든 '월순' 및 그녀의 부재는, '영철'을 도청으로 이끈다. 한편 '영철'은 5월 27일 새벽, 총을 반납하고 도청에서 빠져나올 것을 권하는 목사 '박지수'와 '빛고을야학당'의 성원들의 제안을 끝까지 거절한다. '영철'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도청에 남을 수 있었던 것은, 결코 혼자가 아닌 까닭이다.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

161) 문순태, 『그들의 새벽』 2권, 한길사, 2000, 125면.

는 '월순'이 이미 죽은 것 같다고 여기는 그에게 "그래도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는 말자"(2권, 236면)고 말하며 곁을 지키는 누군가, 즉 '영철'에게 처음으로 삶의 희망을 각인시켜 준 '손기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리고 소설은 총격을 당한 '손기동'의 죽음을 그리면서, 이 죽음이 '영철'을 자신의 몸으로 구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것임을 제시하면서 서사의 끝을 맺는다.

그리하여 『그들의 새벽』이 장애여성 인물 '월순'의 형상을 등장시켜야만 했던 까닭은 자명해진다. 무엇보다도 '월순'의 부재는 '손기동'과 '영철'이 '항쟁'의 국면에 '시민군'으로서 참여하도록 만드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는 곧 소설이 무엇이 1980년 5월 당시 '도시 빈민'들이 끝까지 도청을 수호하도록 이끌었는지를 이른바 '문학적'인 논리를 빌려 구명하기 위해 고안한 설정일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앞서 살펴봤듯 이 과정이 무고한 시민들의 숱한 죽음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의제만을 제시함으로써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다. 오히려 소설은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삽입한다. 그 구체성은 다름 아닌 중심인물들과 깊게 결부된 '월순'이라는 특정 개인의 삶의 편력을 빠짐없이 열거하는 것을 통해, 바꿔 말해 '월순'이 점차 '인간'이 되어감에 따라 기대되었던 새로운 삶이 5·18을 맞닥뜨림에 따라 일제히 좌절되고 마는 장면을 그리는 것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

끝내 '인간'이 되지 못한 '월순'은 역설적으로 '손기동'과 '영철'의 '인간성'의 제고를 돕는다. 그렇다면 '월순'의 죽음을 이들 인물의 새로운 삶으로 보상하게 만드는 소설의 기획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또 그간 많이 논의되어 오지 않아 온 '도시 빈민'들의 삶을 중심으로 5·18의 총체적 접근을 기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장애여성 인물 '월순'을 주요하게 형상화하고 있는 소설은 어떤 인식틀과 관계하고 있는 것일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선, 먼저 헛간에서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월순'의 몸의 제시를 통해 서사의 개시를 알리고 있는 대목과 이어 강간, 낙태, 출산 등으로 '월순'의 과거가 나열되는 장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과연 이를 소설이 '박지수'의 말을 빌려, 즉 "이런 산골에서 무턱대고 자식을 보호시설에 보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1권, 18면)닐뿐더러 "정신박약 여자를 보호시설에 보낼 때는 사전에 생리를 못하게 하는 수술도 받아야 하고 좀 복잡하"(1권, 같은 면)다는 전언의 삽입을 통해 소설 밖 장애여성이 맞닥뜨리는 현실을 비판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을까.

그러나 이들 장면은 "시각적인 다름의 경제학 속에서 무표적인(unmarked)

몸은 '정상'이라는 중립적 공간 속에 있게 되는 반면에, 열등하다고 여겨지는 몸은 타자성을 목격하게 되는 대단한 구경거리가 된다"[162]는 갈런드-톰슨의 지적을 경유하며 다시 읽힐 필요가 있다. 기실 매우 상세하게 묘사되고 기술되는 '월순'의 몸과 과거 수난의 삶은, '구경거리'를 향한 집요한 시선이 관철된 결과이다. 그리하여 구경이 이루어지는 장면은 '월순'에게 반드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양태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당위를 전달한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장애여성 인물 '월순'이 보다 적극적인 동정과 시혜를 받아야 한다는 또 다른 당위와 교착되어 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소설은 '손기동'과 '박지수'를 강한 책임감 아래 '월순'을 '잘' 돌볼 것을 다짐하고 점차 이를 실행에 옮기는 인물로 그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두 인물의 몸은 결코 노출되지 않는다.

이 같은 사실을 고려해볼 때, 5·18 체험과 결부된 '월순'의 실종 및 죽음은 비단 비극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만 의미를 갖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기실 5·18이 서사 전면에 등장하기 이전까지 월순의 몸과 삶은, 전술한 '인간-되기'의 단계적 절차 아래 명료하고 간단하게 제시된다. 이를 뒤집어서 말해보자면, 살아 있는 '월순'은 '짐승'의 모습, 그리고 이를 탈피해가는 과정을 제외한 다른 삶의 일면은 좀처럼 조명받지 못한다. 그러던 중 '월순'은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부터는 각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데, 그 순간은 5월 18일, 즉 본격적인 5·18의 서사화가 이뤄지는 기점인 동시에 '월순'이 돌연 사라지는 때이다. 이후 '손기동'과 '영철'이 '월순'을 찾기 위해 거리로 나서고 나아가 '시민군'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월순'의 실종이라는 '사건'이 5·18을 조명하는 서사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음을 지시한다. 바로 이 지점이야말로, 5·18의 국면에서 '월순'은 부재할 때라서야 중요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적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일 것이다.

종합하자면 『그들의 새벽』은 장애여성 인물 '월순'을 문면 곳곳에 등장시키며 중요한 인물임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그 양상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만을 강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첫째, 5·18을 맞닥뜨리기 이전 살아 있는 '월순'은, '정신박약자'이자 강간 피해 여성이라는 '비정상적'인 몸을 갖는 동시에 비극적인 삶을 체현하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개선이 요구되는 성질의 것으로 구성되며, 이를 책임지는 주체는 다름 아닌 '손기동'이다. 둘째, 5·18을 맞닥뜨림에 따른 '월순'의 실종과 사망은,

162) 로즈메리 갈런드-톰슨, 앞의 책, 23면.

남은 서사 진행의 주요한 축을 담당한다. 공수부대에 의해 끌려간 이후 '월순'의 행방과 죽음에 이르는 경위를 그린 '월순이'라는 이름의 장(章)이, 총 32개의 장 중 유일하게 구체적인 인물의 이름으로 설정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월순'의 부재는 '손기동'과 '영철'의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든다는 측면에서만, 즉 이들의 '항쟁' 참여의 계기라는 측면에서만 중요성이 부과될 뿐이다. 그리하여 '월순'은 전체 서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 역할이 오롯이 '손기동'과 '영철'로 대표되는 비장애-중심인물들을 중심으로만 맥락화된다.

『그들의 새벽』이 '월순'의 삶과 죽음을 모두 비장애-중심인물들의 '인간성'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만 구성하고 있다면, 송기숙의 『오월의 미소』는 화해와 용서라는 대의의 구현을 위한 일종의 예비 단계로서 장애 인물 '영선'을 등장시키고 있는 텍스트이다. 두 소설은 장애 인물을 죽어야만 5·18과 관련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존재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변별되는 지점이 있다면, 1980년 5·18의 현장을 시공간으로 삼고 있는 『그들의 새벽』과는 달리 『오월의 미소』는 1980년 이후 5·18이 한국사회에 남긴 문제들을 조명하면서 그 의미를 반추한다는 데에 있다. 이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월의 미소』의 장애 인물 '영선' 역시 『그들의 새벽』과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필요에 의해서만 재현된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그리고 이때 그 필요성은 '영선'의 죽음 이후 '남은' 제삼자의 말과 행동을 통해 강조된다.

그런가 하면 『오월의 미소』는 크게 두 측면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소설이기도 하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갈등을 지양하고 화해와 용서를 지향해야 한다는 메시지의 발신이 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면, 다른 축은 5·18의 진상 및 책임 소재 규명이 속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와 연관되어 있다. 전자는 익사한 공수부대 장교 출신 '김성보'와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해 강간을 당한 이후 극심한 정신질환에 시달리다 끝내 자살한 '영선' 사이의 '저승혼사굿'을 성사시키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후자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앞다퉈 공약하는 1997년 무렵 일련의 대선 정국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명명백백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일반 시민들의 증오와 복수가 적극적인 행동으로 발현될 것임을 '하치호'가 '시민군' 출신 '김중만'에 의해 살해당하는 장면의 삽입을 통해 전달한다.

이처럼 소설은 인과성을 띠면서도 다른 한편 온도 차가 극명한 화합과 처벌의 가능성을 함께 상상하면서 5·18을 조명한다. 바로 그 까닭에, 『오월의

미소』는 일찍이 다른 '5·18소설'들과는 변별되는 작품으로 호명된 바 있다.[163] 그리고 장애 인물 '영선'의 문제적 재현은 『오월의 미소』를 '가해자'와 '피해자' 양자 간 화해의 통로를 마련하고 있음에 유의하며 읽을 때 돌출된다. 무엇보다도 소설은 두 당사자를 둘러싼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화해를 이야기함에 있어, '영선'을 끝없이 침묵하는 인물로 형상화한다.

'나'를 비롯한 주변 인물들에게 동정과 연민의 대상이 되는 한편 5·18의 '피해자' 형상을 대표하는 인물로 등장하는 '영선'에게는, 발화할 여건이 좀처럼 마련되지 않는다. 소설은 '영선'이 1980년 5월 이후 "대중없이 병원을 들락거"(19면)려야만 했으며, "멀쩡하다가도 최루탄 냄새만 맡으면 발작을"(같은 면) 일으킨다는 간단한 서술로 그녀의 삶을 구성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달리 '영선'의 삶이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맥락이 있다면, 이는 소설이 다음과 같은 수난과 이에 따른 갈등을 그릴 때이다.

> 미선이 집안 사정은 말이 아니었다. (…) 더 어이없는 것은 정신병원을 들락거리던 영선이가 임신 칠개월째라는 것이다. 그동안 식구들도 까맣게 몰랐다고 했다. 대중없이 병원을 들락거린데다 근래는 아버지 치상이야 어머니 병수발에 경황없이 나대다가 불룩한 배를 보고서야 깜짝 놀랐다는 것이다.
>
> "이 일을 어쩌면 좋니? 애를 낳게 되면 임신한 경위부터 불거지잖겠어? 그런데 낙태 소리만 나오면 눈에 살기가 돈다는 거야. 그것만은 의사 말도 소용이 없대. 의사 말이라면 다 고분고분하면서도 그 소리만 나오면 대번에 앵돌아진다잖니. 의사 이야기는 병세로 봐서는 애를 낳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다고 한다는데 그 꼴에 애까지 낳아놓으면 도대체 뭐가 되는 거지? 얼마 전에는 병세가 좀 나은 것 같다길래 내가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넌지시 그 말을 꺼냈더니 대번에 눈이 오끔해지는 거 있지? 미선이 그 기집애가 너를 보낸 거냐며 새파래지는 거야. 잘못했다가는 살인날 것 같애."[164]

---

163) 이를테면 임규찬은 『오월의 미소』가 5·18의 소설화와 함께 '민중성'의 다양한 측면을 상기시키고 있어, '5·18소설'들 가운데 독특한 위상을 점하고 있는 작품으로 평가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오월의 미소』는 '저승혼사굿'의 제시를 통해 "그것대로 민중성의 덕목을 살리면서 다른 한편으로 우리 현대사의 고질로 체질화되다시피한 역사적 미청산의 문제를 민중폭력의 문제로 제기"(임규찬, 「전투적 민중성과 '오월'의 정치학-『오월의 미소』론」, 임환모 엮, 『송기숙의 소설 세계』, 태학사, 2001, 340-341면.)한다. 아울러 이를 통해 "알게모르게 금기시된 우리 민족이 갖는 전투적 민중성까지 포괄한 민중성의 다층적 측면을 껴안"(같은 글, 341면.)는 성취를 이루고 있어 '남다른' 역사적 의미가 있는 소설이다.

164) 송기숙, 『오월의 미소』, 창작과비평사, 2000, 149면.

그런데 인용된 위의 대목을 통해 알 수 있듯 이마저도 다른 인물들에 의해 간접적으로 전해질 뿐만 아니라, 5·18 당시 '영선'이 경험했던 일들은 '소문'으로만 남는다. 한편 소설은 5·18 이후 '영선'을 돌보는 동생 '미선'을 조명한다. '미선'은 위의 장면의 일이 있던 1980년부터 1997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영선'을 돌보는데, 그 과정은 몹시 지난하다. "나한테 언니라는 사람은 내 업이라면 업이고 숙명이라면 숙명"(153면)이라고 여기면서도, '미선'이 발작을 일으키거나 '자살 소동'을 벌일 적에 겪는 괴로움은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다. 기실 '미선'을 향한 조명은, 병세에 차도가 보이지 않던 '영선'을 책임지는 데에 따르는 어려움을 강조하는 것과 더불어 5·18 체험이 남긴 심각성을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미선'의 삶의 구체적인 궤적 역시, 갖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유일하게 '영선'을 돌봐온 '동생'이라는 사실이 언급되는 맥락에 한정하여 제시된다.

한편 현재의 '영선'과 '미선'은 과거의 수난과 고통으로부터 다소 벗어난 것으로 묘사된다. '영선'은 "일년이 넘도록 한번도 무슨 징후"(65면)를 보이지 않을뿐더러, 최근에는 "최루탄 가루를 뒤집어썼는데도 무사"(19면)했을 정도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아울러 '미선'은 '영선'의 앞으로 나온 적지 않은 보상금을 밑천 삼아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며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꾸린다. 그런데 이처럼 비로소 무탈해진 이들 생활을 완전히 뒤바꿔놓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영선'의 갑작스러운 자살이다.

과거 '자살 소동'을 벌인 장소이기도 한 고향 소안도 앞바다에 투신한 것인데, 그 동기와 경위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영선'의 죽음은 그저 "익사는 익사였는데 신발을 얌전하게 벗어놓고 유서까지 남겼으니까 자살"(273면)일 것이라며 좀처럼 시체를 찾지 못해 "골치깨나 아팠"(같은 면)다는 경찰의 언급, "공수단 놈이 씌어대서 잡아갔다는 소리가 헛소리가 아니"(282면)라는 이웃들의 추측으로만 소개될 뿐이다. 그렇다면 소설은 어떤 까닭에 '영선'을 돌연 서사에서 퇴장시키고 있는 것일까. 또 '영선'의 자살과 관련해서 구체적 맥락을 부여하지 않음에 따라 파급되는 효과는 무엇일까.

기실 그것은 또 하나의 죽음, 즉 5·18 당시 공수부대 대위로 복무한 전력이 있는 '김성보'의 사망과 결부되어 있다. "잔학무도한 공수단 장교였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47면)을 만큼 평범해 보이는 '김성보'는, '나'를 비롯한 여러 인물과 소안도 인근에서 바다낚시를 하던 중 돌연 익사한다. 흥

미로운 점은, '김성보'의 죽음은 '영선'의 그것과 달리 그 정황이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된다는 사실이다. 과거 '김성보'의 '부하'이자 낚시에 동행한 '차관호'의 타살로 짐작하는 수사 당국의 강한 의심과 더불어 기소된 '차관호'가 재판에 이르는 과정이 상세하게 서술되는 한편, '김성보'의 과거의 행적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아울러 소설은 '김성보'에게도 어떤 '사연'이 있음을 환기함과 동시에 삶의 재평가가 긴요하다는 메시지를 삽입하면서, 과거의 '잔학무도함'을 완전히 지운다. 이를테면 5·18 체험이 파혼의 결정적인 동인으로 작동하여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줄곧 독신으로 지내왔다는 등 '김성보' 역시 "오일팔 때 상처라면 큰 상처를 입"(198면)은 인물임이 밝혀지는 것이 그 대표적 예에 해당한다. '김성보'의 어머니인 '고성댁'이 '차관호'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게 판단해달라는 내용"(272면)의 탄원서를 법정에 제출한 것으로 설정된 맥락 역시 마찬가지이다.

중요한 것은, 소설이 이처럼 불균형하게 제시되고 있는 두 인물의 삶과 죽음을 연결시킨다는 데에 있다. '영선'과 '김성보'의 삶의 층위가 상이할뿐더러 형성될 만한 접점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소설은 두 인물을 죽음을 통해 만나게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전술한바 5·18의 '피해자'와 '가해자' 양자 간의 화해와 용서를 도모하는 저승혼사굿의 추진을 통해 마련된다.

> "그 큰애기가 공수단한테 다쳤다고 하제마는 저이 아들이 그런 것도 아니고, 밤 잔 은혜 없고 날 샌 원수 없더라고 이십년 가까이 되았은게 세월도 흘러갔고, 더구나 저 아주머니[고성댁-인용자] 부처님 같은 마음씨를 보더라도 말이여, 이것이 시방 우리가 말로만 하고 말 일이 아닌 것 같구먼."
>
> (…)
>
> "싸움은 맬기고 흥정은 붙이랬다고 우리들이 한번 나서보면 으쩌? 장개 못 가고 시집 못 간 그런 귀신들 달래는 수는 그 수 내놓고는 없다잖어? 사람이랏 것이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장개 못 가고 시집 못 간 한이, 그것이 보통 한이겄어? 들어본께 양쪽 나이도 방불하고, 처녀도 대학까지 댕겠겄다, 또 둘이 다 묘하게 바다에서 일이 벌어진 것도 그렇고, 더구나 일이 벌어진 자리도 부르면 대답할 자린께 그런 것도 연이라면 연이고 말이여, 여자가 전에 정신이 쪼깐 으쨌다고 하제마는 폴새 다 낫어부렀은게 그것도 흠이랄 것이 없고, 궁합도 이만하면 찰떡궁합이구먼."[165]

165) 송기숙, 『오월의 미소』, 위의 책, 286-287면.

인용된 위의 대목을 통해 알 수 있듯, 죽은 두 인물 사이의 결혼은 소안도 마을 사람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제안된다. 이를 두고 "헌 신짝 짝 맞추대끼 좋니마니 내발기란 말이"(288면)냐는 반대 의견도 제출되기도 하지만, 이내 잦아들고 저승혼사굿의 준비는 "모든 것이 짜맞춘 듯 아구가 맞아떨어지"(301면)면서 차질 없이 이행된다. 두 당사자의 가족들 역시 위의 제안을 수락함에 따라 마침내 둘의 혼례는 5·18 묘역에서 이루어진다. 허수아비의 형상으로 제작된 신랑 신부와 화려한 제상 앞에서 '당골'의 주도로 거행되는 열두거리의 굿은, 참석자들로 하여금 "신명"(315면)을 돋우며 과거의 상처와의 결별을 선언한다. 기실 이 같은 과정은, 나경수가 지적한바 "전통문화, 특히 기층문화로서의 민속을 빌어 가장 첨예한 대립을 이완시면서 새로운 질서(cosmos)"[166]를 도모하고자 했던 소설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이전과는 달리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가고 있던 '영선'이 갑작스럽게 자살하는 것, 익사한 '김성보'의 삶이 순탄치 않았다는 사실이 주위 인물들에 의해 공표되는 것 역시 둘의 극적인 '만남'을 조성하고자 했던 소설의 계획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성황리에 치러지는 저승혼사굿의 모든 과정에서 당사자인 '영선'이 유독 철저하게 배제된다는 데에 있다. 전술한바 밝혀지지 않은 '영선'의 죽음과 관련한 구체적 맥락에 대해선 그 누구도 묻지 않는다. 그보다는 죽은 '영선'의 한을 풀어주지 않을 시에는, '처녀귀신'이 되어 소안도 사람들에게 분명 "해코지"(302면)를 할 것이라며 혼례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모든 관심이 모아진다. 이에 따라 '영선'의 죽음은 저승혼사굿의 당위를 호출하는 기제로 전환되고, '영선'의 부재는 서둘러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낙착된다.

굿이 진행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를테면 신랑과 신부가 이들의 친구들과 만남을 갖는 '손님굿거리'에서 오가는 대화는 '영선'의 소외를 다시금 적확하게 보여준다. '김성보'의 친구들은 죽은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에게 "오일팔 때 출동했던 공수단 장교 가운데 한사람"(311면)으로서 거듭 사과와 용서를 구하며, "신랑은 그동안 정말로 고민이 많았"(312면)다면서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한다. 반면 이처럼 "또렷또렷한 말씨"(같은 면)로 굿거리에 참가하는 이들과는 달리, 신부의 친구들은 "영선아, 우리들이 왔다"(같은 면)는 한 마디

166) 나경수, 「문학민속학적 비평방법을 통한 송기숙 소설 읽기-『오월의 미소』를 대상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9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0, 184면.

말을 건네고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어깨를 훌렁거리며 흐느”(같은 면)낀다. 즉 ‘김성보’에게는 내세울 모종의 사연이 있지만, ‘영선’의 몫은 전무하다. ‘영선’에게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비극으로 일관된 삶과 원인 모를 죽음이 전염시키는 “울음소리”(같은 면)뿐이다.

따라서 저승혼사굿의 한계는, 소설이 ‘상징적인 화해’를 연출함으로써 보전되어야 마땅한 과거의 원한을 청산하고 있다는 측면[167]에서, “용서라는 환상으로 깊은 분노를 우회”[168]한다는 사실에서 찾아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소설은 이미 이와 같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으며, 화해와 용서의 과정이 매끄럽게 이루어질 수 없음을 시사한다. 5·18 묘역에서 성사되고 있는 저승혼사굿을 보고는 “아무리 죽은 혼사라고 시집 보낼 데가 그렇게 없어서 공수단놈의 새끼한테 시집을 보내”(316면)냐며 ‘악다구니’를 지르는 어떤 ‘사내’의 모습을 스케치하는 것은 그 까닭일 것이다.

오히려 지적되어야 할 것은, 이 모든 일련의 절차가 장애 인물 ‘영선’의 재현에 대한 무관심을 기반으로 완수된다는 사실이다. ‘영선’의 삶은 5·18의 심각한 피해 양상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로서 단선적으로 제시되는 한편, 자살로 표면화되는 죽음은 화해와 용서라는 대의의 실현을 위한 예비 단계로만 구성된다. 소설이 ‘영선’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 직접 발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은, ‘김성보’ 역시 “광주사람 누구 못지않은 피해자였”(298면)다는 사실을 환기하는 동시에 “진정한 화해의 어려움”[169]까지 인식하면서 열두거리의 저승혼사굿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과는 현격히 상반된다.

요컨대 『오월의 미소』는 5·18이 결코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사건임을 공표하고자 장애 인물 ‘영선’의 형상을 필요로 했다.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는 ‘영선’의 몸과 무고한 죽음으로 끝맺는 삶은, 바로 이 같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어야 했다. 만일 화해와 용서라는 대의의 실현을 모색하는 『오월의 미소』가 “광주항쟁의 역사성에 대한 인식”[170]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말의 성취를 보인 소설이라면, 그 성취는 ‘영선’의 삶과 죽음에 어떤 ‘역사성’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가능했다. 5·18 당시 “곤봉에 머리를 얻어맞아 정신이상이 됐던 여자”(283면)라는 명명으로 간명하게 요약되

167) 전성욱, 앞의 글, 192-193면.
168) 심영의, 앞의 글, 119면.
169) 전수평, 「송기숙의 『오월의 미소』에 드러난 국가폭력과 치유의 형상화 양상 고찰」, 『남도문화연구』 제33집,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17, 183면.
170) 하정일, 앞의 글, 101면.

는 삶과 “방안에서 문턱 넘듯 쉽게 저세상으로”(274면) 향하는 것으로 처리되는 죽음은, ‘인간’의 복잡다단한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결국 『오월의 미소』가 요구했던 ‘영선’의 형상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비극을 맞닥뜨리는 한편 바로 그 까닭에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과는 격차가 있는 성질의 것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장 간단하면서도 적확하게 설명하는 표지는, 다름 아닌 ‘영선’의 장애이다.

이처럼 삶과 죽음이 모두 화해와 용서라는 대의 아래 종속되는 『오월의 미소』의 ‘영선’의 형상은, 비장애-중심인물들의 ‘인간성’ 제고의 맥락에서만 주요하게 배치되는 『그들의 새벽』의 ‘월순’의 그것과 겹쳐진다. 『오월의 미소』와 『그들의 새벽』 사이의 공교로운 만남은, 두 소설이 5·18을 총체적으로 서사화하며 이뤄낸 혁혁한 성과라는 것이 무엇을 기틀 삼고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도록 만든다. 그리고 이때 제일 앞머리에 위치시킬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 소설이 힘주어 말하는 대의 구현의 당위성에 후행하는 ‘월순’과 ‘영선’으로 대표되는 장애 인물의 재현 문제이다.

그리하여 『봄날』이 5·18의 소설화의 새로운 국면을 개시했고, 뒤이어 출간된 장편소설들이 5·18의 ‘역사화’ 작업을 보다 다양한 길로 이끌었다는 기존의 ‘5월 문학사’는 다시 쓰여야 할 것이다. 장애라는 특성에 ‘비정상’이라는 의미자질을 부여하면서 이를 체현한 인물들을 단일하게 포착하는 소설의 문법은 결코 변화하지 않았다. 달라진 것은 ‘장편’이라는 형식뿐이었다. 어쩌면 이 사실은 장애 재현이 단선적인 문학사적 서술로는 채 담아낼 수 없는, 보다 다양한 방향에서의 접근이 요구되는 의제임을 지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장애 재현을 부차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기존의 무관심을 고수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을 종결될 수 없는 5·18과 연결시켜 지속적인 해석의 갱신을 요청하는 사안으로 인식하는 작업일 것이다.

제4장 확장하는 재현 지평

제1절 보상의 경계 허물기

지금까지 분석한바, 그동안 한국소설은 5·18을 서사화하면서 장애 인물의 몸과 삶을 주요하게 기입해왔다. 5·18 체험이 수반한 피해와 고통을 가장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장애 인물은, 5·18을 재현의 장에 끌어옴에 있어 소설이 반드시 필요로 했던 형상이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같은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할 때, 장애 인물을 서사의 중심에 위치시키는 소설의 상상력은 그다지 다채롭지 않았다. 이는 곧 소설이 장애를 '비정상' 또는 개선이 반드시 요구되는 상태로만 간주한 결과이자, 장애를 재현하는 행위에 대한 고민의 폭이 협소했음을 의미한다. 기실 장애 재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의 부재는, 장애 인물이 전체 서사를 추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설이 이들에게 매우 고정된 역할만을 부여하는 결과만을 낳지 않는다. 바꿔 말해 서사의 완결성, 인물 역할 배분의 적절성과 같은 텍스트 내적인 문제에만 갇히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텍스트 안팎으로 다양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한편, 그간의 소설이 '정상적'인 '인간'을 어떻게 상정해왔으며 나아가 5·18의 체험이 갖는 의미를 설명할 때 가장 적합한 '인간상'이 무엇이었는지까지 징후적으로 보여준다.

이를테면 소설이 장애를 5·18 체험으로 말미암은 피해와 고통을 명확하게 언어화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축소 재현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인식틀을 전제로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를 재생산하는 데 일조한다. 즉 몸의 손상에 '결함' 또는 '비극'이라는 의미 자질을 매끄럽게 부여하는 것은, 빌 휴스(Bill Hughes)가 언급한바 이들 몸을 "무질서의 징후"[171]로 표상하는 일련의 절차와 같다. 그리고 이 과정은 "도덕적 질서와 분리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미적 계층화의 체계에 영향을 미치"[172]며 폭넓은 문화적 맥락 전반에 걸쳐 구조화된다. 이에 따라 장애는 표준과 규범으로부터 이탈한 상태, 질서에 어긋나며 지양되어야 할 삶의 양식으로 거듭 규정된다. 이들 과정은 "문화는 장애를 만들어 내는 중요한 요소"[173]라는 웬델의 지적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171) 빌 휴스, 김도현 옮김, 「장애와 몸」, 콜린 반스 외 엮, 김도현 옮김, 앞의 책, 105면.
172) 위의 글, 113면.

문화적 재현물이 특정한 몸과 삶만을 '정상'으로 전제하면서 '비정상'에 해당하는 장애와 장애인은 문제가 있다는 비장애중심주의의 확산에 주요하게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재현은 장애와 "장애인이라는 일상적인 범주 자체에 특정한 권력관계가 내재되어 있다는"[174] 것, 장애가 손상이라는 "원초적 사실에 의존하는 사실들의 위계에 기반을 둔 제도적 사실"[175]이라는 것을 오히려 역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이 모든 사실은 소설의 장애 재현이 텍스트를 초과하는 효과를 파급하고, 바로 그 까닭에 이것을 간단한 문제로 소급시킬 수 없음을 종합적으로 일러준다. 바로 이 지점이야말로 장애 재현의 문법이 소설 밖 현실에서 만연한 고정된 인식틀, 즉 비장애중심주의를 기반으로 쓰였다는 것, 나아가 이들을 강화하는 의도치 않은 효과를 창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서 소설들의 '의도'에 대해 다시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검토한 소설들이 다름 아닌 5·18을 중점적으로 서사화한 작품들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소설이 지속적으로 5·18을 호출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연속적인 호출의 기저에는 군사정권에 의해 강요된 침묵에 균열을 일으키겠다는, 또 '민주화' 이후 횡행한 왜곡과 부인의 정치에 저항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고투가 실재해 있었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요컨대 5·18의 소설화는 5·18의 '진정한' 공론화와 오명의 복권을 기치로 한 시대적 요청에 대한 응답이자, 이들과 긴밀한 교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간 소설들이 5·18을 앞머리에 두며 이것의 소설화 방식을 두고 고민을 거듭할 때 있어, 유독 장애 재현의 문제만큼은 진지한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해왔다는 데에 있다. 5·18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 시각을 제안해온 것과는 대비되게, 장애는 그저 비극을 대리하고 은유하는 수단으로서만 단일하게 구성해온 것이다. 5·18을 체험한 장애 인물들을 서사 전면에 위치시키며 다양한 삶의 양태를 그리고는 있지만, 이들의 손상된 몸과 장애화된 삶을 야기한 시공간을 모두 1980년 5월 광주로만 한정하여 다뤄왔다는 것은 좁은 상상력의 폭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기실 1980년 5월 이후의 일련의 상황들, 특히 1987년 '민주화' 이후 본

173) 수전 웬델, 앞의 책, 90면.
174) 김도현, 앞의 책, 57면.
175) 시모 베마스(Simo Vehmas)·페카 메켈레(Pekka Mäkelä), 김도현 옮김, 「장애와 손상의 존재론-자연적 특징과 사회적 특징에 대한 논의」, 크리스타야나 크리스티안센(Kristijana Kristiansen) 외 엮, 김도현 옮김, 『철학, 장애를 논하다: 메를로-퐁티와 롤스에서 호네트와 아감벤까지』, 그린비, 2020, 128면.

격적으로 막을 올린 5·18의 '제도화' 국면으로의 이행은, 1980년 5월 광주 열흘의 시공간만큼이나 5·18 체험자들의 몸과 삶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몸의 손상이 정신적 외상의 잔존에 따른 고통과 더불어 적절한 의료적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 까닭에 점차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면, '폭도' 또는 '빨갱이'라는 낙인의 부착과 모든 일을 비밀에 부치도록 강요한 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삶의 장애화를 촉진했다. 즉 5·18 체험자들의 몸의 손상과 삶의 장애화를 낳은 요인은 결코 단일하고 일회적인 시공간으로만 한정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물론 5·18을 서사화한 모든 소설이 이처럼 1980년 5월 광주의 현장을 손상된 몸과 장애화된 삶의 유일한 기점으로 상정했던 것은 아니다. 2장 2절에서 다룬 이순원의 「얼굴」, 공선옥의 「씨앗불」의 경우처럼, 몇몇 소설은 5·18 체험자들의 고통이 1980년 이후 형성된 여러 '5·18담론'과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음을 공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많은 소설이 5·18이라는 단일한 '사건' 자체가 많은 구성원들의 몸의 손상과 삶의 장애화를 야기했다는 사실을 강조해왔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같은 경향성은, 소설이 5·18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는 과정이, 도리어 또는 필연적으로 5·18을 통과한 체험자들의 몸과 삶들에 대한 면밀한 관심의 부재를 밑거름 삼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즉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가 5·18이라는 사건에만 경도됨에 따라, 잔존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인 몸의 손상과 삶의 장애화의 문제가 부차적인 것으로 낙착되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까지 분석한바 유달리 입체적이지 않은 동시에 비장애중심주의의 기본 입장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장애인물의 재현으로 표면화되었다. 이들 결과물은, 5·18을 다차원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나름의 문학적 구명을 기도한 소설들이 갖춘 윤리적 지평의 접혀/닫혀 있는 한 단면에 해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장애 재현의 문제와 관련하여 '5·18소설'은, '지평'이라는 단어가 함의하는 전망과 가능성을 일체 갖추지 못한 것일까.

해당 절에서는 이 지평을 열어놓고 있어 적극적인 의미화가 요구되는 일련의 소설들을 검토한다. 이들은 2장 2절에서 검토한 소설들, 즉 지속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5·18 체험자들이 어떤 미래를 개진할 수 있을지 질문을 제기하는 이순원, 임철우, 공선옥의 소설들과는 사뭇 다르다. 앞선 작품들과 변별을 가능토록 만드는 요인으로는, 이들 소설이 무엇보다 1990년을 기점으

로 화두에 오른 이른바 5·18 체험자들에게 이루어진 일련의 '보상' 절차들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는 데에 있다. 그리하여 아래에서 다룰 텍스트들은 국가에 의해 조성된 '보상국면'과 체험자들의 몸이 맺는 복잡다단한 관계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한다.

지금까지 분석한 소설들이 사회와 불화하는 장애 인물들을 형상화할 때 무엇이 이 불화를 추동했는지 구체적으로 호명하지 않았던 것과 대비되게, 이들 텍스트는 5·18의 제도화와 과거청산을 섣부르게 시도하는 국가를 5·18 체험자들의 삶의 소외를 부추기는 '주체'로 구체적으로 호명한다. 소설은 체험자들의 몸에 국가 권력이 입체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그림으로써, 보상정책이 그저 간단한 시혜 또는 화해의 제스처로만 분석될 수 없음을 폭로한다. 보상금 수령 여부를 둘러싸고 체험자들의 몸이 각별한 관심의 대상으로 탈바꿈한 상황은, 오히려 이들의 몸이 국가의 계획된 통제 아래 놓이게 된 것과 다르지 않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때 서사의 중심에 위치하는 것은, 단연 체험자들의 손상된 몸과 장애화된 삶이다. 이 지점은 장애 인물의 재현이 '정상'의 결여태로서의 장애라는 특성을 강조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몸들에 교차하는 여러 권력 관계에 착안하면서 무엇이 이들을 '비정상'의 상태로 규정하는지를 심문하는 작업을 통해서도 고안될 수 있다는 값진 사실을 일러준다.

기실 5·18 체험자를 대상으로 한 보상국면으로의 전환은 5·18을 바라보는 국가의 인식 변화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들에게 다차원적인 보상을 시행하겠다는 국가의 선언은, 1980년 5월 시민들을 상대로 한 국가폭력이 실재했다는 사실을 더이상 부인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이른바 '5·18보상법'으로 불리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이 1990년 8월 제정된 이후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보상국면은 오히려 여러 부조리를 낳았다. 해당 법안이 처음 제정될 때부터 '배상'이 아니라 '보상'이라는 법률적 용어를 채택한 것은 그 대표적 예에 해당한다. 이는 국가가 5·18 체험자들에 대하여 "불법한 행위로 손해를 가한 직접적인 주체는 아니라는 인식"[176]과 더불어 5·18은 '폭동'과 '소요'이기 때문에 계엄군의 진압 행위는 "국헌유지, 치안확보 차원의 적법행위라는 인식"[177]을 당시에도 여전히 고수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178]

---

176) 김재균, 『5·18과 한국정치』, 에코미디어, 2010, 183면.
177) 위의 책, 같은 면.
178) 한편 1995년 12월 21일 제정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은 제6조 '배상의제'

유의할 것은, 이와 같은 일련의 보상정책이 오히려 체험자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데에 있다. 법률 및 정책 고안의 배경을 5·18 체험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여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명[179]한 것이 무색하게, 이후 체험자들의 삶은 결코 안정되거나 그 질이 향상되지 않았다. 김명희가 적실하게 지적한바, 국가가 고안한 보상 프레임은 1980년 5월 현장으로부터 직접 기인한 피해만을 근거로 '피해자'의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설정해왔다. 그 까닭에 이외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한 정신적·사회문화적·정치적 피해의 고유한 특성과 다양한 양상"[180]은 논외로 부쳐졌으며, 이들 피해를 경험한 많은 체험자들은 그 어떤 보상도 받아오지 못했다.

보상 대상자에 포함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체험자들의 삶 역시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 5·18 체험으로 말미암은 몸의 손상을 제대로 입증할 수 없었던 체험자들의 수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의료적 '진단'의 범위에 정확하게 해당하지 않는 손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일련의 절차들은 오히려 상당한 경제적, 심리적 비용을 수반했다. 아울러 이들 과정은 "돈 몇 푼 더 받으려는 추접스러운 행위로 인식될 수 있다는"[181] 주변의 폄하가 뒤따랐기에, 이미 이뤄진 '판정'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체험자들도 많았다. 체험자들을 향해 부착된 '폭도'와 '빨갱이'라는 기존의 사회적 낙인이 1990년 보상국면 이후 국가로부터 시혜를 입은 집단으로 탈바꿈됨으로써, 이들을 끊임없이 사회와 불화할 수밖에 없는 성원으로 몰아넣기도 했다. 요컨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생애에 걸쳐, 연속적이고, 다방면적으로 시도되어야 할 피해회

를 마련함으로써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배상으로 의제(擬制)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곧 한인섭이 지적한바 국가가 "피해자들이 받는 금액이 공권력의 적법한 행사에 따라 개인이 입은 특별한 희생을 보전하는 보상이 아니라,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따라 개인이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배상으로"(한인섭, 「국가폭력에 대한 법적 책임 및 피해회복-5·18민주화운동의 종합적 해법을 중심으로」, 『5·18재판과 사회정의』, 경인문화사, 2006, 185-186면.) 여겨야 함을, 5·18을 국가가 주도한 불법행위로 인정해야 한다는 사법적 선언에 해당한다.

179) 1990년 8월 6일 제정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의 제1조는, 해당 법률이 지향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 법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이하 "關聯者"라 한다)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80) 김명희, 「인권의 관점에서 본 5·18 '피해자'와 복합적 집단트라우마-국가범죄의 피해자학을 향하여」, 『민주주의와 인권』 제21권 3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21, 12면.

181) 유해정, 「5·18 직접적 피해자의 인권침해 경험과 트라우마-보상중심의 과거청산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21권 3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21, 78면.

복은 일회적이고, 금전적인 것으로"[182]만 한정됨에 따라, 체험자들은 안정된 삶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꾸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5·18이라는 특정 사안에 국한하여 이루어진 보상정책이 낳은 이 같은 일련의 문제적 상황은, 역설적으로 국가가 전체 성원들의 몸을 관리하는 방식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국가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국가의 '약속'은 곧 5·18 체험자들을 더이상 '폭도'와 '빨갱이'가 아닌 '정상적'인 성원으로 인정하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그리고 약속을 이행하며 국가가 요구한 것은, 다름 아닌 보상과 인정을 받을 만큼 손상된 체험자들의 몸 또는 이미 사망진단이 이루어진 몸이었다. 경제적인 지원과 의료적 치료를 책임지겠다는 국가의 제스처는, 체험자가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몸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과정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 이로써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느 정도의 보상이 적절한지를 판가름하는 유일한 지표인 의료적 '진단'은, 체험자들의 과거와 현재 삶에 직접 개입한다. 체험자는 보상을 받아야 할 만큼 손상을 체현하고 있다면, 그 구체적 경위는 무엇이었는지, 즉 1980년 5월 당시 어떤 일에 가담했는지를 묻는 국가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 그리하여 국가는 체험자들을 다시금 심문의 '대상'으로 위치시킨다.[183]

요컨대 국가에 의해 주도된 보상국면은 오히려 5·18 체험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조리를 낳았다. 5·18을 경험한 '누구든' 보상 심사의 절차를 밟을 수 있고 그중 특정 기준을 충족한 '피해자'들은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지만, 보상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에게는 부정적 낙인이 부착되었다. 그 까닭에 삶의 장애화가 지속될 수밖에 없었는데, 국가는 이를 사실상 방치했다. 만일 체험자들의 삶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국가는 이에 대

182) 위의 글, 85면.

183) 한편 이 모든 일련의 절차는, 끊임없이 성원들의 몸과 건강을 관리하며 '보호자' 역할을 자처하는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공중보건 담론이 확산되는 과정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특히 '건강'이라는 의제를 중심으로 성원들의 몸을 관리하고자 하는 공중보건 담론은, 데버러 럽턴(Deborah Lupton)이 지적한바 '훈육적인 권력'을 매우 정교하게 행사한다. 건강은 곧 "보편적인 권리, 기본적인 재화이며, 따라서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수단이라도 취하는 것은 개인의 목표"(데버러 럽턴, 김정선 옮김, 『의료문화의 사회학』, 한울, 2009, 60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국가는 성원 스스로의 몸을 규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만일 이들 요구를 지키지 못하거나 거부한 까닭에 성원이 비-건강 상태에 놓이게 된다면, 귀책사유는 모두 자신의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그 개인의 행실에 부과된다. 5·18 체험자들을 대상으로 한 진단과 심문의 메커니즘 역시 마찬가지이다. 국가가 손상된 몸의 치료와 명예의 복권, 나아가 금전적 보상을 수행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는, 자신을 국가폭력의 '가해자'가 아닌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보호자'로 규정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국가는 체험자들이 이 같은 보호를 받기 위해선, 몸의 손상 경위를 입증하며 지난 자신의 행적을 낱낱이 밝혀야 함을, 앞으로 '온전한' 성원의 자격으로 국가의 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자신의 몸을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

한 책임을 보상 신청을 거부했거나 보상금 수령 이후 자신의 몸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당사자 개인에게 물었다.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국가가 고안한 보상국면에는 5·18 체험자들의 몸과 삶이 부재함을 알 수 있다. 정작 중심에 위치해야 할 서로 다른 5·18의 구체적 경험들은, 본격적인 5·18의 공론화와 제도화의 도래라는 기치 아래 사라졌다. 남은 것이 있다면, 국가가 '가해자'라는 부정적인 위상을 청산하기 위해 투자한 보상금과 개개인의 손상된 몸과 장애화된 삶의 고유한 경험들을 동질화시키는 '피해자'라는 추상적인 호명뿐이었다.

그리고 몇몇 '5·18소설'은 바로 이 지점, 즉 국가의 시혜적 제스처에 내재한 무책임함과 이로 인해 점점 더 소외되어 가는 5·18 체험자들 '개인'의 몸과 삶을 조명한 바 있다. 체험자들에게 강제되는 의료적 진단과 심사 절차의 부당함과 무용함을 지적하며, 손상의 정도를 판별하고 보상자를 선정하는 기준만큼 임의적인 것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들 소설은, 국가에 의해 시도되는 보상정책이 당사자의 몸과 삶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을 매우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그리고 이때 보상금 수령을 둘러싼 가족 구성원 사이의 갈등을 주요하게 초점화한다. 중요한 것은 이들 텍스트가 갈등을 빚는 당사자들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음을, 잘못을 저지른 주체가 있다면 그것은 이처럼 한 일가를 첨예한 다툼의 국면으로 몰아넣은 국가라는 사실을 지시한다는 데에 있다. 이를테면 채희윤의 「아들과 나무 거울」(『문학정신』 1991년 5월호.)은 다음과 같은 모자갈등을 그린다.

>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의 일들을 새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얼마간의 금전적인 보상이나, 동정이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
> "그래, 니가 말허는 진실이 뭔지는 모르것다마는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은 니 문제고 먹고 사는 것은 우리들 문제여. 우리 식구 모두의 일이여. 이참에는 네가 양보해라. 아니여, 양보고 뭐고 자시고 헐 것이 없어. 그 보상비는 원래부터 니 것이 아니고 내 것인께!"
>
> "어머니, 사람의 도리를 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바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누구를 믿고 살겠냐고요?"
>
> "나도 너 믿고 살다가 이 모양이 되었어야. 이제는 나를 믿고 살아 주라. 이번 일만 하자. 그라면 나도 니 하는 일에는 아무 말도 않겠다. 동생들도 생각을 해줘야 안 쓰겄냐?"

"어머님. 저는 이 순간까지도 내가 선택한 일에는 분명히 옳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실이고요. 또 그래서 이제야 비로소 사람들이 진실을 밝히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이 순서에 맞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어머니가 마음대로 하십시오."

"어느 세월에? 삼천갑자 동방삭이가 죽을 날을 기다리지. 우리가 더 거덜나서 죽은 다음에야 그렇게 해봤자 뭔 소용이 있다냐? 나는 그렇게는 못해야."[184]

5·18 당시 대학생으로서 "데모대의 대표"(91면)로 시위에 앞장선 까닭에 수감생활을 하기도 한 '인형'은, 이후 대학으로부터 복학 허가를 받았음에도 "사람이 사는 것이 반드시 대학을 나와서 돈을 버는 것만은 아"(89면)니라는 생각을 고수하며, 이른바 '오월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한다. 한편 이 같은 '인형'의 행실, 즉 "민주추진 뭐라는 사무실"(같은 면)이나 드나드는 아들을 곁에서 지켜보는 '어머니'는 답답함과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소설은 이에 따라 빚어지는 두 인물 간의 갈등을 주요하게 그린다. '어머니'의 입장에선 "다른 친구들은 오월동지라서 취직도 잘하고 돈도 잘 버는데 우리 위인은 왜 그렇게 생겨 먹었을까를 생각만 하면"(90면) 줄곧 속이 상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인형'이 가족의 생계를 전혀 돌보지 않는 까닭에, '어머니' 자신이 직접 나서 고된 '파출부' 생활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부터 기인한다. '어머니'는 '인형'이 "그나마 망월동에 가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용서를 해야지, 포기를 해야지"(같은 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도, "아랫목에 앉아서 쓰잘디 없는 책이나 보는"(89면) 아들의 모습에 불만을 표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어머니'는 인용된 위의 대목이 보여주듯, 보상금마저 신청하지 않겠다는 '인형'의 발화를 맞닥뜨리는 순간 기존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한다.

기실 5·18의 진실을 밝히는 데 더욱 매진할 것임을 강하게 주장하는 '인형'에게 있어, 보상금은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인형'을 "죽게 만드는 독"(98면)이다. 그동안 국가에 맞서 싸워 온 '투사'로서의 자신의 삶 전체가 부정당할 위기로 몰아넣는 것이 다름 아닌 보상금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내 자석 생병신을 만들어 놓은 것도 분하고 환장하것"(98면)다는 '어머니'의 말마따나 보상금을 수령하는 것은, 국가에 의해 자신이 '생병신'이 되었다는 사실을 함구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인형'에게

184) 채희윤, 「아들과 나무 거울」, 『문학정신』 1991년 5월호, 99면.

있어 자신을 포함한 수많은 '동지'들이 겪은 고초를 공론화하는 것과 5·18의 진실 복원 작업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것만이 '인형'의 삶을 살게 만든다.

반면 '어머니'는 분노할 수밖에 없다.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을 시 가족이 맞닥뜨릴 미래는 선명하다. 자신은 "여전히 파출부로 나다니고, 딸년은 동생들 군대에 갔다 올 때까지 노처녀로 늙고 말"(100면) 것이기에 '인형'만큼이나 '어머니' 역시 완고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인형'이 보상금을 "받을 만한 일을 했으니까 주겠다는 것"(99면)인데, 이것을 "못 타먹"(같은 면)는 '인형'은 '어머니'에게 있어 "어디 하나 쓸 구석이 없"(100면)는 '나무 거울'에 불과하다. 날이 갈수록 '인형'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열사, 투사, 애국자의 위상을 획득하고 있는 현실은, '어머니'에게 그 어떤 위안도 되지 않는다. 처참했던 "그해 오월을 생각하면 아들의 분노나 슬픔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94면) 같지만,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는 어떻게든 가족이 안정적인 삶을 꾸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하여 '어머니'는 이내 "쓰잘데없는 것들, 체면이니, 지조니 하는 것들은 모두 잊"(100면)고, 반드시 '인형'과 담판을 지어 "목이라도 매 가지고 끌고 가서 보상금을 타 내서 배불리 먹고 편히 살겠"(같은 면)다고 결심한다. 그리고 소설은 이 같은 '어머니'의 결기, "몸 속에서 솟구쳐오르는 이 뜨거운 열기"(같은 면)를 제시하는 장면으로 갈무리된다.

기실 이처럼 보상금 수령을 둘러싼 모자 사이의 갈등 및 두 인물의 좁혀질 수 없는 거리를 형상화하고 있는 「아들과 나무 거울」의 중심에 위치하는 것은, 다름 아닌 5·18 이후 '생병신'이 된 '인형'의 몸이다. 바꿔 말해 '인형'의 손상된 몸은 서로 다른 해석이 첨예하게 이루어지는 장소가 된다. 본격적인 보상국면으로 접어들면서부터, 5·18의 체험과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죄'로 당국으로부터 '치도곤'을 맞은 고문의 흔적이 모두 남아 있는 '인형'의 몸은 문제적인 형상으로 변모한다.

보상금 지급을 통해 이 모든 흔적을 일거에 지우려는 국가, 그 누구도 자신의 경험을 손쉽게 재단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인형',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구성원의 삶의 개선을 희구하는 '어머니'가 각각 세우는 대립각은 '인형'의 몸을 중심에 둔 논쟁의 결과와도 같다. 소설은 이중 '인형'과 '어머니' 사이의 갈등만을 서사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보상정책을 고안한 국가의 전략이 애초 의도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폭로한다. 즉 국가가 5·18 체험자들의 몸을 주요한 관심의 대상으로 그 위상을 한층 끌어올린 데에는, 그 몸을 첨예한 논쟁에 부침으로써 끊임없는 다툼의 장소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내재해

있음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아들과 나무 거울」이 이 같은 문제의식을 국가라는 항을 서사 전면에 등장시키지 않으면서 보여주고 있다면, 이향란의 「마타모로스에서 온 편지」(임철우 외, 『포도씨앗의 사랑』, 명경, 1993.)는 국가의 책임을 보다 분명하게 문제 삼고 있는 소설이다. 이는 국가에 의해 마련된 보상국면이 성원들로 하여금 어떤 다양한 반응들을 끌어냈는지, 보상금 신청 절차가 수반하는 난점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그림으로써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단연 화두에 오르는 것은 5·18 체험자들의 몸이다.

> 나는 피해보상 접수 초기에 신청했지만 진단서가 신통치 않았다. 8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 진단서에 병명으로 올릴 만한 상처 자국은 별로 남아 있지 않았다. 곤봉으로 맞아 머리에 생긴 흉터는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있는 흔한 것이라고 치부되었다. 소독 안 된 바리캉 때문에 생긴 기계독 자국이라는 것이었다. 어디 부러진 자국이라든가 넘어져서 다친 흉터 몇 군데는 있지만, 내게는 총상이나 자상이 없다는 게 결정적인 흠이었다. 타박상 자국만으로는 피해자라고 내세우기가 부끄러울 만큼 신체검사를 받는 피해자들의 흉터는 끔찍했다. 더구나 형의 행방에 대한 추적의 볼모로 마지막까지 잡혀 있던 나는 관련기록조차 없었다. 신청서를 접수해 놓고도 어머니는 맘이 안 놓이는지 나를 데리고 다시 시청에 간 적이 있었다.
>
> "애말이요, 쩌그 서 계신 선상님, 저……5·18 부상잔디요, 지난 번에 신체검사 받고 서류를 제출했는디 어뜨케 됐는가 해서 와봤어라우."
>
> (…)
>
> "할머니! 그게 쉽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할머니께서 제출하신 서류는 장애 및 부상등급 심사분과위원회로 넘어갔으니까 기다리세요. 그 쪽에서 등급을 판정하고 필요하면 정밀검진을 받으라고 부를 겁니다. 무조건 서류만 제출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예요. 댁에 가서 기다리세요."
>
> "오매! 뭔 사람이 저렇게 쌀쌀맞다냐? 자기 할 말만 하고 가부러야. 부상당해서 제대로 못 벌어 먹고 산 것도 억울헌디 언제까장 기다리란 말이여어, 언제까지이……."[185]

"'보상'이라는 황홀한 어휘에 매료되어 있는"(214면) '어머니'의 거듭된 보상 신청 제안을 차마 거부할 수 없던 '나'는,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시

185) 이향란, 「마타모로스에서 온 편지」, 임철우 외, 『포도씨앗의 사랑』, 명경, 1993, 220-221면.

청에 피해보상을 접수한다. 그런데 인용된 위의 문면이 집약적으로 보여주듯, 그 과정은 순탄치 않다. 무엇보다도 '나'의 부상 정도를 확증할 만한 서류가 미비한 것이 보상 신청에 있어 가장 큰 결격사유가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나'가 어떤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사실이다. '나'는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에 맞닥뜨린 5·18의 현장에서 '연락병'으로서 끝까지 YMCA를 수호하고, 이후 수감생활을 하며 "한 마리의 곤충에 가까"(219면)운 삶을 보낸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이처럼 5·18 당시 총을 들고 광주를 지키고자 분투했던 '나'가 시청에서 돌연 느끼는 부끄러움은, 자신만이 목숨을 부지했다는 데에서 기인하는 감정과는 또 다른 성질의 것이다. 차라리 그것은 "설사 받더라도 워낙 등급이 낮아서 몇 푼 되지도 않을"(208면) 보상금을 수령하겠다고 나선 자신의 모습을 보며 느끼는 어떤 환멸에 가깝다.

이처럼 소설은 보상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무렵, 종전과는 달라진 5·18 체험자들의 삶과 이들을 둘러싼 다양한 상황들을 조명한다. "그동안 죄인처럼 숨 죽이며 살아온 사람들이 이제는 마치 큰 횡재라도 하게 된 듯 거들먹거"(216면)리는 반면,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시위를 벌이며 핍박을 받아온 사람들은 묵묵히 있"(같은 면)는 풍경은 그 대표적 예에 해당한다.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제출하는 사람들, 이들의 브로커 역할을 자처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환기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소설은 세상이 "요지경"(222면)이 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이들을 출현시킨 주체는 바로 성원들의 관심을 전부 보상금으로 돌려놓은 국가임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의 공표는 '나'의 가족이 처한 모순적인 상황을 그림으로써 더욱 구체화된다.

> 어머니는 내게서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려고 작정한 것은 아닐터였다. 재검진, 그까짓 재검진 쯤이야 내일이라도 당장 가서 받을 수는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지금 더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나의 재검진이 아니었다. 형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내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것이었다. 사자의 무덤 위에 내려지는 국가의 은사는 엄청난 액수의 보상비였다. 행불자는 그 다음 순위였다. 그러나 세상이 어머니의 생각대로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살아 있는 형을 죽었다고 우긴들 누가 들어줄 사람도 없었다.
>
> "엄니, 형은 살아 있단 말이요. 그것도 비겁하게 잘 살고 있단 말이요. 내가 전에 말 안 합디요."
>
> "아니여, 그 놈은 죽었어. 이미 뒈져부렀단 말이여, 살아 있으믄 뭐해.

그 놈은 내 자식이 아니란 말이여. 폴쎄 죽은 자식이란 말이여."[186]

보상정책이 시행되자, 5·18 당시 돌연 종적을 감춘 '형'의 행방은 다시금 '어머니'에게 관심의 대상이 된다. 사실 '형'은 그로부터 8년이 지난 후 멕시코라는 낯선 "이국의 우표가 붙은 봉투의 낯선 필체"(같은 면)로 '나'와 '어머니'에게 생존을 신고한 바 있다. "이제서야 연락하는 나를 용서"(225면)하라며 '어머니'의 안부를 물으며, 사진을 동봉하며 마타모로스에서 단란한 삶을 꾸리고 있음을 전해 온 '형'은, 결코 죽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형'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사실을 한사코 부인하는데, 인용된 위의 장면이 지시하듯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선 '형'은 죽은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학 재학 시절 앞장서서 반란과 혁명을 운운하며 시위에 적극적으로 앞장선 전력이 있어, 5·18 이후 "신문의 수배자 명단 앞부분에 자리잡고 있"(233면)었던 '형'은 주변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투사'로 기억되었다. 비록 '나'는 '형'이 5·18의 현장에서 아무런 일에 가담하지 않은 채 단순히 도주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일찍이 짐작하고 있었던 한편 편지를 수신하고는 이를 더욱 확신하게 되었지만, '어머니'에게 있어서만큼 '형'은 죽은 투사여야만 했다.

그리하여 '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아들 시형이는 5·18때 총 맞아죽고 시운이['나'-인용자]는 끝까지 민주화를 외치다가 상무대에 잽히가서 부상당한 투사"(215면)라고 강하게 주장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어머니'에 의해 거듭 선언되는 '형'의 죽음은 더이상 철회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울분, 즉 "어디 묻혀서 이 애미를 애타게 찾고 있으까이"(같은 면)라는 호소를 일관되게 표출해야만, "엄청난 액수의 보상비"(213면)를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이 죽지 않았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심지어 보상위원회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기에 그 보상금을 받을 가능성은 전무하다. 그러던 중 '나'는 기침을 하다 돌연 객혈을 쏟는데, 이를 본 '어머니'는 "인자 뒈았다"(238면)며 반색을 표한다. "그때 고문 당함시로 다쳐서 폐병쟁이가 된 사람이 많"(같은 면)으므로, 피를 토하는 '나'의 모습에서 드디어 보상금을 '제대로' 신청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기에 이른 것이다.

이처럼 「마타모로스에서 온 편지」는 보상국면의 도래와 함께 달라진 사회상, 그중에서도 두 아들의 몫으로 보상금을 신청하기 위해 고투하는 '어머니'

186) 이향란, 「마타모로스에서 온 편지」, 위의 책, 213면.

의 의지를 초점화하며, 5·18 체험자들의 몸과 삶에 교차하는 국가 권력을 문제 삼는다. ‘어머니’를 비롯한 여러 체험자들이 보상금 수령이라는 ‘세속적’인 사안에 매몰되어 있는 현실을 환기하며, “순수한 정신이 깡그리 오염되는 느낌”(222면)이 전염되어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나’에게까지 ‘형’이 죽었다고 위장해 거짓 신고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나’의 객혈을 보고 “난데없는 희색”(238면)마저 표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그 파장의 한 단면을 잘 보여준다.

그런데 이 같은 형상화를 통해 소설이 문제 삼는 것은, “이 기회에 한몫 잡아보자고 설쳐대는 사람들”(222면)이 아니다. 비판이 향하는 곳은, 이들의 출현을 추동한 국가이다. ‘어머니’가 매일같이 두 아들의 몫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경중에 매달리게 된 데에는, 국가가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에 위상과 명예를 차등적으로 부여한 까닭이다. 이 사실은 비단 5·18 체험자들에게 있어 수령할 수 있는 보상금의 액수와 관련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음과 같은 보다 본질적인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다.

1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부인당해 온 이들의 몸과 삶이 국가에 의해 비로소 공식적으로 ‘피해자’의 그것으로 언명될 때에도, 체험자들은 복잡한 자격 심사에 통과할 때라서야 ‘피해자’로 공인될 수 있었다. 국가가 ‘정확한’ 기준 아래 보상 심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약속은, 기실 그 일관된 기준만으로는 결코 담아낼 수 없는 다양한 몸과 삶의 양태를 획일화할 것을 선언하는 것과 같다. 이는 필연적으로 체험자들로 하여금 어떤 불만과 지난함의 표출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데, 소설은 이를 집약적으로 형상화한다. 예컨대 “등급이 낮게 책정될 기미라도 보이면 날마다 찾아와 졸라대는 바람에 보상위원회 사무실 전체가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221-222면)는 상황을, “진단서에 병명으로 올릴 만한 상처 자국”(220면)이 별로 남아 있지 않은 까닭에 보상 신청의 어려움을 겪는 ‘나’의 모습을 그림으로써,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숱하게 실재함을 암시한다.

1980년 5월 당시 “통일 운운하면서도 연좌제가 사라지지 않고, 정권욕에 불타 사람들을 죽이거나 병신을 만드는 이 미친 땅, 이 미쳐가는 사람들”(237면)로부터 도피한 ‘형’의 과거와, 편지를 통해 “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236면)다고 밝힌 ‘형’의 현재 모습을 언급하는 맥락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즉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변화한 것은 가해자에서 시혜자로 둔갑한 국가의 위상일 뿐이다. 요컨대 「마타모로스에서 온 편지」는 5·18

로부터 10년이 지난 현실, 특히 보상정책 시행을 기점으로 5·18이 다시금 전국가적인 관심을 받기에 이른 국면에서조차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발신한다. 오히려 국가는 5·18 체험자들의 몸의 행방을 수소문하고 진단하는 엄밀한 절차를 통과해야만 보상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체험자들의 몸을 문제적 형상 및 심문의 대상으로 위치시키고 있음을 힘주어 말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앞에서도 언급한바 보상국면은 5·18 체험자들을 어떤 딜레마에 맞닥뜨리도록 만들었다. 어떻게든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보상금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체험자들은 국가에 의해 시혜를 받는 집단으로 매도당하기 일쑤였고, 다른 지역 성원들은 체험자들의 보상금 수령을 기점으로 5·18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다는 인식을 공유하기에 이르렀다. 보상금 수령을 둘러싼 갈등 역시 필연적이었다. 그것은 위의 두 소설이 형상화한 것처럼, 가족 구성원 사이의 의견 대립에만 한정하지 않았다. 전국적인 '5월 운동'을 주도해 5·18의 공론화라는 결실을 이뤄낸 '5월 단체'들 사이에서도 갈등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고, 이들은 이내 거듭된 분열을 경험해야만 했다. 이처럼 보상금 신청 및 수령과 결부된 문제는 단순히 국가 정책의 참여 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이들 절차는 체험자들에게 동료들에 대한 '배반' 또는 국가와의 '협력'과 같은 윤리적 난관을 맞닥뜨리도록 추동했다.

이 모든 사실은 5·18이라는 국가폭력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과정으로 요약될 수 없는 형태의 것이다. 이는 간단하게 처리될 수만은 없는 성질의 것이자, 여전히 유효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문제들이다. 그러므로 이들 문제에 다시금 관심을 가져야 함을 절실하게 촉구하는 두 소설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리고 홍희담의 「그대에게 보내는 편지」(『창작과비평』 1995년 여름호.)는 그 과정에 5·18 체험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체가 되어 참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를테면 「그대에게 보내는 편지」는 다음과 같은 딜레마를 새긴다.

> "오월단체에서 연락이 몇 번 왔어요."
> "뭐라구?"
> "이번 피해자 신고에 한 사람도 빠지면 안된대요. 마지막 기회라나요."
> "……"
> "어차피 5월항쟁은 역사화되는 것이고 그럴려면 우리 스스로가 피해 상

황을 정확히 내보여야 한 대요."

훗날의 어느 역사가가 항쟁 사료를 뒤적이다가 정신이상자의 파일에서 형철의 피해자 신고서를 보게 된다.

(김형철은-당시27세-5·18 때 도청을 끝까지 사수한 자로서 심문과정에서 심한 고문으로 뇌수에 이상이 생겼음. 정신병자로 일생을 마침.)

간결한 몇줄 속에 형철의 인생이 담긴다. 형철이 헤매고 있는 저 무망한 어둠을 누가 알 것이며 천지간에 울려퍼졌던 그의 울부짖음을 누가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영빈은 역사라는 단어에 순간적으로 적의를 느꼈다. 영빈의 표정을 살피며 형석이 물었다.

"무슨 생각을 하세요?"

"아니 그냥."

영빈은 꼿꼿해진 눈살을 피며 말했다.

"배상금을 받게 되면 형의 희생이 헛되지는 것 같아 결정을 못하겠어요."

형석의 음성은 조용했으나 굵은 목에서 울대뼈가 들먹거렸다.

"왜 배상금에만 초점을 맞추니?"

"그게 그거잖아요. 모두들 거절했으면 좋겠어요. 돈이란 일종의 당근이잖아요."

"신고한다는 데 의미를 두어봐."[187]

5·18 '피해자' 신고 기사를 접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형철'의 몫으로 보상금을 신청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던 동생 '형석'은, 외가 친척인 '영빈'을 찾아 조언을 구한다. 어릴 적부터 '형철'과 가깝게 지내온 '영빈'이었지만, '영빈'은 5·18 이후 "안온하고 평화로운 울타리가 언제 또 파괴될지 알 수 없"(236면)는 두려움에서 기인한 불안감이 점차 잦아짐에 따라 "형철의 주변과 동떨어져서 살아"(같은 면)온 바 있다. 이에 오랜 시간이 지나 재회한 두 인물은, '형철'을 5·18의 '피해자'로 신고함과 동시에 보상금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그리고 인용된 위의 대목에서 알 수 있듯, '형석'은 자신이 보상금을 신청하게 된다면 그것이 5·18 당시 보인 '형철'의 값진 '희생'을 퇴색시킬 것 같다는 회의감을 표출한다. "형철의 재난으로 대학도 못 가고 취업 전선에 뛰어"(239면)든 바 있는 '형석'이지만,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 한편 '영빈'은 '형석'에게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신고를 통해 그간 침묵에 부쳐졌던 피해 경험을 밝히는 행위 그 자체에 의미를 두라는 말을 건넨다.

187) 홍희담, 「그대에게 보내는 편지」, 『창작과비평』 1995년 여름호, 239-240면.

유의할 것은, ‘영빈’이 ‘형석’과의 대화 과정에서 느끼는 어떤 ‘적의’에 있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역사화’라는 단어가 함의하듯 ‘형철’의 복잡다단한 삶이 간명하고 간단하게 문서화될 미래를 그려보는 데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영빈’이 표출하는 적의는 안타까움만을 지시하지 않는다. 이는 어떤 까닭에 ‘형석’이 회의감을 가져야만 하는지에 대한 강한 불만과 더불어, 애초에 이와 같은 상황을 초래한 국가에 대한 원망으로까지 뻗어나간다. 그리고 소설은 적의가 확산되는 경로의 한가운데에 정신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형철’의 손상된 몸과 장애화된 삶을 위치시킨다. 흥미로운 점은, 소설이 ‘형철’의 몸과 삶을 주축으로 삼은 ‘영빈’의 적의를 단순히 불만과 원망이라는 부정적인 것으로만 낙착시키지 않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미래를 개진하는 추동력으로까지 전화시킨다는 데에 있다.

기실 5·18 이후의 교도소에서부터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지만 줄곧 방치되었던 ‘형철’은, 출소 이후 간신히 삶을 부지하다가 ‘뇌수함몰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정신병원으로 옮겨진다. 이곳에서 ‘형철’은 “바깥출입도 금지돼 있”(252면)어 또 한 번의 생활을 수감생활을 하다시피 삶을 이어나가는데, 그의 기억은 “80년 5월에 끝나 있”(253면)다. 그 까닭에 ‘형철’은 보상금을 신청할 것을 결심한 ‘형철’과 함께 진료 카드와 인우보증 카드를 마련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영빈’에게, 당시 도청에서 있었던 일을 마치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 이를테면 ‘형철’은 계엄군의 동태가 심상치 않다며 이미 세상에 없는 동료들의 이름을 거듭 호명하면서 흩어져 있는 이들을 한데 모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형철’에게 있어서만큼은, “모든 것이 사라지는 세월 속에서 그가 붙들어놓은 시간과 사람들이 그와 함께 불멸 속에 존재하고 있”(256면)는 것이다. 그리고 ‘형철’의 모습을 정면으로 마주한 ‘영빈’은 어떤 깨달음을 획득한다.

비록 현재의 ‘형철’이 앞니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고, 왼쪽 몸 전체를 움직일 수 없으며, “뇌와 방광까지 연결하는 인공 호스”(253면)를 부착한 채 유폐된 삶을 꾸리고는 있지만, ‘영빈’은 ‘형철’이 발산하는 “생명의 숨결”(256면)을 느낀다. 거듭 ‘적’에 대한 분노와 적의를 표출하는 ‘형철’에게서 이를 넘어서는 생명력을 감지한 것이다. 이에 ‘영빈’은 “적들이 그의 뇌수를 강타했지만 그의 이상과 꿈 그리고 사랑까지는 강타하지 못했”(같은 면)음을 깨닫는 한편, ‘형철’이 결코 ‘패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이는 “그동안 죽은 듯이 상자 안에 갇혀 있

었”(238면)던 ‘형철’의 말들, 매일같이 정신병원에서 수많은 이들에게 부친 편지들에 이제는 모두가 반드시 응답해야 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로 전화되기에 이른다.

한편 ‘영빈’의 의지는 ‘형철’이 사랑했던 ‘인하’, ‘형철’이 누구에게보다도 애타게 편지를 부쳤지만 이미 오래전 연락이 끊긴 ‘인하’를 찾아 나서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그러나 ‘영빈’은 ‘인하’에게 편지를 직접 전하지는 못한다. 수소문 끝에 현재 ‘인하’가 기거하고 있다는 강릉을 방문하지만, ‘영빈’은 ‘인하’와 대면하지 못한다. ‘인하’가 분식점을 운영하며 매우 고단한 삶을 꾸리고 있음을 짐작할 뿐이다. 이에 ‘영빈’은 눈물겹게 생활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인하에게 이 편지를 보여서는 안 된다”(285면)는 생각을 갖기에 이른다. 그러나 ‘영빈’은 포기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잊을 수 없는 우리들의 상흔”(같은 면)인 ‘형철’의 편지는 이대로 또다시 잊혀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반드시 누군가가 수신하고 ‘형철’의 삶의 기록에 응답할 때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대에게 보내는 편지」는 보상국면이 ‘형석’에게 떠안긴 딜레마로부터 ‘영빈’의 적의, 그리고 ‘형철’의 생명력까지를 모두 한데 모아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동력으로 재구성한다. 그런가 하면 소설은 ‘영빈’을 의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다지는 한편 이를 직접 실행으로 옮기는 인물로 형상화한다. 그리하여 ‘영빈’은 5·18을 통과한 이후부터 줄곧 자신을 따라다니는 “편집증세”(235면)와 차츰 결별해나간다. 중요한 것은, 기존의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나 ‘영빈’이 그야말로 삶의 ‘주체’가 되어가는 과정이 비단 자신의 몫만을 챙기며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형석’, ‘형철’, 그리고 ‘인하’에 이르는 주변 인물들의 삶을 함께 돌보면서 이루어진다. 무엇보다도 ‘영빈’이 가장 주요하게 살펴보는 삶은 ‘형철’의 그것일 텐데, 앞서 살펴봤듯 ‘영빈’은 ‘형철’의 생애가 ‘역사화’라는 작업 아래 그 무엇도 함부로 재단될 수 없으며 오로지 ‘형철’ 자신의 기록을 통해서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실 ‘영빈’의 의지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영빈’의 태도는 비단 5·18 당시의 기억에 갇혀 ‘온전한’ 발화를 할 수 없는 ‘형철’을 대신해서 말하겠다는 어떤 시혜적인 제스처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그것은 “미친 사람들이 미치지 않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진실된 삶에 대한 응낙의 고갯짓”(256면)에 가깝다. ‘영빈’이 ‘형철’의 편지가 많은 이들에게 읽혀야 함을 강조하는 것은 곧, 그동안 서랍 속에 갇혀 망각되어 온 ‘형철’ 개인의 고유한 삶의 궤적에 ‘우

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표명하는 작업이다. 이 모든 과정의 출발점, 즉 '영빈'이 '형철'의 삶을 주축 삼아 본격적으로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도록 만드는 주요한 계기가 국가에 의해 고안된 보상국면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그리하여 '형철'이 정신병원에 갇혀 그 어떤 것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시공간에 위치하고 있다면, 소설은 '형철'을 그곳으로 내몬 주체는 '누구'인지를 묻는다.

그리고 소설은 그 주체가 다름 아닌 국가라는 것을 언명한다. 일련의 보상정책을 마련함으로써 5·18 체험자들의 경험을 동질화시키고 비로소 5·18과 관련한 문제들이 갈무리되었다고 호도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직접' 경청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함을 힘주어 말한다. 그런 점에서 "세상엔 필요없는 것이 너무 많"(255면)다며 "검찰청이 있으니까 죄수가 생겨나지 보사부도 의사도 간호사도 없어져야 해 그래야 환자가 안 생기지"(같은 면)라고 말하는 '형철'의 모습에는, 소설이 제시하고 있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이 집약적으로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검찰청과 보사부가 성원들을 일상적인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5·18 체험자들 사이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면서 이들의 몸과 삶을 전연 고려하지 않는 국가의 보상정책은 반드시 재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장애 인물 '형철'의 삶과 '영빈'의 의지를 만나게 함으로써 5·18에 '진실된' 접근을 요청하는 「그대에게 보내는 편지」가 발신하는 메시지일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바 채희윤의 「아들과 나무 거울」, 이향란의 「마토모로스에서 온 편지」, 홍희담의 「그대에게 보내는 편지」는, 5·18 체험자들의 몸에 직접 개입하는 국가 권력, 특히 1990년을 기점으로 국가에 의해 조성된 보상국면을 문제 삼는다. 이때 이들 소설은 인물들의 손상된 몸, 그리고 이들 몸을 둘러싼 다양한 해석들을 서사의 중심에 위치시킨다. 유의할 것은, 세 텍스트가 인물들의 손상된 몸과 장애화된 삶을 국가가 시행하는 보상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제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체험자들의 몸과 삶이 보상금 수령 여부를 둘러싼 갈등 및 딜레마의 장소가 되고 있는 현실을 지시하는 동시에, '누가' 이들을 이 같은 문제적인 상황에 맞닥뜨리도록 내몰았는지를 심문하는 작업까지 수행한다. 귀책사유는 결코 체험자들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오히려 궁극적인 책임은 이들의 몸과 삶을 끊임없는 논쟁과 다툼의 영역으로, 즉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국가에 있음을 폭로한다. 요컨대 세 소설은 국가가 보상국면을 개시함과 동

시에 말소시킨 체험자들의 숱한 몸과 삶들을 복원할 뿐만 아니라, 이들 주위를 에워싼 장벽을 문제 삼고 이를 직접 허물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들 소설은 장애 재현의 윤리학 형성 과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각별하다. 무엇보다도 소설 내 인물들이 갖는 장애라는 특성은, 몸과 삶의 비극성을 제고하겠다는 기획에 근거하여 형상화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그것이 어떤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라, 국면의 변화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개입될 수 있는 정치적인 사안이라는 사실을 매우 효과적으로 지시한다. 그동안 소설 재현의 장에서, 장애가 다른 어떤 상태나 자질보다도 차이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 및 상징으로서 매끄럽게 제시되고 그쳤던 경향을 상기해볼 때, 그 차이가 어떤 맥락에서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호명하는 이들 소설은 큰 의의를 갖는다. 그리고 맥락의 중심에 5·18 체험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상국면을 위치시키는 전략은, 비단 국가를 '문제'를 추동하는 단일한 적(敵)으로 호명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소설들이 그리는 보상금 수령을 둘러싼 가족 구성원 사이의 갈등은, 5·18 체험이 야기한 몸의 손상을 중심으로 '정상'과 '비정상'을 판가름하는 다양한 해석틀이 복합적으로 교차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를 통해 이들 소설은 손상과 장애 두 개념 모두 담론적 구성물이라는 사실을 언명하는 동시에, 이 담론을 구성하는 인식틀과 제도를 검토할 때라서야 손상된 몸과 장애화된 삶이 갖는 구체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아울러 성원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몸과 건강을 국가로부터 확인받아야 '온전한' 성원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하는 오늘날의 현실을 환기하는 동시에, 이 같은 관리 및 통제 정책의 실상과 그 이면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다름 아닌 5·18의 보상국면이었다는 주요한 사실까지를 짚는다. 그리하여 세 소설은 5·18뿐만 아니라 '몸'과 '국가'의 관계라는 더욱 폭넓은 주제 아래 다시금 새롭게 읽힐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마련하고 있다.

제2절 증언하는 몸-공동체

앞 절에서 살펴본 텍스트들이 손상된 몸과 장애화된 삶의 문제를 '보상국면'이라는 특수한 시공간과 함께 조명하며 장애 인물 재현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었다면, 몇몇 소설은 그것을 장애 인물들이 수행하는 '증언'을 초점화함으로써 꾀하기도 했다. 해당 절은 이들 소설이 장애 인물의 발화를 통해 기입하는 5·18 체험에 대한 증언이, 소설 내 다른 비장애 인물들의 적극적인 응답을 자원 삼아 이루어지고 있음에 중점을 둔다. 이는 곧 그동안 많이 논의되어 온 증언의 (불)가능성이라는 문제를, 소설 내 인물들이 구축하는 '관계성'을 중심으로 새롭게 검토하는 작업과도 같다.

기실 이와 같은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만일 증언이 프리모 레비(Primo Levi)가 지적한바 "생존의 특권"[188]인 까닭에 이를 발화하는 생존자로 하여금 심각한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언어이기도 하다면, 이들 감정에만 매몰되어 생존자가 소외된 삶을 꾸리지 않도록 돕는 역할은 증언을 듣는 수신자의 몫일 것이다. 아울러 오카 마리가 "고문의 논리"[189]라는 단어로 적확하게 설명한 바 있듯, 많은 이들이 극심한 고통이 내재해 있지 않은 생존자의 증언에는 진실과 신뢰성이 온전히 담보되어 있지 않다고 간주하고 있음을 고려해볼 때, 증언의 수신자에게도 무거운 윤리적 책임감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발신과 수신이라는 대화의 맥락과 발화자와 수신자가 맺는 관계성은, 증언의 의미를 논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인 것이다.

한편 5·18 체험자들의 증언을 청취하고 기록하는 작업은, 3장에서도 짧게 언급했듯 1987년 '민주화'를 기점으로 속속 진행되었고 정식 출간물의 형태로 간행되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1990년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가 499명의 5·18 체험자들의 증언을 모아 펴낸 『광주5월민중항쟁사료전집』(풀빛, 1990)은 그 대표적 예에 해당한다. 『광주5월민중항쟁사료전집』의 출간은, 2022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갱신되고 있는 5·18에 대한 해석 및 연구 전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참조점이 된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개인적인 수준에서 이야기되던, 그래서 진실 여부가 분명치 않았던, 사건들이나 목격담들이 체계적인 조사과정을 거치면서"[190] '공식화'될 수 있었다.

---

188) 프리모 레비, 이소영 옮김,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돌베개, 2014, 98면.
189) 오카 마리, 김병구 옮김, 『기억·서사』, 소명출판, 2004, 84면.
190) 최정기, 「5·18 국가폭력 및 항쟁과 구술조사-증언 불가능성에 대한 도전: 『광주5월민중

그리고 이후의 작업들은 보다 다방면적으로 이루어졌다. 증언에 참여하는 체험자들의 폭이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5·18의 '피해' 경험에만 한정하지 않은 생애사적 접근 역시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당사자중심주의'을 넘어 보편적인 '집합경험'을 수집함으로써 5·18을 새롭게 재구성해보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진 바 있다.[191] 이처럼 서로 다른 체험자들의 고유한 5·18 경험에 기반한 증언 및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채록하는 작업은, 배하은이 언급한 바 "체험 주체의 진실이 어떠한 다른 것으로 환원되어 왜곡, 은폐,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증언의 윤리 하안선을 구축하는 토대"[192]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

5·18을 서사화한 소설들은, 이 같은 양상을 띠며 전개된 사회과학적 방법론에 입각한 증언 채집 작업들의 자장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증언의 메커니즘을 조명하는 문학적 형상화의 방법 역시 점차 확장되어 왔다.[193] 그런데 중요한 것은, 5·18의 증언 문제를 주요하게 다루

항쟁사료전집』에 대한 비판적 성찰」, 『민주주의와 인권』 제18권 2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8, 95면.

191) 한은영, 「5·18, 부끄러움의 사회적 공명-5·18 관련 증언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21권 3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21, 201-202면.

192) 배하은, 앞의 글, 451면.

193) 이를테면 박솔뫼의 「그럼 무얼 부르지」(『작가세계』 2011년 가을호.)는 5·18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광주를 말한다는 것의 의미를 묻는다. 5·18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많은 이들에게 틈입해오는 기억이라면, 그것에 대한 증언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모색한다. 흥미로운 점은, 소설이 5·18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까닭에 5·18을 대면할 적마다 마치 어떤 '장막' 앞에 놓인 것 같은 당혹감을 느끼는 '나'를 포함하여, 1980년 5월 광주의 현장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의 말들을 서사의 중심에 위치시킨다는 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언어는 5·18이 그러하듯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옮겨지고 오랜 울림을 갖는다. 그것은 5·18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이에 즉시 응답해야 한다는 당위의 표현과는 거리가 멀다. 그보다는 지도에 손을 짚으며 어렴풋이 떠오르는 도시에 대한 감각, 낯선 사람과 일상을 나누는 대화처럼, 불현듯 그러나 꽤 오랜 시간 부유하는 언어에 가깝다. 이로써 「그럼 무얼 부르지」는 '지금-여기'에서 오가는 말들을 조명함으로써 새로운 증언의 형식을 제작하는데, 이는 5·18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말하는 일의 어려움을 '확실한' 사실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곳에서, 그럼 무얼 말하고 부르고 들을 수 있는지를 묻는 대화의 장에서 마련된다. 그런가 하면 한강의 『소년이 온다』(창비, 2014.)는 5·18을 체험한 이후 더이상 인간을 믿을 수 없고, 자신이 인간이라는 사실에 치욕을 느끼며, 학살과 고문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는 인물들을 형상화함으로써 증언이라는 행위가 수반하는 고통을 짚는다. 이를 통해 소설은 체험자들로 하여금 당시의 경험을 말해달라는 요구를 하기에 앞서 "무슨 권리로 그걸 나에게 요구"(같은 글, 132면.)하냐는 물음에 대한 답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같은 글, 166면.)지에 대한 설명을 진실된 태도로 준비해야 함을 힘주어 말한다. 그러나 이 같은 메시지는 비단 증언의 불가능성을 재차 확인하고자 고안된 것이 아니다. 즉 『소년이 온다』는, 증언을 수행하는 국면마다 5·18이 매우 고통스럽게 체험자들의 몸과 삶에 다가온다면, 몸과 삶으로부터 5·18의 현장에 다가감으로써 이들 고통을 제삼자와 분유하고 나아가 체험자들의 현재 삶의 다층적인 의미를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는 이들 소설이 위의 작업들과는 사뭇 변별된다는 사실이다. 변별의 지점은 무엇보다도 텍스트 내 증언의 발화자와 수신자가 형성하는 관계성에 있다. 위의 작업들에서 발화자와 수신자와의 만남이 특정 경험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정보의 편중성을 수반하는 한편 질의와 응답이라는 대화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농후하다면, 소설은 두 당사자 모두 서사가 제시하는 사건 또는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위치시킴과 동시에 이에 또 다른 인물들을 개입시킬 수 있어 이들의 관계는 보다 다채로워진다. 즉 소설은 더욱 다양한 관계의 구축을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이에 따라 증언의 발화자와 수신자 사이 이루어지는 정서적 교감과 상호 이해의 과정은 보다 넓은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것이 곧 해당 절에서 증언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5·18소설'을 인물들 사이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다시금 검토하고자 하는 까닭이다.

다른 한편 지금까지 비판적으로 검토해 온 비장애중심주의는, '비정상'으로 규범화되는 몸과 삶에 대해 차별과 배제를 작동시키는 다종다양한 메커니즘의 총체였다. 그 까닭에 사회 전체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은 장애인에게 있어 거리가 먼 것이었다. 혹 이 같은 과정이 진전을 보일 때에도 그것은 동정과 두려움에 기반한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 또는 퍼터널리즘(paternalism)으로 대표되는 시혜적 태도에만 한정하여 이루어진 경향이 농후하다.[194] 또 장애인의 소외는 비장애인 자신의 '불완전성'에 의해 추동되는 것이기도 하다. 마사 너스바움(Martha C. Nussbaum)이 적확하게 지적했듯, 적잖은 "정상인은 곁에서 활동하는 장애인을 통해 자신의 유약함을 너무 많이 떠올리기 때문에 얼굴에 유약함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공적인 수치심을 안겨서 시야에서 사라지게 하고 싶은 충동을 느"[195]끼기 때문이다. 이 모든 사실은, 비장애중심주의라는 인식틀의 기초가 되는 '정상' 또는 '정상성'이라는 것이 "철저히 규범적인 개념이고, 완벽함이나 완전무결성을 대신하는"[196] 구성물임을 잘 보여준다. 그렇다면 장애인은 이처럼 비장애중심주의적인 사고가 만연해 있는 사회에서 그 어떤 공동체도 꾸릴 수 없는 것일까.

이에 몇몇 소설은, 갖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다른 비장애 인물들과 상호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공동체를 구축하는 장애 인물들을 형상화하는 상상력으

194) 빌 휴스, 앞의 글, 112-113면.
195) 마사 너스바움, 조계원 옮김, 『혐오와 수치심: 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들』, 민음사, 2015, 400면.
196) 위의 책, 401면.

로 응답해왔다. 아울러 이들 인물의 손상된 몸과 장애화된 삶이 5·18과 직접 관계해있다는 설정을 기입함으로써, 더욱 복합적인 효과를 파급하고 있다. 이 같은 소설의 기획은 일차적으로 그간 5·18 체험자들의 증언이 거듭된 왜곡과 부인의 정치에 의해 신뢰성이 부재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던 현실을 강하게 환기하는 동시에, 그 현실이 체험자들의 손상된 몸과 장애화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효과적으로 지시한다. 그리고 이 과정의 총체가 위의 비장애중심주의적 사고와 결합하여 더욱 견고한 영향력을 발휘해왔을 수 있다는 물음을 제기하며, 5·18과 장애의 문제를 매우 유기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만일 이처럼 장애 인물의 몸과 삶이 5·18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면, 그것의 재현은 단연 다층적인 해석이 요구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사회 통합'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너 스스로를 드러내지 말라"[197]고 선언하며 커버링(covering)을 요구하는 주류 집단의 수사는, 극심한 손상을 체현한 5·18 체험자들에게 이중적으로 작용해왔다. "아프다는 것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경제적 차원에서도 관계적 차원에서도 사회적 안전망 밖으로 버려"[198]지는 비장애중심사회의 현실과 더불어, 이들 체험자는 그 아픔을 유발한 근원적인 경험까지 함구할 것을 강요당해온 것이다. 바꿔 말해 이들은 손상된 몸과 장애화된 삶을 통해 형성한 현재의 정체성이 거부당하는 동시에, 그것을 주요하게 구성하는 5·18이라는 과거 원체험에 대한 발화 역시 차단당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래에서 다룰 소설들이 비단 소외의 국면만을 형상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나름의 대안을 제출한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정과 연대에 기반한 새로운 공동체의 출현 가능성을 상상하는 것을 통해 구체화되는데, 이들 소설은 이를 통해 새로운 윤리학을 모색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장애 인물은 그야말로 서사의 '중심'에 위치하게 된다.

이 모든 사실과 관련하여, 류양선의 『이 사람은 누구인가』(현암사, 1989.)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 소설이다. 장애 인물 '한빈'을 서사의 중심에 위치시키면서 공동체의 구축을 기도하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는, 새로운 장애 재현 윤리의 지형도를 그리고 있다. 무엇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대목은, 서사의 진행이 '한빈'의 친구들이 '한빈'의 삶을 추체험하는 과정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들 모임에서 어떤 불문율처럼 여겨지던 "무성

197) 켄지 요시노(Kenji Yoshino), 김현경·한빛나 옮김, 『커버링: 민권을 파괴하는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폭력』, 민음사, 2017, 45면.
198) 전혜은, 「'아픈 사람' 정체성」, 전혜은·루인·도균, 앞의 책, 146면.

격의 성격"(23면)에 '한빈'이 어떤 균열을 일으킴에 따라, 바꿔 말해 "모임의 지극한 일상성에 대한 뜻밖의 반역"(24면)의 수행이 계기가 되어 출발한다. 이를테면 '영섭'은 다음과 같은 "알 수 없는 편지"(12면)를 받는다.

> 영섭이.
> 나는 얼마 전 불의의 사고로 그만 불구자가 되고 말았네.
> 왼쪽 다리를 절단 당했단 말일세.
> (…)
> 나의 운명과 우리의 운명이 그리 뚜렷이 구별되는 것은 물론 아닐 테지. 그러니 오해하진 말게. 나는 지금 편의상 이렇게 구분지어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단 말일세. 그렇긴 해도, 적어도 내 처지에서 생각건대, 내가 불의의 사고로 다리 병신이 된 것은 아무래도 나 자신이 감당해 나가야만 할 운명의 모습이 아닌가 하네. 어쨌거나 나는 불구자가 되고 말았고 결국엔 양쪽 겨드랑이에 목발을 끼고 다니게 되었다네.
> (…)
> 헌데, 문제는 그 다음일세.
> 말하기도 우습네만, 그런 확신을 지니고 보니 목발을 짚고 뒤뚱거리며 거리를 쏘다니는 일이 내게 있어선 참으로 자랑스러운 것으로 느껴지더란 말일세. 어찌된 노릇인지 나는 더 이상 불구가 아니고 더할 나위없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기묘한 착각에 빠져 들게 되었던 걸세. 그야말로 터무니없이 의기양양해 졌는데 그게 탈이었네. 그건 일종의 자기기만과도 같은 것이었네.[199]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 '불구자'가 되었음을 불현듯 고백하며 "온통 수수께끼와도 같은 내용으로 채워진"(15면) 위의 편지는, '영섭'을 불쾌하게 만든다. 이에 '영섭'은 편지의 구절들을 무시하고자 하지만, 이것은 점차 '영섭'에게 "거역하기 힘든 압력을 행사해"(같은 면)온다. 그 까닭은 무엇보다도 발신자가 맞닥뜨린 상황이 자신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감각하는 데서 기인한다. 아울러 위의 편지와 더불어 도착한 또 다른 한 통의 편지, 즉 "이 편지를 받는 즉시 달려"(14면)와서 자신을 구해달라는 전언이 매우 의미심장함을 깨달은 결과이기도 하다. 한편 이처럼 '영섭'이 어떤 깨달음을 획득하게 된 배경에는 5·18이 위치해있다. 소설이 해당 편지의 발신일을 1980년 5월로 설정한 한편 대학의 강사로 재직하고 있는 '영섭'이 "거대

199) 류양선, 『이 사람은 누구인가』, 현암사, 1989, 12-13면.

한 침묵이 학교를 뒤덮어 버린"(11면) 일련의 상황 속에서 심한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인물로 형상화하고 있는 까닭이다. 그리고 '영섭'은 편지의 발신인이 최근 모임에서 "광기와도 같은 이상한 빛이 서"(17면)린 모습을 보인 조각가 '한빈'임을 유추하기에 이르며, 이내 '한빈'의 행적을 좇아보기로 결심한다.

이렇듯 소설의 서사는 좀처럼 구체적 정황을 알 수 없는 '한빈'의 편지가 도착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 흥미로운 점은, 이에 응답하며 '불구자'로 급변한 '한빈'의 삶을 이해해보고자 하는 '영섭'의 노력이 그 출발점에서부터 일방향적이지 않다는 데에 있다. 즉 '한빈'을 찾겠다는 '영섭'의 의지는, 동정심이나 시혜적인 태도에 기반하지 않는다. "내가 한빈일 구해낼 수 있다거나 혹은 한빈이가 누구에게 구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질 않"(33면)는다며, "도리어 근본적으로는 내가 한빈에게 구제되어야 할는지도"(같은 면) 모른다고 말하는 '영섭'의 발화가 보여주듯, 그것의 근간은 상호적인 우정의 교환에 있다. 다만 '영섭'의 계획은 '한빈'이 돌연 자취를 감추고 "증발"(44면)한 까닭에 차질을 빚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섭'은 포기하지 않고 '한빈'의 행적을 알 만한 주변의 인물들을 찾아 나선다.

그런가 하면 이 같은 여정은 '영섭'에 의해서만 시도되지 않는다. 자신의 집을 방문하고는 갑자기 떠난 '한빈'의 행방을 수소문하는 '원규', '한빈'이 "요즘에 와서 심한 정신적 위기에 몰려 있"음(44면)을 알아차리며 그 까닭이 무엇일지를 거듭 자문하는 작업실 동료 '수찬', 아내로서 '한빈'의 삶을 지척에서 지켜본 이야기를 상세하게 '영섭'에게 전해주는 '인숙', '한빈'의 존재가 "생각의 맨 끄트머리에 그러나 가장 깊은 곳에 착 달라붙어 있"(209면)음을 느끼는 '성준' 모두 '한빈'이 호소해 온 고통과 갑작스러운 퇴장을 외면하지 않고 이를 자신의 일로 받아들인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한빈'이 남겨놓은 흔적들을 바탕으로 그의 삶을 이해해보고자 하는 이들의 고투가 '한빈'을 향한 신뢰를 초석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기실 이들 인물이 '한빈'이 자신의 일기장에 적어놓은 물음, 즉 "나는 왜 다리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이런 생각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124면)에 대한 답을 함께 마련해가는 여정은, '한빈'의 문제의식이 결코 단번에 폐기될 수 없는 것임을 이해하는 동시에 '우리'의 문제로 인식해나가는 절차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리고 이를 추동하는 것은 '한빈'에 대한 신뢰, 바꿔 말해 '한빈'이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발화와 행동을 수행할지

언정 '한빈'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인식틀을 기반에 둔 공통감각이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인숙'의 "열렬한 어조"(131면)는 '한빈'을 향한 신뢰의 한 단면을 잘 보여준다.

> "허지만 그이가 미친 건 용기 있는 죽음에 비견될 만한 그런 것이에요. 제 이야기가 선생님에게 어떻게 들릴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스스로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미쳐 버리는 것이 자신에 대한 배신을 모면하는 길이 아니겠어요? 스스로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것, 스스로의 사상과 생활을 일치시키고자 분투하는 것, 그것 때문에 설사 죽음에 이른다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초이자 최후의 무엇이니까요. 그렇지 못할 때에야 어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포기한다는 건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이자 인간 전체에 대한 배신이 되는 거예요."[200]

'인숙'은 끝없는 "어둠 속에 갇혀 버린"(130면) 끝에 "왼쪽 다리가 잘려 나가고 없다는 사실 아닌 사실에 지배되어 목발을 짚고 다니게 됐고, 또 얼음을 쪼아 작품을 만드는 턱없는 행위를 하"(131면)기에 이른 '한빈'의 모습을 결코 잘못된 것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인용된 위의 문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 오히려 그것은 '인숙'에게 있어 용기 있는 분투로 인식된다. "그이는 미치지 않았"(133면)다는 '인숙'의 선언을 직접 듣는 '영섭' 역시 "인숙의 말에서 틀린 곳은 아무 데도 없다고 생각"(132면)한다. 한편 '한빈'의 행적을 알만한 주위의 인물들을 차례대로 만난 후 '인숙'에게 보다 구체적인 상황까지 전해 들은 '영섭'은, '한빈'의 고통을 "우리 모두가 느끼는 근원적인 아픔, 또는 우리 모두가 앓고 있는 깊은 질병의 드러남"(143면)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리하여 '영섭'은 '인숙'과 마찬가지로 '한빈'의 곡절을 "치열한 자기 혁신에의 도전"(같은 면)으로 받아들인다.

이처럼 처음에는 '수수께끼'로만 여겨졌던 '한빈'의 기이한 고백과 행동은, 점차 다른 인물들에게 실체 있는 근거가 마련된 무엇으로 여겨지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이들 인물이 '한빈'이 "무슨 정신 분열증이나 그 밖의 어떤 정신 이상에 걸려 있다고"(130면)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 '한빈'이 남겨놓았던 고민을 외면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아울러 '한빈'에게 보이는 '인숙'과 '영섭'의 신뢰, 그리고 '한빈'의 문제를 '인간 전체'와 '우리 모두'의 그것으로

200) 류양선, 『이 사람은 누구인가』, 위의 책, 131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의지는 무엇으로부터 촉발된 것일까. 소설은 그 시원에 5·18을 위치시킨다.

전술한바 소설은 서사의 도입부부터 현재의 시공간이 5·18을 통과한 데에 따른 분노와 우울이 한데 교착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이 암시는 서사가 진행될수록 점차 구체화된다. 흥미로운 점은, 소설이 '한빈'의 '증발'이 5·18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지시하면서도 '한빈'을 5·18 당시 광주 현장에 있었던 인물로 형상화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한빈'은 마치 5·18을 예견이라도 한 듯 이전부터 자신을 '불구자'로 정체화하고 있었고, 정작 5·18을 현장에서 경험한 인물은 그의 동료 '수찬', '수찬'의 애인 '성옥', 그리고 '성옥'의 오빠이자 '한빈'의 친구인 '성준'이다.

그런데 '한빈'은 앞장서서 광주로 향한다. 주변의 인물들을 미궁에 빠뜨리고 돌연 자취를 감춘 '한빈'이 도착한 곳이 다름 아닌 광주였던 것이다. 이곳에서 '한빈'은 5·18 당시 사자(死者)가 된 여러 '유령'들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5·18의 실상에 점차 접근해간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불러냈지만 또 당신이 스스로 우리를 찾아온 것이기도 하"(163면)다는 유령의 발화에서 짐작할 수 있듯, '한빈'의 광주행은 기실 5·18이 '한빈'의 몸과 삶의 변화를 불러온 가장 중요한 계기였음을 보여준다. 5·18을 직접 체험하지 않은 사람 역시 그것을 "겪은 것과 다름없어야만 하는 것"(158면)이라는 유령들의 전언 역시, '한빈'이 그토록 고통에 침잠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 무엇이었는지를 제시한다.

그리하여 그간 '한빈'이 자신의 고통을 추상적인 언어로밖에 발화할 수밖에 없었던 맥락은, '성옥'의 죽음을 직접 보는 등 5·18의 현장에 있었던 '수찬'이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상기하며 "이 세상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다 말이 되는 것이 아님을"(82면) 깨닫게 되는 것과 겹쳐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찬'이 5·18은 "누구에게든 반드시 이야기되어야만"(같은 면) 한다는 의지를 다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빈' 역시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개시한다. 앞서 인용한 '영섭'에게 보낸 편지에 쓰인 '한빈'의 문장들은, 그 구체적 경위의 요약본과 다름없다.

다른 한편 자신이 경험하는 고통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겠다는 '한빈'의 선언은, '성준'에게도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일찍이 '성준'은 '한빈'을 강하게 의식해왔다. 단연 "다른 어떤 환자보다도 치열한 병을 앓고 있"(223면)는 "정신질환자"(같은 면) '한빈'을 바라보는 정신과 의사로서의 자의식이 그 저변을

이루고 있지만, 오히려 '성준'은 '한빈'에게 "압도"(같은 면)당해왔다. 예전부터 '한빈'이 보여온 병세가 비단 '한빈'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분석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 의미의 맨 밑바닥에 자리잡은 그 무엇"(같은 면)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즉 '성준'은 '한빈'의 '정신병'을 자신이 직면해야 하는 문제로 여긴다. 그리하여 동생 '성옥'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5·18의 치열한 현장에서도, '한빈'의 존재는 마치 "부적"(212면)처럼 '성준'을 따라다닌다. 그리고 '성준'은 줄곧 현실과의 대면을 우회해 온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과정을 거쳐, 비로소 왜 자신이 '한빈'으로부터 좀처럼 자유로울 수 없는지를 깨닫는다. "차라리 미쳐 버릴지언정 세상을 비껴가지 말고 세상에 맞서 격렬히 싸우라고 한빈은 내게 더듬더듬 속삭이고"(227면) 있었다는 것을, "이제 한빈이 의사이고 내가 환자인 꼴"(같은 면)이라는 사실을 '성준'은 자각하기에 이른다. 그러던 중 때마침 광주에 있던 '한빈'은 목발을 짚은 채 '성준'의 집을 방문하는데, '성준'은 이와 같은 '한빈'의 모습을 보고는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

> 내가 보기에 한빈은 얼마간의 피학적 성격 장애를 지니고 있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도 나타난 현상으로 볼 때는 분명히 그러했다. 한빈은 뭔가 강한 죄책감을 숨겨두고 그걸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었다. 다리를 절며 목발을 짚고 다니는 것도 실은 나름대로 벌을 받으며 살아가려는, 그리하여 그런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보려는 무의식적 욕구의 발로라고 할 수 있었다.
>
> 헌데 이와 같은 나의 생각은 갑자기 약간은 엉뚱한 곳으로 빠져 들어갔다. 그것은 느닷없이 한빈의 질병과 이 세상의 질병을 관련시켜보는 그런 종류의 것이었다. 허니까 한빈의 병은 이 세상의 현재에 대한 예민한 진단이요,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한 예언적 징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지금 생각건대 그것은 이미 닥쳤던 환난을 예고했던 것으로, 또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더 큰 환난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었다. 그것은 한빈 특유의 민감성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경보장치일 수도 있었다. 사실 한빈의 다리에 나타난 이상은 제대로 앞을 못 가누고 뒤뚱거리는 이 세상의 불구성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는가?[201]

'성준'은 돌연 목발을 짚고 다니는 등 '한빈'의 비일상적인 행위를 극심한

201) 류양선, 『이 사람은 누구인가』, 위의 책, 234면.

죄책감의 발로로 해석하는 한편, 현실의 '불구성'이 투영된 것일 수 있다며 의문을 제기한다. 이처럼 '성준' 역시 '인숙'과 '영섭'처럼 '한빈'의 모습에는 보다 심오한 의미가 깃들어 있음을 알아차린다. 아울러 앞선 두 인물이 '한빈'에게 확고한 신의를 표방한 것과 마찬가지로, '성준'은 '한빈'에게 "자네의 걸음걸이는 조금도 이상하지 않"(235면)고 "자네의 마음에도 아무 잘못이 없"(같은 면)다고 말한다. 가까운 사람들을 상실한다는 것에 "아주 예민한 감각"(같은 면)을 갖고 있는 '한빈'의 성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까닭이다.

아울러 '성준'은 '한빈'에게 곧 목발을 짚지 않고도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묻는다. '한빈'은 즉답을 피하지만, 편지를 통해 '성준'에게 저간의 사정을 집약적으로 설명한다. 광주에서 유령들과 대면하고 "죽음의 세계를 다녀 온"(241면) 경험을 언급하면서, '한빈'은 "죄를 짓고 나서 벌을 받지 않은 채 그냥 지나치는 일은 좀처럼 없다는 걸"(242면) 알게 되었다고 적는다. 그럼에도 '한빈' 자신은 '성준'의 관심이 많은 도움이 되었고, "내가 내 스스로 서야 한다는 걸 깨달은 건"(243면) 오롯이 '성준' 덕택이었다며 고마움을 표현한다.

이처럼 『이 사람은 누구인가』는 '한빈'과 다른 인물들 사이 이루어지는 상호 응답의 과정을 주요하게 그린다. 만일 『이 사람은 누구인가』가 5·18을 통과함에 따라 "우울이라는 정신적 질병에 걸린 이들이 다시 삶에의 의욕을 회복하는 집단적인 정신 치유의 이야기"[202]에 해당한다면, '치유'의 중심에는 단연 장애 인물 '한빈'이 위치할 것이다. 특기할 것은, '한빈'이 자신을 '불구자'로 정체화하며 어떤 '일탈'들을 감행해나가는 절차가 다른 인물들을 치유하는 주체로 위치해나가는 과정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데에 있다.

예컨대 '영섭'과 '성준'이 '한빈'의 삶에 대한 저마다의 생각을 나누면서 발견하는 "매우 희망적인 징후"(258면)는, '한빈'의 경과와 관련한 것임엔 분명하지만 이들 자신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기도 하다. '한빈'이 여러 고민의 흔적을 남겨놓은 채 돌연 '증발'해버렸다면, 남은 인물들은 그 흔적들의 의미를 되새김하며 '한빈'의 고민을 자신의 삶의 영역으로 체화한다. 이에 따라 '한빈'은 의료적 치료가 요구되는 '환자'라는 정체성으로 고정되지 않는다. 어떤 중요한 깨달음을 획득하는 '영섭'과 '성준'의 모습에서 알 수 있듯, 오히려 '한빈'은 이들을 치유하는 주체가 된다.

이 모든 과정은, 여러 차례 언급한바 이들의 관계가 신뢰에 기반한 우정의

202) 윤지관, 「광주 항쟁의 도덕적 의미」, 류양선,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해설, 위의 책, 288면.

교환으로 구축되어 있기에 가능해진다. 이들 인물이 주고받는 우정이 중요한 까닭은, 김현경이 지적한바 그것이 상호 간의 '환대'를 주춧돌 삼아 지속되기 때문일 것이다. 환대가 "타자에게 자리를 주는 것 또는 그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 그가 편안하게 '사람'을 연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하여 그를 다시 한 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203]과 다름없다면, 그 어떤 시공간에서도 자신의 고유한 '자리'를 잃지 않는 '한빈'의 형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도 '한빈'과 관계한 인물들은 '한빈'의 회복, 다시 말해 그가 고통과 결별하기를 희구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어떤 강권도 수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보다는 '한빈'의 현재 상태를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무엇이 '한빈'으로 하여금 변화를 추동했는지를 되짚어볼 따름이다. 꿋꿋이 '한빈'의 경로를 밟아 서울, 광주, 그리고 서사 말미에 이르러 최남단 '토말리'에까지 다다르는 '영섭'의 모습은 그 대표적 예에 해당한다. 한편 '한빈'이 바라는 것이 단순한 의료적 치료가 아니듯, 주변의 인물들 역시 '한빈'을 재활이 필요한 치료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정신과 의사인 '성준'이 '한빈'에게 그 어떤 처방도 내리지 않는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리하여 '한빈'은 자신만이 경험하는 고통의 고유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고, 발화의 기회는 그 누구에게도 차단당하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누구인가』는 자신을 "불구상태"(같은 면)로 인식하며 혼란을 거듭하는 '한빈'의 모습을 일종의 '대속'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형상화함에 따라, '한빈'이 체현하는 '불구자'라는 정체성이 어떤 일관된 상징으로서만 기능한다는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가 드러난다. 그러나 이를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이처럼 '한빈'의 손상된 몸과 장애화된 삶이 '보편'의 차원으로 확장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소통의 가능성이 창출되기도 한다. 예컨대 '영섭'과 '성준'이 "한빈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무슨 까닭"(256면)일지를 자문하면서 "그건 녀석이 그 특이한 방식으로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같은 면)고 답하는 대목은, '한빈'만의 예사롭지 않은 체험이 모두에게 공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임을 잘 보여준다.

앞서 살펴봤듯 이들 인물이 '한빈'이 남겨놓은 흔적들에 지속적으로 응답하는 모습, '한빈'의 고통을 함께 감각해보고자 분투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편 이 같은 가능성은 장애 인물 '한빈'이 입체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203) 김현경, 앞의 책, 193면.

는 사실과 함께 더욱 진전된다. 소설은 '한빈'을 단순히 그가 직면한 현실의 비극을 대리하며 고통만을 체현한 인물로 그리지 않는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비극적인 현실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에 따른 고통을 어떻게든 대면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인물로 그린다. 이를 통해 소설은 그 예민한 감각과 적극적인 의지가 '한빈'으로 대표되는 한 개인만이 소유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는 당부까지 전달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누구인가』는 서사의 중심에 5·18을 위치시킨다. 소설은 5·18의 현장에서 자신만 목숨을 부지한 데에서 비롯되는 "심한 수치심과 자책감 심지어는 자학적인 죄책감과 겹쳐 나타나는 결코 풀어버리지 못할 비탄의 감정"(208면)을 느끼는 '성준'과 '수찬'의 형상화를 통해, 그리고 여러 '유령'들의 목소리를 삽입함으로써 당시의 일들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한빈'의 급변한 몸과 삶 역시 5·18과 직접 관계해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한편, 다른 인물들이 '한빈'이 처한 상황을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체적 맥락이 공표된다. 그리하여 소설은 이 같은 "등장인물들의 정신적 방황과 고행을 그림으로써 광주항쟁의 참뜻을 추구"[204]한다. 당시 광주의 현장에 부재했던 '한빈'이 5·18을 증언하는 발화자로서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은 무척 흥미롭다. 그리고 '한빈'의 증언은 앞서 살펴본바 스스로를 '불구자'로 정체화하면서, 좀처럼 이전과는 동일한 삶을 꾸릴 수 없음을 느끼는 과정과 함께 이루어진다.

기실 이처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한빈'의 발화들이 주변 인물들에게 어떤 잘못이나 해결이 시급한 '문제'로 인식되지 않으면서 5·18에 대한 증언으로 확장되는 맥락은, 장애 재현의 새로운 윤리를 생성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의를 갖는다. 무엇보다도 '정상'이라는 규범과 '일상'이라는 시공간으로부터 끊임없이 이탈하는 장애 인물 '한빈'의 몸과 삶은, 생성적인 힘과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갖는다. "어떤 사실이 더 이상 규범을 참조할 필요가 없을 때 그 규범의 권위는 박탈"[205]된다는 조르주 캉길렘(Georges Canguilhem)의 지적처럼,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한빈'의 몸과 삶, 그리고 그의 발화는 기존의 질서에 긴장을 유발한다. '한빈'의 흔적이 지속적으로 다른 인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은, 비단 이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창출하는 것만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보다는 이들 인물에게 규범화된 현재 삶의 양식에 대한 성찰과 각성을 요청하는 '한빈'의 발화에 대한 응답에 해당할 것

204) 윤지관, 앞의 글, 287면.
205) 조르주 캉길렘, 앞의 책, 167면.

이다.

그리하여 '한빈'의 '불구상태'는 여느 소설들이 형상화하는 것처럼 비극의 은유로서만, 시각적으로 다르다는 측면에서만 관심을 끄는 대상에 갇히지 않는다. 규범화된 몸과 삶의 질서로 포섭할 수 없는 장애 인물 '한빈'은, 치열한 고투의 과정을 스스로 이행하는 동시에, 규범에 벗어나 있는 것 그 자체로 주변의 인물들에게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주체가 된다. 요컨대 이들 과정이 5·18의 증언이라는 새로운 발화양식까지 창출해낼 수 있으며, 그것이 신뢰와 우정에 기반한 공동체의 응답이 뒷받침되었을 때 파급력이 배가된다는 사실까지 함께 제시하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는, 새로운 장애 재현의 윤리학을 고안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장애 재현의 윤리는, 단순히 사회의 규범과 일정한 거리를 둔 채 기존 질서를 거부하는 장애 인물의 형상화를 통해 곧바로 마련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처럼 '저항'의 국면만을 강조하는 재현 문법은 장애 인물의 삶을 단선적으로 구성함에 따라, 장애 인물을 자칫 심오하고 신비스러운 존재로만 한정하여 제시하는 결과를 낳을 위험이 있다. 그리하여 장애는 "체현된 존재로서의 형상과 관련하여 모든 것을 설명하거나, 아무것도 설명하지"[206] 못할 수 있다. 이는 곧 장애 재현의 윤리는 장애 인물이 기존의 규범과 질서에 저항하는 국면뿐만 아니라, 이들과 맺는 복합적인 관계의 제시가 있을 때라서야 비로소 구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측면에서 '불구자'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며 삶의 주체로 도약해나가면서도 이전 일상으로의 '회복'을 욕망하기도 하고, 몸의 고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한빈'의 형상을 그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는, 윤리의 형성 과정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윤리 형성의 연장선을 그리고 있는 대표적인 소설로는 공선옥의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창비, 2013)가 있다.

무엇보다도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는 장애 인물 '정애'가 경험하는 일련의 수난을 조명함으로써 장애 재현의 새로운 문법을 모색한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가 우정의 교환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의 구축을 기도하면서도 장애 인물 '한빈'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 역시 5·18 당시 "군인들에게 변을 당"(115면)한 이후 줄곧 이웃들에게 "미친년"(114면)이라는 멸칭으로 호명됨에 따라 사회와 불화하는 '정애'의 삶을 주요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그런데 그 수난은 비단 5·18에만 한정해있지

206) David T. Mithchell and Sharon L. Snyder, op. cit., p. 50.

않다. 소설은 '정애'를 5·18 이전부터 고향 새정지에서 매우 가난한 삶을 꾸리는 한편 "부로꾸 찍는 사람"(31면)에게 강간을 당하고 아버지와 어머니, 동생 '순애'의 잇단 죽음을 경험하는 인물로, 그리고 5·18을 통과한 후 고향을 다시금 방문할 적에도 '박샌'에게 또 한 차례 강간을 당하는 인물로 형상화한다. 이는 곧 '정애'가 "새정지와 광주에서 벌어지는 이중의 폭력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후유증"[207]을 체현한 인물로 구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지점은, 소설이 이와 같은 수난의 연속에서도 '정애'가 삶을 개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일차적으로 '정애'가 부르는 '노래'들, "세상 밑으로 가라앉지 않고 물처럼 멀리멀리 퍼져나가는"(같은 면) '정애'의 고유한 발화양식에서부터 싹튼다.

> 대밭에는 댓잎삭이 청청하네 솔밭에는 솔잎삭이 총총허네.
> 쉰살의 정애가 그렇게 노래하자 백살의 정애가 노래를 받았다.
> 기와집 몬당에 눈썹달 꾸정물 통에 호박씨 우리 집 마당에 보름달 까막깐치가 깍깍.
> 정애는 노래를 부르면서 박샌의 등을 어루만졌다. 박샌이 덜덜 떨었다. 떨면서 뇌까렸다.
> 조용히 하랑게 쳐 노래를 하네 이. 노래를 해, 노래를…… 그러면서 박샌이 웃었다. 웃으면서 박샌은 울었다. 아아, 씹할년, 쳐 노래를 해 노래를.
> 박샌은 욕을 하면서 갔다. 박샌이 가고 나서도 한참 동안 정애는 노래했다.
> 석균이 오목가슴에 가슴애피는 누가 알아를 주까 박샌 바짓가랑이에 핏자국은 누가 시쳐를 주까……[208]

'정애'는 수난을 맞닥뜨릴 때마다 노래를 부른다. "예전에 우물가 부로꾸 찍는 사람한테도 그랬고 도시의 골목에서 군인들한테도 그랬다."(171면) 인용된 위의 대목에서처럼, '박샌'에게 강간을 당할 때 역시 마찬가지다. 한편 "사람이 말로는 더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 터져나오는 소리"(184면)와도 같은 '정애'의 노래는, "보통의 사람들"(같은 면)에게는 좀처럼 그 뜻이 전달되지 않는다. 흥미로운 점은, 이 노래가 어떤 가공할 만한 힘을 갖는다는 사실이

207) 유희석, 「문학의 실험과 증언-한강과 공선옥의 최근 장편을 중심으로」, 『창작과비평』 2014년 겨울호, 104면.
208) 공선옥,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 창비, 2013, 172면.

다. 인용된 위의 장면의 '박샌'이 그러하듯 '정애'의 노래를 듣는 이들, '정애'에게 수난을 강제하는 인물들은 두려움을 표출한다. "울면서 그들은 도망을"(171면) 가고, "욕을 하면서 갔고 총을 쏘면서"(같은 면) 황급히 자리를 뜬다.

다른 한편 '정애'의 노래는 마을의 이웃들에게 "시집오기 전부터 실성기가 있었"(57면)던 "농판"(31면)으로 여겨지는 '어머니'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늘 "울음소리로 말을 대신"(10면)하는 '어머니'를 유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정애'는, 척박한 환경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울어온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울 수 없다. "엄마는 울어야 살고 엄마를 살게 하려면 내가 울지 말아야"(37면) 한다고 생각하는 '정애'는 그 대신 노래를 부른다. 그리하여 '정애'의 노래는 "멀미 나고 인정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정답게 굴어야 할 때 내는 소리"(32면), 즉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언어가 된다.

그런데 노래를 거듭 부름에도 불구하고, '정애'의 삶은 좀처럼 수난과 곤경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오히려 정신적 손상은 더욱 극심해지고, 명확한 발화를 수행할 수 없는 까닭에 주변의 놀림거리가 될 뿐이다. 듣는 이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를 이끌어 내는 '정애'의 노래는, 역설적으로 바로 그 까닭에 아무도 응답하려 들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소설은 이처럼 '정애'의 삶을 그 어떤 기회도 차단된 것으로만 구성하지 않는다. 그것은 '정애'의 노래를 온전히 수신하는 유일한 인물이자 오랜 친구인 '묘자'의 형상화를 통해 가능해진다.

기실 '정애'와 함께 새정지에서 유년을 함께한 '묘자'는 '정애' 못지않게 갖은 수난을 경험한다. '정애'와 마찬가지로 가난한 삶을 꾸려나가다 자신을 유일하게 돌보던 '할머니'까지 죽음에 이르자 "더이상 살아갈 길이 없어"(77면) 광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엄마'에게 찾아가는 '묘자'는, 이곳에서도 고단한 생활을 이어나간다. 5·18 '시민군' 출신이자 "오일팔 또라이"(89면)로 불리는 '박용재'와 결혼함으로써 단란한 가정을 이뤄보고자 하지만 이마저도 난관에 봉착한다. '묘자'는 좀처럼 어느 곳에도 정착하지 못함에 따라 "갈수록 야위어"(119면)가는 '박용재'를 자신이 돌볼 것을 다짐하고 실행에 옮기지만, 돌아오는 응답은 "더러운 년"(139면)이라는 폭언과 "짐승"(141면)과도 같은 모습으로 가하는 폭력이다.

그러던 중 '묘자'는 광주에서 '정애'와 조우한다. '묘자'는 "머리를 산발

한”(105면) 채 시장 한쪽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정애’와 마주치는데, 줄곧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던 ‘정애’는 ‘묘자’에게 먼저 말을 건다. 그리고 ‘묘자’는 ‘정애’가 구체적인 맥락이 결여된 단절된 말들과 노래들을 온전하게 듣는다. ‘묘자’의 모습이 마치 “대통령 영부인”(106면) 같다는 말을 반복하는 ‘정애’에게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한편, “괜히 노래를 불러가지고 욕을 먹”(같은 면)었다며 그동안 삶의 궤적들을 일일이 열거하는 ‘정애’의 말을 경청한다. 이처럼 우연히 이루어진 두 인물 사이의 만남은 예전 새정지에서 나누었던 우정, 가난한 까닭에 학교를 다닐 수 없어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한 채 하루를 온전히 함께 보냈던 유년 시절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갖은 수난으로 점철되었던 두 인물의 유년은 위해를 가하는 이웃들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서로를 버팀목 삼아 이들에게 기필코 “죽기 전에 죗값을 받게 할”(54면) 것이라는 계획과 “어떻게 해버리고 싶”(같은 면)다는 생각을 품으며 삶의 의지를 다질 수 있었다. 그리고 ‘정애’와 ‘묘자’의 삶은 광주에서의 재회를 통해 다시금 연결된다.

‘묘자’가 ‘정애’에게 있어 주변에 의해 줄곧 ‘미친년’으로만 인식되고 동생에게마저 “아, 챙피해, 씨발”(109면) 소리를 매일같이 들어야만 했던 외로운 삶을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준 존재였다면, ‘정애’는 ‘묘자’의 실패한 꿈을 보듬어준다. ‘묘자’는 ‘박용재’와의 단란한 가정을 끝내 이루지 못한다. 날이 갈수록 감정의 동요가 극심해지는 ‘박용재’의 상태를 어떻게든 이해해보고자 노력했지만, 자신의 임신이 군인들을 유혹한 결과라고 단정하는 그의 말에는 더이상 참지 못한다. ‘묘자’는 “누구의 씨인지 알아보자”(152면)며 자신을 향해 칼을 들고 다가오는 ‘박용재’의 목을 조르고, 종국에는 살인을 저질러 수감되기에 이른다. ‘정애’는 감옥에서 아무와도 말을 하지 않으며 마치 “허깨비”(219면)와 같은 생활을 보내고 있는 ‘묘자’를 방문한다.

> 정애는 이제 낮에도 거리낌 없이 찾아왔다. 비름꽃이 노랗게 피어난 위에 정애가 뽈딱 앉아 있었다. 정애는 바람에 흔들리는 비름꽃에 맞추어 저도 그네를 타듯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 여린 비름이 어떻게 정애를 받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
> 나는 몸 없는 혼이기 때문이지.
>
> 묘자 마음을 간파한 정애가 말했다. 단식을 하고 난 뒤여서인지 몸이 나른했다. 정애가 묘자 눈꺼풀 위에 내려앉았다.
>
> 눈을 감고 내 손을 잡아.

묘자는 정애 손을 잡았다.

묘자야, 나를 보고 싶으면 이렇게 해. 아바아바사융기샹가바.

묘자도 정애를 따라 했다.

아바아바사융기샹가바.

(…)

묘자가 자리에 누워서 아바아바사융기샹가바라고 뇌자, 다시 정애가 나타났다. 정애가 묘자를 새정지로 데려갔다.[209]

'묘자'가 수감된 사실을 모르고 있던 '정애'는 "여름이 다 가고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오고 있는데도"(157면) 좀처럼 '묘자'의 모습을 찾을 수 없자, 혹 새정지에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며 혼자 그곳으로 향한다. 그런데 '묘자'는 새정지에 없었고, '정애'가 맞닥뜨린 것은 앞서 언급한바 또 한 차례의 수난이었다. 그러다 '정애'는 돌연 마을에서 자취를 감춘다. 이후 몇몇 이웃이 '정애'를 곳곳에서 보았다는 낭설만 자자할 뿐, 그 누구도 '정애'의 행방을 정확하게 좇지 못한다. "정애는 사방에 있었고 정애는 아무 데도 없었"(214면)던 것이다. 한편 소설은 이처럼 무성한 소문으로만 남은 '정애'를 인용된 위의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 감옥에 있는 '묘자'에게 향하는 것으로 그린다.

'정애'는 자신이 그동안 불러온 노래처럼, 실물이 없는 '혼'의 형상으로 '묘자'를 찾아간다. 이에 '묘자'는 "바람에 실려온 정애 목소리"(257면)에 응답하고, '정애'는 '묘자'를 새정지로 데려가 함께 그간의 있었던 여러 변화를 바라보고 죽은 '할머니'의 흔적을 찾아나선다. 이와 같은 설정을 통해 소설은 두 인물의 우정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임을, 서로의 삶에 계속 접속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관계가 이어질 것임을 암시한다. 소설이 먼 미래에 '묘자'가 자신을 찾아온 "정애이면서 정애가 아닌 여자"(같은 면), 즉 "내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259면)라고 말하며 노래를 부르는 어떤 여자와 짧은 만남을 갖는 장면으로 서사를 끝맺고 있는 것은, 이 암시와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는 '정애'를 결코 서사에서 퇴장시키지 않는다. 실물감 없는 '혼'의 형상으로라도 '정애'는 살아 있다. 비록 '정애'의 삶이 잇단 수난으로 구성됨에 따라 비극성을 강하게 환기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애'는 삶을 꿋꿋이 이어나간다.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원

209) 공선옥,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 위의 책, 236-237면.

동력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중요한 국면을 맞닥뜨릴 때마다 발화되는 노래이다. 듣는 이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정애'의 노래는 어떤 저항의 메시지로 기능한다. 그리고 이들의 두려움은 김형중이 지적한바 '정애'의 "노래를 통해 열리는 증언의 영역 앞에서"[210] 노출되는 성질의 것이다. 좀처럼 다른 이들에게 해석되지 않는 '정애'만의 고유한 언어인 이 노래는, 체험의 당사자만이 발화할 수 있는 '일반적인' 증언의 문법과 닮아있다. 또 이것은 '정애'의 삶이 지속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끝없이, 끊김 없이 이어지는 까닭에 '정애'에게 수난을 강제하는 '가해자'들은 이 음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없다. 그리하여 장애 인물 '정애'는 수난의 '피해자'에 국한하지 않고 증언을 수행하는 발화자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정애'의 수난이 계속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이에 소설은 '묘자'와 교환하는 우정을 통해 '정애'의 삶이 오롯이 수난에만 종속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한다. '정애'의 노래에 유일하게 응답하는 '묘자'가 '박용재'를 살해하는 장면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자신의 아이를 죽이려고 시도하는 것만큼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묘자'의 강한 의지를 잘 보여준다. 이는 곧 '묘자'가 자신의 아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안에 있어서도 귀책사유라고는 일체 없는 '정애'에게 누군가 또 다른 수난을 강제한다면, 그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다른 한편 '정애' 역시 '묘자'를 돌본다. 시공간을 뛰어넘어 '묘자'를 새정지로 데려가는 '정애'의 혼과 노래는, '묘자'가 경험한 수난의 궤적과 더불어 '할머니'와의 추억을 망각하지 않도록 돕는다. 감옥에 있는 '묘자'에게 "내가 너를 여기서 꺼내"(222면)주겠다고 말하며 콧잔등과 뒷덜미를 간지럽히는 '정애'는, 삶을 마감하고 "저세상으로 가고 싶"(219면)어 했던 '묘자'를 웃게 하고 살게 만든다.

기실 '정애'의 노래가 사건의 심각성을 공표하는 일종의 증언으로 기능할 수 있으려면, 이를 수신하고 나아가 노래에 담긴 메시지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수신자의 존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소설이 '정애'의 삶을 좀처럼 수난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이와 같은 '노래'들을 수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소설 밖 현실을 환기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러나 소설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만일 극심한 정신적 손상을 체현한 '정애'의 몸과 삶을 이해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으로 간주하지 않

210) 김형중, 「총과 노래: 2000년대 이후 오월소설에 대한 단상들-김경욱의 『야구란 무엇인가』와 공선옥의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를 중심으로」, 김형중·이광호 엮, 앞의 책, 363면.

고 '정애'의 호출에 화답하는 '묘자'와 같은 존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장애 재현의 윤리 형성과 관련하여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가 이루고 있는 성취는 바로 이 지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는 5·18이 남겨놓은 문제들에 대한 쉬운 해결을 거부한다. 5·18 '시민군' 출신 '박용재'가 '묘자'에 의해 죽음에 이르는 것으로 제시되는 것은, 5·18을 직접 체험했고 이것이 삶의 많은 고통을 수반했다는 사실이 이후의 모든 언행이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님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소설은 "난리 난 뒤끝에는 미친년, 미친놈 생기게 마련"(114면)이라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이들 몸과 삶에 대한 주변의 관심임을 말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의 '주인공'은 '정애'와 '박용재'를 모두 돌보는 '묘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묘자' 역시 결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고 누군가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인간'이라는 점에서, '정애'의 존재는 간과될 수 없다. 서로의 응답을 자원 삼아 삶을 이어나가는 '정애'와 '묘자'의 형상을 제시함으로써 미래의 삶의 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을 제안하는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는,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지 않는다.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 있을 뿐이다. 이 같은 만남의 폭이 더욱 확장된다면, 다양한 몸과 삶의 양태가 더이상 '문제'로서 공유되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가 구축될 수 있으리라는 것. 이것이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가 발신하는 또 다른 메시지일 것이다.

제5장 결론

본 논문은 5·18의 소설화가 장애 인물의 형상화와 함께 이루어져왔다는 사실을 구명하고, 이것의 의미와 문제성을 논구해보고자 했다. 지금까지 살펴본바, 5·18을 서사화한 소설들은 5·18 체험의 의미를 되묻고 이에 관심을 가질 것을 요청하면서 극심한 손상을 체현한 인물들을 서사의 중심에 위치시켜왔다. 이들 인물은, 5·18 당시의 일들을 문학적으로 증언하는 동시에 그것이 결코 종결된 사건이 아님을 강조하고자 했던 소설의 기획 아래 일정한 역할을 부여받았다. 이때 장애 인물들은, 5·18 체험이 남긴 피해와 고통을 효과적으로 묘파하기도 하고 5·18의 심각성을 공표하는 등 서사 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본 논문은 이 같은 소설의 기획이 5·18의 진실에 가닿기 위한 적극적인 응답이었음을 고려하면서도, 이들 재현이 어떤 인식틀을 기틀 삼아 이루어졌는지를 심문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5·18소설'들을 주제로 한 그간의 논의들이 장애 인물들을 5·18의 비극성을 환기시키는 일종의 장치로서만 분석해왔다면, 본 논문은 이들이 텍스트 안팎으로 파급하는 다양한 효과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했다. 이는 곧 많은 소설이 장애 인물에게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역할을 부여하며 5·18을 다뤄왔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이들 인물을 중심으로 전체 서사를 재독하는 작업에 해당한다. 그리하여 소설들이 5·18을 조명함에 있어, 왜 장애 인물의 형상을 그토록 필요로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2장에서는 5·18 체험자의 손상된 몸과 장애화된 삶의 문제를 주요하게 다룬 일련의 단편소설들을 검토했다. 이들 소설은 5·18 체험을 기점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는 장애 인물들을 형상화하면서, 이들에게 '정확성'의 자질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때 정확성이란, 5·18의 실재를 사실과 다르게 구성해 온 각종 유언비어와 소문, 그리고 일방적인 정보의 통제 아래 이루어진 왜곡과 부인의 정치가 갖출 수 없는 것을 일컫는다. 그리하여 이들의 몸과 삶을 중심으로 5·18을 재구성한 소설들은, 사안의 엄중함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실제를 증언하고 고발하는 작업 모두를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1절에서 확인한바, 이들 과정의 총체는 장애 인물들을 매우 고정된 방식으로 형상화한 절차를 따른 결과이기도 했다. 즉 장애 인물들은 비장애 인물들에 의해 끊임없는 관찰의 대상이 되거나, 다른 인물들과의 상호적인

관계를 구축하지 못하는 '타자'의 자리에만 할당되었던 것이다. 이 지점은 장애 인물을 그리는 소설의 상상력이 기실 매우 협소했음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아울러 이 같은 재현 방식이 기실 비장애중심주의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오히려 매우 가까운 거리에 놓여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2절은 한국소설이 5·18 체험으로부터 비롯된 많은 성원들의 피해와 고통을 공론화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면,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재검토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때 중심에 있었던 것은, 단연 다양한 감정적 현실이 교차하는 장애 인물들의 몸과 삶이었다. 환언하자면, 몇몇 소설은 장애 인물들의 몸과 삶을 비단 비극을 대리하는 수단으로만 끌어오지 않고, 이들 인물에 교차하는 여러 고통을 집요하게 응시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삶의 의지를 벼릴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왔다. 그리하여 이들 소설이 5·18 체험과 고통의 관계도를 새로 쓸 수 있었다는 사실을, 또 이 모든 과정에서 장애 인물들이 다채롭게 형상화되었던 국면들을 값진 성취로 의미화해야 함을 논구했다.

3장은 5·18을 다룬 장편소설의 등장을 기점으로 비로소 문학 역시 5·18에 대한 '역사화'와 '총체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기존의 '5월 문학사' 서술을 참조하여, 세 편의 장편소설들을 장애 인물을 중심으로 재독했다. 구체적으로 1절에서는 임철우의 『봄날』을, 2절에서는 문순태의 『그들의 새벽』과 송기숙의 『오월의 미소』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이들 소설 모두 장애 인물의 재현에 있어서만큼은 이전의 단편소설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었다. 즉 세 소설은 보다 다양한 5·18의 국면을 조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인물만큼은 매우 협소한 시공간 아래 배치시키는 한편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제시해왔다. 이에 본 논문은 각각의 소설이 장애 인물들을 필요로 했던 까닭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작업을 통해, 이들 모두 비판적 독해가 요구되는 텍스트임을 힘주어 말했다. 무엇보다도 세 소설은 장애 인물의 형상화가 파급하는 효과들을 진지한 고려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 이는 서사 전반에 걸쳐 한국사회에서 5·18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구명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시도하는 모습과 확연히 대비된다.

그리하여 임철우의 『봄날』이 5·18의 소설화의 새로운 국면을 개시했고, 뒤이어 출간된 장편소설들이 이 국면을 더욱 다양한 방향으로 이끌었다고 서술되곤 하는 기존의 '5월 문학사'는 다시 쓰여야 함을 밝혔다. 이들 소설이

‘5·18소설’ 재현의 장에 기존과는 변별되는 파동을 삽입한 것은 분명하지만, 장애라는 특성에 ‘비정상’이라는 의미자질만을 부여하는 문법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달라진 것은 ‘장편’이라는 형식뿐이었다.

4장은 5·18 이후의 한국사회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비장애중심주의의 인식틀을 기저에 두지 않는 몇몇 소설들을 분석했다. 이들 소설은 ‘지평’이라는 단어가 함의하는 어떤 전망과 가능성을 체현하고 있다. 그리하여 재현의 지평은 5·18 체험의 의미를 1980년 5월 광주라는 단일한 시공간에만 한정시키지 않으며 구성함으로써, 5·18과 직접 결부된 몸의 손상과 삶의 장애화의 문제를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는 태도를 기본 입장으로 취함으로써 새롭게 열리고 확장된다. 이 모든 것은 무엇보다도 장애 인물을 5·18 체험자들의 삶의 소외를 야기하는 현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존재로, 나아가 그 현실을 심문하는 주체로 형상화한 소설의 기획을 통해 마련될 수 있었다.

이에 1절에서는 1990년을 기점으로 국가에 의해 조성된 이른바 ‘보상국면’을 문제삼는 소설들을 주요하게 다뤘다. 이들 소설은 보상정책의 시행을 기점으로 5·18 체험자들의 몸과 삶이 첨예한 갈등의 장소로 변모한 상황을 조명하면서, 논쟁과 다툼이 오가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맞닥뜨리도록 추동한 국가의 무책임함을 비판하고, 다른 방식의 정책 입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강조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 이들 소설은, 5·18 체험을 경유한 몸의 손상과 삶의 장애화의 문제뿐만 아니라, 손상과 장애 개념 그 자체가 기실 국면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담론적 구성물이자 매우 정치적인 사안임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따라서 이 같은 재현의 기획은, 장애 재현이 장애를 ‘정상’의 결여태로 유달리 강조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몸들에 교차하는 여러 권력 관계에 주목하면서 무엇이 어떤 상태를 ‘비정상’으로 규정하는지를 심문하는 작업을 통해서도 고안될 수 있음을 입증한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각별하다. 2절은 장애 인물을 중심으로 증언의 새로운 양식을 제작하는 한편, 진실된 우정과 연대에 기반한 공동체의 구축을 기도하는 류양선의 『이 사람은 누구인가』와 공선옥의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를 검토했다. 두 소설은 증언의 발화자와 수신자가 형성하는 관계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강조함으로써, 5·18 체험에 대해 침묵을 강요해왔던 한국사회와 장애 정체성에 대한 발화를 경청하지 않으려 하는 비장애중심사회를 함께 환기하고 있다. 이에 두 소설이 새로운 장애 재현 윤리

의 지형도를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또 그것은 장애를 '치료'나 '교정'과 같은 어떤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인식틀에 기초할 때라서야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밝혔다.

한편 이 모든 작업은 여러 차례 언급했듯 '5·18소설'들이 다시금 읽혀야 함을, 그리고 재독의 가능성은 일찍이 이들 텍스트 스스로가 예비하고 있었음을 논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5·18이 2022년 현재에도 여전히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동시에 지속적인 해석의 갱신을 요청하는 사건인 것과 마찬가지로, 5·18을 서사화한 소설들 역시 한국문학장 안팎에 어떤 큰 힘을 불어넣어왔다. 일방적인 호도와 왜곡에 맞서 5·18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문학이 수행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5·18이 결코 단번에 망각되어선 안 된다는 사실을 공표하고자 1980년 5월의 다양한 국면을 문학적으로 재구성하며, 나아가 5·18을 다른 국가폭력, 사회적 재난, 불평등의 문제와 상호 연결시키는 상상력을 제출함으로써 이들 소설은 재현 행위가 갖는 의미를 확장시켜왔다. 본 논문의 작업은 이처럼 그간 '5·18소설'들이 발휘해온 힘들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들이 갖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으며 쌓아올린 탄탄한 토대가 있었기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면서 본 논문이 힘주어 말하고자 했던 것은, 한국소설이 5·18을 다각적으로 조명하면서 5·18에 끊임없이 응답해온 것처럼 이에 대한 여러 개의 해석틀을 제작하는 것이 '5·18소설' 연구의 몫이라는 사실이었다. 이는 5·18과 소설 재현이 형성하는 '접점'을 다시금 톺아봐야 함을 제안하는 것이기도 하다. 5·18은 무엇보다 성원들의 몸이 맞닥뜨린 사건이었고, 그렇기에 5·18 체험이 갖는 의미를 구명하기 위해선 이들 몸이 당면했던 현실과 겪어야만 했던 변화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소설은 그 구체적 양상을 손상된 몸과 장애화된 삶을 체현한 인물들을 형상화함으로써 5·18의 문학적 구명을 이행해왔다. 그리하여 둘은 만날 수 있었고, 많은 소설이 이 접점을 잃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기에 이들의 만남은 지속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이렇게 마련된 접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둘의 만남이 5·18과 소설 텍스트 모두를 넘나들며 어떤 효과를 파급하고 있는지를 논구한 결과물이다. 한국소설이 5·18과 만나기 위해 장애 인물의 형상화를, 손상된 몸과 장애화된 삶의 재현을 필요로 했다면, 본 논문은 이들에 응답하고자 새로운 해석의 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리고 그것을 장애 인물을 중심으로 '5·18소설'을 재독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구체화하고자 했

으며, 그 결과 도출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장애학과의 새로운 접점이었다.

끝으로 장애 인물의 재현은 비단 5·18을 서사화한 소설들에 한정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떤 계보를 작성할 수 있을 만큼, 이를 형상화한 소설들은 한국문학장에 매우 많이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인물의 형상을 무엇을 대리하는 은유나 상징이 아니라 텍스트 안팎으로 다양한 효과를 창출해내는 '실물'로 분석하거나, 장애학적 관점에 입각하여 이들 재현의 기저에 있는 인식틀을 심문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장애 인물의 형상화와 장애 재현의 문제를 특정한 시대 또는 작가 개인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을 넘어, 이를 보다 큰 맥락에서 다루고자 했던 본 논문의 작업이 앞으로의 연구에 일말의 참조점으로 기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희망이 모색되는 바로 그곳에, '5·18소설' 연구와 더불어 장애 재현 연구를 수행한 본 논문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기 본 자 료

-공선옥, 「씨앗불」, 『창작과비평』 1991년 겨울호.
-_____, 「목숨」, 『창작과비평』 1992년 가을호.
-_____, 「목마른 계절」, 『창작과비평』 1993년 여름호.
-_____, 「흰달」, 『실천문학』 1993년 겨울호.
-_____,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 창비, 2013.
-류양선, 『이 사람은 누구인가』, 현암사, 1989.
-문순태, 「일어서는 땅」, 한승원 외, 『일어서는 땅』, 인동, 1987.
-_____, 『그들의 새벽』 1-2권, 한길사, 2000.
-박상우, 「代役」, 『문학정신』 1989년 11월호.
-백성우, 「불나방」, 한승원 외, 『부활의 도시』, 인동, 1990.
-송기숙, 「제7공화국」, 『한국문학』 1988년 12월호.
-_____, 『오월의 미소』, 창작과비평사, 2000.
-이순원, 「얼굴」, 『문학과사회』 1990년 가을호.
-이향란, 「마타모로스에서 온 편지」, 임철우 외, 『포도씨앗의 사랑』, 명경, 1993.
-임철우, 「死産하는 여름」, 『외국문학』 1985년 여름호.
-_____, 「봄날」, 『그리운 남쪽』, 문학과지성사, 1985.
-_____, 『봄날』 1-5권, 문학과지성사, 1997-1998.
-정 찬, 「완전한 영혼」, 『문학과사회』 1992년 가을호.
-_____, 「새」, 『창작과비평』 1993년 겨울호.
-_____, 「슬픔의 노래」, 『현대문학』 1995년 5월호.
-채희윤, 「아들과 나무 거울」, 『문학정신』 1991년 5월호.
-최 윤, 「저기 소리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문학과사회』 1988년 여름호.
-한승원, 「당신들의 몬도가네」, 한승원 외, 『일어서는 땅』, 인동, 1987.
-_____, 「어둠꽃」, 한승원 외, 『부활의 도시』, 인동, 1990.
-홍희담, 「그대에게 보내는 편지」, 『창작과비평』 1995년 여름호.

2. 국 내 논 저

-5·18 기념재단 엮, 『5·18민중항쟁과 문학·예술: 학술논문집 1』, 심미안, 2006.
-강은숙, 「저항집단의 생애사를 통해 본 사회적 트라우마티즘 형성과정-5·18시민군

기동타격대의 '상처받은 5월정신'」,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_____, 「'5·18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5·18 시민군 기동타격대원의 생애사」, 김동춘 외, 『트라우마로 읽는 대한민국-한국전쟁에서 쌍용차까지』, 역사비평사, 2014.
-강현아, 「5·18항쟁 역사에서 여성의 주체화」, 『한국여성학』 제20권 2호, 한국여성학회, 2004.
-공종구, 「임철우 소설의 트라우마: 광주 서사체」, 『현대문학이론연구』 제11집, 현대문학이론학회, 1999.
-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엮,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광주 5월 민중항쟁의 기록』, 창비, 2019.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획, 이정우 편, 『광주, 여성: 그녀들의 가슴에 묻어 둔 5·18 이야기』, 후마니타스, 2012.
-광주트라우마센터 편,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증언치유프로그램 '마이데이(MY DAY)' 기록집 Ⅰ』, 광주트라우마센터, 2015.
-권명아, 「여성 수난사 이야기, 민족국가 만들기와 여성성의 동원」, 『여성문학연구』 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김남옥, 「광주민중항쟁의 소설적 형상화에 대한 일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김도현, 『장애학 함께 읽기』, 그린비, 2009.
-_____, 『장애학의 도전: 변방의 자리에서 다른 세계를 상상하다』, 그린비, 2019.
-김명희, 「한국 이행기 정의의 감정동학에 대한 사례연구-웹툰 〈26년〉을 통해 본 5·18 부인(denial)의 감정생태계」, 『기억과 전망』 통권 34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6.
-_____, 「재난의 감정정치와 추모의 사회학-감정의 의료화를 넘어 사회적 치유로」, 『감성연구』 제19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9.
-_____, 「5·18 집단트라우마 연구방법론과 새로운 진단 기준-과거 청산의 과학사회학을 향하여」, 『경제와사회』 제130호, 비판사회학회, 2021.
-_____, 「인권의 관점에서 본 5·18 '피해자'와 복합적 집단트라우마-국가범죄의 피해자학을 향하여」, 『민주주의와 인권』 제21권 3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21.
-김미정, 「미끄러지고, 다른 힘을 만들고, 연결되는 것들-2020년에 생각하는 '5월 광주'와 문학의 방법들」, 『문학들』 2020년 봄호.
-김수진, 「5·18 소설의 젠더 표상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김양선, 「광주 민중 항쟁 이후의 문학과 문화-젠더를 축으로 한 다시 읽기의 정치학」, 『여성문학연구』 5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김영삼, 「이중적 예외상태로서의 5·18과 민중·민족문학 담론-『창작과비평』의 논의

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71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7.
-김영희, 「'5·18 광장'의 기억과 '여성'의 목소리」, 김형중·이광호 엮, 『무한텍스트로서의 5·18』, 문학과지성사, 2020.
-김용성, 「계용묵의 「백치 아다다」에 나타난 여성, 종교, 장애 다시 보기」, 『문학과종교』 제21권 2호, 한국문학과종교학회, 2016.
-김용철, 「광주항쟁과 한국정치의 민주화-탈군부정치의 역사결정적 국면의 원천으로서 광주항쟁」, 『민주주의와 인권』 제1권 1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1.
-김은정, 「'좋은 왕'과 '나쁜 왕'이 사라진 자리: 불온한 타자의 삶을 가능케 할 반폭력, 탈시설의 윤리」, 장애여성공감 엮, 『시설사회: 시설화된 장소, 저항하는 몸들』, 와온, 2020.
-김재균, 『5·18과 한국정치』, 에코미디어, 2010.
-김정한, 『1980 대중 봉기의 민주주의』, 소명출판, 2013.
-김주선, 「문순태의 『그들의 새벽』에 나타난 도시 빈민의 5·18 참여 양상 연구」, 『영주어문』 제47집, 영주어문학회, 2021.
-김진우, 「장애에 대한 사회적 모델의 의의와 한국사회에의 함의」, 『한국장애인복지학』 제6호,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07.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2015.
-김형중, 「세 겹의 저주- 최윤, 「저기 소리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다시 읽기」, 『문학동네』 2000년 여름호.
-_____, 「『봄날』 이후-광주항쟁 소재 소설들에 대한 단상」, 『켄타우로스의 비평』, 문학동네, 2004.
-_____, 「33년, 광주 2세대의 아포리아」, 『후르비네크의 혀』, 문학과지성사, 2016.
-_____, 「총과 노래: 2000년대 이후 오월소설에 대한 단상들-김경욱의 『야구란 무엇인가』와 공선옥의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를 중심으로」, 김형중·이광호 엮, 『무한텍스트로서의 5·18』, 문학과지성사, 2020.
-나경수, 「문학민속학적 비평방법을 통한 송기숙 소설 읽기-『오월의 미소』를 대상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9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0.
-류보선, 「망각이라는 폭력, 그리고 망각의 기원」, 『문학동네』 2000년 여름호.
-류수연, 「돌봄과 노동의 경계에 선 '엄마', 다시 읽는 공선옥」, 『비교한국학』 29권 1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21.
-메 이, 「'병자 클럽'의 독서」,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편, 『새벽 세 시의 몸들에게: 질병, 돌봄, 노년에 대한 다른 이야기』, 봄날의책, 2020.
-박솔뫼, 「그럼 무얼 부르지」, 『작가세계』 2011년 가을호.
-박정수, 『'장판'에서 푸코 읽기』, 오월의봄, 2020.
-방민호, 「광주항쟁의 소설화, 미완의 탑」, 『언어세계』 1996년 봄호.

-_____, 「문학의 정치성에 대하여-'5·18 문학'에 관한 논의를 재검토함」, 『납함 아래의 침묵』, 소명출판, 2001.
-배하은, 「재현 너머의 증언-1980년대 임철우, 최윤 소설의 5·18 증언-재현 문제에 관하여」, 『상허학보』 50권, 상허학회, 2017.
-_____, 「역사의 틈새를 증언하기-1980년대 말 5·18광주항쟁 증언록 발간 양상과 증언의 윤리」, 『역사비평』 2021년 8월호.
-백낙청, 「민중·민족문학의 새 단계」, 『창작과비평』 57호, 1985.
-백무늬·서덕순, 「계용묵 소설에 나타난 장애인 형상화 연구-「백치 아다다」, 「제비를 그리는 마음」, 「인두지주」를 중심으로」, 『구보학보』 28집, 구보학회, 2021.
-서영채, 「임철우론-『봄날』에 이르는 길」, 『문학동네』 1998년 봄호.
-손유경, 「일하는 사람의 '아플' 권리」, 『상허학보』 50집, 상허학회, 2017.
-손홍일, 「장애학에 기댄 장애(인)의 문학적 재현 읽기」, 한국장애학회 편, 『장애학으로 보는 문화와 사회』, 학지사, 2015.
-신덕룡, 「광주체험의 소설적 수용양상」, 『문학과 진실의 아름다움』, 새미, 1998.
-신일섭,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의 정치·사회적 의미」, 『민주주의와 인권』 제5권 2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5.
-심영의, 「5·18민중항쟁 소설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_____, 「5·18 가해자들의 기억과 트라우마-5·18소설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17권 1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7.
-아델리나 핀자루, 「광주 민주화운동의 문학적 증언 양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양윤의,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이형(異形)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60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16.
-양진오, 『임철우의 『봄날』을 읽는다』, 열림원, 2003.
-오혜진, 「구겨버린 입장권-소수자의 존재론과 역사적 아카이브, 그리고 '퀴어링(queering)'」, 『문화과학』 2019년 겨울호.
-염운옥, 『낙인찍힌 몸: 흑인부터 난민까지, 인종화된 몸의 역사』, 돌베개, 2019.
-우충완, 「문학적 장애재현과 담론의 한계와 가능성-장애학적 관점에서 고정욱의 장편 동화 다시-읽기」, 『동화와 번역』 제37집,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2019.
-유서현, 「계용묵 문학에 나타난 장애인식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제62집, 한국현대문학회, 2020.
-유 인, 「5·18소설과 문혁소설의 비교 연구-중·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유해정, 「5·18 직접적 피해자의 인권침해 경험과 트라우마-보상중심의 과거청산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21권 3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21.
-유홍주, 「오월 소설의 트라우마 유형과 문학적 치유 방안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60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5.
-유희석, 「문학의 실험과 증언-한강과 공선옥의 최근 장편을 중심으로」, 『창작과비평』 2014년 겨울호.
-윤지관, 「광주 항쟁의 도덕적 의미」, 류양선, 『이 사람은 누구인가』, 현암사, 1989.
-이가은, 「5·18 소설에 나타난 국가폭력 가담자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이선민·송지은, 「문학적 장애재현의 물질성과 생성력-미스핏(misfit)과 비체(abject) 이론을 중심으로」, 『장애의 재해석』, 한국장애인재단, 2018.
-이성욱, 「오래 지속될 미래, 단절되지 않는 '광주'의 꿈-광주민중항쟁의 문학적 형상화에 대하여」, 『비평의 길』, 문학동네, 2004.
-이지현, 「악의 문제와 광주민중항쟁-'광주' 소설에 나타난 악의 문제에 대한 신학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이현식, 「1980년 봄날로 가는 고통과 희망의 기록-임철우의 『봄날』론」, 『실천문학』 1998년 여름호.
-임규찬, 「광주항쟁의 소설화, 어디까지 왔나」, 『문학정신』 1991년 5월호.
-_____, 「전투적 민중성과 '오월'의 정치학-『오월의 미소』론」, 임환모 엮, 『송기숙의 소설 세계』, 태학사, 2001.
-임철우, 「직선과 독가스-병동에서」, 『세계의 문학』 1984년 겨울호.
-_____, 「어떤 넋두리」, 한승원 외, 『부활의 도시』, 인동, 1990.
-_____, 『붉은 山, 흰 새』, 문학과지성사, 1990.
-_____, 「나의 문학적 고뇌와 광주」, 『역사비평』 2000년 여름호.
-임혁백, 『비동시성의 동시성: 한국 근대정치의 다중적 시간』, 고려대학교출판부, 2014.
-장일구, 「역사적 원상과 서사적 치유의 주제학-5·18관련 소설을 사례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0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3.
-전성욱, 「'5월 소설'의 증언의식과 서술전략」,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전수평, 「송기숙의 『오월의 미소』에 드러난 국가폭력과 치유의 형상화 양상 고찰」, 『남도문화연구』 제33집,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17.
-전혜은, 「장애와 퀴어의 교차성을 사유하기」, 전혜은·루인·도균, 『퀴어 페미니스트, 교차성을 사유하다』, 여이연, 2018.
-_____, 「'아픈 사람' 정체성」, 전혜은·루인·도균, 『퀴어 페미니스트, 교차성을 사유하다』, 여이연, 2018.
-정경운, 「임철우의 『봄날』」, 광주전남민족문학작가회의 편, 『문학포럼』, 광주전남민

족문학작가회의, 1998.
-정명중, 「'5월 문학' 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현대문학이론연구』 제22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4.
-_____, 「'5월'의 재구성과 의미화 방식에 대한 연구-소설의 경우」, 『민주주의와 인권』 제5권 1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5.
-_____, 「5월의 기억과 부끄러움-공선옥의 「씨앗불」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43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0.
-_____, 「인식되지 못한 자들, 혹은 유령들-5월소설 속의 '룸펜'」, 『민주주의와 인권』 제15권 2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5.
-정미선, 「오월소설의 서사 전략으로서의 몸 은유: 최윤·임철우·박솔뫼·한강의 사례를 중심으로」, 『어문논총』 제27호,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015.
-정 찬, 『광야』, 문이당, 2002.
-_____, 「섬진강」, 『실천문학』 2002년 여름호.
-조연정, 「'광주'를 현재화하는 일-권여선의 『레가토』(2012)와 한강의 『소년이 온다』(2014)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0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4.
-조은숙, 「송기숙 오월 소설에 나타난 작가의식」, 『민주주의와 인권』 제8권 3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8.
-차원현, 「5.18과 한국소설」, 『한국현대문학연구』 31집, 한국현대문학회, 2010.
-_____, 「포스트모더니티와 오월 광주」, 『민족문학사연구』 50권, 민족문학사연구소, 2012.
-차희정, 「해방기 소설 속 장애인의 현실 인식」, 『현대소설연구』 제77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0.
-최정기, 「국가폭력과 트라우마의 발생 기제-광주 '5·18'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제와사회』 제77호, 비판사회학회, 2008.
-_____, 「5·18 국가폭력 및 항쟁과 구술조사-증언 불가능성에 대한 도전: 『광주5월민중항쟁사료전집』에 대한 비판적 성찰」, 『민주주의와 인권』 제18권 2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8.
-최정운, 『오월의 사회과학』, 오월의봄, 2012.
-최현주, 「5·18문학 40년 연구사의 맥락과 재해석」, 『감성연구』 제20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20.
-하정일, 「다시 일어서야 하는 땅-'광주문학' 20년을 되돌아보며」, 『실천문학』 2000년 여름호.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1990.
-한 강, 『소년이 온다』, 창비, 2014.
-한 설, 「기술, 장애, 사이보그, 그리고 공생의 미래 - 김초엽론」, 『학산문학』 2019년 가을호.

-한순미, 「주변부의 역사 기억과 망각을 위한 제의-임철우의 소설에서 역사적 트라우마를 서사화하는 방식과 그 심층적 의미」, 『한국민족문화』 제38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0.
-한승원 외, 『일어서는 땅』, 인동, 1987.
-_____ 외, 『부활의 도시』, 인동, 1990.
-한은영, 「5·18, 부끄러움의 사회적 공명-5·18 관련 증언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21권 3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21.
-한인섭, 「국가폭력에 대한 법적 책임 및 피해회복-5·18민주화운동의 종합적 해법을 중심으로」, 『5·18재판과 사회정의』, 경인문화사, 2006.

3. 국 외 논 저

-Ahmed, Sara, 성정혜·이경란 옮김, 『행복의 약속: 불행한 자들을 위한 문화비평』, 후마니타스, 2021.
-Alexander, Jeffrey C., 박선웅 옮김, 『사회적 삶의 의미: 문화사회학』, 한울, 2007.
-Assmann, Aleida, 변학수·채연숙 옮김, 『기억의 공간: 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그린비, 2011.
-Butler, Judith, 강경덕·김세서리아 옮김, 『권력의 정신적 삶: 예속화의 이론들』, 그린비, 2019.
-Campbell, F. K., "Inciting legal fictions: Disability's date with ontology and the ableist body of the law," *Griffith Law Review*, Vol. 10, No. 1, 2001.
-_____, *Contours of Ableism: The Production of Disability and Abledness*, Palgrave Macmillan, 2009.
-Canguilhem, Georges, 여인석 옮김,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 그린비, 2018.
-Clare, Eli, 전혜은·제이 옮김, 『망명과 자긍심』, 현실문화, 2020.
-Davis, Lennard J., "Crips Strike Back: The Rise of Disability Studies," *American Literary History*, Vol. 11, No. 3. 1999.
-Frank, Arthur W., 최은경 옮김, 『몸의 증언』, 갈무리, 2013.
-Freud, Sigmund, 윤희기 옮김, 「슬픔과 우울증」, 윤희기·박찬부 옮김,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열린책들, 2020.
-Garland-Thomson, Rosemarie, 손홍일 옮김, 『보통이 아닌 몸: 미국 문화에서 장애는 어떻게 재현되었는가』, 그린비, 2015.

-_____, "Eugenic World Building and Disability: The Strange World of Kazuo Ishiguro's *Never Let Me Go*," *Journal of Medical Humanities* 38, 2017.
-_____, "Disability Bioethics: From Theory to Practice," *Kennedy Institute of Ethics Journal*, Vol 27, No 2, 2017.
-_____, "The Case for Conserving Disability," *Bioethical Inquiry* 9, 2012.
-Goffman, Erving, 윤선길·정기현 옮김, 『스티그마: 장애의 사회 심리학』, 한신대학교 출판부, 2018.
-Hall, Alice, *Literature and Disability*, Routledge, 2016.
-Herman, Judith, 홍지웅·홍예빈 옮김, 『트라우마: 가정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 열린책들, 2012.
-Hughes, Bill, 김도현 옮김, 「장애와 몸」, Barnes, Colin 외 엮, 김도현 옮김, 『장애학의 오늘을 말하다: 차별에 맞서 장애 담론이 걸어온 길』, 그린비, 2017.
-Ki, Patricia, "Leak Everywhere: A Critical Disability Analysis of the Conceptualizations of Trauma," *Social Work & Policy Studies: Social Justice, Practice and Theory*, Vol 4, No 1, 2021.
-Leduc, Amanda, 김소정 옮김, 『휠체어 탄 소녀를 위한 동화는 없다: 이야기를 통해 보는 장애에 대한 편견들』, 을유문화사, 2021.
-Levi, Primo, 이소영 옮김,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돌베개, 2014.
-Lupton, Deborah, 김정선 옮김, 『의료문화의 사회학』, 한울, 2009.
-Mithchell, David T. and Snyder, Sharon L., *Narrative Prosthesis: Disability and the Dependencies of Discourse*,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0.
-Nussbaum, Martha C., 조계원 옮김, 『혐오와 수치심: 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들』, 민음사, 2015.
-Oliver, Michael, *The Politics of Disablement*, Macmillan education, 1990.
-_____, *Understanding Disability: From Theory to Practice*, St. Martin's Press, 1996.
-Peters, John Durham, 이희은 옮김, 『자연과 미디어』, 컬처룩, 2018.
-Quayson, Ato, 손홍일 옮김, 『미학적 불안감』, 한국장애인재단, 2016.
-Scarry, Elaine, 메이 옮김, 『고통받는 몸: 세계를 창조하기와 파괴하기』, 오월의 봄, 2018.

-Shakespeare, Tom, 이지수 옮김, 『장애학의 쟁점: 영국 사회모델의 의미와 한계』, 학지사, 2013.
-Siebers, Tobin, *Disability Theory*,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8.
-Sontag, Susan, 이재원 옮김, 『타인의 고통』, 이후, 2004.
-Taylor, Sunaura, 이마즈 유리 옮김, 『짐을 끄는 짐승들』, 오월의봄, 2020.
-Thomas, Carol, 김도현 옮김, 「장애 이론: 핵심 개념, 이슈, 사상가」, Barnes, Colin 외 엮, 김도현 옮김, 『장애학의 오늘을 말하다: 차별에 맞서 장애 담론이 걸어온 길』, 그린비, 2017.
-UPIAS, *Fundamental Principles of Disability*, UPIAS, 1976.
-Vehmas, Simo and Mäkelä, Pekka, 김도현 옮김, 「장애와 손상의 존재론-자연적 특징과 사회적 특징에 대한 논의」, Kristiansen, Kristijana 외 엮, 김도현 옮김, 『철학, 장애를 논하다: 메를로-퐁티와 롤스에서 호네트와 아감벤까지』, 그린비, 2020.
-Wendell, Susan, 전혜은 옮김, 「건강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질환을 장애로 대우하기」, 『여/성이론』 제27호, 도서출판여이연, 2012.
-_____, 강진영·김은정·황지성 옮김, 『거부당한 몸: 장애와 질병에 대한 여성주의 철학』, 그린비, 2013.
-Yoshino, Kenji, 김현경·한빛나 옮김, 『커버링: 민권을 파괴하는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폭력』, 민음사, 2017.
-伊藤 亞紗, 박상원 옮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에쎄, 2016.
-_____, 김경원 옮김, 『기억하는 몸』, 현암사, 2020.
-岡真理, 김병구 옮김, 『기억·서사』, 소명출판, 2004.
-_____, 이재봉·사이키 가쓰히로 옮김, 『그녀의 진정한 이름은 무엇인가』, 현암사, 2016.

4. 기 타 자 료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1990.08.06.)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1995.12.2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2021.01.05.)
-Talila Lewis, “January 2021 Working Definition of Ableism,” (https://www.talilalewis.com/blog/january-2021-working-definition-of-ableism.)

Abstract

A Study on the Representation of Disability in the Korean 5·18 Novels

Lee Ji-Hu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an analysis of the Korean novels narrates 5·18(May 18th) from the perspective of disability studies. To establish that the Korean 5·18 novels have progressed with the embodiment of various disabled characters, and to discuss their meanings and problems are the key tasks of the study. A procedure to examine how those novels have used the concept of impairment and disability, and the framework of which the representation of disabled characters were based on, was put in the place for this.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have interpreted disabled characters in the novels as device, which evoke the tragedy of 5·18, this study is designed to understand the entire narratives by focusing on disabled characters.

5·18 was an event that the "bodies" of numerous members of the society were encountered above all. Many Korean novels have given the lights on the situation that many bodies had to face in May 1980, and the changes they experienced afterwards. Having

done so, they requested special attention to the meaning of the 5·18 experiences. These novels were required the bodies and lifes of characters to embody the severe impairment due to 5·18, and these characters were given important roles in the narratives, such as informing the damage and pain left by 5·18 experiences, and the severity of 5·18 itself. This study attempted to reevaluate the project of the novels that have reconstructed 5·18 with disabled characters. Thus, what is placed at the center of the discussion in this study, are various effects that the representation of disabled characters have, in and out of the texts.

Chapter 2 reviewed the novels that gave "accuracy" to characters, who embodied the impairment of bodies and the disability of lifes after 5·18. Accuracy refers to the quality that the politics of distortion and denial toward 5·18 cannot possesses, but speaks of the unique experience of those who had undergone 5·18. However, the process of the narratives was carried out by assigning the position of "others" to disabled characters. Disability was used only as a metaphor for tragedy, and a condition that requires treatment and correction. Such representation is not far from a framework of ableism, which only accepts a specific type of body and life as "normal." In this regard, a critical analysis of the novels that sought to publicize 5·18 was necessary. On the other hand, it is true that Korean novels have had strong influences on publicizing 5·18. It became possible by the struggles of those novels that stared the pain associated with 5·18, and tried to create a language for it. Overall, this chapter aimed to demonstrate the achievements of some of those novels that sought positive prospects, while to embody the bodies and lives of disabled characters that intersect at realities of various emotions.

Chapter 3 attempted to reevaluate the so-called "Literary History of May," which is often described as allowing literature to carry out historicizing of 5·18, starting with the full-length novelization

of 5·18. What was interesting is the fact that the full-length novelization have also entailed the representation of disabled characters, yet the specific aspect was not very different from the short stories that represented disabled characters as “others.” Although having presented more diverse situations of 5·18, disabled characters in these narratives are delineated in monotonous and flat figures, used only as a means to achieve a specific purpose. The fact that these novels did not consider the embodiment of disabled characters seriously, contrasts with their attempts to reveal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5·18 throughout narratives in various ways. It is clear that the publication of series of full-length novels opened a new situation for novelization of 5·18, but a new situation in regarding disability as “abnormal” had never happened. By revealing this point, the chapter again emphasized the necessity of reexamining the novelization process of 5·18, focusing on the representation of disabled characters.

Chapter 4 dealt with novels that were not based on the ableism. Novels focused in this chapter are opening a new horizon for the representation of disabled characters in 5·18. Not reconstructing the significance of 5·18 experiences under a single time and space of Gwangju in May 1980 allows the novels to take an attitude that does not regard impaired bodies and disabled lives as secondary in 5·18 novelization. In these novels, the disabled characters are depicted as actively intervening in reality, and further more interrogating it, which allow these characters to be located at the “center” of the narratives. Therefore, this chapter evaluated the novels that strongly question the "compensation phase" and criticize the nation's irresponsibility, and create a new form of testimonies centered on a community led by disabled characters, as a profound achievement. These novels require close attentions in that they clearly show the representation of disability cannot be achieved only by emphasizing its characteristic of as

"abnormal."

Finally, disabled characters do not appear only in the novels that narrates 5·18. There are many Korean novels that depict disability. However, it is relatively recent that studies to analyze these figures as "real figures" in which various realities intersect, rather than metaphors or symbols representing something else being conducted. Above all, this study tried to emphasize that the studying the representation of disability can be expanded to diverse fields by seeking a point of contact between 5·18 as the historical event and the disability studies. The study expects that the work of this study provides impetus in the study of representation of disability along with the study of "5·18 Novels."

■ **Keywords** : 5·18, 5·18 Novels, Impairment, Disability, Disability Studies, Ableism, Normality

■ **Student Number** : 2019-25476